

第7編 戰亂史와 傳說

第1章 戰亂史

第2章 傳 說

第1章 戰亂史

第1節 戰亂의 略史

原州地區의 戰亂史는 먼저 江原道地方을 말해야 하겠다. 우리나라 戰亂史를 통하여 江原道 地方의 交通路를 보면 鐵原에서 서울地方과 연결하여 東北으로 淮陽을 거쳐 鐵嶺을 넘어 咸南地方으로 가는 길이 가장 激戰의 通路였고, 그외에 平安地方에서 伊川을 거쳐 鐵原으로 오는 길, 또 鐵原에서 春川을 거쳐 原州로 통하는 길, 鐵原에서 東豆川과 楊平을 거쳐 原州에 이르러 다시 堤川과 忠州로 통하는 길 등이 있다.

그리고 嶺東과 嶺西를 연결하는 戰略上의 통로는 襄陽에서 寒溪嶺을 넘어(지금의 內雪岳) 麟蹄로 통하는 길, 江陵에서 大關嶺을 넘는 길, 三陟에서 땃재(竹嶺—丹陽부근의 竹嶺이 아님) 혹은 北坪의 湧추골로 旌善(臨溪)을 거쳐 寧越, 酒泉, 原州로 통하는 길 등이 代表的이었다.

여기에서 戰亂史라 함은 內亂과 外亂을 포함한 말인데, 內亂의 경우는 統一新羅 末의 後三國의 亂등을 말하고 外亂의 경우는 주로 高麗朝 이후의 것을 取扱하겠다. 우리나라의 外亂은 당시 大陸의 形勢와 外交政策에 따라서 그 양상이 많이 달랐던 것이다. 高麗때 外交政策인 北進政策은 高句麗의 옛 땅을 회복하여 滿洲 北半까지 영토를 넓혀보려는 야심에서 세워진 것이었으나 北中國 혹은 滿洲 지방에서 契丹族과 女眞族, 그리고 蒙古族이 계속 강성하여 北進政策 본래의 의도대로 성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侵略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기는 高麗王朝 처럼 강력한 정권이 새로 들어섰으니 다행이지 文弱해진 新羅王朝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大陸에서 새로 일어난 契丹, 女眞, 蒙古族 등에 의해서 보다 더 慘酷한 변을 당하였을지도 알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高麗朝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무한 고초를 겪었으며, 그 험난하고 위험한 고비를 버티어 民族史의 명맥을 유지하느라고 오랜 血史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속에서 江原道民은 자연의 山勢와 슬기를 쏘아 생명을 아끼지 않고 抗爭하여 民族史를 빛냈다.

朝鮮時代는 事大交隣의 외교정책을 國是로 세웠다. 事大主義는 중국에 대한 것이었으니 처음에는 明, 나중에는 淸에 대한 것이었고 交隣는 日本과 女眞에 대한 外交政策이었다. 平等外交를 뜻하는 交隣는 女眞과 日本에 대하여 힘의 균형이 취해져 있던 朝鮮初期에는 가능한 정책이었지만 그 均衡이 파괴된 中期 이후에는 無意味해졌으니 오히려 그들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어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의 歷史를 기록하게 되었다.

韓半島는 예나 지금이나 東아시아의 中心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戰亂을 겪어야만 했다. 그것은 세계역사상 地政學的인 共通性이니 우리의 역사에서 戰亂이 많았다는 것은 슬픔도 기쁨도 될 수 없다. 韓半島에서 우리 原州地方은 비교적 背後地帶에 位置하여 있기 때문에 戰亂의 경우에 때로는 조용하기도 했고 혹은 보다 참혹하기도 했던 것이다.

第2節 後三國의 亂

(1) 新羅末의 政爭과 農民의 叛亂

新羅 中期의 全盛期는 惠恭王 때 그 幕을 내리고, 王室을 중심한 政爭과 謀叛事件이 잦아들

第7編 戰亂史와 傳說

결국에는 地方의 勢力까지 王位繼承戰에 참여하는 混亂이 惹起되었다. 溟州郡王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金周元이 江陵으로 亡命한 것도 이때의 일인데 당시 政爭의 狀況을 李弘植「國史新講」에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三國遺事』에서는 이 王代의 亂을 「王都 및 五道州郡과 96角干이 相戰大亂」하였다는 表現을 하고 있는데 惠恭王代에 이르러서 中代를 支配하였던 王權과 權臣의 세력은 沒落하고 惠恭王自身도 그의 16년에 伊滄 金志貞의 亂兵에 依하여 弑害 당하고 말았다. 志貞의 亂을 平定하고 王位에 올라선 金良相(宣德王)은 奈勿王 10世孫이라고 하며, 宣德王 다음에 王이 된 敬信(元聖王) 역시 奈勿王 12世孫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注意에 오르며 世代는 中代동안 潛在하였던 이 系統의 勢力이 復讐함을 짐작시키는 것이다. 憲德王 14年(822) 熊川州 都督으로 叛亂을 일으킨 憲昌은 周元의 아들이며 이 周元은 元聖王이 即位할 때에 王의 候補者로 되었다가 敬信에게 王位를 가로채인 사람이다. 그런데 周元은 太宗의 6世孫이니 結局 周元과 元聖의 對立은 太宗 武烈王系와 奈勿王系의 對立 또는 抗爭같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周元은 이 政爭에 敗한 後에 溟州에 退去하였는데 그 후 38年 憲德王 14년에 그의 아들 憲昌은 드디어 叛亂을 일으켰다. 그는 國號를 長安이라 하고 慶雲 元年이라고 建元하였으며 熊川州를 本據地로 一時는 西南方 一帶의 地方 即 熊川, 武珍, 完山, 善州, 沙伐의 五州地方을 占領하였으나 憲昌은 敗死하였다. 그러나 數年안에 憲德王 17년에는 그 아들 梵文은 그 父의 遺志를 받들어 都邑을 平壤(南平壤 지금의 서울)에 세우고자 하여 高達山城 壽神과 共謀하여 北漢山州를 攻擊하였다가 도리어 이 州의 都督에 의하여 捕殺되었다.

周元에서 梵文에 이르는 3代 40년에 이르는 一連의 動向의 底流에는 奈勿王系에 대한 太宗 武烈王의 復興運動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다. 이 후로 貴族의 叛亂은 그칠 사이가 없었고 王位는 52代 孝恭王까지는 元聖王의 直系孫間에서 王位爭奪戰이 벌어졌으니, 下代 155年間에 20名의 王이 交替되었고, 그 大部分이 非命으로 죽고 變亂에 따라서 數많은 貴族들이 희생되었다. 第53代 神德王은 新羅上代의 朴氏 阿達羅王의 遠孫을 標榜하고 登場하여 그의 2子로 54代 景明王, 55代 景哀王의 3代 15年間の 朴氏系統의 王代가 있더니 景哀王은 後百濟 甄萱의 急襲을 받아서 自刃하게 되어 新羅는 다시 文聖王의 裔孫이며 景哀王의 族弟(母系로 보아서)인 敬順王이 末王으로 擁立되었다가 드디어 王建에게 社稷을 바치게 된 것이다.

이 때의 事情을 잘 表現하여 놓은 글이니 再論하지 않으려니와 王位를 두고 싸우는 貴族社會의 混亂이 심하여 王命이 地方에 미칠理가 萬無하였다. 이때에 各地方에서는 納稅를 拒否하고 豪族을 中心으로 叛亂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江原道地方은 그 叛亂의 根據地가 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新羅 下代社會의 混亂과 政治上의 腐敗는 眞聖女王때에 極度에 達하여 王室은 地方에 대한 統制力을 상실하고 말았다. 女王은 內行이 추잡하고 음란하여 奸夫에게 큰 벼슬을 주어서 政治를 籠絡케 하니 그 弊害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때마침 凶年이 들어 農民의 生活은 破綻에 이르게 되니 地方의 諸州縣에서는 納稅를 拒絕하거나 거두어 두었던 貢賦도 地方長官들은 바치기를 拒否하였다. 官吏들을 보내어 督促하였으나 王命에 服從치 아니하고 結局은 各地方에서 별개같이 叛亂이 일어나니 그 代表的인 것을 들어 보면,

尙州의 元宗과 哀奴, 原州의 梁吉, 竹山의 箕萱, 全州의 甄萱등인데 얼마 안되어 梁吉의 部下로서 獨立하여 雄據하는 弓裔가 開城, 鐵原에서 叛旗를 들고 일어났다. 사태가 이쯤 되니 新羅王室은 滅亡의 날을 기다리는데 不遇할 뿐 아무 힘이 없었다.

眞聖女王은 부득이 引責禪讓하고 孝恭王이 位에 올랐으나 기울어진 大勢를 어찌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貴族社會의 革新도 가져오질 못했으니 歷史의 同情도 받지 못할 形便이다. 이때에 각

處에서 일어난 地方의 叛亂은 점점 强者에게 弱者는 흡수되고 農民과 農村의 疲弊로 말미암아 激增한 流浪民들은 叛亂의 세력에 모여들어 强者의 무리는 날이 갈수록 그 勢力이 膨脹하여 全州 完山地方에서 일어난 甄萱와 江原道 地方에 雄據한 弓裔는 叛亂徒들 중의 勝者로서 서로 힘을 겨루고 있었다. 甄萱의 세력은 옛날 百濟의 舊土에 있었고 弓裔는 옛날 高句麗의 땅에 勢力을 扶殖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각기 地方人民의 懷古의 感情에 呼訴하기 爲하여 甄萱은 後百濟라 하고 弓裔는 高麗(後高句麗)라 하였다.

新羅의 領土는 이와 같이 3分되어 겨우 지금의 慶尙道 一帶를 保有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甄萱은 忠淸道의 一部와 全羅道의 全部를, 弓裔는 江原, 京畿, 黃海道와 平安, 忠淸道의 一部를 掌握하고 있었으니 옛날의 三國抗爭과 비슷한 形狀이어서 後三國이라고 일컫는다.

第3節 高麗 戰亂史

高麗史를 通하여 있었던 外亂은 契丹, 女眞, 蒙古, 倭賊, 紅巾賊의 亂등이 代表的인테 이로 말미암아 高麗의 北進政策도 水泡로 돌아가고 말았다. 高麗 外亂史는 倭賊의 亂을 除外하면 北中國의 情勢變動에 따라서 外亂史도 變하여 갔다. 그 중에서 女眞은 滿洲에도 있었지만 東北界의 北쪽인 咸鏡道 北部 一帶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高麗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 原州地方에 對하여 항상 侵入을 恣行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女眞과의 關係부터 考察하거니와 그 외에 契丹, 蒙古亂등을 다룰 때에도 原州 地方과 直接的인 關係가 있었던 이야기만 쓰기로 한다.

(1) 女眞과의 關係

女眞과의 關係는 그 때 北中國과 滿洲 西部를 中心으로 勢力을 펴고 있던 契丹과의 關係와 겹쳐 高麗와 女眞과 契丹의 三角關係에서 檢討해야 한다. 즉 契丹의 東進政策과 高麗의 北進政策은 第1次의 目的地가 女眞의 地域이었으니 契丹과 高麗는 女眞의 地域을 손에 넣기 爲하여 競爭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西紀 993년 成宗 때 契丹의 第1차 侵入時 徐熙의 談判으로 江東 六州를 高麗가 갖게 된 以後 高麗는 鴨綠江 下流로 進出하여 女眞 懷柔策을 더욱 強化하였다.

高麗의 女眞 懷柔策은 高麗側에서 볼 때는 女眞에게 適當한 官職을 주고 朝貢의 形式을 取하여 合法의 方法으로 生活必需品을 그들에게 供給하여 특히 東北界 或은 東海岸에서 잘 나타나는 散發的 侵寇를 防止할 뿐 아니라 契丹과의 往來를 끊고 그들이 生産하는 戰爭道具와 物資 그리고 人的資源을 契丹 防禦에 利用할 수 있는 利點이 있었다. 이것을 女眞側에서 볼 때는 生活必需品의 獲得과 北쪽에서 어떤 混亂이 일어났을 때에는 高麗에게 援助를 期待할 수 있다는 有利한 點을 들 수 있으나 女眞은 경우에 따라서 契丹과도 交好하고 있었으니 顯宗 때 眞은 경우에 이르러서 女眞을 사이에 두고 契丹과 高麗間의 暗鬭는 一層 激化하여 결국 麗丹間에 큰 戰爭을 가져왔다. 戰爭은 1010년과 1018년에 크게 두 차례 있었는데 처음의 싸움에서는 顯宗이 全羅道 羅州로 避身하고 開京은 불바다가 되는 등, 高麗가 크게 졌는데 두 번째 싸움은 姜邯贊의 龜州大捷을 契機로 高麗가 크게 이겼다.

契丹과 高麗가 이와 같이 싸우고, 또 싸워서 힘을 줄이고 있을 때 女眞은 점점 强盛하여 갔다. 國境地方 특히 東北界를 자주 侵犯하는 것은 勿論이지만 海賊團을 만들어 江原道 東海岸地方을 急襲하여 왔으니 高麗에서도 이에 對備하는 海軍部隊로서 「東南海船兵都部署司」, 「元興都部署」, 「鎮溟都部署」등을 設置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文宗 6年 壬辰 夏 6月 東女眞高之問等 航海來攻三陟縣 臨遠戍守將河周呂率兵出城徇于軍曰 彼衆我寡 若人自爲戰 不愛其身 則戰必勝矣 遂擁干挺刀而進 適有安邊都護判官金崇鼎 巡所官諸戍

第7編 戰亂史와 傳説

行至近境 賊聞角聲 謂援兵徑至 遂驚亂 關呂軍 乘勝擊之……」(『東國戰亂史』卷二 高麗記 胡亂部)라고 한 것을 보면 三陟 臨遠에 常駐軍으로서 對抗하기 힘들 정도의 女眞族이 侵入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며 安邊都護府 判官이 이러한 侵入에 對備하고 있는 海軍基地를 늘 巡視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女眞族은 海岸地帶를 侵犯하는 일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契丹의 太宗에 依하여 契丹國都가 遼陽으로 西遷한 후로부터 事實上 契丹의 支配에서 벗어난 東北滿洲의 女眞族은 그 중에서 完顏部가 강성해져서 酋長「우야소」때에 와서는 咸興平野의 霸權을 둘러싸고 高麗와 正面衝突하게 되었다. 이 때에 狀況은 詳記하지 않거니와 肅宗과 睿宗때는 東北面이 女眞의 南下勢力을 막느라고 國力을 기울였고, 一進一退 結局은 尹瓘의 九城築城에 이르렀으나 九城은 다시 둘러주었다. 이렇게 완강히 싸우고 막았기 때문에 江原道地方 內部까지 侵入하지는 못하였어도 當時 通川, 高城, 杆城, 襄陽, 江陵, 三陟에 駐屯하고 있었던 軍隊는 咸興平野를 中心으로 싸우는데 對한 軍事的 對備는 大端하였을 것이며 淮陽과 鐵原도 또한 매 한가지였다. 그러나 이 때 原州地方은 큰 폐는 되지 않았다.

(2) 契丹遺族의 侵入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契丹遺族은 成宗때나 顯宗때에 侵入한 契丹族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때는 原州地方에서는 直接的으로 關係가 없었으니 앞에 女眞과의 關係에서 말한 정도로서 略하고 여기에서는 蒙古亂이 있기 直前 高宗때에 侵入한 契丹賊(契丹遺族)의 亂을 살피기로 한다.

한 때 北中國을 支配하던 契丹(遼)은 女眞族(金)에게 망했으나 女眞의 金나라도 새로 일어난 蒙古(元)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있을 무렵 金의 支配下에 있던 滿洲의 契丹遺民이 叛旗를 들고 遼王이라 일컫더니 서기 1216年(高宗 3年)에는 大遼收國이라 國號하고 獨立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強한 蒙古軍에게 쫓겨서 東으로 抵抗이 없는 鴨綠江 方面으로 向하다가 마침내 高麗를 침입하게 되었다.

이들은 生活根據를 喪失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 쳐들어온 一種의 避難的 侵入이기 때문에 妻子를 데리고 饑餓를 채우기에 狂奔하여 들에 穀食과 牛馬를 마음대로 取食하고 다녔다. 이들의 侵入을 당한 原州地方의 被害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였다. 丹兵은 鴨綠江 流域으로 쳐들왔는데 이들이 쉽게 中部地方까지 내려 올 수 있었던 理由는 두가지 이다. 하나는 當時 權臣이던 崔忠獻이 항상 自慢이 넘쳐 國防을 소홀히 하고 있었으며 또 하나는 北邊에 있던 高麗의 楊水尺(禾尺)의 무리가 敵의 앞잡이가 되어서 地理를 자세히 알려주었다는 事實이다. 楊水尺은 賤民階級으로서 버들로 만든 家具를 팔고 家畜을 잡는 이른바 백정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무리로 原籍도 없지만 國家에 對하여 어떠한 義務도 없었다. 또 國家에서도 放置하여 두는 것이었다.

「……初 李義旼之子至榮 爲朔州分道將軍 楊水尺 多居興化雲中道 至榮曰汝等 本無賦役 可屬吾妓紫雲仙 遂籍其名 徵貢不已 至榮死 崔忠獻 又以紫雲仙爲妾 計口徵貢滋甚 楊水尺等大怨 及丹兵至 迎降嚮導故 山川要害 道路遠近 悉知之……」(高麗史節要 卷 1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李至榮과 崔忠獻은 紫雲仙이란 妓女를 交代하여 妾으로 데리고 楊水尺의 무리를 그 妓女 앞으로 入籍시키고는 貢稅를 받아 饒한을 사고 있었던 터에 丹兵이 侵入하니 이들은 丹兵과 손을 잡게 되어 丹兵은 容易하게 中部地方까지 들어와 奔走를 떨었다.

이 때에 江原道地方은 丹兵의 한패가 東州(鐵原)로 侵入하고 한 패당은 楊平을 거쳐 原州로 侵入하였다. 「高麗史節要」에 收錄되어 있는 「原州地方의 戰況을 추려서 보면 다음과 같다.

「丹兵陷東州崔忠獻奏曰丹兵過東州勢將南下……」

「丹兵入原州州人力戰却之賊退屯干橫川」

「丹兵陷安陽都護府執按察使魯周翰殺之官屬亦多被害」

「丹兵陷原州州人久與賊相持凡大戰食盡力窮且無外援遂陷」

「中軍前軍追丹兵干忠原兩州間法泉寺移次禿站(站)崔元世曰明日之路有二岐吾行何如則可金就勵曰分軍犄角不亦可乎元世從之翌日會于麥谷與賊戰斬獲三百餘級迫干堤州之川流屍蔽川而下越三日追至朴達峴……賊丈潰老弱男女兵仗輜重狼籍委棄賊由是不果南下皆東走追至溟州大關山嶺將卒怯弱退屯旬日乃進賊已險嶺矣」

「中軍左軍前軍復追丹兵至溟州毛老院敗之……」

「丹兵圍溟州翼(翌)日四軍追之後軍不及屯干剛州」

「交州防護兵馬使吳壽祺丹兵戰敗績」

以上の記錄이 西紀 1217年 高宗 4年 丁丑에 있었던 일로서 江原道地方에서의 난리만을 적어 보았다. 이 記錄을 통해서 要約하여 볼것 같으면 처음에 鐵原과 春川(당시安陽)과 原州 사이는 完全히 契丹族의 손에 들어가서 분탕이 극심하였다. 春川에서는 當時의 按察使였던 魯周翰이 戰死했고 그 외 被害가 많았다고 했으며, 原州에서는 처음에 地方民이 合勢하여 물리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憂國의 心情도 있었겠으나 契丹族의 橫暴가甚한 때에도 큰 原因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契丹族은 橫城으로 물러나 있다가 다시 原州에 侵入하였다. 그 때 原州에서는 아홉번이나 힘써 싸웠으나 結局은 陷落되고 말았다 原州에는 楊平 方面에서 내려온 丹賊들까지 모여 그 橫暴는 말할 수 없을 程度였으니 알뜰히 싸운 地方民의 원한도 짐작하겠거니와 契丹賊의 大部隊가 原州에 물리니, 그때에야 비로소 官軍이 도착하여 지금의 原城郡 富輪面 法泉里 麥谷에서 크게 싸워 이기고 賊의 뒤를 쫓아 堤川 박달재에서 또한 크게 이기니 當時 官軍大將은 그때 契丹 侵入時 가장 많은 功을 세운 金就勵將軍이었다. 堤川 박달재에서 敗戰한 契丹賊은 다시 東쪽으로 逃亡하여 平昌을 거쳐서 大關嶺을 넘어 江陵에 들어가서 掠奪을 하게 되었다. 江陵의 狀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陷溟州城四出虜掠焚燒室屋大殺人民留連數月三軍合力

復追擊之至毛老院餘賊落後搜山谷盡擒斬之獲玉帶金銀牌

器伏丹兵屠溟州北驅至登州自翼峴至金壤郡所過雞犬無餘

流血千里回軍追之不及交州兵馬使吳壽祺與戰敗績右軍陣

吳守貞死之是歲府民多在山城盡死賊鋒(鋒)巨家大族泛海

入武陵鳥太半溺水死餘存者逃入旌善窟中皆餓死(「臨瀛誌」古事條)

위의 글은 江陵 鄉誌인 「臨瀛誌」에 所錄된 記事인데 堤川 박달재에서 도망한 契丹兵이 江陵에 들어가서 數個月에 亘하여 人民을 大量 虐殺하고 家畜을 屠殺하고 家屋을 燒却하는 등 蠻行이 말할 程度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府民은 山城에 避難했다가 禍를 입었으며 權門勢家에서는 배를 타고 武陵島(울릉도) 方面으로 가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으며 一部는 旌善에 가서 窟속에 避했다가 굶어 죽었다 한다. 이것을 볼 때 그때 江陵地方의 慘狀은 그야말로 亂離속에 있었던 것 같다. 江陵에서 官軍이 追擊했다는 記錄은 「高麗史」나 「東國戰亂史」에도 나오지만 자세히 않고 「臨瀛誌」를 통해서 보면 契丹兵은 退却할 때 두갈래로 나뉘었던 모양이다. 한 갈래는 江陵에서 麟蹄方面으로 도망하여 登州(進陽)로 갔다가 交州(鐵原) 兵馬使 吳壽祺의 部隊와 激戰을 벌이게 되며 그 후 一部는 咸南地方으로 넘어가고 一部는 西北方面에 侵入한 契丹兵과 合勢하여 江東城에 들어갔다. 江陵에 侵入했다가 退却하는 또 한 갈래의 丹兵은 海邊을 따라 襄

第7編 戰亂史와 傳說

陽으로 들어갔다가 襄陽邑民과 地方軍에게 大敗하고 北으로 도망했다(襄陽은 이때의 功으로 縣에서 州로 昇格함) 그리하여 通川(金壤)을 지나갈 때는 亦是 많은 家畜과 人民을 虐殺한 것 같다. 그 후 契丹族은 女眞의 땅(咸鏡道)으로 北上하여 갔으니 江原道の 戰亂은 일단 끝났다.

한편 우리나라 西部로 들어 왔던 契丹賊과 東部로 들어왔던 殘餘兵은 官軍 趙 冲部隊에 쫓겨 平安道 江東城으로 모였다가 그 때 高麗를 구한다는 美名아래 들어온 蒙古軍과 高麗官軍에 의하여 丹賊이 숨어있던 江東城이 陷落되었다.

竹嶺 以北의 거의 全域이 丹賊의 발굽에 밟혀 그 被害는 莫甚하거니와 當時 武人政權은 政治를 籠絡하여 그들을 쉽게 막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江東城에 몰린 丹賊을 降伏받는데는 蒙古까지 介入케 되었으니 이로부터 蒙古와의 關係가 새로 시작되어 高麗史에 묻은 피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물들어 피에 젖은 歷史를 읽어야만 한다.

江東城에서 降伏한 丹賊의 一部는 蒙古가 데려갔지만, 大部分은 우리나라 안에 살게 하였고 그들이 사는 곳을 「契丹場」이라고 한다. 이 契丹場을 만드는데는 橫城出身 趙 冲將軍의 意圖가 크게 作用했다. 하여튼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어제의 敵을 오늘 눈물로 받아들이는 高麗人의 思想속에 韓國의 휴머니즘이 있는 것 같다.

(3) 蒙古의 亂

위에서 말한 契丹遺族의 침입 때 江東城의 싸움에서 高麗와 蒙古가 처음으로 關係를 맺었는데 그 후 使臣의 往來가 있다가 高宗 8년에 왔던 蒙古의 使臣 著古與가 돌아가던 途中에서 女眞族에게 暗殺 當한 일이 發生하였다. 蒙古族은 이 事件에 對하여 高麗의 所行으로 疑心하여 外交를 끊더니 「成吉思汗」이 죽고 「오고타이」가 帝位에 올라서서 女眞의 金國을 征伐함과 同時에 高麗에 侵入하였다. 蒙古 侵入은 1231年 高宗 1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259年 高宗 46년까지 28年間に 걸쳐 前後 7次나 큰 侵入을 받았다. 28年の 오랜 동안 世界的 強國이었던 蒙古(元)에 對抗하여 버티어 온 高麗人의 武士精神은 歷史에 기려 빛나는 이야기로 남아 있지만, 無差別 虐殺하고 無慈悲하게 辱을 보이고 民家와 黃金沃野에 불을 지르고 짓밟아서 民生은 塗炭에 빠진 채 28年の 歲月을 보냈다.

王室과 貴族은 崔氏執權下에 들어가 있었지만 江華島로 避亂하여 그래도 榮華를 누리고 있는 동안 百姓은 길에서 죽고, 山에서 죽고, 蒙古人의 娼女가 되고 奴隸로 되어갔다. 王室이 버리고 간 住民은 안간힘을 다해가며 蒙古軍에게 抗拒하고 있었으나 대개의 곳에서 無慘히 짓밟혔다.

第 1次와 2次 侵入은 撤禮塔軍, 第 3次는 唐兀台軍이, 4次는 也窟軍이, 다음에 5, 6, 7次에는 車羅大軍이 侵入하여 東西南北을 마음대로 짓밟으며 갖은 蠻行을 다 하였다. 이 때 江華島에서 崔氏政權이 沒落하게 되고 衆義가 王室안에 어떤 희생이 닥쳐오더라도 百姓을 救하여야 한다는 데로 몰려 降伏하여 蒙古의 亂이 끝을 봤다. 그러나 이 후 고려는 蒙古의 屬國이 되어 그의 支配下에 있게 되니 主體性을 상실하고 王室의 모든 稱號도 이 때 부터 한층 낮게 부르게 되었다. (祖·宗은 王, 太子는 世子등)

이와 같이 慘酷했던 蒙古亂 때 江原道 地方이 그들의 말발굽에 밟히게 된 때는 第 4次 侵入 때 高宗 40年때의 일이다. 이 때의 狀況을 「高麗史」와 「東國戰亂史」에 記錄되어 있는대로 說明하여 보겠다.

처음에 蒙古兵은 東州 즉 지금의 鐵原으로 侵入하였다. 그런데 그 때 東州에는 防護別監(軍事實任者)으로 白敦明이 있었는데 蒙古軍이 鴨綠江에서 侵入한다는 所聞을 듣고 州民을 山城에 모두 들어가게 하고 出入을 禁하였다. 그러나 때가 收穫期여서 州民은 벼를 벨것을 要求하

고 또 官吏 하나가 州民을 交代로 내 보내어서 버를 베게 하도록 建議하니 白敦明은 그 사람을 處刑하였다. 이에 州民이 激忿하여 白을 죽이려고 하던 즈음에 蒙古軍이 쳐들어 왔다. 指導者의 暴行에 失望한 軍卒은 힘써 싸우지 않아 결국 城은 陷落되고 金城 金化에 이르기까지 蒙古軍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蒙古軍은 다시 春州(春川)로 侵入하였는데 春川 州民들은 山城에 들어가 抗拒하고 있었으나 蒙古兵의 包圍가 오래 繼續되니 山城에 물은 마르고 할 수 없이 牛馬를 잡아 그 피를 마시게 되었다. 曹孝立 같은 이는 自己의 妻와 더불어 불에 뛰어들어 죽었다. 當時 交州 按察使(道知事) 朴天器는 決死隊를 組織하여 뛰어나가 蒙古軍이 包圍하고 쌓아 놓은 樹柵을 부수면서 싸워 보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戰死하였다. 城 밖에는 蒙古兵이 과놓은 웅덩이 때문에 성안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나가고 城은 陷落되었다고 한다. 이것이 鳳饑山 싸움이다. (『太白의 人物』(朴恒昌조))

蒙古兵은 다시 楊平에 들어가니 防護別監 尹椿이 나와서 降伏하고 尹은 原州防護別監 鄭至麟에게 降伏할 것을 勸하였다. 그러나 鄭은 城을 굳게 지키고 不應하므로 蒙兵은 原州民을 잡아서 돌아가고 말았다.

한편 蒙古軍의 한 部隊는 安邊쪽으로 들어가 通川을 陷落하고 襄陽을 陷落시켰다는 記錄으로 보아 江原道 地方의 北部一帶는 그들의 暴惡한 侵害를 받았다.

이와 같이 王室은 百姓을 버렸으나 百姓은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 戰亂이 있던 동안 洪福源 趙暉, 卓靑과 같이 叛逆輩가 되어 蒙古의 앞잡이가 된 者도 없지 않았지만, 處仁城과 忠州城에서 혁혁한 功을 세운 金允侯와 같은 勇將도 있었고, 또 이름없이 싸우다 목숨을 빼앗긴 百姓과 軍卒이 許多하였다.

(4) 哈丹賊의 亂

蒙古의 世祖가 日本遠征에 거듭 失敗하고 있을 때 北中國에서 乃顔의 叛亂이 있었고, 이 叛亂의 餘波는 우리 半島까지 미쳐왔다. 乃顔의 餘黨인 哈丹이 滿洲에서 高麗의 東界로 大舉 侵入하여 鐵嶺을 넘어 江原道 地域과 忠清道 地域을 유린하고 분탕하므로 王室은 다시 江華島로 避亂하고 蒙古에 援助를 請하기 까지 되었다.

원래는 忠烈王 16年 初에 蒙古에서 돌아온 吳仁永將軍이 哈丹賊의 侵入을 豫告한데서 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政府에서는 吳仁永의 말을 듣고 江原道 北部인 東北界에 軍隊를 增強하였다. 右軍萬戶 金忻은 秦假縣界에(高城), 羅裕는 通川에, 左軍萬戶 朴之亮은 伊川에, 韓希愈는 雙城에(永興) 中軍萬戶 鄭守琪는 禁忘山洞()에 駐屯케 하여 哈丹의 侵入에 對備케 하였다. 이 해 忠烈王 16년에는 哈丹族이 永興, 安邊 등 咸南地域에서 소란을 피웠고 鐵嶺을 넘어서 江原道에 侵入한 것은 이듬해였다(1291年)

哈丹賊은 鐵嶺을 넘는데 길이 險惡하여 말에서 내려 步行으로 넘고 있었는데, 그 모양이 고기를 끼어 놓은 듯 하였으나 그곳을 지키던 鄭守琪는 한번의 싸움도 하지 않고 賊兵을 無事히 넘게 하였다. 鐵嶺을 넘어온 敵을 보고 駐屯將軍은 모두 도망하여 버리니 敵은 交州(淮陽)를 點領하고 繼續 南下하였다. 史籍에는 交州를 占領한 뒤 楊根城을 陷落하였다고 記錄되어 있다. 地形으로 보아서 哈丹賊은 淮陽에서 金化, 鐵原을 거쳐 楊州 方面으로 南下하여 楊根城 즉 지금의 楊平에 侵入하여 온 모양이고, 그동안 諸將軍은 싸움을 걸지 않아 賊은 쉽게 南下한 듯하다. 楊根城을 陷落시킨 賊은 다시 原州로 侵入하였는데 原州에서는 哈丹賊의 侵入에 對備하기 爲하여 原州山城 즉 雉岳山の 鵠原山城에서 陣을 치고 있었다. 이 때에 原州의 鄉貢進士 元冲甲의 피나는 功績이 歷史에 記錄되는 것이다. (『東國戰亂史』 卷二 庚寅哈丹亂條「高麗史節要」 忠烈王17年條)

元 冲甲은 原州 別抄의 鄉貢進士로서 當時 哈丹賊이 原州에 侵入하여 駐屯하면서 갖은 蠻行을 다하고 있을 때 처음에 步卒 6名으로서 싸움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는 哈丹兵이 雉岳山 鵠原城下에서 掠奪하고 있을 때 6人의 步卒을 거느리고 뒤따라가서 賊의 馬匹 여덟을 빼앗아 돌아 왔다. 賊은 都刺使, 禿於乃, 李蘭 등이 앞에 서서 城 밑까지 쳐들어와 原州의 祿轉米를 빼앗고 좋아 날릴 때 元 冲甲은 冲山등 決死隊 7名을 데리고 나가 賊의 뒤를 따라가며 무찌르니 賊은 말을 버리고 달아나 得馬 25匹이라, 防護別監 卜奎가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나 賊은 다시 軍烈을 整備하여 복을 울리며 깃발을 갖추어 城을 몇 겹이고 둘러싸고는 降伏하라는 글을 보내왔다. 元 冲甲은 글을 가져온 使者를 목베어, 보내온 그 머리에 書信을 매어달아 城 밖으로 던지니 賊도 모두 물러나고 말았다. 그런데 賊은 城을 攻擊할 器具를 장만하여 다시 攻擊하여 오므로 城中的 사람도 떨지 않을 수 없었다. 賊은 또 楊根城에서 사로 잡아온 婦女 2人을 보내어 降伏할 것을 꾀이기에 冲甲은 그들도 목을 베어 버렸다. 이에 賊은 복을 울리고 고함을 지르며 城을 攻擊하여 오니 화살은 비오듯하고 城도 위태로운 치경에 이르렀다. 그때 興原倉의 判官인 曹 愼이 城 밖에서 나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을 즈음 元 冲甲, 別將 康伯松 등은 東峰에서 그리고 州吏 元玄, 傳行蘭, 元鍾秀 등은 國學의 養正齋에서 공부하는 安守貞 등 1백餘名을 데리고 서쪽산에서 進擊하니 東西에서 협공을 당한 賊은 갈바를 모르는데 曹 愼은 복을 울려 싸움을 돋우었다. 「曹 愼이 援桴以鼓하니 矢貫右肱하되 鼓立不衰라」 曹 愼이 복채로 복을 울려 도우니 화살은 팔뚝을 꿰 뚫었으니 복소리는 여전하더라고 史家는 記錄하고 있다. 이리하여 賊將 都刺使도 죽고, 58名이 捕虜가 되고 賊兵이 반이나 戰死하니 賊의 銳鋒은 꺾이고 敢히 城을 攻擊하지 못했다. 그 후 부터 各城과 고을에서는 賊을 두려워 하지않고 싸우게 되었으므로 「皆冲甲之力也」라고 史筆은 評하고 있다.

高宗 初에 契丹遺族이 쳐들어 왔을 때도 그러했듯이 哈丹族이 侵入했을 때, 또 전에 蒙古가 侵入했을 때도 原州의 州民은 눈물겨운 싸움을 했고 鄉土를 지키는데 몸을 바쳤다. 哈丹賊이 原州에서 쫓겨간 그 후 부터 곳곳에서 哈丹賊 擊退에 勇氣를 얻게 되어 뒤늦게 到着한 蒙古軍과 合勢하여 燕岐(淸州와 公州사이)에서 完全히 소탕하고 말았다.

그런데 哈丹賊中の 第 2陣인 3千騎兵이 다시 鐵嶺을 넘어서 交州(淮陽)를 占領하였다. 한편으로 東州(鐵原)도 占領하더니 앞에 들어온 哈丹賊이 燕岐에서 完全히 섬멸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鐵嶺을 넘어서 退却하고 말았다.

哈丹族의 侵入時에 功이 많았던 原州는 이것을 契機로 益興 都護府가 設置됐다고 하거니와 防護別監으로 있던 卜奎는 이듬해 西京留守로 昇進하고 鄉貢進士 元 冲甲은 그 후 계속 벼슬이 올라가서 三司 右尹을 거쳐 上護軍에 이르렀다. (高麗史列傳 第17卷)

(5) 弓 裔의 活躍

弓 裔는 원래 憲安王의 子 或은 景文王의 子라고 傳하여 오는데 王室의 紛爭 틈에서 脫出하여 世達寺(京畿 豊德에 있던 興敎寺)의 중이 되어 善宗이라 하더니 亂世를 當하여 鎭에서 나와 出世의 꿈을 품고 처음에 竹山(竹州)의 箕 萱의 部下로 들어갔으나 如意치 않아 다시 原州(北原)의 梁 吉의 部下가 되었다. 梁 吉은 그 개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하나 新羅末 各地에서 叛亂이 일어난 틈에 原州地方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는데, 그는 지금의 雉岳山 鵠原山城에 雄據하고 있었든듯 하다.

梁 吉의 部下將軍이 된 弓 裔는 곧 隣近을 攻略하여 將軍으로 認定을 받은 뒤 梁 吉의 軍士를 거느리고 江原道 地方의 平定에 나섰다.

石南寺(지금 原城郡 神林面 城南里)에서 一宿하면서 隊伍를 整列한 후 酒泉으로 侵攻 寧越을 占

領하고 江陵에서 勝戰鼓를 울렸으니 江原道 南部 一帶는 弓 裔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다.

江陵은 當時 溟州로서 지금의 道廳 所在地와 같은 곳이었다.

弓 裔는 다시 北으로 올라가 江原道地方 南部를 占領하고 鐵原에 到達하니 그 軍勢가 크게 떨치었다.

弓 裔는 그 初期에는 軍卒이나 百姓으로 부터 尊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城主들이 降伏하여 왔던 것이다. 「三國史記」列傳 卷50에 弓 裔가 原州를 떠난 即後의 狀況을 가르켜,

「公而不私 是以衆心畏愛 推爲將軍」

이라고 한것을 보아도 알 수 있거니와, 이러한 때에 弓 裔는 梁 吉과 因緣을 끊고 獨立하여 國家의 틀을 잡기 시작하였다. 信望을 얻어 軍勢가 커진 弓 裔의 名聲을 듣고 開城의 王建은 鐵原까지 찾아 와서 弓 裔에게 降伏하였다. 그는 降伏해 온 王建을 鐵原太守로 삼고 臨津江 一帶를 占領하여 그 名聲은 더욱 하늘을 찔렀다. 이때에 梁 吉이 大怒하여 軍士를 끌고 北上하여 弓 裔와 一戰으로써 決判할 때, 王建, 申 宗謙, 卜 智謙 등 名將을 앞세운 弓 裔는 지금의 加平 부근에서 크게 이기고 一隊는 原州로 나아와 梁 吉이 차지했던 城을 占領하니 弓 裔의 領地는 京畿道와 江原道는 勿論 忠淸北道에 까지 이르렀다.

이럴 때에 王建과 甄 萱의 軍士가 원주에서 싸운 일이 있었는지 혹은 그 뒤에 언제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지금의 原城郡 文幕面 浦津里에 甄萱城趾가 있으며 같은 文幕面 建登里에는 王建이 甄 萱과 싸울 때 對陣했다는 建登山이 있고 甄萱城과는 約 4km程度 떨어져 있다.

梁 吉의 領地를 손에 넣은 弓 裔는 드디어 王을 일컫고 옛날 高句麗의 怨恨을 씻는다는 意味에서 高麗(後 高句麗)라 하고 서울을 松岳 즉 지금의 開城에 定하였다. 이때가 西紀 901年인데 弓 裔는 그 후 西紀 904年 國號를 摩震이라 하고 年號를 武泰라 하더니 이듬해 서울을 鐵原 즉 지금의 鐵原郡 北面 楓川原으로 옮기고 다시 國號도 泰封이라 고쳤다.

이 때에 王建은 南과 北 그리고 海路를 따라 忠南과 全南 各地를 侵攻하여 甄 萱의 세력을 누르고 信望을 얻으면서 새로운 高麗王國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다.

弓 裔가 鐵原으로 遷都한데는 風水地理說의 考慮가 많았지만 鐵原에 遷都한 弓 裔는 大規模의 土木事業을 일으켜 宮闕을 짓고 奢侈한 生活을 하여 國力을 消耗하는 한편 自身을 彌勒佛, 아들을 菩薩이라 하는 등 교만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하고 있었다. 弓 裔의 豪華로운 生活과 土木事業은 民衆의 원한을 사게 되어 西紀 918年 洪 儒, 申 崇謙, 裴 玄鹿, 卜 智謙 등은 王建을 推戴하여 革命을 일으켰다.

弓 裔는 急變을 당하여 도망하다가 斧壤 즉 지금의 平康사람들에게 잡혀 죽었다.

弓 裔가 原州에 들어 온 것이 892年, 平康郡民에게 被殺될 때 까지 25年 前後에 江原道地方 全域을 휩쓸었던 當代의 風雲兒로 한 때 百姓의 환심도 샀으나 後에 奢侈하고 교만하여 百姓의 손에 죽었으니 그는 江原道 百姓에 依해서 出世하여 江原道 百姓에게 죽었다.

西紀 918年 大衆의 손에서 成長한 弓 裔는 大衆의 손에 죽고 王建은 弓 裔가 닦아 놓은 國家基盤위에 새王으로 推戴되어 高句麗를 繼承한다는 뜻에서 國號를 高麗라 하고 松岳으로 國都를 옮겼다.

새 나라의 王이 된 王建은 新羅와 親交를 하여 羅京까지 訪問하는 한편 後百濟와는 武力으로 對抗하였다. 927年 甄 萱이 羅京을 襲擊하여 景哀王을 죽이고 돌아가는 後百濟의 軍士를 大邱 八公山에서 맞아 싸우다가 失敗하여 王建이 困境에 빠지게 됐을때 春川出身 大將軍 申 崇謙의 力戰死로 겨우 生命을 건져낸 危險한 고비도 있었다. (王建은 申將軍의 戰死한 屍體를 건우어 葬祀되었는데 墓所는 지금 春城郡 西面 芳洞에 있다. 처음부터 여기에 葬禮를 했는지 혹은 一說과 같이 平山에 장사

지냈다가 移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春城郡 西面에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高麗는 後百濟의 勢力을 忠南 公州地方에서 누르고 있었고 東으로는 浦項 근방 興海까지 勢力이 미치고 있었다.

그 동안 後百濟에 시달린 新羅는 國基를 더 以上 끌고 갈 힘이 다하였고 各處의 城主들은 繼續 王建에게 降伏하며 百姓들의 마음은 高麗에로 쏠리고 있었다. 景哀王위에 位에 올라선 敬順王은 原始 新羅以來 部族代表로 構成되어 國家의 重大事가 있을 때 열리는 和白會議를 열어 千年社稷을 高麗에 바칠 것을 決定했다. 國家를 高麗에 바치는 것을 反對하여 오던 王子(이름은 모르나 太子로서 俗傳, 麻衣太子)는 王과 重臣 그리고 다른 王子가 高麗로 向할 때 홀로 江原道の 深山 幽谷을 찾아 떠났으니 이름없는 太子가 이 고장에 묻혔다.

後百濟의 甄萱은 그 동안에 後嗣問題로 家庭의 紛亂을 가져와서 두 아들 神劍에게 쫓기어 金堤 金山寺에 갇혀 있다가 脫出하여 王建에게 降伏하였다. 後百濟 王室의 內紛은 高麗를 불러들여 마침내 936年 甄萱을 앞 세운 王建의 軍隊는 後百濟로 侵攻하여 忠南 連山附近에서 크게 이기니 神劍과 後百濟의 官僚, 將軍은 王建과 아버지 甄萱 앞에 降伏하였다.

新羅가 歸屬하고 이듬 해 後百濟를 降伏받으니 鐵原의 革命으로 生氣를 얻은 高麗는 後三國의 紛爭을 終熄시키고 半島를 다시 統一하였다.

(6) 紅巾賊의 亂

蒙古의 元나라 末期에 方國珍, 張土誠, 韓山童등이 中國 各地에서 叛亂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중 韓山童의 아들 韓林兒는 北中國 各地를 휩쓸고 遼東을 侵攻하더니 마침내 高麗에 쳐들어왔다. 이 때 이들은 紅巾으로 徽章을 삼은 까닭에 紅巾賊, 紅頭賊, 紅賊이라 일컬었는데 鴨綠江을 건너 平壤까지 占領하였으나 高麗軍에게 쫓기어 갔다. 그 후 紅巾賊은 恭愍王 10年(1361年)에 다시 侵入하니 王은 지금의 慶北 安東으로 避難하고 賊은 開京을 占領하였다.

開京을 占領한 紅巾賊은 江原道 北部를 짓밟고 咸南 安邊으로 쳐들어 가고 한편으로는 南下하여 原州를 侵攻하니 原州 牧使 宋光彥이 이때 戰死하였다. 原州는 이때에 燒滅되었다.

이에 政府에서는 姜碩을 交州 江陵道の 都巡問 兼 兵馬使에 任命하는 등 全國에 戰時體制를 펴고 鄭世雲으로 摠兵官을 삼아 開京을 回復하고 賊을 擊退하였다.

第4節 壬辰倭亂

明宗以後 國政이 解弛하고 黨爭이 激甚하며 邊防이 懈怠하니 民心 또한 懦弱하여 갔다. 이와 같이 朝鮮 王朝는 안에서 힘을 잃고 있었던 때, 北에서는 女眞이 强盛하여 있었으며 南東 日本에서는 오랫동안 戰國時代가 繼續되어 混亂을 거듭하더니 때마침 織田信長, 豐臣秀吉 등 強力한 武人政權이 들어서서 國內를 統一하고 戰亂의 餘力을 整備하고 있었으니, 東亞의 勢力均衡이 破壞된 마당에 王朝 初期의 交隣外交가 可能한 理가 없었다. 이 勢力均衡의 破壞를 調査하기 위하여 一部에서는 努力도 하고 使臣을 日本에 가지 보내 探知토록 해 봤지만, 激화된 黨爭으로 所期の 目的을 거두지 못하였음은 黃允吉, 金誠一使臣錄에서 잘 알 수가 있다. 李退溪, 李栗谷은 庶政의 改革을 論하고 특히 李栗谷은 倭侵에 對備하여 十萬養兵論을 主張하고 있었으나 아랑곳 없었다. 이때 일본은 明을 征伐할 계획으로 그들은 朝鮮에게 先驅가 되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朝鮮은 이를 拒絶할 뿐만 아니라 明과 密接한 外交를 맺고 있었으니 日本은 우선 朝鮮 征伐을 計劃하였다. 朝鮮 征伐의 所聞이 난 初期에는 萬一의 경우를 對備하는 防備策에 대한 論議가 있었으나 放棄되어 왔다. 그러나 邊方에서 繼續 日本侵入의 情報를 報告하니 늦게서야 若干의 對備策을 講究하게 되어 城池를 修築하고 人事를 整備하였으나 때는 늦었고 防禦策 自體도

微溫의이었다. 단지 井邑縣監으로 있던 李 舜臣을 全羅 左水使로 赴任케 한 點은 後日 큰 도움이 된 일이었다. 이때 日本은 戰亂을 치른 뒤였으므로 戰術도 發達하여 있거니와 西洋에서 傳來한 鳥銃이 있어서 戰爭을 치르는데는 有利한 條件을 갖추고 있었다. 日本은 明나라 征伐을爲한 朝鮮征伐軍을 編成하여 出兵토록 하였으니, 水陸軍 30萬餘의 軍隊가 宣祖 25年 4月14日 小西行長의 第1陣을 先頭로 釜山에 上陸 朝鮮을 侵略하였다. 그 뒤를 이어 加藤 清正, 黑田 長政, 毛利 吉成, 福田 正則, 小早川 隆景, 毛利 輝元, 宇喜 多秀家, 羽柴 秀勝 등이 第9陣으로 나누어 차례로 上陸하였으며 한편 九鬼 嘉隆, 藤堂 高虎등의 水軍이 海上을 달고 있었다. 이렇게 상륙한 倭軍은 防備가 疎忽한 우리나라를 크게 힘들이지 않고 征服하면서 東北으로는 咸鏡北道에 이르러 臨海君과 順和君등 두 王子를 사로잡고 西北으로는 平壤城을 占領하였다. 危急해진 朝鮮은 明의 救援을 얻어서 겨우 倭軍을 撤退시킬 수 있었으며 外交上的 問題로 丁酉年(1597)에 다시 倭의 侵入를 받았으나 明의 援助와 마침 豊臣 秀吉의 死亡으로 前과 같은 慘變은 免하였던 것이다. 壬亂前에 벌써 政治, 經濟, 社會가 混亂하여 紀綱을 잡을 길이 없었는데 그위에 戰亂이 덮쳐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戰亂中에도 黨爭이 繼續된 것은 정말 痛哭할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겨레의魂이 없어졌던 것은 아니다. 겨레의 속깊이 潛在되어 있던 힘은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었다. 幸州山城싸움 晉州血戰 李 舜臣將軍의 龜船과 勝捷과 忠誠, 그리고 各地의 義兵과 僧兵의 活動은 우리겨레의魂과 힘이 誇示된 側面이라 아니 할 수 없다.

(1) 이 고장의 初期形勢

倭兵은 釜山에 上陸 서울을 向하여 進軍할 때 慶北 聞慶 재계를 넘어 忠州를 거쳐 楊平으로 건너와서 서울로 올라가는 한편 西路는 秋風嶺을 넘어 淸州를 거쳐 竹山 龍仁으로 서울에 入城하였기 때문에 初期에는 이고장이 直接的으로 侵入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몇가지 問題가 있었는데 區分하여 적어 보련.

- ① 忠州戰鬪에 派兵: 倭兵이 4月 24日 李 鑑의 軍隊를 尙州에서 擊破하고 北上하니 都巡邊使 申 砬이 忠州에서 背水陣을 치고 小西 行長과 싸울때가 4月 27日이다. 이때 原州에 駐屯하고 있던 江原道 地方軍이 忠州로 出戰하여 申 砬의 敗戰과 함께 크게 傷하여 後日 原州 防禦에 打擊이 컸다.
- ② 忠州의 敗戰이 서울에 알려지자 이 고장의 各處에 있던 地方軍은 서울로 徵發되어 京師에 編入되었으니 이고장에는 正規軍이 거의 없다시피 되었다.
- ③ 新勒寺戰鬪: 忠州에서 朝鮮의 主力部隊를 擊破한 倭兵은 北上하여 驪州에 이르러 지금 神勒寺(雙寺)가 있는 근처에서 南漢江을 건느려고 하였다. 이때에 江原道 助防將 元 豪가 軍隊를 끌고 여기에 陣을 치고 있었으므로(當時 行政區域上 여기는 道境 근처이다) 敵은 數日間을 渡江하지 못하였다. 이때 마침 江原道 觀察使 柳 永吉이 이곳으로 召遷하여 버리니 敵은 官廳과 民家를 헐어서 筏橋를 만들어 渡江하여 楊根(楊平)으로 向하였다. 元 豪는 撤軍한 後 南漢江 支流인 蟾江에서 다시 陣을 치고 있었는데 倭軍의 一支隊가 蟾江으로 들어오다가 지금의 原城郡 地正面 茂長里 龜尾浦(귀미나루)에서 敗하고 돌아갔다. 이때 元 豪가 陣을 쳤던 곳을 지금도 원진거리라고 불러 온다.

(2) 이 고장의 後期形勢

서울을 占領한 倭軍은 北上하여 臨津江을 건너 開城을 占領한 後 小西 行長의 軍은 平壤으로 進軍 侵入하고 加藤 清正의 軍은 禮成江을 따라 올라가서 谷山을 거쳐 咸鏡南道로 들어가 安邊을 占領한 後 6月25日에는 永興으로 侵入하였다. 이때에 釜山 上陸時 第 4陣으로 上陸한 毛利 吉成의 軍은 서울에서 東豆川으로 올라가서 鐵原, 平康, 金化, 淮陽을 占領한 後에 역시 咸鏡南道

安邊으로 들어가서 다시 江原道 嶺東地區로 南下하여 이 고장을 짓밟게 되었던 것이니, 한여름 7,8월의 일이었다. 이 때에 倭軍이 侵入한 經路를 보면 安邊에서 通川, 高城, 襄陽, 江陵으로 侵入하여 一支隊는 西向 襄陽에서 雪嶽山 뒤를 돌아 寒溪嶺을 넘어 麟蹄로 들어오고 主力部隊는 三陟으로 내려가서 頭陀山城을 陷落시킨 後 義兵隊 朴 杰과 싸우면서 數日 占領하였다가 旌善으로 넘어가서 寧越를 焚掠했다. 이들은 그후 忠北 永春으로 나갔다가 다시 南漢江 上流를 따라 平昌을 占領하고 酒泉으로 빠져서 神林을 거쳐 原州로 侵入하니 이때 原州 雉岳山 鵠原山城의 血戰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鵠原山城의 血戰과 金 佛甲牧使

三陟을 거쳐 原州로 侵入한 倭賊은 梁 吉이 雄據하여 新羅末에 이름을 떨쳤던 곳이며 高麗朝에 吟丹賊이 侵入하였을 때 元 冲甲이 큰 功을 세웠던 由緒 깊은 鵠原山城에서 크게 苦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金 佛甲은 當時 原州牧使로 있었는데 이 때에 戰死하니 諡號는 文肅公이며 그의 功績을 紀念하여 1966年 原州驛前에 忠烈塔을 세웠다. -앞에 紹介한 「金 佛甲略傳」에 다음과 같이 실려있다.

「公(金佛甲)은 城中에 있던 武人 朴宗男으로 하여금 나아가 加里嶺을 지키게 하고…… 平昌으로부터 酒泉을 거쳐 들어닥친 倭軍은 마침내 加里嶺을 넘어 原州府內로 들어와 屯陣하였다. 山城에서는 敵이 이미 原州府內에 들어왔다는 情報를 듣고 모두 놀래어 어찌할바를 몰랐다. 이에 公은 泰然自若하게 더욱 軍卒들을 激勵하니 城中的 人心이 차츰 가라앉고 그 意氣에 感服感泣하였다. 原州에 들어온 敵은 山城에 防備가 있음을 알고 다시 城下에 肉迫하여 軍使를 斬하고…… 敵의 머리를 軍中으로 돌리며 軍士들을 督勵하니 我軍의 士氣가 크게 올라 激戰奮鬪하여 敵의 屍體가 너무 많아 쳐내었다는 「쳐내울」이요, 敵이 加里嶺에서 크게 패했다. 하여 「가르팍재」등의 地名이 이때 戰蹟地를 緣由해서 생겼다고 한다. 이리하여 敵이 一旦 城下에서 敗走退散하니…… 公이 城에서 五里쯤 떨어진 곳에 있는 5個處의 峰頭에 각각 한 紐씩 兵卒을 보내어 숨어 살피게 하고…… 倭兵은 북소리 곱합소리 地軸을 울리며 쳐들어 오는데 우리의 城堞을 지키는 軍士는 避難民까지 合해야 5千名도 안되니 그 軍勢를 論한다면 到底히 比較가 되지 않을 程度였다. 四面으로 矢石이 城中으로 集中해 날아 들어오니 我軍도 이에 應戰하여 決死的으로 抗戰을 繼續하여 이른 아침부터 저녁나절까지 猛烈히 相戰하니 화살이 다 떨어지고 기운이 다 빠지게 되었다. 敵도 또한 險峻한 山城을 쳐다보기만 하고 十進十退하다가 저녁때에서야 決死의 勇兵 數十名을 뽑아서 벼랑을 타고 틈을 엿보아 山城으로 올라와 곱합을 지르며 突入하니 城이 마침내 陷落되기에 이르렀다…… 敵의 화살이 公에게 맞아 등에 화살이 두개가 꽂히었으나 쓰러지지 아니하자 敵將이 가까이 이르러 公을 무릎을 꿇게 하려 했지만 마치 나무심은듯 곳곳하게 버티고 서 더욱 屈하지 아니하고 크게 소리질러 敵을 꾸짖다가 마침내 敵에게 遇害되어 거룩한 生을 마쳤으니 公의 나이 68歲였다. 公의 夫人 李氏는…… 마침내 絕壁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작은 아들 時佰이…… 公의 屍身을 거두는다고 남아 있다가 또한 敵의 칼에 죽음을 당하고…… 이날이 바로 恨많은 壬辰年 8月 25日 이었다」

이리하여 倭軍은 原州를 完全히 陷落하고 橫城을 거쳐 春川을 占領하였다. 이것이 이 고장의 後期狀況이니 初期에 벌제 地方軍이 서울로 徵發되었고 忠州戰鬪에 희생이 컸고 또 뜻있는 사람은 王子 順和君의 勤王兵 募集으로 鄉里를 떠났을 것이니 倭軍은 高城에서 四溟堂의 活動과 三陟의 朴 杰의 活動, 그리고 原州에서 金 佛甲의 活動으로 支障을 받았을뿐 그 外의 地域에서는 큰싸움 없이 占領한듯 하다. 以上에서 壬亂 當時의 이 고장 狀況을 보았다. 이상과 같이 原州府

民은 外亂때마다 피나는 싸움을 했다. 이미 說明한 바이지만 蒙古亂, 哈丹賊의 侵入, 壬辰倭亂을 겪는 동안 鰲原山城을 가지고 있었다는 有利한 條件도 있지만 外亂때마다 府民들은 빛나는 記錄을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으며 壬亂 당시 原州牧使 金 梯甲의 죽음은 忠節의 표본으로 크게 崇拜을 받았다. 宣祖 42년에 朝廷에서 禮官을 보내어 祭享을 지낼 때 그 祭文을 보면 當時 王이나 朝廷에서 얼마나 稱頌을 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金 梯甲을 先頭로 한 原州府民들의 活動은 빛나는 것이었지만 倭兵은 고을마다 그들의 칼로 無慘히 사람들을 죽였고 焚獲하였으니 民生은 더욱 허덕이고 갈바를 찾지 못하였다. 壬亂前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諸制度는 壬亂을 契機로 더욱 紊亂하여졌고 農地는 荒廢하고 農民生活은 塗炭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倭兵은 곳곳에서 婦女子를 凌辱하였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壬亂에 얽힌 史話를 전해주는 것이 많다.

第5節 6.25動亂

몹서리쳐지는 6.25動亂은 制憲國會議의 任期가 끝날 무렵 政界와 一般의 物議를 무릅쓰고 第二次總選舉를 遲延시켜 오던 政府에서는 美國務長官의 覺書가 傳達되고 社會에 輿論이 沸騰하자 選舉를 實施하게 되었다. 1950年 6月19日 議會開院式을 보았고 開院式에는 美國의 덜레스氏를 비롯하여 많은 貴賓이 參席하고 亞細亞의 民主堡壘로서 洋洋한 앞날이 約束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總選舉로 어수선하였던 機會를 노려 오래전 부터 南侵을 꿈꾸던 北韓傀儡 金日成은 議會開院式이 끝난지 一週日 後의 日曜日인 6月 25日 平穩하게 잠들었던 南韓에 盜賊같이 새벽 4時를 期해 三八線 全域에서 奇襲攻擊을 해 왔다. 이 날은 日曜日인데다 날씨가 맑고 흐리고 많은 軍人이 外出하여 자리를 뜬 無防備 狀態에서 虛를 찔리고 말았다. 原州에 모든 機關이나 住民들은 종종 있었던 三八線上에서의 衝突이러니 하고 생각하여 곧 擊退되리라고만 믿어 왔다. 그러나 이때의 攻擊은 規模나 樣相이 아주 달랐으며 全面 南侵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너무도 唐惶하였다. 들려오는 消息은 時時刻刻으로 惡化一路에 있는 戰勢만이 傳하여 지고 市民들은 惴惴거리기 始作하였다. 官公署에서는 非常召集으로 全員出動 제자리를 지키고 防衛態勢를 갖추기에 努力하였다.

傀儡軍의 軍事力은 地上軍만도 正規軍 10個師團 30個聯隊 12萬名과 其他 特殊部隊 6萬餘名을 합쳐서 18萬名에 달했고 各種砲 3,041門 蘇製 T 34型 戰車 242台 야크機를 비롯 航空機 211台를 保有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우리 韓國軍은 8個師團 22個 聯隊 6萬 7千名의 正規軍과 陸本支援部隊 軍事英語學校 兵力等 2만7千名을 全部 합해도 9만4千名에 不遇한 數字였다. 兵力뿐만 아니라 裝備는 더욱 對照가 안 되었다. 탱크는 한台山도 없었고 砲라고 해야 모두 합쳐 1,081門 그것도 共產軍이 225門이나 가지고 있는 120mm 迫擊砲나, 自走砲 高射砲 등은 한 門도 없고 航空機는 練習機인 L-5型, L-6型, T-6型 등을 합쳐서 22대에 지나지 않는 초라한 裝備였었다. 그뿐 아니라 6月 24日은 土曜日이고 많은 將兵들이 外出하고 農繁期에 일손을 돕기 爲해서 故郷에 보내진 兵力도 적지 않았다.

이런 때 6.25動亂은 靑天霹靂으로서 매마침 冷戰으로 緊張되어 있는 全世界에 미친바 波紋은 참으로 前無의 것이었다. 動亂이 勃發하자 美國은 韓國問題를 UN 安保理事會에 緊急 提訴하여 25日과 27日의 決議로 北韓傀儡을 侵略者로 規定하고 즉시 38線 以北으로 撤退할 것과 會員國家は 이 侵略者를 援助하지 말것과 이를 擊退시키는 데 協力할 것을 決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事態를 重視한 당시의 트루만 美大統領은 27日 美海空軍에 出動을 命令하고 다시 30日에는 美地上軍의 韓國出動을 命令함과 同時에 北韓地域內의 爆擊과 韓國全海岸의 海上封鎖도 命하였

다. 이때 全戰線은 優勢한 敵의 火力과 兵力에 壓倒되어 무너지고 있었다. 春川을 지키던 第7聯隊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不過 1個聯隊의 작은 兵力으로 北傀軍 2個師團의 必死的인 攻擊을 3日間이나 沮止시켰을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莫甚한 出血을 내게 하였지만 그 러함으로 原州에서는 時間의 餘裕가 있었다. 그때 春川, 洪川, 麟蹄, 橫城, 江陵方面에서 氣盡 脈盡한 警察隊員과 公務員이 밀어닥쳐 前 原州警察署 뒷 뜰에 集結되었고 警察局 通信課長으로 있던 張 秉遠總警이 作戰指揮를 하였다. 이때 愛國婦人會員을 動員한 作戰指揮官 張 秉遠總警은 女警에게 補給의 一部로 後退하여 오는 警察隊員 給食準備의 總責任을 命하였다. 婦人會員과 最後 南下의 瞬間까지 前警察署 맞은편에 있던 公會堂에서 하루에 7, 8百餘名씩 後退하여 오는 隊員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食事を 提供하여 南下하도록 便宜를 圖謀해 주는 役割을 原州警察署에서 最後까지 하였다. 이때 原州警察署 李 雲龍署長과 女警 1名을 비롯하여 殘留警察隊員 50餘名이 市內를 살피른 후 국은비가 내리는 7月 2日밤 멀리서 隱隱히 들려오는 砲소리를 들으면서 밤 9時頃 原州를 떠나 南下하였다. 7月 7日 「맥아더」元帥를 總 司令官으로 하는 國際聯合軍이 組織되었고 8月에는 國聯決議에 依한 國聯旗가 처음으로 戰場에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避難한 原州邑民은 淸州, 大田, 大邱, 慶州, 釜山等地로 轉轉하며 避難生活를 해왔다. 1週일이던 平穩해지리라고 믿었던 邑民들 一部는 가까운 原城郡 村落으로 避難을 하였다. 7月 20日 大田 戰鬥을 비롯하여 戰爭 初期에 있어서 美 24師團과 國軍은 壓倒的인 兵力과 裝備를 갖춘 傀儡軍의 作戰에 對抗하여 恒常 阻止作戰과 遲延作戰으로써 後方의 韓, 美軍의 增援을 展開하기 爲한 貴重な 時間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大田을 넘어선 傀儡軍은 湖南平野를 거쳐 西南海岸 沿邊으로 侵入하는 一面 北部戰線과 東海岸戰線이 呼應하여 3方面으로부터 釜山 大邱에 美軍補給線을 切斷하려는 作戰을 強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危機에 處해 있었기에 原州의 避難民은 또 다시 지친몸을 이끌고 30度の 暴轟에 慶州 釜山으로 발길을 옮겨 놓게 되었다. 이리하여 韓美 聯合軍은 洛東江을 最前線으로 東海岸의 浦項 北部의 倭館 南海岸의 馬山을 連絡하는 釜山 半月形 陣地인 「워키라인」을 構築하고 最後의 決戰을 展開하였다. 그러자 敵은 8月 15日 大邱를 侵攻하고자 大邱南西北方에 60萬의 兵力과 數十台의 戰車를 集結시켰으나 美空軍 B29의 戰略的 大爆擊으로 反擊이 始作되었다. 完全 潰滅된 傀儡軍은 主力을 잃는 熾烈한 戰鬥가 繼續되고 國軍 5個師團을 비롯하여 美軍 4個師團, 英軍 2個大隊, 濠軍 1個大隊, 그 밖에 10個國에서 派遣된 數萬의 UN軍이 增援되어 國聯軍은 마침내 9月 25日 仁川 上陸作戰을 敢行하여 待望하던 서울을 9月 28日 完全 奪還하게 되었다. 당시 原州 警察隊員들은 慶州 避難地에서 武裝을 再整備하고 安江戰鬥에 參戰하였다.

이곳 戰鬥은 筆舌로 다할 수 없는 熾烈한 戰鬥였는데 原州 警察隊員은 不充分한 武器供給과 傀儡軍의 人海戰術로 많은 犠牲者를 내게 되어 重傷者는 釜山 警察病院으로 後送하였다. 이때 原州 警察署 李 雲龍署長은 原州에서 最後까지 殘留하였던 隊員 10餘名(其中 女警 1名)과 함께 警察局命에 依해 警察官 患者 收容所를 慶州에서 設置하고 最前線에서 後退하여 온 隊員과 輕傷者 및 患者를 休養시켰다. 事態 不利하여 蔚山으로 移動하였다가 그 곳에서 다시 蔚山市內로 부터 方魚津 쪽으로 6km地點인 양정國民學校를 占有하고 患者 收容所 業務를 繼續하였다. 所長인 李 雲龍總警은 患者들의 補給과 隊員들의 統率로 後方의 任務를 積極 遂行하여 完治된 隊員을 다시 戰線으로 派遣하기도 하였다. 유엔軍이 서울을 奪還하자 原州警察隊가 先發隊로 收復하고 이어서 各機關들과 避難民들이 뒤따라 들어왔다. 그때 原州는 3個月前의 모습을 찾아 볼 길 없이 悽慘하였다. 激戰地로 變하였던 原州市內 中心地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驛前까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잿더미로 化해버려 方向을 찾을 길이 없도록 바뀐 거리는 無數한 爆擊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3일이면 끝낼 줄 알고 近方으로避難하였던 邑民들이 無數히 傀儡軍으로 부터 當한 殘忍한 處刑으로 100餘日間の 赤治下에서 죽어간 市民을 헤아릴 길 없을 程度였다. 九死一生으로 共產魔手에서 살아남은 人士도 있었다. 이때 北進을 展開하여 韓滿 國境까지 進擊하였던 國軍과 유엔軍은 11月 中共軍이 戰鬪에 介入함으로 새로운 局面을 맞게 되었다. 죽음의 恐怖에 사로 잡혔던 이곳 住民들은 自由의 기쁨도 누릴 사이 없이 1月 4日 暴雪이 내려 발을 움겨 놓을 수 없도록 눈이 쌓였고 추위는 더욱 甚하였다. 이러한 때 6.25와 같은 惡夢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官에서는 疎開令을 내렸다. 原州에서는 처음으로 道民證을 發付하기 始作하였는데 疎開令으로 道民證을 發給받은 사람도 있고 大多數가 發給을 받지 못한 채 다시 避難길에 올랐다. 1950年 3月 原州警察隊가 收復하여 殘匪를 掃蕩하는 한편 治安維持에 全力하였다. 거리에는 傀儡軍들과 無辜한 市民 그리고 내 祖國 내 거래를 爲해 싸우다 숨겨 간 無名의 勇士들의 屍體가 이곳 저곳에 甕글어 무덤 속을 헤메는 實情이었다. 收復해 온 市民과 남아서 苦役을 치렀던 住民들이 合勢하여 屍體 치우기와 整理作業을 하기에 이르렀다. 1.4後退로 釜山까지 避難하였던 道廳이 戰勢의 好轉으로 51年 4月 15日 原州邑 一山洞 1番地 지금의 原城郡廳(宣化堂)에 江原道廳 臨時事務所를 設置하고 休戰 直後인 53年 7月 30日 春川으로 正式 收復할 때까지 事實上 江原道廳의 모든 機能을 原州에서 다 하고 있었다. 原州는 師團과 聯隊가 駐屯하고 있었던 關係로 像想할 수 없을 만큼 熾烈한 戰鬪가 展開하였던 곳이기에 面 所在地 및 市內가 全燒되었으므로 仔細한 것은 알 수 없다. 또한 市郡 出身으로 戰死한 將兵, 警察, 軍屬, 勞務者 552名의 戰歿英靈의 功을 기리 빛내기 爲해 台庄一洞에 顯忠塔을 세워 每年 6月 8日 顯忠日을 期하여 享祀를 올리고 있으며, 平日에도 이곳을 찾는 市民들의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고장 無名의 愛國勇士들은 軍番도 없이 오직 내 나라 내 거래를 위해 戰死한 英靈들의 넋을 길이 追慕하고자 原城郡 所草面 興陽里 原, 橫間 國道邊에 높이 15미터의 戰蹟碑를 세웠다. 오늘도 높은 곳에 우뚝 서 있는 顯忠塔과 戰蹟碑는 이 고장 來日의 平和를 지켜보고 있다. 英靈들이여 편히 잠들기를 비는 마음 懇切하다. 破壞되었던 原州를 再建하고 南北統一이 宿願인 市郡民은 祖國近代化와 民族中興을 이룩하고 印支事態를 거울삼아 滅共統一을 完遂하기 위해 團結하고 安保態勢를 強化하며, 來日의 平和를 위해서 躍進하고 있다.

(忠魂塔에 모신 戰歿英靈의 名單)

성명	소속	계급	주 소
박상일	경	순경	중 앙 동
고명기	육	상병	"
김기회	"	소령	평 원 동
원진석	"	상사	"
조법진	"	하사	"
지승환	"	일병	"
박순길	"	"	"
김재호	"	"	"
안주찬	"	"	"
김도만	"	이병	"
김중찬	"	중사	"
박명훈	"	이중	일 산 동
원세준	"	상병	"
심 일	"	소령	"
조준철	"	일병	"

성명	소속	계급	주 소
박재중	육	"	일 산 동
이경순	"	"	"
권용웅	"	상사	"
장준홍	해	이병	"
황기선	육	병장	"
김중운	"	중사	"
이규철	"	일병	"
함중옥	경	순경	행 구 동
정원국	육	일병	"
조흥진	"	"	"
권영식	"	병장	"
원기연	"	일병	"
강원희	"	상사	"
최기철	"	일중	단 구 동

성명	소속	계급	주 소
최동옥	"	이상	단 구 동
길병남	"	일중	"
박명신	"	하사	"
진성덕	"	일병	"
황승렬	"	"	"
육진철	"	"	"
박현희	육	병장	"
송승준	"	일병	"
사공원조	"	"	"
김창열	"	"	"
김호명	"	국민	"
김필하	경	순경	"
최창교	육	병장	"
채순석	"	이병	"

성명	소속	계급	주소
홍광석	육	하사	단구동
김학수	"	중사	"
김만석	"	"	"
김용원	"	소령	"
조찬태	"	상사	"
하용태	"	하사	"
최병록	"	소령	원인동
이원식	정	순경	"
김용직	해	병장	"
정학철	육	상병	"
홍기원	육	일병	원인동
정정시	"	"	"
원호영	"	고원	"
유영환	육	일병	"
남규성	"	하사	"
이효상	"	일병	"
서명수	"	하사	"
이현익	"	병장	"
신대승	"	소위	"
임종환	"	하사	"
이희택	"	일병	"
안규홍	"	하사	"
심운용	"	일병	"
변덕준	"	"	"
왕천민	"	하사	"
민정섭	"	일병	"
임차대	노무자	"	"
박기섭	육	준위	"
박용금	"	일병	"
정두교	"	중령	"
서중태	"	중사	"
최기호	해	일병	"
황정흠	육	"	"
정두영	"	중사	"
안수영	"	일병	태장2동
최석주	"	대위	"
이강국	"	일병	"
최종현	"	병장	"
이만복	정	순경	"
황희백	육	하사	"
김휘중	"	일병	"
이병대	"	"	"
김형재	"	중사	"
최지함	"	병장	"
황현주	一	방위	"

성명	소속	계급	주소
서정기	육	일병	태장2동
황희춘	"	"	"
심상옥	"	"	"
권오석	육	상병	태장동
김수익	"	일병	"
김수영	"	"	"
유석우	이	"	"
장원창	해	일동	"
김남운	육	수병	"
신병극	"	하사	"
최광윤	해	일해	"
정달수	육	이병	"
김영길	一	내무원	태장2동
안병호	육	상사	"
김상열	"	병장	태장동
손상호	"	상사	태장1동
변기혁	"	중사	"
김우규	"	일병	태장2동
유지철	"	"	태장동
장태학	"	하사	태장2동
강석화	"	이등	가현동
전중경	"	상사	"
남상덕	"	중사	"
박찬구	"	상병	"
윤영복	"	일병	무실동
윤영규	"	"	"
김기섭	"	병장	"
진기현	"	"	"
홍태식	"	일병	"
김경종	"	"	"
황우석	"	"	우산동
정현배	"	"	"
김주홍	"	중사	"
신현승	"	이병	"
안재성	"	상병	"
김현기	"	병장	"
조기원	"	하사	"
선우현	"	중위	"
권태홍	"	하사	"
이상근	"	"	"
홍기홍	"	"	"
최학숙	"	하사	"
이강운	"	상사	"
이현복	"	일병	"
박동훈	"	상사	관설동

성명	소속	계급	주소
조두환	육	하사	관설동
권영국	"	"	"
원인희	"	"	"
최지범	"	상병	"
최지성	"	"	"
최복규	"	일병	"
최병년	"	하사	"
신홍섭	"	상병	"
김병두	"	일병	"
김진학	"	병장	"
원영순	"	중사	"
고현구	해	상병	"
권영기	육	하사	"
김용환	"	"	반곡동
장해훈	"	일병	"
김광대	"	하사	"
최인형	육	일병	"
김범신	정	경사	"
정두오	육	상병	"
박시태	"	"	"
김창동	해	상병	봉산2동
박창호	정	경사	"
이신구	육	이중	"
김순영	"	"	"
이승구	"	하사	"
김만경	정	경사	봉산동
김상봉	"	"	"
오성근	"	"	"
함호암	"	경감	"
이용두	"	경사	"
정도삼	"	순경	"
김주성	육	이중	"
김동석	정	순경	"
엄해중	"	경위	"
곽성근	육	일병	"
김사림	정	경위	"
최운학	"	"	"
심대식	"	순경	"
이택규	육	하사	"
이용환	"	이중	"
박춘선	"	일병	"
김병일	정	순경	"
김재운	육	중사	"
김영배	"	이병	"
이창용	"	일병	"

성명	소속	계급	주소
김영익	육	일병	봉산동
추주호	"	상병	"
이희택	"	"	"
원흥연	"	병장	"
신승훈	"	일병	"
신충섭	경	순경	"
심익분	육	일병	"
고희봉	"	"	"
전상윤	육	하사	"
문규석	"	"	"
서영범	"	상병	"
박기택	경	순경	"
김순근	육	일병	"
이성태	"	중사	"
이창수	"	병장	"
이득수	"	"	"
원현주	"	상병	"
김희준	"	상사	"
이달설	"	준위	"
이종영	"	상사	"
김승남	"	병장	"
최상준	"	유격원	"
송재학	경	대순경	"
김일수	육	중위	"
김용직	해병	병장	"
우태식	육	일병	"
이흥섭	"	하사	개운동
강성철	"	일병	"
윤현구	육	하사	"
김병태	"	중사	"
신동이	"	대위	"
박수만	"	하사	"
강인선	"	상병	"
문춘식	"	일병	"
문춘식	해	상병	"
원진세	육	중사	"
정순택	"	일병	"
김태환	"	이중	"
권영학	육	일병	"
김용출	"	"	"
이규락	"	"	"
이진태	"	상병	"
홍순표	"	일병	"
최규학	"	상병	"
곽명영	"	중사	"

성명	소속	계급	주소
전학준	"	일병	개운동
박공남	공	중위	"
황한석	육	일병	"
신봉균	해	상병	"
김인길	육	하사	"
조일희	"	"	"
박종식	"	중위	"
원문종	"	중사	"
신양수	"	상사	"
장근오	"	"	"
김기병	"	일병	"
한우철	"	"	학성동
박천수	"	"	"
박계운	경	경사	"
최승덕	육	하사	"
김희수	"	상병	"
이순재	"	하사	"
임운학	一	군속	"
이석창	육	중위	"
송기현	"	하사	"
조동철	"	병장	"
이용호	"	중사	"
함중호	"	"	"
장병덕	"	일병	"
박현봉	一	노무	"
권정덕	해	이해	"
이연옥	육	일중	"
양상철	"	하사	"
안순영	"	일병	"
권태현	"	상병	"
천제인	"	일병	"
김재순	"	사병	"
이금옥	"	하사	"
김학출	"	상병	"
하득천	해	"	"
이윤식	육	중위	"
정석정	육	준위	"
신용성	"	중사	"
최상균	"	소령	"
채작현	"	이병	"
김형열	"	병장	"
김진배	"	중사	"
한관석	해	일병	"
김세근	육	상사	"
백순원	"	일병	"

성명	소속	계급	주소
양학원	육	중위	학성동
김남호	경	경위	명륜동
송광설	해	일등	"
이종영	육	일병	"
김수환	"	수병	"
김홍규	"	상병	"
안광은	경	순경	"
장갑성	육	상병	"
최재용	"	일병	"
김태식	"	"	"
박병열	"	"	"
이관희	"	"	"
박기완	"	"	"
이상만	"	상병	"
연옥실	"	일병	"
김종봉	"	일병	"
정대복	"	병장	"
유영석	"	중위	"
이상반	一	내무부원	"
신재학	육	상사	"
나경설	"	병장	"
양승태	"	상사	"
장재한	"	중령	"
김상만	경	순경	"
지경환	육	일병	단계동
공진수	"	병장	"
조병철	"	"	"
김창섭	"	일병	"
고종철	"	상병	"
윤주태	"	중사	"
김수만	"	상사	"
성상락	"	하사	"

以上

3C9名

성명	소속	제급	주소
박광식	경	순경	문막 궁촌
김종열	육	소위	" 전등
김기준	하사	"	"
김용철	해병	동수병장	문막 비두
김용래	육	병장	" 궁촌
안영균	"	일병	" 비두
서성국	"	증사	" 문막
황성익	"	일병	" 반계
이성환	"	증사	" 문막
곽한복	"	병장	" 취병
김종복	"	하사	" 동화
김완기	"	일병	" 문막
나성환	"	상병	" 후용
채홍철	"	병장	" 반계
황우상	"	일병	"
황우열	"	"	"
안필성	"	"	문막 문막
김정순	경	순경	"
김갑순	경	"	"
박종호	육	일병	문막 궁촌
김종철	"	"	" 반계
원의식	"	하사	" 취병
김용철	"	"	" 반계
김산식	육	일병	문막 동화
윤종대	"	하사	" 궁촌
이석준	"	일병	" 동화
심준	—	노무	" 반계
이철윤	"	"	" 동화
원홍상	육	일병	" 궁촌
안울선	"	병장	" 포진
이춘영	"	상병	" 문막
김한홍	"	이병	" 궁촌
조규남	"	일병	" 포진
황보선	"	상병	" 동화
진인철	"	병장	" 문막
김명수	"	이병	" 동화
임승만	"	병장	" 궁촌
정덕수	"	"	" 취병
이광업	"	일병	" 문막
조인철	"	"	" 비두
곽남연	"	병장	" 취병
김필기	육	이병	지정 안창
서재영	"	증사	" 신평
강호필	육	증위	지정 신평
원원규	"	"	" 월송

성명	소속	제급	주소
원영호	육	일병	지정 신평
윤장식	"	"	"
한홍석	노무	고원	" 월송
김영운	육	일병	"
최기출	해병	이수병장	" 간현
원용봉	육	일병	"
김시중	"	대위	" 안창
김상옥	"	병장	"
이희성	"	이병	" 가곡
손영구	"	일병	" 판대
이화섭	"	"	" 지정
원용수	"	"	" 가곡
원종락	"	"	" 간현
정경우	"	"	" 안창
원범식	"	"	" 가곡
정기철	"	격원장	" 월송
이태복	육	대병	" 간현
김경배	"	"	"
서윤광	"	이병	"
원호삼	"	하사	판부서곡
김규찬	"	상병	"
김정학	"	일병	" 금대
이치상	"	상병	" 서곡
김홍규	"	"	" 금대
박명식	"	병장	" 서곡
이병수	"	일병	" 금대
최성오	"	하사	" 서곡
김상길	"	증사	"
양수돈	"	하사	" 금대
김주영	"	"	" 서곡
유재선	"	병장	"
서성만	"	일병	"
김옥남	"	증사	" 금대
강윤석	"	한참	" 서곡
신금복	"	일병	홍업대안
김종근	"	"	"
이제수	"	병장	" 매지
이제수	"	하사	" 홍업
공준영	"	"	" 매지
한만수	경	순경	" 홍업
김종선	육	일병	" 대안
송재권	"	"	" 홍업
황태신	"	하사	" 대안
원영철	"	증사	" 홍업
고석인	"	일병	"

성명	소속	제급	주소
유현준	육	일병	홍업 홍업
박상미	"	하사	" 매지
김창준	"	"	"
황지완	"	일수	" 사제
함창환	육	상사	" 홍업
김종섭	"	일병	"
조영식	"	"	" 대안
조복만	"	상사	" 매지
임옥이	"	상병	" 사제
지봉규	육	하사	귀래운남
김양수	"	병장	" 용암
최근택	"	증위	" 운계
안덕순	"	병장	" 운남
김인식	"	일병	" 운계
진영수	"	일병	"
지양선	육	병장	귀래운암
지두선	"	증사	"
이상수	"	일병	" 용암
김영우	"	"	"
김광호	해병	해병	" 운암
이열희	육	해병	" 운계
신현구	해병	해병	"
한성옥	육	증위	" 운남
윤창근	"	병장	"
김성엽	"	이중	" 용암
라기서	육	일병	신평송계
박규호	"	"	" 성남
김준영	"	상병	" 신평
정현문	"	병장	" 용암
민경명	"	병장	"
장춘복	"	상병	" 송계
김재옥	"	"	" 성남
진철성	"	일병	신평황둔
손용하	"	하사	" 금창
이상은	"	상병	" 황둔
손길수	"	상병	" 송계
손길성	"	이병	"
권영호	"	상병	" 용암
김백용	"	"	" 송계
이상열	해병	동수병장	" 구학
정홍섭	육	일병	" 황둔
한정언	"	일병	" 신평
김현배	"	병장	" 용암
박인득	육	상병	신평용산
김기영	"	병장	"

성명	소속	계급	주소
정윤석	"	병장	" 신림
손명복	해병	중사	" "
오주환	육	"	송계
안상만	"	이중	부른홍호
이명준	"	"	" 법천
지명진	"	일중	" "
전만석	"	상병	" 노림
이상	"	하사	부른단강
임상구	"	"	" 법천
김수준	"	일병	" "
김종영	"	일해	" 홍호
조태진	"	일병	" 법천
양덕용	"	"	" 노림
지홍규	"	하사	" 법천
윤성근	"	"	" 정산
김경태	"	상병	" 노림
이명희	"	일병	" "
김양복	"	하사	" 법천
김관희	"	일병	호저만종
이병기	"	"	" 옥산
김철수	"	"	" 주산
원필규	방	상병	" 만종
진창순	"	병장	" 주산
우종진	"	"	" 옥산
박종우	해	일수병	" 만종
이병국	육	일병	" 주산
이병실	해병	일수병	" 광격
정호원	육	일병	" 만종
이상우	"	"	" 광격
최양우	"	상병	" 주산
지일현	"	"	" 대덕
최태환	"	일병	" "
이재춘	"	"	" 무장
민병우	一	노무	" 만종
조창규	육	이병	" "
김영규	"	병장	" 주산
최동빈	"	하사	" 만종
민병준	미	노무	" "
이종인	군	"	" 무장
여운철	육	병장	" 만종
지재환	"	상사	" 대덕
심효택	"	일병	소초장양
김종성	육	순정	" 학곡
조성훈	육	하사	" 장양
최만영	"	상사	" 수암

성명	소속	계급	주소
권오수	"	일병	" "
정경용	"	하사	" 장양
이동규	"	일병	" 홍암
손수진	"	하사	" 홍양
김의호	"	일병	" 평장
안상춘	"	"	" 장양
신윤선	"	하사	" 수암
김봉호	"	이병	" 평장
윤용호	"	일병	" 의관
신재명	"	하사	" 평장
고종태	"	이병	" "
원치선	"	상병	" 장양
이홍섭	"	일병	" 홍양
박종오	"	"	" 장양
이창호	"	일훈	" 홍양
박승호	"	병장	" 수암
이상운	"	하사	" 평장
김창경	해	일해	" 학곡
신승환	육	일병	" 수암
김장호	육	일병	소초교향
김영수	"	상병	" 평장
방저영	"	병장	" 학곡
김기성	"	"	" "
김수경	"	상사	" "
문태규	"	하사	" 수암
박종순	"	"	" 장양
유철수	"	중사	" "
김남길	"	상병	" "
김남준	해	일해	" "
김학열	육	하사	소초교향
최장해	"	일병	" 의관
한은옥	"	"	" 평장
한상옥	"	"	" "
강규화	해	일해	" "
권병수	육	하사	" 둔둔
권병현	"	"	" "
권태현	"	상병	" 교향
방광석	"	중사	" 수암
최창수	"	상병	" 장양
김홍열	"	상병	" 수암
권희영	해	일수병	" 둔둔
김대희	육	일병	" 의관
강무형	방	국방	" 둔둔
곽순영	一	노무	" 홍양
곽중환	육	병장	" 장양

성명	소속	계급	주소
전형길	육	하사	" 홍양
신무봉	"	군속	" 평장
성낙천	방	대원	" "
정갑만	육	일병	" 장양
정창영	"	상병	" 수암
이태환	"	이병	" 장양
임선재	내	한침원	" 홍양
유장성	무	일병	" 학곡
추태호	육	이병	" 교향
홍경호	"	하사	" 장양
윤창길	"	상사	" 홍양
김진수	"	일병	" 장양

以上

243名

第2章 傳説과 史話

第1節 神과 도깨비 傳説

(1) 仙女 발자욱

호저면 대덕리(好楮面 大德里)에 「배탈밭」이란 곳이 있고, 이 곳에 선녀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높이 5척, 넓이 4척가량의 납작한 것이며, 이 납작바위 옆에는 산으로 연달아 올라간 바위가 서 있는데 이상한 일은 선녀바위의 북편에 다섯치가량 되는 어린아이의 발자욱이 있다. 이것은 꼭 두치가량 쌓인 눈위를 어린 아이가 맨발로 디딘 발자욱과 같이 파여져 있다. 사람이 쪼아 만든 것이 아니고 진흙위에 박힌 발자욱 같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선녀바위 옆에 있는 다섯길가량의 바위에는 사람이 주먹으로 내어 지른듯 주먹자욱이 뚜렷하게 나있는데 이것 역시 어느 명공의 솜씨라고 보기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패여져 있어서 이것을 구경 온 사람들은 옛날에 바위가 물렁물렁 할 때 생긴 자욱이 아닌가 하지만,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는 옛날 선녀들이 선녀바위밑의 옥수에서 목욕을 하다 올라가곤 했는데, 어느 선녀가 무슨 표적이랴도 하나 남겨 놓고 싶어서 왼발을 디며 자국을 남겼다고 한다.

(2) 주산리와 도깨비굴

원성군 호저면 주산리(珠山里)는 글자 그대로 구슬같은 산이 많이 있다 하여 구슬주(珠)자를 써서 주산리라 부르고 있다. 원주시내의 한가운데로 흐르는 봉천내의 물이 이곳 구슬미를 지나 평천동(平川洞) 즉 “피내울”에서 섬강물과 합류하게 된다. 원주시의 남쪽에 우뚝 솟은 백운산은 주봉(主峯)과 그 왼쪽 옆을 가로질러 솟아 있는 치악산의 주봉이 있어서 서쪽에 있는 이 두 산은 원주를 양쪽에서 둘러 싸고 뻗어내려 산의 낙맥은 마치 두줄의 구슬꾸러미를 길게 늘어놓은것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치악산의 낙맥이 힘있게 뻗어내려 봉천을 가로 막으려 하니 백운산의 낙맥은 더욱 힘있게 뻗어내려 치악산의 낙맥을 가로질러 봉천물이 빠져 나갈데가 없게 되자 치악산맥과 백운산맥의 교차 사이로 재빠르게 새어 나가는것 파도 같다. 이 곳을 원주의 수구문(水口門)이라고도 하며, 누구나 이곳에 와서 보게 되면 봉천물이 빠져나가는 곳을 짐작하기 어려울만치 백운산맥이 치악산맥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 돌아서 북쪽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북쪽 태기산맥이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다는 듯 버티고 있어 이번에는 백운산맥과 치악산맥이 합세하여 봉천물과 태기산맥을 내려 미는지라 동북쪽에서 흘러내려온 섬강물이 이 틈을 타고 내려와 봉천물과 합류하여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 지형이 마치 태기산과 백운산, 그리고 치악산이 서로 주먹만 내밀고 맞붙어 싸우지를 못하고 세개의 산이 잔뜩 노력만 보고있는 형국인데 바로 이 곳이 “주산리” 평천동 즉 “피내울”이 된다. 한편 이곳에는 이 부근 일대가 구슬같은 잔봉들이 제일 많아 구슬주(珠)자에 꼬리미(尾)자를 인용하여 구슬미라고도 하고 이 구슬미에는 아주 오래된 밤나무가 서있어 밤만 되면 이 밤나무에서 도깨비들의 장난이 매우 심했었다고 전한다. 그러자 이 동리의 한 사람이 병 들어 눕게 되자 점장이의 말이 밤나무 밑에 떡을 해 놓고 빌면 낫는다 하여 큰 시루에 떡을 해서 나무밑에 놓고 빌다보니 이상하게도 떡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 하더니 얼마 안되어 큰 시루의 떡이 모두 없어져, 나무를 쳐다본즉 떡은 밤나무 가지마다 한뭉치씩 달려 있더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붙여진 이름이 도깨비

끝이라 전해 내려오고 있다.

(3) 담영과 도깨비

담영 이라던 이 인직(李仁植)의 소설(小說) 치악산(雉岳山)에 나오는 단구(丹邱)의 홍 판서(洪判書)를 말한다. 홍 중효(洪重孝)씨는 담영의 할아버지로서 모든 관직(官職)을 버리고 낙향(落鄕)하여 단구에 와서 어린 손자(孫子)들과 같이 향년을 보내고 있을 때 원주감영(原州監營)에서는 전 판판서(前官判書)가 단구에 계시므로 여러가지로 조심을 해야 했었다. 큰 행사(行事)때나 감영에 손님이 오면 삼현육각(三絃六角)을 잡히거나 영내(營內)에서 풍악을 울릴때에 이 풍악(風樂)소리가 단구 홍 판서댁까지 들리게 되니 이 소리를 들은 홍 판서는 「매일 같이 무슨 풍악소리가 저렇게 요란스러우냐? 실로 그 소리를 들으면 나는 송구스럽기만 하구나」 하였다. 당시의 감사가 이 말을 전해 듣고 당시의 감영문루 즉 지금의 선화당이 단구쪽을 향하고 있어 풍악 소리가 바로 들린다는 생각에서 정문(正門)인 감영문루를 현재의 자리 동쪽을 향해 지었다고 한다. 홍 판서 즉 소화선생이 판서가 되기전의 이야기로 손자 의활(義活)의 글을 가르치기 위해 집 앞 수풀에다 정자를 짓고 가르쳤는데 하루는 그의 종형인 순호와 함께 밤늦게 달도 밝고 하여 정자에 나가니 어디선가 도깨비들이 나타나 담영을 향하여 「판서대감께서 밤늦게 어인 일이십니까?」하고 질문 하고는 「이 가마를 타십시오」하며 홍 판서 앞에 가마한채를 내 놓고는 같이 있던 사촌형인 순호에게는 저편으로 피하여 있으라」 전하고 담영만을 태워서 집 대문앞까지 데려다놓고 어때론지 살아져 버렸다고 전한다. 그후 담영은 도깨비의 말과 같이 한 나라의 판서가 되었고 순호는 명천군수를 지내게 되니 도깨비들은 담영이 판서가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

(4) 도깨비 가마를 탄 박진사

단구동 38사단 앞 냇물을 건너 왼쪽으로 올라가면 유만동 또는 유동(柳洞)버들만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다. 일명 버들만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서울 “다락원”에서 박진사라는 분이 이곳으로 이사하여 살고 있었다. 그 분은 평원동에 있는 이진사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으나 그 때만해도 교통수단은 전혀 없었고 이 곳을 지나려면 우거진 숲속의 산길을 걸어야 했고 그 중간에는 영랑소(永郎沼)라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하루는 급한일이 있어 아홉살된 아들을 오후 늦게 보내게 되었다. 그 날은 이진사댁에서 자고 올줄 알았던 아들이 밤 늦게 방으로 뛰어들자 깜짝 놀란 부모들이 어떻게 이 밤중에 혼자왔느냐고 어리둥절하여 사연을 물게되자 아들의 얘기 인즉 해가 질 무렵 이진사 댁을 떠나 밤 늦게야 숲을 지나 영랑소 옆에 다달았을 때 패랭이를 쓴 자들이 나타나서 「박정승 나리께서 웬일이십니까? 저희들이 가마를 대령하였사옵니다」하며 타기를 권하였다. 밤중이라 무섭기도 하였지만 이상히 생각하고 가마에 올랐다. 해를 끼칠줄만 알았던 그들은 박진사 집 대문 앞까지 모셔다 놓고 어때론지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부친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 보았으나 뜰앞에 사인교 하나가 놓여 있을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그 이튿날 다시 본즉 가마는 간 곳이 없고 짙신 한 짚만이 남아있어 필시 도깨비의 작난으로 생각하고 도깨비들이 정승행차라는 말을 남겼다 하여 은근히 기뻐하며 온 힘을 기울여 마침내 진사가 되었다고 한다.

(5) 丁兵使와 도깨비

원주 남쪽 開運洞 원주고등학교를 지나 「구만」으로 들어가는 길 모퉁이의 두자 폭에 너자 높이의 화강암 비석이 있고, 여기에는 金公善政之碑라 새겨져 있는데, 이 뜻은 「좋은 일을 한 도깨비의 비」라 전해져 오고 있다. 그 유래를 보면 「구만리」에 정 태형의 3대조에 정병사가 있었는데, 정병사가 소년시절에 혼자서 공부하거나 지닐때는 도깨비가 나타나 업드려 질하며, 「병

사님 안녕하십니까?」했단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자 칠없는 소년도 아마 내가 커서 병사가 되는가보다 생각하게 되어 청년이된 정병사는 금강산에 들어가 도사에게 도깨비 이야기를 하고 연유를 물은 즉 「병사 벼슬을 꼭 할것이다. 그러나 목사를 먼저 지낸 뒤고 비수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라」고 하여 그는 지녔던 명주 한필을 비수와 바꾸어 가지고는 도사에게 무술을 배웠는데 한 해가 지날무렵, 도사가 하는 말이 「네가 나설 때가 됐으니 잠깐 고향에 들렀다 서울로 가면 출세할 길이 나서네」했다. 이리하여 정병사는 원주에 들어서 저녁길에 막 「구만리」에 들어서는데 키가 장승같은 놈이 「병사님! 이제 오십니까」하고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래서 청년이 「너는 누구냐?」하고 묻자, 「저는 金公이 올시다」라고 한후 일어서서 「안녕히 가십시오」하고 사라졌다. 집에 들렀던 청년은 바로 서울을 향해 갔다. 서울의 조정에서는 제주도 목사를 구하고 있었다. 웬일인지 제주도 목사로 가는 사람은 부임하기가 바쁘게 죽어갔다. 그래서 가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 정청년은 자청하여, 제주목사로 갔다. 탐라국 사람들은 옛부터 육지에서 오는 지배자를 싫어하여 오자마자 목사들을 죽였다. 정목사도 부임 첫날 밤 수명의 괴한들이 물려와 죽이려 했으나 정목사는 항상 품고있던 비수를 꺼내어 대항하여 이겼으며 제주도에서 치적을 쌓은 보람이 있어 병사벼슬을 얻었다. 그후 정병사는 도깨비의 도움이라 하여 「김공 선정 지비」라는 도깨비 비를 세웠다고 전해진다.

(6) 도깨비 소동

도깨비에 대한 옛날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였지만 근래에는 별로 들리지 않는 얘기이다. 헌데 신평면 성남리(城南里)에서 옛날 얘기가 아닌 실제로 도깨비에 관한 말이 나돌고 있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성남리에는 얘기소가 있고 총각이 빠져 죽었다는 총각소 또는 무당이 빠져 죽었다는 무당소가 있는데 이 무당소(巫堂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낭당이 있고 그 옆에 이 광호(李光浩)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이상한 일은 매일 밤을 짓는 술 뚜껑이 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어느날 저녁 그집 부인이 물을 뜨러 나와 술을 들어나 보나 술뚜껑이 술안에 들어가 있어 아무리 꺼내려 애를 써도 빠지지 않자 이상히 생각하고 그의 남편 이 광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과 식구들이 모두 부업으로 나와 보았으나 술뚜껑은 술위에 제대로 놓여져 있었다. 부인은 내가 잘못 본것인가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튿날 아침 조반을 지으러 나와보니 또 술뚜껑이 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놀란 부인이 남편을 데리고 나와보면 술뚜껑은 술 위에 잘 닫혀져 있는 것이다. 정말 해괴한 일이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자 걱정이 되어 5년 전 그 이웃으로 이사하여 온 오 학근(吳學根)씨를 찾아갔다. 오 학근씨는 한학에 조해가 깊으며 주역(周易)을 잘 풀이 한다고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이씨는 이분에게 요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술뚜껑 사건에 대해 얘기를 했다. 이 말을 들은 오 학근씨는 주역책을 펼쳐 놓고 한참 무슨 주문을 외우더니 그것은 도깨비의 장난이니 서낭당의 나무를 베어버리면 그런 일이 없을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이씨는 그길로 도끼를 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 버렸다. 사당나무를 베어 버린지 불과 며칠 되지않은 어느날 저녁 이곳을 지나던 이씨를 잡는 것이 있었다. 장승같이 큰 중년이 길을 가는 이씨를 잡고 「이 광호너 잘 만났나 너는 왜 오 생원을 찾아가 나를 못살게 했느냐?」고 호통을 치며 덤벼드니 이씨는 「네놈이 누구냐?」고 마주 덤벼들어 한참을 싸우다 정신을 가다듬어 생각하기를 이런 골짜기에서 잘 못하다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줄달음을 쳐서 도망을 오는데 뒤에서 신이나 신고 가라는 소리가 또 들린다. 겁에 질린 이서방은 정신없이 집까지 뛰어왔다고 한다. 이튿날 이서방은 어젯밤 일이 꿈인것도 같고 이상하여 자기 몸을 살펴보니 온통 가시덤불에 활킨 자국이요 옷은 다 찢어져 있었다. 그러나 신발 생각이 나서 그곳을 찾아가

보니 신이 가시덤불 위에 걸려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이서방은 그집에 사는 것이 마음에 걸려 아랫 마을로 이사를 가고 오 학근씨도 얼마 안있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다. 헌데 이사를 한 후 아무일도 없었는데 성림국민학교의 소사로 일하고 있는 이 성진(李成珍)이 공문(公文)을 가지고 전불동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막 무당소 옆을 지날 때였다. 죽었다던 오 학근이 난태없이 나타나서 「여보게 이리 좀 오게」하니 이 성진은 오 학근의 부친과는 생전에 친분이 있는 사이였으므로 죽었다는 그가 나타난 것이 이상하면서도 「왜일이십니까?」하고 인사를 하였다. 그랬더니 오씨는 「이리 좀 오게」하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길도 평탄하고 하여 이씨는 무슨 일이 있으랴 싶어 오씨를 따라갔다. 어딘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곳을 한참 정신없이 따라다니던 이씨는 산골짜기를 혼자 헤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집에 돌아와 보니 옷은 모두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온통 가시에 걸쳐졌으며, 온 몸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다음날 간밤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니 죽었다던 오 학근씨를 만났던 일 밖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질 않았다. 이런 일이 있는 후 이 성진의 동생 이 병섭(李炳燮)씨가 뒷마을에 불 일이 있어 갔다가 저녁 늦게 동네 사람들과 같이 오는데 애기소 부근에 다달았을때 이씨는 갑자기 “요놈이 이리 간다” 하며 길이 아닌 덩불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일행이 붙잡았으나 제속 소리를 지르면서 덩불속을 마구 뛰여 다니니 겁이난 일행들은 겨우 이씨를 붙들어 집으로 데리고 온 얼마후 정신을 차린 이씨의 말에 의하면 장승같이 큰 늪이 앞에 나타나 자꾸 놀라기에 그늪을 잡으려고 쫓아 다녔다는 것이다. 이 병섭과 이 성진은 이 광호의 아들이며 이런일이 있는 후 사람들은 필시 도깨비의 장난이라고 말하고 있다.

(7) 盧政丞墓와 金 監司

원주감영 때 원주감사로 부임하게 된 김 탄행은 서울서부터 말을 타고 원주를 향해 오다가 지금의 동화역을 지나 문막으로 향하는 큰 길로 약 「6백미터」 왔을 때였다. 김 감사는 사방의 경색을 구경하다 지금의 「늪은이산」 언덕의 산소를 보고 말을 세우게한 후 가보았더니 산소의 양쪽에는 보기도물 정도의 큰 무관석이 있고 복판에 등석과 넓이 9척에 길이 4척이나 되는 큰 상석이 있었으며, 앞에 있는 비석의 비문에는 「朝敎大夫守廳興都護府使兼勸農兵馬團練副使盧懷愼之墓」라 쓰여져 있고 뒷 쪽은 비바람에 깎이어서 알아볼 수 없었다. 오랫동안 별초를 하지않아 풀이 산소를 가리고 있었으므로 김감사는 동리 사람을 불러 물어보니 옛날 정승을 지낸 노정승의 묘인데 후손이 없어 별초를 하는 사람이 없기때문이라 하므로 그는 낫을 갖다 달라 하여 손수 풀을 깎았다. 그런 후 그날 저녁으로 원주 감영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백 발에 관복차림을 한 분이 김사또 앞에 나타나 별초하여 준 것을 감사하며 은혜는 달리 갚을 길이 없으니 그대가 죽은 후에 살만한 집터를 가르쳐 주겠다며 앉장쳤으므로 따라갔더니 기린산의 풀숲에 함죽선 한자루를 놓고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이상하게 생각한 김사또는 기린산에 가보니 꿈속에서 본 길과 같은 덩불밑에 함죽선이 있었으므로 그는 곧 그 자리를 다듬게 하고 산소 자리로 정하였다. 그후 그는 아무 사고없이 정사를 잘 해나가다 죽었으므로 그의 말대로 지금의 전등산 함죽선이 놓였던 자리에 묻어 주었다 하며 김사또가 풀을 깎아준 산소와 비석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8) 노적바위와 마귀할미

1군 사령부의 뒷쪽문을 지나서 봉천뿔물을 따라 한참 가면 「두집네」라는 부락이 있다. 이 부락은 백여년 전에 박씨 형제가 아래 위에 집을 짓고 단 두집 판이 살았다 하여 「두집네」라 부른 것이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5만분지 1 지도에도 그대로 「두집네」로 나와 있으며, 박씨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여기서 다시 서쪽으로 잠시 가면 「점실」이란 부락이 있는데 옛날에는 큰 부자

집이 있었고 동리도 포실한 편이었다. 부잣집에는 많은 손님이 찾아왔고, 먹고 자는 사람 돈을 돌려 달라는 사람등 별사람들이 다 찾아들어 주인은 은근히 짜증이 났다. 그러던 중 어느날 노승이 시주를 청하러 왔을 때 주인은 손님이 없어지는 방요를 물었다. 그러자 노승은 어렵지 않으나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떠나려 하자 뒤를 쫓아가 방요를 가르쳐 달라고 졸으니 노승이 가로되 「저기 있는 노적바위를 깨내면 찾아 오는 사람이 없을 것이요」하고 사라졌다. 그러자 주인은 손님들로부터 성화를 받는 것보다 나을것이라 생각하고 노적바위를 깨버렸다. 이상한 일은 바위를 깨낸 다음날부터 손님이 그치고 모든 일이 안되며 동리가 점차 쇠퇴하여져 이 일이 있는 후 점점 가산을 실어낸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점실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척동이라는 초가집 10여호가 모여사는 동네에 1百여년 전만 해도 50~60호가 모여살았고 호저면 사무소도 있었다. 그런데 점점 마을이 쇠하여져 면사무소도 구슬미로 옮겨가고 부락은 몇 집만 남았다. 이렇게 되자 마을사람들은 귀신살이 끼어 망해간다고 생각하였다. 마을에는 천년 묵은 느티나무 옆에 길과 논 사이에 돌기둥이 서 있는데 기둥 모양은 위가 뾰족하고 아래가 뭉툰했는데 누구의 입에선인지 이 기둥을 마귀할미의 지팡이라 불려졌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 살이 끼어 망해간다고 생각하던중 마귀할미의 지팡이 때문이라 생각하고 지팡이를 뺀 마을인 중방동 쪽으로 돌려 놓으니 중방동은 점점 쇠해졌고 척동은 흥해지고, 집도 늘더니 호저면 부면장까지 나왔다 하여 마을노인들은 어느 많큼은 이 방요의 효험을 믿고 있다고 한다.

(9) 鳳 殺 尾

원주국민학교 뒤에 있는 山은 鳳이 날개를 펴고 원주를 보는 모양이라 하여 鳳山이라 하고 동네의 이름도 鳳山洞이라 하며 학교 뒷산은 봉산의 꼬리 부분같다고 하여 鳳尾山이라 하였고, 후에 鳳殺尾라 불리워졌는데 그 유래를 보면 옛날 임진왜란때 일본 병정들이 원주에 와서 鳳山の 모양을 보고 鳳의 모양을 했으니 원주에서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날것이라 생각하고 봉의 꼬리에 큰 쇠말뚝을 박아 鳳의 혈을 끊었다. 그후 일본사람이 鳳을 죽였다 하여 鳳殺尾라 불려졌으며, 이 이야기는 해방전 원주국민학교의 김모라는 선생이 뒷산에서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이다. 그때 선생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 대한 잔학성을 말하였으므로 이것이 화근이, 형무소에 되어서 혹사 당하였다고 한다.

(10) 사흥의 옥황상제 승전비

원성군 문막면 비두네미 고개에서 2킬로미터쯤 올라 가면 문막면 경계인 사흥이란 부락이 있다. 이곳에는 높이 5尺 넓이 2尺되는 비석이 있는데 그 비문의 전면을 보면 「병인년하강 옥황상제 칠성제군 승전비 경진 십이월 일립 영풍후인 신석교처 문화유씨봉축(丙寅年下降 玉皇上帝七星諸君 勝戰碑 庚辰 十二月 日立 永豐后入 申錫教 妻 文化柳氏奉祝)」이라고 쓰여져 있으며 비의 후면(後面)에는 「주상천하 성수만세(主上殿下 聖壽萬歲)」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비문 아래에 네개의 주춧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네모꼴의 비각이 세워져 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전설은 영풍후인 신 석교의 처 문화유(文化柳)씨란 여인은 소경 점장이로서 점괘에 옥황상제와 칠성제군이 집혀서 상당히 용하다는 소문이 나돌자 민중전까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민비가 이 여인을 데리고 다니며 주상천하(主上殿下) 즉 고종(高宗)의 성수만세를 기원하였다고 하여 이 비석을 세워 주었는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11) 仙女 바위

板富面 盤谷里 한가터라는 곳에 가면 선녀바위라 부르는 큰 선바위가 있다. 한가터에서 금두산성과 영원산성으로 넘어가는 지라치고개에서 남서쪽에 우뚝 솟아 있는 바위이다. 仙女바위라고 불리우게 된 유래는 지금으로부터 한 5백년전 이곳 한가터에 흠어들어니를 모시고 사는 착한 남매

가 있었는데 집안은 무척이나 가난하여 산나물등으로 연명하여 오다가 하루는 어머니가 이름도 모를 병에 걸려 눕게되니 남매는 약 한첩 써보지 못하며 울고 있을 때 길을 지나던 노승이 남매의 딱한 정경을 보고, 그 어머니의 병을 진맥해 보고나서 하는 말이 33가지의 약초를 구해 다려 먹이면 곧 낫을수 있다 하니 그날로 남매는 깊은 산골에 들어가 약초를 구했으나 32가지 약초는 쉽게 구할 수 있어도 높은 바위 위에서만 자란다는 모연실이란 약초는 찾을 수가 없었다. 남매는 다음 날도 모연실을 찾아 해메던중 높은 벼랑 중간에 모연실이 돌아있는 것을 발견하여 선녀가 동생 길동이의 손을 잡고 벼랑밑으로 무사히 내려가 약초를 캐려고 할 때 자세히 본 즉 그 약초는 모연실이 아니고 그와 비슷하게 생긴 풀이란 것을 알고는 실망하고 낙담한 나머지 선녀는 맥이 풀려 저도 모르게 길동이의 손목을 놓쳐버리니 선녀의 몸은 벼랑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순간 선녀를 붙들려던 길동이기도 중심을 잃고 같이 떨어져 버렸다. 다음 날 나뭇꾼에 의해 발견되어 그의 어머니에게 알려지자 병석에서 기동을 못하던 어머니는 단숨에 벼랑밑으로 달려가 어린 남매의 시체를 붙들고 한없이 통곡하고 있을 때 길동은 별안간 눈을 뜨며 어머니 하고 불렀으니 아마도 길동은 선녀 몸위에 떨어져서 기절을 했다가 다시 소생한 것 같다. 그러나 선녀만은 끝내 숨을 거두어 버렸으므로 그 어머니의 한은 대단하였다. 그래도 자식들의 놀라운 소식에 충격을 받고 일어난 어머니는 그후 계속 건강이 좋았으나 딸 선녀를 못잊어 매일같이 바위에 가서 울고 울며 세월을 보내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어머니가 떠나자 마을사람들은 선녀를 못잊어 하던 바위를 선녀바위라 불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12) 중달애미 바위

地正面 安昌里 德加山 서쪽 용바위 맞은 편인 영경산 밑에 중달애미라 불리는 바위가 사람이 거꾸로 매달린 형상으로 우뚝하게 서있다. 이 바위가 중달애미 바위라고 불리우게 된 연유는 옛날도 아주 먼 옛날 덕가산에 살던 산신령과 사랑에 빠졌던 선녀가 있었는데 이 선녀는 구름을 타고 덕가산에 내려와서는 산신령을 만나기에 앞서 꼭 영경산 바위 밑 맑은 물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야 산신령을 만났는데 이 기미를 안 부근의 짓곳은 도승이 선녀를 놀려주는 재미에 선녀가 목욕을 할때면 도승을 부려 목욕하는 절벽 위에 나막신을 신고 올라가 왔다 갔다하며 선녀의 목욕하는 모습을 훑쳐보고 또 목욕하는 물에 돌맹이를 던지고는 하였다. 이럴때마다 선녀는 분함을 참지 못하고 뽀루뽀루헤지는데 하루는 참다 못하여 도승의 짓곳음을 산신령에게 일러바치니 산신령은 도승을 한번 혼내주라고 선녀에게 일렀다. 그후 또 선녀가 목욕을 하는데 도승이 나타나 훑쳐보니 화가 더욱 난 선녀는 도승을 혼내주리라 생각하여 선녀의 신통력을 부려 도승을 바위 꼭대기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영영 놓아주지를 앓았다. 그래서 선녀의 신통력을 받아 거꾸로 매달린 도승은 끝내 바위에서 떨어지지 못할다가 몇달후에는 나막신을 신은 채 바위로 변하여 버렸다고 하는데 그 후부터 이 바위를 중달애미바위라 하며 원래는 중을 거꾸로 달아맨 바위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하여 지금에는 중달애미바위라 불리우고 있다.

(13) 쉬고개와 솟을귀

原城郡 好楮面 晚鍾里 일대를 쉬고개라 하며 이 고개에는 한 그루의 나무와 나무 둘레를 잔돌로 쌓아올린 곳에 서낭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서낭님은 이 고개에서 쉬지않고 그대로 지나쳐가는 사람에게는 다리힘을 빼고, 손발의 맥을 풀리게 하여 길가에 주저앉게 만들었다 한다. 그래서 이 고개가 쉬고개라 불리게 되었으며 이 고갯마루에서 조금 떨어진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는 약간의 도술을 터득한 심술꾼은 원장사가 살았는데 하루는 말을 타고 고개를 넘을때 말 잔등에 앉아 쉬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으므로 타고가던 말이 앞다리가 부러져 더 갈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화가난 원장사는 집에 와서 기르던 개를 잡아 개가죽을 서낭의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피를 언저리에 뿌렸다. 그날 저녁이 되어 한 여인이 원장사를 찾아와 나무위의 개 가족을 벗기고 피를 씻어 달라고 애원을 했으나 심술궂은 원장사는 끝내 듣지않아 암서낭은 그곳을 떠나고 말았다. 그후 원장사는 만사가 뜻대로 안되었으며 도술을 써서 남의집 음식을 날라먹으며 지내다 관가에서 사실을 알고 잡으러 오는 것을 도술을 써서 알게된 원장사는 도망을 갔다. 그래서 관가에서는 큰 기와집을 헐고 그의 조상의 비석도 깨트려 버렸다고 전해지며 지금 이 고개에는 제 8 전방 영현봉안소가 있고 이곳에서 「꽃아대이」를 가로질은 길위에 元景訥之墓라고 쓴 묘가 있다. 가지런히 선 녀장과 묘중 두번째 있는 산소는 묘가 이상하게 조금씩 자꾸 커져 지금 보아도 보통 산소의 몇배는 큰데 왜정때 이 말이 일본 관현의 귀에 들어가 일본관현들이 산의 헐을 자르고 쇠말뚝을 박았다. 그 후부터 묘는 더 커지지 않았고 이런 말이 있는 후 묘이름을 「숫을 묘」라고 부른다.

第2節 佛敎와 傳説

(1) 공출당한 九龍寺 大鍾

원성군 소초면 학곡리에 있는 구룡사는 지금은 치악산에서 가장 큰 절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나 임진왜란 이후의 모든 사찰(寺刹)들은 큰 곤란에 빠져 있었고 8.15 이후에는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궁지에 이르렀고 더욱이 6.25 사변으로 모든 서적이라든가 재산이 필만한 물건은 모두 분실되었으며 한 때는 공비들의 침투로 폐찰되기까지 하였으나 8.15 전 까지만도 대웅전옆에는 높이 여섯자 가량의 큰 종이 있었다고 한다. 이 종은 영월(寧越) 강림사에 있던 대종(大鍾)이었다고 하는데 강림사가 폐찰되자 그곳에 있던 것을 구룡사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2차 대전때 일본이 연합군에 기울기 시작하자 일본군들은 마침내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총탄을 만들기 위하여 늦게까지 공출하기 시작했다. 이때 구룡사의 대종도 공출대상에 올라 당시의 소초면장이 병각, 학곡리장 조 태봉에 의하여 마차로 원주까지 운반을 했는데 바로 이때 8.15로 해방이 됨으로서 종은 봉산동 어느 고물상에 버려져 있었다고 전해지나 그 후 종은 끝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한편 대웅전(大雄殿)옆에 종을 매달았던 “종틀”도 얼마전까지도 있었던 것을 대웅전 보수공사때 그것마저 없어져 구룡사의 대종은 형체조차 잃고 말았다.

(2) 머누리峰과 龍터지기

원주시 봉산동과 원성군 소초면 홍양리와 의 경계선에 「모래기」라는 마을이 있고 여기서 5백 「미터」가량 더 가면 저수지가 있으며 동쪽에는 머누리봉이 있는데 머누리봉을 가운데 두고 오른쪽 골짜기를 돌아서 5백 「미터」가량 가면 「용터지기」란 곳이 있다. 이곳에는 옛날, 인색하고 욕심 많은 큰부자가 살았는데 어느날, 부자가 외양간을 치고 있을 때 종이 찾아와 시주를 청했다. 목탁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저 일만하고 있던 부자는 무슨 생각을 했든지 쇠스랑에 쇠뿔을 푹 떠들고 종에게 시주할 것이 없고 모처럼 찾아온 것을 그대로 보낼 수 없는 노릇이니 이 쇠뿔도 발에 주면 거름이 되는 것이어서 아까운 물건이긴 하나 가져 가거라 했다. 그러자 종은 공손한 태도로 바깥을 벌리고 쇠뿔을 받아 넣은 후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갔다. 이때, 안방에서 시아버지와 종의 동정을 살피던 머누리는 시아버지 몰래 쌀을 퍼서 치마속에 감추어 가지고 종에게 가서 아버님의 실수이니 너그러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적은 것이오나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자 종은 여인이 주는 쌀을 받아 넣고 말 없이 떠났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사흘째 되는 날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일더니 잠간동안에 개천에 탕수를 내고 천둥을 쳤으므로 부잣집 머누리는 공포에 떨고 있는데 며칠전에 쇠뿔을 받아간 종이 찾아와 다급한 태도로 무작정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산에 데리고 올라갔다. 산 중턱 쯤에 이르자 종은 부처

이 시아버님께 벌을 내리시는 것이니 이제부터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만일에 뒤를 돌아보면 당도 천벌을 입을 것이라 했다. 이 말을 들으며 자기 집을 내려다 보니 집은 물속에 잠겨 있었으므로 그 녀는 빗 속에서 슬프게 울다 중을 따라 다시 봉우리를 향해 올라가는데 이때 굉장히 천둥소리가 울리더니 안개가 쌓인 하늘로 큰 바위덩이 같은것이 치솟고 있었다. 그런 후에 수같이 오던 비와 구름이 걷히며 햇빛이 나왔으므로 봉우리 아래를 살펴보니 벼락이 물속에 갇힌 자기집을 치는 순간 땅속에 묻혀 있던 용이 땅을 터치고 등천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띠었던 배는 「며누리」봉이라 했고 험상궂은 골짜기는 용이 터져나갔다고 하여 「용터지기」라 불리워져 온다.

(3) 거북섬의 미륵불

興業面 梅芝里 무수막이란 곳에 홍업이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그 모양이 꼭 거북모양을 한 동산으로 둘레는 150m 정도로 저수지에 물이 가득차고 바람이 일어 물이 출렁거릴때면 동산이 목을 길게 느리고 앞산을 향해 헤엄치는 거북이와 같다고 해서 동산을 거북섬 또는 龜島라 한다. 이 거북 모양의 동산 가운데 그러니까 거북의 잔등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높이 9척이나 되는 미륵이 서있고 둘레는 소나무와 구름나무가 짝 차있는데 미륵은 화강암으로 절묘하게 조각져 있으나 년대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 미륵이 전하는 내력은 지금으로부터 120여년전 동네가 생기기 전부터 거북동산에 서 있었는데 어느 장마때 때내려가 땅 속에 파묻혔던 것이다. 하루는 이곳에 사는 박 시승이란 사람의 꿈에 미륵이 나타나 「내가 지금 땅속에 파묻혀 햇빛을 못보니 나를 좀 파서 제자리에 옮겨달라」고 현몽하니 이런 꿈이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나타나서 박 시승은 예사꿈이 아님을 알고는 꿈에 미륵이 일러준 곳에 가서 땅을 파보니 과연 미륵이 있는지라 동민들을 총동원하여 미륵을 일으켜 세우기는 하였으나 제 자리에 옮기지는 못하고 일백여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지난 15년전 홍업수리조합이 저수지를 이곳에 만들 때 동네에서는 미륵을 옮기지 않으면 물에 잠긴다고 옮길것을 궁리했으나 너무 크고 무거워 옮기지 못하고 그대로 물에 미륵을 잠겨둔채 저수지를 만들었으나 어떤 일인지 저수지에 물은 고이지 않고 더욱 더 가뭄만 계속되어 이상히 여긴 동네 사람들은 수리조합과 협의하여 거북섬 원위치에 옮기니 그날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저수지에 물이 가득차다는 얘기가 해지며 지금도 이곳에는 많은 낚시꾼과 거북섬 미륵을 보러오는 사람이 많다.

(4) 창대봉과 쥐네미재

소초면 학곡리에 있는 구룡사에서 구룡소를 거쳐 비로봉쪽으로 약 5km 정도 올라가면 창대봉(削垔峰)이라는 봉이 있다. 순 암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치 장수가 창을 찌고 앉아있는 것과 같다고 하여 창대봉이라 부르고 있다. 이 봉의 주위엔 날카롭고 뾰족한 바위들이 창을 여러개 세워놓은 듯이 우뚝 솟아 있어 멀리서 보면 기괴하고 절묘한 풍경울 이루고 있어 가히 장관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또한 바튼쪽에 있는 사다리 병창은 바위 모양이 사다리를 곤두세워 놓은 것 같다고 하여 사다리 병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같이 기이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창대봉에서 치악산의 주봉인 비로봉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서북간에서 뻗어내린 능선과 여기서 남쪽으로 갈라져 내려간 능선, 또 삼봉쪽으로 내려간 능선이 갈림길을 이루고 있는 것과 범골로 넘어가는 “쥐너미고개”가 보인다. 이 고개 넘어에 있는 범골은 약 1,300년전에 범사(凡寺)라는 큰절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이 절의 형태는 볼수가 없고 주춧돌과 범당을 지었던 흔적이 있을 뿐이다. 현재 이 절에 얼마나 많은 쥐가 있었는지 스님들은 쥐의 등살에 건디지 못하고 하나 둘 이 절을 떠나기 시작하던 중 하루는 그 많은 쥐떼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을 이어 범사를 떠나게 되자 그후 부터 이 범사를 찾는 사람이 없어졌고 따라서 절은 폐쇄되고 말았으며

취매가 넘어간 고개라 하여 “취너미고개”라 불려오고 있다.

(5) 賣來面의 미륵불

홍업면 대수리와 귀래면 사이에 해발 6百「미터」의 산이 좌우로 12개의 봉이 있고 그 중봉을 미륵봉이라 하며 미륵봉 상봉에 남향하여 15~16「미터」나 되는 절벽이 깎아지른듯 서있는 벼랑 바위는 윗쪽 넓이가 3「미터」하변이 10미터가량 되는데 이 바위에 미륵상이 조각되어 있다. 미륵불을 보면 안면의 넓이가 1「미터」반쯤 되고 이마에서 턱까지 2「미터」이며 코는 사람의 키를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도 완전히 볼수있는데 상체는 뚜렷하게 새겨져 있고 하체는 금만 그려 놓은채 있다. 이토록 거대한 불상을 6百「미터」의 봉우리 위의 깎아지른듯 올라앉아 있는 벼랑바위에 조각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는 오랜 옛날 바닷물이 미륵봉에 찰랑거릴때 어느 도사가 배를 타고 와서 새기기 시작했는데 하체는 물이 찢어 금만 그어놓고 팔았다는 전설이 있고 몇백년전에 황산사라는 절이 한창 흥할 때 주지스님이 새긴것 같으며 방법은 3「미터」사이를 두고 나무말뚝을 박도록 조아놓은 구멍이 있는데 이곳에 단단한 켜기를 박고 양쪽에 동아줄을 매고 굵은 나무토막을 가로매어 어리때 처럼 발디딤을 만들어 새긴것 같다. 또 이 미륵상이 영험하여 미륵불의 코를 만지면 소원성취하며, 자손없는 사람이 자손을 얻는다는 말이 전해진다. 몇해전 귀래면 유현부락에 사는 한 부인이 자손이 없어 미륵불의 코를 만지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그 후 이상하게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전에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대의 기술로도 새기기 힘든 거대한 미륵불을 새긴 옛 사람의 정신이 높이 평가된다.

(6) 비두리와 구포동

원성군 문막면에 “비두네미”라는 부락이 있다. 이 이름을 갖게된 연유는 이 부락의 앞 뒤 산에 화강암이 많고 화강암 중에서도 질이 좋은 돌들이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석(床石) 또는 비석(碑石)등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었다. 지금의 부론면 정산리 거둔사에 있는 현묘탑비(顯廟塔碑)의 비신(碑身)과 좌대(坐臺)를 완성해 놓았지만 비갓을 조각할만한 돌이 없어 여러 곳을 찾던 중 이곳 “비두네미”에서 좋은 돌을 찾아 그날부터 조각을 시작하여 완성은 해 놓았으나 이를 운반할 만한 힘이 없어 고민하던 중 어느날 비두가 있는 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농부 집에 중이 찾아와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내일 백의 소를 하루만 빌려주시겠습니까?」하고 부탁하자 농부는 중이 소를 빌려달라는 것은 이상히 여겼지만 「예, 스님이 쓰신다면 빌려드려 줍니다」하고 허락하자 중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이튿날 이상하게도 소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땀을 흘리며 외양간에서 아픔에 고통을 참는 듯 힘을 쓰고 있었다. 농부는 어제 중에게 소를 빌려주기로 한 약속을 생각하고 중이 찾아올까 걱정스러워 소에게 여물을 풀어 주기도 하고 잡아 끌어도 보았으나 소는 꿈쩍도 않고 힘을 쓰고 있는 것이었다. 저녁때가 되자 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이 태연히 여물을 먹고 있지 않는가. 이를 본 주인이 이상히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중이 찾아왔다. 「오늘 소를 빌려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홀연히 돌아갔다고 한다. 그 일이 있은 후 깎아 놓고 운반을 못했던 비두가 없어지고 동네 뒤의 산골짜기에 비두를 끌고간 흔적이 있고 큰 길이 생기어 그 후 부터 이 길을 비두네미골이라 부르게 되었으나 변하여 비두너미로 되었다가 지금은 비두리라 부르고 있다.

이 비두동에서 동쪽으로 구포동이라는 마을이 있다. 옛부터 아홉집 이상은 살수가 없고 그 이상이 살게 되면 한집은 꼭 망한다고 하여 구포동이란 이름이 붙여졌으나 세월이 지난 지금은 아홉집을 넘었으나 별 탈이 없이 잘 살고 있다 한다.

(7) 두멍폭포와 청금사 절터

간현팔경의 하나인 문연동천(文淵洞天)은 택당 이 직(李直)선생이 남긴 것으로 이 문연동천에서

서쪽으로 약 2km가량 산을 오르면 높이 약 30여척 넓이 45척 되는 폭포가 있다.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물이 마르는 예가 없으며 물이 떨어지는 밑엔 큰 너트석바위가 물살에 의해 깊은 웅덩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두멍폭포이다. 이 웅덩이가 옛날엔 어찌나 깊었는지 명주 꾸러 하나를 다 풀어 넣어도 끝이 닿지 않을 만큼 깊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자 위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암석 부스러기나 돌에 의해 많이 깎여지고 메꾸어져 지금은 불과 서너길밖에 되지 않는 석함(石函)이 되었다고 한다. 이 폭포에 특이성은 물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 하여 역수 또는 서출동류수(西出東流水)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서 동북쪽으로 가면 청금산(淸金山)이란 산이 있다. 옛날에 청금사(淸金寺)라는 절이 있었고 이 절에서는 항상 거문고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다고 하여 그 후부터 거문고 소리를 듣는 산이라 하여 “청금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第3節 戰爭과 忠義의 傳説

(1) 元愼將軍과 烈女 沈氏

原城郡 地正面 茂長里 間茂谷에는 원주태생으로 황해도 병마절도사로 있다가 임진왜란 때 장렬하게 전사한 원장군과 그의 부인인 열녀 심씨 그리고 그 가족과 말이 묻힌 여섯개의 묘가 있고 비석에는 「절충장군수황해도병마절도사 원공지묘」라 쓰여있고 열녀 심씨의 열녀각 현판도 보판되어 있는데, 그 유래는 원장군이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있다가 황해도로 부임하게 되었으므로 부인은 아들과 남아 집을 지키게 되었는데, 왜군들이 들어와 귀찮게 하므로 집 근처에 있는 새밭골 다래덤불 밑에서 숨어 살았다. 어느날, 왜병에게 발견된 심씨부인은 그 자리에서 욕을 보았다. 왜병이 돌아간 후 부인은 남편이 왜군과 싸우고 있는데 욕을 보았으므로 그 길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여우봉을 지나 마당바위 옆에 있는 도롱소에서 빠져 죽었다. 이때 원장군은 황해도에서 소실인 조씨부인과 있었는데, 부인의 부음을 듣자, 자신은 싸움때문에 떠나지 못하므로 조씨부인과 그의 몸에서 난 세아들을 부인이 살던 곳으로 보냈다. 조씨부인은 이곳에 와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남편이 타던 말이 혼자서 땀을 흘리며 뛰어 왔으므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나 말은 소리내어 울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이에 괴이하게 느낀 큰 아들 해량이 말 잔등에 올라타니 말은 쏜살같이 달려 황해도 지방의 어느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쓰러진 원장군의 시신앞에 섰다. 해량은 시신을 신고 다시 말을 타자 말은 또 쏜살같이 무장리로 돌아와 시신과 해량을 내려놓자 그만 앞발을 꺾고 쓸어져 죽고 말았다. 그래서 원장군과 함께 죽은 말도 원장군 묘 앞에 장사를 지내주었으며 그 옆에는 죽은 심씨부인과 애기등이 있으며, 얼마 후 조씨부인도 별세하므로 심씨부인의 묘 뒤에다 산소를 정하고 해량이 죽자 10「미터」 떨어진 곳에 묻어 여섯개의 분묘가 한곳에 있게 되었다. 그후 나라에서 원장군에게 절충장군, 부인 靑松 심씨에게는 열녀 정문을 내려 후곡마을 입구에 열녀비각을 세웠는데 1968년 여름 장마때 비각이 쓰러지고 열녀비각의 현판도 떠내려가는 것을 후손들이 전져다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

(2) 無名將軍祭

富論面 魯林里에 있는 무명장군의 묘소는 산소에 있는 비석에 어장군지묘라는 비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전몰한 전원의 부장중의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옛날 이 곳까지 쳐내려 왔다가 강감찬 장군에게 죽은 굴안(契丹)의 장수라고도 전해지는데, 유파 한 경원이 정사에서 물러나 이곳에 와서 한가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꿈속에서 천병 만마를 거느린 장수가 나타나 옆드려 절하면서, 「대감댁 뒤에 묻혀 있는 저승 사람으로 현주 한잔을 부어달

라」고 하며 두번이나 나타나 간청하였다. 이에 유파는 집 뒤를 찾아보니 고분이 있었으므로 동리 사람들에게 꿈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해서 동리 전체가 제사를 지내기로 했으며, 자신이 제주가 되어 동짓달 초사흘날 제사를 지냈다. 그후 이것이 마을의 연중행사가 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면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위로로 논 두마지기를 세워놓고 면비에서 3원씩 제삿돈을 대어왔다고 한다. 현몽의 전설로 무명장군이라는 것 밖에 모르며 제사를 지내온 옛날 사람들의 인심이 얼마나 후한지를 알수가 있다.

(3) 피 내 울

원주 평천동에 태기산의 산맥이 북으로 부터 와서 이곳에 떨어졌고, 백운산 산맥은 남으로부터, 치악산맥은 동쪽으로부터 와서 한 곳에 떨어졌으며 세개의 산줄기가 이곳에 맞대고 있는 사이를 섬강과 봉천물이 합쳐 흘렀고 강변은 백사장이며 떨어진 난맥은기암 절벽을 이루고 있어 이 광경을 보고 「세줄기 산이 이곳에 떨어지니 靑天外요, 두줄기 물이 한 곳에 합쳤으니 白驚州라」고 노래한 구절도 있는 아름다운 이곳을 피내울이라 부르며 그 유래는 임진왜란때 삼수군수를 지낸 李仁敏과 아우 李善敏형제분이 이곳 동태산 서남간에 있는 후봉산 밑에 부친을 모시고 피난와서 지내고 있었다. 하루는 강 건너의 피내울 왼쪽 벼랑위로 왜병 3명이 말을 타고 나타났다. 왜병들은 피난민이 숨어 살고 있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것을 본 아우 선민은 그냥 보낼 수가 없어, 형의 판류에도 3명쯤이야 라고 생각하고 활을 쏘았다. 본시 활 솜씨가 좋았으므로 정통으로 맞은 3명의 왜병은 말에서 떨어졌는데 뒤에 오던 대부대는 척후병의 시체를 발견하고 우리 군사가 숨은 줄 알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자 이것이 화가 되어 인근에 숨어 있던 피난민들을 모두 때려 죽였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섬강물이 피로 빨갛게 물들었다 한다. 그후에 이곳을 「피내울」이라 불렀으며, 왜병이 말에서 굴러 떨어진 곳을 「말굴」이라 불러오고 있다.

(4) 은안장 백이

원주 영원산성에 왜적이 쳐들어 왔을 때 원주목사 김 제갑은 심복장수 박 종남에게 병졸을 나누어 가뭇패재를 지키게 하였으며, 이 영은 험한 곳이어서 말 두필이 같이 지나지 못하니 좁은 목을 지키면 될 것이라 명령받은 박 장군은 척후를 보내 적정을 정찰케 했다. 척후병은 적이 아직 멀리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이 말을 듣고 안심한 박 종남은 더위를 못이겨, 우선 말잔등의 은안장을 내리고 갑옷을 고른 그는 시원한 물에 땀을 씻고 있었다. 이때 등 뒷쪽으로 기어들어와 숨어있던 왜병들이 드리닥쳐서 박 종남은 알몸으로 도망쳐 본진에 왔다. 그리고 그때 말잔등에서 내려놓은 은으로 장식한 은안장은 누구도 가져오지 못했고 왜병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세월이 감에 따라 그 자리에 묻혀버렸고 이곳은 은안장이 묻혔다 해서 「안장백이」 또는 「은안장백이」라 불렀고 이것이 지명으로 되었으며 좀 이상한 것은 은안장이 묻힌 다음 부터는 근처에 풀과 나무가 살아나지 못하였다는 말이 전해지며 지금도 무슨 까닭인지 근처에 풀과 나무가 없다.

(5) 처 내 울

관부면 금대리 일륜동에 가던 처내울이란 동리가 있다. 임진난때 김 제갑 원주목사가 이곳을 지키며 왜병과 대적하던 곳이라 하는데 왜병의 승승장구 승리함을 이 곳에서 굴복시켰다니 그 희생자 수는 헤아리기조차 어떻게 많았을 것이고 얼마나 처절했을 것인가. 이때 적병의 피가 흘러 냇물을 이루었고 골짜기 마다 쌓인 적병의 시체가 너무도 많아 치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데 이후 왜병이 피흘린 자리라 하여 흘른이라고도 하고 시체를 많이 치낸 개울이라고 해서 처내울이라고도 했는데 지금까지 내려오는 地名으로는 처내울이라 부른다.

(6) 토적 이 인거와 들언지 바위

원성군 소초면 평장리와 교항리의 경계가 되는 “탑고개” 마고선녀(麻姑仙女)의 두상이 있는 이 고개의 뒤 산정(山頂)에는 “들언지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다. 길이는 약 15척이 되고 넓이가 10여척 되는 너른반석(盤石) 위에 돌의 돌레가 장정의 아름으로 서너아름 되는 샷샷 모양을 하고 있어 멀리서 보면 흔들릴 것 같이 보이는 이 바위는 옛날 마고선녀가 여기에서 놀다가 깨금을 깨어 먹기 위해 올려놓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또한 수암리 조양동(朝陽洞)에는 영월신씨(寧越辛氏)댁 내의 사당(祠堂)이 있는데 이 사당에는 영월신씨의 18대손인 응운(應運)씨 영평군(寧平君)과 그의 아들 두 부자를 모시고 있다. 이 두 부자는 영동 지방과 횡성 지방의 토적(土賊)이었던 이 인거(李仁居)일당이 천계칠년(天啓七) 즉 서기 1627년에 군사를 일으켜 이 인거는 자칭 중흥대장(中興大將)이라 칭하고 서울을 침공할 계획을 할때 이 사실을 알게된 두 부자는 울분을 참지 못하여 나라를 해치려는 이 인거 일당과 대치하여 이 인거 일당이 일으키려던 난을 평정시키니 이것을 알게된 나라에서는 이를 높이 찬양하여 소무공신(昭武功臣)으로 봉하였다고 한다.

(9) 沙堤月의 受難

원성군 흥업면 사제리는 달이 비치면 모래언덕이나 은빛넷물에 비친 달빛이 아름다운 동라의 나무와 언덕에 배어들어 시정을 돋우어 준다 하여 이곳 사람들은 「사제울」이라 불렀는데 한문으로는 沙堤月이 되며, 이곳은 임진난때 왜병들이 쳐 들어와 추수한 곡식을 모조리 빼앗고 반항하면 죽였다. 공포에 떨던 마을사람들은 백운산 용수막에 들어가 숨어 살았는데, 겨울이 되어 식량이 떨어졌으므로 굶어죽을 지경이된 농민들은 식량을 훔치려고 왜진숙으로 염탐군을 보냈다. 왜병들이 파수병도 없이 자고있는 사실을 안 농민들은 다음날 밤 눈이 오고 있는것도 돌볼 겨를조차 없이 왜진숙에 숨어들어 10월의 말에다 많은 식량을 싣고 돌아와 굶주림에 지친배를 채우려고 아침을 지어먹고 있을 때 식량이 없어진 것을 안 왜병들은 눈위의 뚜렷한 발자국을 보고 찾아내어 숨어 있던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여 아름다운 사제울에 한을 남기게 했다.

(7) 평 장 리(平庄里)

원성군 소초면 구룡사에 이르는 국도의 11km 되는 곳의 평장리는 그 이름을 갖기까지 임진왜란때의 명장인 신 립(申臬)장군과 깊은 유래를 가지고 있다. 임진왜란때 신 립장군이 탑고개에서 왜장 가등청정의 대군을 맹공격하여 적을 물리치고 이곳에 천태산(天台山) 마고선녀의 화상을 돌로 깎아 바위 위에 만들어놓고, 그 옆에 5층 석탑을 만들어 세우고 탑에서 약 20m쯤 되는 맞은편 산의 큰 바위벽에는 두 장수의 화상을 조각하여 이 화상으로 왜적을 방어하게 했고 이 난을 평정하였다 하여 이곳 지명(地名)을 平定이라 부르던 것이 점차 변하여 平庄洞이라 부르게 됐고 지금도 원주에서 구룡사에 이르는 도로변에 마고선녀의 두상과 산 모퉁이에 있는 두 장수의 화상이 그 당시의 흔적을 되살려 주고 있다.

(9) 三 光 村

삼광부락은 원주 「쌍다리」에서 1키로 가량 가면 안팎 동리의 집을 모두 합해서 7집호 가량되는 洞으로 옛날 이곳에는 그의 거동이 유별나고 무엇을 하는지 조차 알 수 없으리 만치 성질이 괴팍한 박 필남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내려와 사방을 두루 살피드니 지금의 「삼광」서 「너른내」로 가는 턱 밑에 기와집을 짓고 주위의 땅을 모조리 사들여 집터로 삼아서 「삼광」서 나오다가 봉천내 옆, 「오 완식」댁 부근에 있는 큰 沼가 그 때는 박씨네 담안에 있어서 박씨가 가끔 연못의 바위 위에서 낚시질을 할 정도로 넓은 집에다 2층으로 담을 치고는 큰 창고를 3개나 지었다고 하는데 창고에는 각각 무기, 식량, 금, 은, 보화를 쌓아두어 박 필남의 집을 「세광

집」으로 불리었는데 하루는 무슨 곡절에서인지는 알수 없으나 조정에서 박 필남을 잡으라는 영이 내려 강원감영에서 군사들이 나와 찾았으나 벌써 그는 자취를 감추어버린 후여서 집에 불을 지르고 담을 허뜨르니 2층으로 된 담 사이의 통로에 숨어있다가 기어나와 체포되었다고 하는데 이유인즉 박 필남은 나라를 뒤집어 엎는 역적 모의에 쓰려고 후미진 곳에다 큰 집을 지었다고 하며 그가 불들려 간 후 집터는 다시 밭으로 변했으나 이름만은 아직도 「세광택」 혹은 「세광마을」로 불리우다가 누가 한문으로 음역을 했는지 「三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第4節 天文과 風水의 傳說

(1) 月計圖(實話)

지금으로부터 5백 20여년 전 수양대군의 조카벌 되는 단종을 왕위에서 몰아내어/상왕(上王)이라는 허수아비로 만들어 농자 사육신(死六臣)이 복위를 꾀하다가 주륙당한지 얼마 후의 일이다. 조정은 처형당한 사육신의 일가 친척까지 찾아서 멸살하고 다시 평시에 죽은 여섯명의 충신들과 친분이 있던 사람까지 찾아서 죽였으므로, 얼마전까지 포천(抱川) 현감으로 있던 권 침은 스승인 관란 원호선생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관란선생을 찾아가 피신할 것을 종용하여 같이 원주방면으로 오다가 지금의 소초면 둔둔리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다시 포천으로 숨어 들어가 가족들을 데리고 온 후 천문(天文)에 밝았던 권 침은 관란선생과 힘을 합쳐 40여년 동안의 연구끝에 월계도(月計圖)와 망월대(望月臺)를 만들었는데 둔둔골의 지세를 보면 부락 한복판에 있는 망월대의 남북간에 덕고산 능선의 높고 작은 봉우리들이 웅기충기 솟아있고 다시 덕고산 주봉에서 5백「미터」 남쪽으로 「성재」가 있으며 이 곳에서 5백「미터」 남쪽에 범든바위골, 다시 5백「미터」를 더 가면 「독바위골」 여기서 다시 5백「미터」 나가면 「짚신봉」이 있다. 덕고산 주봉에서 「짚신봉」까지가 2「키로」가량 되고 망월대는 2「키로」의 능선이 남북으로 뻗은 서쪽 중간에 있는 셈인데 월계도는 이와 같은 지형을 폭 60「미터」 길이 40「미터」의 간지에 남북으로 그려놓고 이것을 다시 60갑자로 구분한 것이다. 즉, 권 침과 관란 두분이 40년간 실험한 바 음 정월 대보름 달이 갑자 지간으로 솟으면 롱이 잘 되고 을축 지간에 뜨면 가물고 병신 지간에 뜨면 장마가 지고 등등을 권 침선생의 해박한 천문지식과 40여년 간의 실험과 연구를 토대로 적어 놓은것이며, 이것은 잘 맞아 왔다 하며 지금도 대보름이 되면 달 뜨기 전에 망월대에 설계도를 펴놓고 덕고산 주봉에서 짚신산까지 마주 보다가 달이 돌아 오르며 반짝하는 첫달의 금을 간지에 맞추어 보는 것이며 1969년의 월계도는 롱이 흉년이 되고 곡식이 여물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맞았다 하며, 월계도를 올려놓는 곳을 망월대라 하여 넓직한 화강암이 동쪽으로 향해 놓여져 있고, 권 침은 월계도 외에도 천문에 대한 수십권의 책을 남겨놓고 작고하였는데, 그 후손이 대보름날 월계도를 들고 달맞이 나간 사이에 집이 불이나서 모두 태웠다 하며 월계도는 6.25때 없어졌다고 하는데 몇해전 16대손인 권 남홍이 흥업면 사제리에 사는 원계선이 월계도를 복사하여 간 것을 알고 찾아왔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도 연간의 이 사실과 물가추세를 알아 맞춘다고 하여 둔둔마을은 두 선비가 도망해 온 곳이라 해서 도망할 둔자 둔촌이라 하던 것이 다시 도망할 둔자와 거할 둔자를 합쳐서 둔둔마을이라 부르다가 나중에는 「둔둔골」로 변하여 지금은 소초면 둔둔리로 불려오고 있다.

(2) 예계암과 六月飛霜

둔둔부락 서남간 맞은 편에 예계암(禮溪岩)이라는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예도 예(禮) 시내 계(溪)자를 써서 예계암이라 부르며 이 바위가 꼭 방갈이 넓고 평편하여 놀기에 적당한 명소로 둔재선생과 관란선생은 저녁때면 이 바위에 나와 앉아 천기(天氣)도 보고 시흥(詩興)을 즐겼

다고 한다. 그런데 하루는 천기를 보니 6月인데도 꼭 서리가 내릴것만 같은지라 둔재선생은 매우 걱정을 하며 “6月 비상이라 이상도 하지”하고는 안절부절하며 이궁리 저궁리 하다가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선생의 논으로 가서 물골을 터놓고 논에다 물을 가득 대어 모가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해 놓고 들어와 자리에 누웠다. 예상대로 그날밤 서리가 내려 모든 농작물이 모두 얼어죽고 모 한포기 남지 않아 그 해는 말할 수 없는 흉년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려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둔재선생이 밤사이에 물을 가득히 대어 놓았던 논은 논두렁까지 물이 넘쳐 모가 물속에 깊숙히 잠겼기때문에 다행히도 6月 비상의 피해를 완전히 모면할 수 있었다. 이 논에서 자란 벼로 이듬해 벼씨 종자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후 부터는 가장 좋은 일을 한 논이라고 하여 윗 상(上)자 맑은 청(淸)자를 써서 상청논(上淸田)이라 불렀으며 지금까지도 이 논을 소중히 여기며 상청논이라 부르고 있다.

(3) 金垆里의 今時發福

原州 南쪽 30리 지경 板富面에 金垆里라는 마을이 있는데 경관도 좋거니와 原州市內에서 가까이 유원지로도 이용되는 곳인데 명당에 아버지의 시신을 묻는 순간 今時에 發福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 대감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머슴살이를 하던 늙은이가 있었는데 어느해 그만 돌림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아들은 죽은 아버지가 한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로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는데 편안히 쉬시도록 땅이나 깊숙이 파서 모시겠다는 생각에 이곳 금대리에 터를 잡고 땅을 깊숙이 파 시신을 모시려는 순간 시신을 잘못하여 놓치게 되니 시신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엎어져 박혀 바로 잡으려고 해도 파놓은 곳이 너무 깊어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다가 그냥 묻어버리고 내려오는 모습을 한곳에 숨어 지켜보는 중이 있었다. 이 중은 이곳을 지나다 이곳에 금시발복할 천하 명당이 근방에 있는것을 알고 살펴보면중 한 총각이 시체를 베고 나타나는 지라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 천하명당 자리에 시신을 모실 땐 바로 하지말고 엎어드려 시신을 모셔야지 바로하면 금시에 虎患이 생겨 호랑이에게 물려죽을 것이고 엎어드려서 모시면 금시 발복하는 자리라 중은 걱정도 되어 그 총각 하는것을 보니 이곳 저곳을 살펴다 명당자리에 시체를 내려놓고는 깊게 파더니 시신을 엎어드려 모시고 묻으니 총각이 모든것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다 묻고나서는 제사도 지내지 않고 내려오니 중은 총각을 불러 왜 장사를 지냈으면 밥이라도 지어놓고 절을 하고 가는 법인데 그대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나무라니 총각은 그말이 옳은 말이나 머슴살이 주체에 어떻게 하겠는가 하니 중은 더욱꾸짖어 동네에 내려가 집을 찾아서라도 쌀과 솥을 구해다가 산소에 밥을 떠놓고 절을 하여야한다 하거늘 총각은 그길로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아 들어가니 어여쁜 색씨가 나오는지라 사정 얘기를 하고 쌀과 솥을 빌려줄 것을 간청하니 색씨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손수 밥을 지어 총각과 같이 산소에 와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는 말이 날은 저물고 하였으니 우리집에 가서 하루 쉬었다 가라 하는지라 제사팀은 색씨의 집으로 내려와 쉬고 있을 때, 은근한 태도로 총각에게 접근한 색씨가 하는 말은 우리집이 부자중에서도 큰 부자였는데 얼마전 돌림병으로 식구들이 모두 죽고 혼자 남게되니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는 여자 혼자 살기 어려우니 같이 살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광경을 보고 옆에서 듣고 있던 중은 무릎을 치며 금시발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였고 금시발복한 총각은 색씨와 같이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한다. 그런데 이 집 재산이 얼마나 많았던지 금덩어리만 담은 금항아리 세개를 땅속에 묻어 놓고 지냈는데 지금도 어느 근처인지는 모르나 금항아리가 묻혀있다 하며 금이 묻혀있던 집의 터라하여 오늘까지 금대리라는 지명으로 불리우게 되었다.

(4) 진박골과 원터골

所草面 長陽 2리에 진박골이란 동네가 있다. 옛날 이 곳의 농토는 황무지뿐 쓸만한 전답이 별로 없어 마을 사람들의 거의가 하루 세끼밥을 하루 두끼의 죽으로 밖에 먹을 수가 없게 되니 누구의 입에서인지 죽 밖에 못 먹는 동리라고 하는데서 죽박골이란 地名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후 왜정시대에 와서 적동과 죽박골에 소류지가 장만되니 황무지는 개간되고 개간된 땅에서는 농사 또한 잘되어 집집마다 하루 두끼의 죽대신 세끼의 쌀밥을 지어먹게 되니 죽박에 못먹던 동네에서 진짜 쌀밥을 세끼씩 먹게되고 보니 地名도 자연 진박골로 바뀌게 되었다. 그후 진박골이 와전되어 지금은 진박골로 불려지고 있으며, 이곳 진박골에서 북쪽으로 가면 원터골이란 동네가 있으며 원대라고도 부르는 이 동네는 옛날 원(院) 즉 여관이 있던 터라 하여 원터로 불리운다.

(5) 台庄洞과 윗판바위

원주시 태장동 파출소 뒷산은 옛날 공주보기가 소원인 임금이 딸을 보았으므로 크게 기뻐한 임금은 공주의 태를 돌로 쪼아 만든 태실에 넣어서 이곳에 묻었다 하여 태봉이라 부르며 동명도 태장동이 되었고, 지금 그곳에는 왕녀복탄태실이란 비석이 서 있다.

태장동 5, 6, 7반이 있는 곳을 「둔목리」라 했는데 이곳이 강릉, 원주간의 역말이어서 강릉서 높은 벼슬하는 사람이 오면 원주의 관인이 이곳까지 마중나갔고, 또 전송했다. 이때마다 역말에 있던 말의 수효가 늘었다 줄었다 해서 加馬只라 했고 나중에는 가매기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물줄기를 따라 1키로 가량 올라가면 「윗판바위」라는 곳이 있고 이곳은 원주에 강원감영이 있을 때 원주사는 전직판서와 현직판서등 여섯 사람이 송림에서 놀다가 맵방석 같이 넓적한 바위가 있어 윗놀이를 즐겼다 하여 이바위를 윗판바위라 했고 나중에는 고장의 이름으로 변했다.

(6) 쇠세바위와 朴氏夫人

所草面 興陽里 살여울에 李致芳이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돈벌이에 힘을 썼으므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아들 증욱에게는 열심히 공부를 시키려고 경치좋은 동리 산간을 골라 공부방을 지었는데 이 부자집과의 거리는 시오리는 실했으므로 사이애다 설령줄을 매어 놓고 일이 있을때 잡아 흔들어 하인을 부르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찾아오는 많은 손님들을 경치 좋고 시원한 공부방으로 글 잘하는 아들자랑도 할겸 모셨으므로, 술상 올릴라, 잔심부름 들라 등으로 하인들이 발이 붓도록 산길을 오르내렸고 부엌에서 일하는 아낙네들의 고생이 딸이 아니었다. 이때 여주에서는 박씨 문중에서 시집을 온 박씨부인은 시중에 지쳐 하인들과 의논한 끝에 용하다는 도사를 모셔다 손님 안오게 하는 방요를 물으니 도사의 설명이 살여울 부락에서 1백「미터」앞에 있는 등산에 수백년 묵은 느티나무밑 그늘진 곳에 넓적한 바위가 있는데 그 모양은 헛바닥을 내린 소 입처럼 생겼으며, 동네 모양이 소가 누워있는 臥牛形인데 그 바위가 소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에서 헛바닥을 내밀고 있는 형국이고, 「쇠세바위」라고도 하는데 이 바위를 깨내고 등산 위에 있는 일산바위라는 등근돌을 이 위에 깔려내려 놓으면 손님이 그치리라 했으므로 박씨부인은 여러명의 석수를 모아 쇠세바위를 끊기 시작했으나, 이상하게 끊으면 마주 붙곤 하여 생각끝에 석수의 수를 늘려 바위를 깨고 사이에 큰 돌로 켜기를 박았더니 찢린 헛바닥 부분에서 피가 흘러 그 밑에 있던 沼를 시뵈절게 물드렸다 하며 그때 깔려 쓰러졌던 일산바위는 열사람이 밀어도 끄덕도 않고 흔들거려 일명 「흔들바위」라고 부르며 지금도 박씨부인이 잘랐다는 헛바닥 형국의 쇠세바위에는 정으로 바위를 잘라낸것 같은 흔적이 남아 있다.

(7) 지음곡(知音谷)의 유래

원성군 호저면 고산리에 있는 지음곡은 격동(格洞) 또는 점굴이라고도 하며 먼 옛날에는 큰 솔밭이 있고 으스스한 곳이라서 사람은 별로 왕래가 없었다고 한다. 얼마후 초계정씨(鄭氏) 가문에서 좋은 묘자리를 찾기 위하여 이곳에 왔으나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려는 차에 길 옆의 큰 나무 위에서 까마귀가 짓고 있었다. 까마귀의 거동을 수상히 여겨 음성을 간파한 결과 「이 곳에 좋은 묘자리가 있는데 왜 그냥 가려느냐」하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들은 정씨들은 다시 골짜기로 들어가 살펴 본즉 정말 좋은 묘자리가 있어 이곳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후 이곳에는 우연히 초계정씨들만 살게 되더라는 것이다. 마을로 들어가는 어귀에는 나즈막한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옆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위에서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듣고 묘자리를 찾을수 있었다고 하여 바위에 “지음곡”이라 새긴 글자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

(8) 솔무정과 개구리봉

반곡동 한가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냇물 건너에 동쪽 치악산으로 부터 구불구불 흘러내린 한줄기의 산맥이 그 너머에 있는 “오리골”과 “뱅이뜰” 서쪽 사이로 뻗어 내려다가 “오리골”과 “뱅이뜰”이 갈리는 지점에서 끊어졌다. 이 앞에는 “개구리봉”이라 부르는 조그만 동산이 있고 “오리골”과 “뱅이뜰” 사이로 뻗어내린 나즈막하고 좁은듯한 능선이 마치 큰 구렁이가 구불거리며 그 앞의 개구리봉을 향해 입을 벌리고 쫓아가는 형국이라 하여 이곳을 “솔무정”이라고 한다. 이 솔무정 남쪽은 양지바르고 아늑하여 살기좋은 곳이긴 하나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살기만 하면 얼마 안되어 곧 망해버리곤 하는데, 그 유래인즉 구렁이가 개구리를 삼켜 넘기는 형체라 재산을 모을수가 없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 전해지고 있다.

(9) 백운산과 천하명당

백운산(百雲山)은 치악산의 서쪽, 원주시내에서 남쪽에 위치하며 동쪽은 신림(神林)의 가리 패재를 경계로 치악산과 연결되어 있는 산이다. 한편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계가 이곳에 있고 또한 원성군, 제천군, 증원군의 경계이기도 한 이 백운산은 흰백(白) 구름운(雲)자를 써서 이름만 들어도 산의 높이가 짐작되려 만큼 “구름이 있는 산”이라고 불리되며 산의 높이도 1083미터의 높은 지대이다. 이 백운산의 정상에는 옛부터 둘레가 1키로미터나 되며 항상 물이 가득히 고여있는 못이 있고, 주위에 또 하나의 적은 연못이 있다. 이 못을 못재라 부르며 또 이 산은 고기를 쌓아놓은것 같이 산이 겹쳐있다 하여 육산(肉山) 또는 겹산이라고도 부른다. 연못·주위에는 풍수학적으로 옛부터 중국 팔백년전 천자(天子)가 창생(長生)할 명당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이 명당을 찾아 천(千)여미터의 높은 산정(山頂)까지 시체를 끌어지고 와서 묘를 쓰고 했는데 대부분이 처음은 고장에서 매장(埋葬)하였다가 낙골이 된 후에 명당지(明堂之地)를 찾아 이장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10) 베를형국의 북바위와 짝바위

소초면 둔둔리 수구막에서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북바위가 있다. 이름의 내용인즉 베를에 달린 제구로서 날실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풀어주는 북처럼 바위속은 비어있고 그속에는 하얀 차돌이 하나 박혀있어 북 속의 꾸리를 연상시키므로 북바위라 부르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짝바위가 있는데, 바위 이름도 이상하지만 생긴 모습도 괴이하다. 베를위에 앉아 베를 짜는 여인의 하체와 같고 그 위 언덕에는 배꼽바위가 있고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 양쪽으로 두개의 둥근 바위를 유방바위 그 위의 것을 턱바위 그 너머에 있는것은 쪽바위 또는 비녀바위라 부르는데 이 여러가지 바위를 한가지로 연결지어 볼 때 사람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이하고 흥미로운 일이다.

(11) 進士洞

好楮面 高山里에는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골짜기가 있는데 이곳에 進士洞이란 부락이 있어 鄭氏 三兄弟가 살았다 한다. 어느날 뜻하지 않게 부친상을 당하자 어디선지 地官이 찾아와 뒷산 산소터를 잡아주면서 이곳이 왕지혈이고 천하대지인데 지척이 조금 앞이나 산소를 고대로 쓰면 후손들이 큰 벼슬을 하게 될것이며 산소를 파게 되면 한자가웃 밖에 더 못팔것이니 그대로 하관하고 봉분은 만 흙으로 쓰라 하니 정씨 삼형제는 지관이 일러준대로 산소를 정하고 묘자리를 뒀으나 불과 자가웃도 못되어 암석이 나오는지라 이런곳을 어떻게 산소로 쓰겠는가 고 '의론이 분분하다가 그래도 지관이 잡아준 터라 힘이 들더라도 조금 더 파고 묻자 한즉 바위를 깨고 있는중 뽕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속에서 왕벌 한마리가 나오더니 공중으로 날아 올랐다. 이래서 상제들은 더 바위를 깨지 못하고 그대로 장사를 지내고 돌아왔는데 그때 공중으로 솟아오른 왕벌은 온살같이 산소를 잡아준 지관을 쫓아가니 지관은 당황하여 지나가던 용기 장수의 동이 하나를 집어 머리에 썼으나 왕벌은 동이를 그대로 들이받아 동이는 깨지고 지관은 통통부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한편 이곳에 산소를 쓰고 장사를 지낸 정씨 삼형제 중 두 사람은 이곳을 떠났고 한 사람은 남아 살았으나 하는일이 모두 형통하더니 마침내 진사벼슬까지 올랐고 그때 지관의 딸대로 더 파지 않고 산소를 썼더라면 더 큰 벼슬을 하였을 것이라는 얘기가 전해지며 進士난 동네라 하여 進士洞이 되었다고 한다.

(12) 하삼터

백운산 밑 興業面 興業里에서 서쪽으로 가다보면 大安里라는 곳이 있다. 옛날 이곳에는 글 잘하고 시문을 좋아하며 널리 벼슬 사귄줄 아는 해삼이란 큰 부자가 살았다. 매일같이 친구가 찾아오는 것을 더없이 기뻐하게 되니 실재없이 술상을 차리게 되고 저녁을 짓게 되었었는데 해삼이로서는 더없이 좋으나 그 아내는 하루도 실날이 없고 짜증만 늘어나게 되었을 때 집을 찾아와 시주를 하라는 중에게 시주는 얼마든지 할터이니 제발 찾아오는 손님좀 없게 해달라고 조르는지라 중은 난색을 하며 저 언덕을 끊어버리면 손님이 오지않을 것이라 일으니 해삼의 아내는 그날로 일꾼을 시켜 언덕을 끊어냈으나 끊긴 언덕에서는 뽕진피가 솟구쳐 오르는지라 해삼의 아내도 마음이 섬찟했으나 주인에게는 알리지를 않았다. 그 다음날 부터 어찌된 일인지 손님이 딱 끝이고 그렇게 분주하던 집안이 조용하게 되니 해삼의 아내는 좋아라 했으나 얼마 못가 집안이 망하게 되고 채 1년도 못가 가산이 완전히 기울어지니 그제서야 해삼의 아내는 후회하며 울고불고 하나 할수없는 일. 죄책감에 사로잡혀 나날을 보내다가 결국은 집앞 큰 연못에 빠져죽고 말았다. 그 후로 해삼이가 살다 망한 곳이라 해서 해삼터로 불렀는데 와전되어 현재는 하삼터라 불려지고 있다.

第5節 官과 有關한 傳說

(1) 靑白吏 李璽와 良峴

4百 50년 전 仁宗 때 이조판서를 지낸 李璽가 관직을 떠나 여생을 보내고저 서울서 원주방면으로 오다 간현의 맑은 섬 강릉과 병풍같이 둘러 앉백, 기름진 땅을 보고 이곳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그는 한산이씨이고 호는 「성화」라 했으며 이조판서로 있을 때 많은 선정을 베풀었고 청백하기로 소문이 나서 육조당상관들이 청백리로 천거하였고 속담에 청백리 살림은 지게꾼 살림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청빈하였다. 성화선생이 이곳에 살게 된 뒤부터 조정의 재상들이 많이 들렸는데, 이응은 항상 갯가에서 밭일을 하여,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응을 몰라보고 「여기 이조판서로 계시던 간옹택이 어디요」하고 묻는 수가 있었다. 응은 그럴때면 「이조판서는 알겠

으나 간옹은 모르오」하고 능청을 떨었다. 「간옹이란 이조판서를 지내던 이 회선생이 간계에서 여생을 보낸다고 간옹이라고들 하는데 모르시는지요」 이렇게 되면 웃으며 「내가 그럼 간옹이군」했다. 조정의 재상으로 지내신 신분이로, 밭에서 김을 매시다니 이거 황송합니다 고들 하면, 「사람은 일을 해야 쓰는 법이고, 여생을 보내려 여기 왔으니 일을 해야 몸과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나, 모처럼 나를 찾아왔으니 우리집에 가 찬없는 점심이나 먹고 가게」 하여, 초가집으로 데려가서 콩보리밥에 된장찌개를 나누곤 했단다. 그중 토정비결로 유명한 土亭선생이 자주 찾아 왔고, 그들은 한번 만나면 며칠을 강변을 거닐며 경치 좋은 「병암」바위에 앉아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지금 병풍 세 쪽을 둘러친 것처럼 서 있는 병암에 새겨진 「屏岩」이란 글씨가 간옹의 글씨라 전해지고 있으며, 그후 토정전생도 이곳에 와 살았다 하며, 여생을 흠에 묻혀 지내던 성화선생의 산소는 지금의 능골에 있으며 「능골」이라 불리게 된 것은 이 고장 사람들이 선생의 산소를 「릉」으로 존대하여 불렀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라 전해 온다.

(2) 還穀과 南 相甲의 最後

약 백여년 전 이조(李朝) 국가재정의 3大 요소로서 전정(田政)과 군정(軍政) 그리고 환곡(還穀) 정책이 있었는데 그 중 환곡정책이란 당시 농촌경제의 후생정책의 하나로서 사창(社倉)에 저장해 둔 곡물을 춘궁기에 농민들의 지원에 따라 저리로 꾸어 주었다가 추수기에 받아 들이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초창기에는 농촌의 농민들을 위하는 좋은 방법으로 행하여졌으나 당시의 사회 환경이 점차로 문란해 지자 그때 부터는 오히려 농민에게 막대한 해를 끼치게 되었다. 이로 인한 농민들의 반발은 날로 높아가고 환곡의 난을 유발시키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원성군 지정면 안창리 창말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내용인즉 이곳 창말에 환곡을 취급하는 사창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막과 지정면의 사람들은 환자(還子)를 타기 위해서 창말로 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여기서 환곡을 취급하는 하급관리로 부터 부정이 생겨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사건의 시초는 원주 감영에 이방(吏房)의 직책을 온고 남 상갑(南相甲)이라는 사람이 부임해 왔다. 이 사람이 부임한 후부터 환곡체제가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농민들이 빌려가는 쌀에는 모래를 많이 섞어 나누어주고 그들이 거두어 들일때는 쌀에 누하나 없는 좋은 쌀이 아니면 받아 들이지 않고 그 다음해에 때로 부가시켜 건우는등 무지한 농민들의 눈을 속여가며 부당한 짓을 하여 말할수 없는 횡포를 일삼으니 이에 분개한 농민들은 이(李)모라는 청년을 선두로 결국은 난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남 상갑의 뻔뻔스런 태도는 잘못을 뉘우칠줄 모르고 자기 죽을 생각은 염두에도 두지 않은채 기승을 부리며 사창이 있는 곳까지 나왔다가 극도로 흥분하여 노도같이 밀려오던 농민들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찌 이런 사람에게 원노(怨怒)한 농민들이 인정을 베풀려 있겠는가 미리 준비한 장작더미가 쌓아지고 그 위에 결박지어진 남 상갑이 올려지게 되니 소문을 듣고 쫓아온 민감사도 처음엔 그들의 힘을 저지시키려 애를 썼으나 전혀 통하지 않고 잘못하다가는 감사의 목숨마저 위태로움을 면치 못할성 실어 이방을 살려내지 못하고 안타깝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최후의 몸부림을 치며 남 상갑은 온갖 애를 썼으나 불이 타오르는 장작더미 위에서 착하고 양순하기만 한 농민들을 골탕먹이고 괴롭힌 죄의 불심판을 받고 말았다. 그 후 민감사도 이 사건과 관련되어 봉직 삭탈당하고 말았다는 큰 참사가 일어났던 곳이다.

(3) 현감 관설과 황효자

관설(觀雪) 이 후(李厚)는 현감에서 부터 높은 벼슬을 하였고 시조와 글 쓰기를 즐겨하신 문인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원주출생 황 무진은 나라에 충성하고 모친에게 지극한 효도를 하여 임금님도 감탄했고 호랑이마져 감탄하여 황효자라 불리운 황 무진이지만 벼슬은 보잘것 없는 아전

(衡前)으로 관설파는 비교할 바가 아니었으나 두분은 자주 만나 시사(時事)도 토론하고 시도 읊는 친한 사이였다. 언제나 무진선생이 관설택을 찾아가면 문전에서 「이리오너라!」하고 호통을 쳤고 관설선생은 그 소리를 알아차리고 하인이 나가기 전에 뛰어나와 맞아들이고 돌아갈 때에는 문밖까지 전송을 하는데 이것을 보는 집안 식구들은 일개 아전인 무진선생에게 그토록 극진한 대접이 무슨 필요냐고 불평이 많았다고 한다. 하루는 관설선생의 아들이 「아버님 집안의 지체를 생각하셔서라도 지나친 대우는 고려하심이 좋을가 하옵니다」하고 아뢰자 관설선생은 「과연 너의 말도 옳긴 하다만 그 사람만 오면 나도 모르게 버선발로 뛰어나가게 되니 어떤 일인지 모르겠구나」 하시며 「오늘도 온다고 했으니 내가 피해서 어테를 좀 다녀 울터이니 배가 있다가 내대신 그분을 맞아 보아라」하고 나가신 뒤 사랑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문전에서 무진선생의 호통소리가 들려왔다. 아들도 얼떨결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아 들이고 돌아갈 때는 문밖까지 전송하였다.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아들에게 묻자 아들은 지난 일을 상세히 말씀 드렸다. 「나 역시 너처럼 매번 당하는구나」하였다고 한다. 과연 벼슬이 높았던 관설선생도 효자는 우러러보였던 모양이다.

(4) 옥거리(獄街里)와 社稷洞

“옥거리”는 지금 원주시내 원일로(原一路)에서 중앙로로 가는 중간지점을 말한다. 옥거리라 부르게 된 연유는 원주관가에서 다스리는 죄인을 가두어 두는 “옥”이 이곳에 있었다 하여 “옥거리”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또한 “사직”이란 중국의 옛말로 국가적인 큰 제사를 말하며 옛날 주왕국과 후국의 토지 및 제후의 조상을 모신 종묘와 함께 그 나라의 도읍(都邑) 좌, 우에 있었으며 진한시대 이후에는 각 왕조(王朝)의 수도에도 사직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었는데 “사”는 토지의 정령이고 “직”은 곡식의 신으로 각 고을마다 사직당을 두고 고을의 원이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원주에도 지금의 소방서부근에 사직당이 있었다 하여 사직골이라 불렀었다.

(5) 목재(默齋)선생과 누문(樓門)

지금의 원주역을 “유문”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문”은 본래 “누문”(樓門)이었는데 이것이 와전(訛傳)되어 유문으로 된 것이다. 이 “유문”에서 남쪽으로 조금 가면 추두 즉 “갓머리”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의 천주교 주교관 자리이다. 이 갓머리 북편에는 동산이 하나 있고 이 동산위에 무덤이 둘 있는데 위의 묘소가 목재선생 신 명규(申命圭)를 모신 묘소이다. 평산 신씨(平山申氏) 신 명규는 1618년 광해군 10년에 태어나서 1688년 숙종 14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이조 문신(文臣)의 한 사람으로 자를 원서(元瑞) 또는 군서(君瑞)라 하였고 호는 목재(默齋) 적안(適安)이며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부사(府使) 상(尙)의 아드님으로 1662년 현종 때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사간(司諫) 부수찬(副修撰) 집의(執義)를 역임했으나 영릉(寧陵)을 옮길 때 석역(石役)의 감독이 태만했다는 죄목으로 강진(康津)에 유배되었다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 돌아가신 후에 “이조판서”로 추공(追贈)되었으며 진도(珍島) 봉암사(鳳巖祠)에 제향(祭享)하고 원주 학생동 갓머리에 안치(安置)한 묘소가 있다. 당초 신작로의 계획이 이곳으로 돼 있었으나 평산 신씨들이 반대하여 지금의 역전으로 길을 만들고 이곳이 원주의 관문이라 하여 그때부터 누문이라 부르게 되었다.

(6) 공산(公山)과 은휴와선생

공산(公山)은 소초면 교항리(橋項里)에서 북쪽으로 2km가량 산길로 올라가면 하늘아래 첫 등네라고 할만큼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 있다. 언제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지도 알 수 없으나 지금은 평산신씨(平山申氏)와 추씨(秋氏)들이 대부분으로 약 40여호가 살고 있다. 높

은 고원의 마을인지라 밖에서 보면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사람이 살고 있을것 같지 않으나 그 마을에 들어서 보면 경지가 많은 넓은 동리이다. 덕고산(德高山) 앞에 있는 “공산”은 팔공산(八公山)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덕고산은 어디에서 보나 “公”자 처럼 보이는 산으로 산봉(山峯)을 중간에 두고 사방으로 여덟개의 골짜기가 있으며 골짜기마다 논과 밭이 있어 궁하지. 얹게 살 수 있다고 하며 골짜기의 이름을 물어보면 “당골” “새끼” “절개” “이현” “큰고개” “작은고개” “안고개” 그리고 공산부락으로 일명 부자마을로도 알려져 있다. 덕고산의 큰 바위에는 삼희정이라고 새겨진 정자가 있었던 흔적이 있고 여덟 골짜기 중의 한군데인 “절개”에는 옛날 도선이 라는 중이 사헌사라는 절을 창건한 후부터 이 “공산”이 알려졌는데 그때 이곳을 “삼희정”이라고 했으며 도선도사가 이 곳을 떠날 때에 이 정자에서 잠시 쉬면서 바위 위에 삼희정이라 새겨놓은 것이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있다. 한편 그 옆에는 “노장바위”가 있는데 늙은 중이 장삼을 입고 앉은 모양과 같다하여 노장바위라 부르며 또한 이곳에는 은휴와선생의 묘가 있다. 은휴와선생은 1598년 즉 선조 31년에서 1662년 현종 3년까지의 문신으로 자(字)는 효은(孝恩)이고, 호(號)가 은휴와이다. 벼슬이 대사성에 올랐던 신 민일의 아들 상이라고 하는 분으로 광해군때에 벼슬을 단념했으나 인조반정 후 1629년 인조 7년에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636년 정원이 되고, 병자호란(丙子胡亂)때는 세자와 비빈(妃嬪)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난 하였으나 이듬해에 척화(斥和)로 면직당하게 되자 원주로 하향하여 머물면서 독서로 일과를 소일하고 있던 중에 도선도사를 만나 공산의 사헌사를 많이 찾았는데 그후 다시 기용되어 고산도찰방에 올랐고 1657년 효종 8년에 필선이 되었고 1660년 장려에서 종성부사에 승진했으나 1662년 관찰사(觀察使)와의 반목으로 파면되어 원주로 낙향중에 명천(淸川)에서 병으로 작고하셨다고 한다. 이분은 시문에 능하였고 글씨에 뛰어났으며 후에 찬성에 추증되어 시호를 충정(忠貞)으로 받았다. 나라에서는 그가 중도에서 죽게 되자 상여로 시체를 운구하여 장사를 지냈으며 명천에서 원주까지 오는 동안 어명(御命)으로 곳곳에서 상무군만 바꾸어 왔으나 소사 7리는 쉽게 찾을 수가 없었고 며칠후 공산을 찾기 위하여 지금의 교항리 다리목에 상여를 놓고 도선도사를 만나 나흘 만에야 겨우 찾았다고 한다. 사실상 “공산”이란 마을이 생긴것은 충정공의 묘소를 이곳에 모신후 부터이고 지금은 이 마을에 추씨 문중의 사당이 있으며 이 곳의 역사는 오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7) 음무현의 유래

원주에서 서쪽으로 2킬로미터 지점에 우무개라는 지명을 가진 조그마한 부락이 있다. 지금은 원주시 우산동 정남향에 위치하고 있는 매우 평화스럽고 아담하며 짜임새있게 보이는 이 부락은 왜정초 조선총독부가 있을 당시 각 지방마다 도로를 확장해서 신작로가 처음 생길때엔 지금의 원주 역전에서 만종(萬鐘)으로 나가는 도로가 생겼지만 그전에는 서울서 원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 우무개부락 앞으로 나있는 고개길이었다. 지금은 이 길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옛날에는 길도 험하고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간신히 나귀나 가마를 타고 다닐 수 밖에없는 양반들의 행차길이 바로 이곳이었다. 다른 지방에서 원주로 부임해 오는 관찰사나 목사, 고을 원님 등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들을 영접하러 나올때나 또는 다른 임지로 부임해 떠나는 관리들을 배웅할 때는 이 곳까지 나와서 예를 차렸다고 한다. 미리 역졸들이 말을 타고 그 행차할 길을 알리기 위하여 군데 군데 역마에 연락을 하고 부임지에서는 새로 오실 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놓고 도임(到任)하는 날은 삼현육각(三絃六角)을 갖추고 있다가 신임 사또가 당도하면 그곳에서부터 삼현육각을 울리면서 들어오고 이임하는 사또나 원님들이 떠나갈 때에도 그 지정된 곳까지 삼현육각을 울리면서 전송하는데 원주에서 이 우무개가 바로 그 지점이었다고 한다. 우무

개의 뜻은 소리 음(音)자에 춤출 무(舞)자를 써서 음무현(音舞峴)이라고도 한다. 즉 소리내고 춤추는 고개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 이 음무현이 변하여 편의상 지금은 우무개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8) 자은동과 장구산의 웅덩이

원성군 호저면에 있는 자은동(自隱洞) 부락은 잔골이라 하던 것을 윤 감사(尹監司)가 초도순시를 왔을때 잔골이라는 이름은 듣기에 좋지 못하다 하여 “자은동”으로 고쳤다고 한다. 이 자은동에서 봉천내를 건너 서쪽의 큰 길로 한참을 내려가면 바쁜편 쪽에 “장구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소가 봉천쪽을 향해 물을 마시고 있는 형태로 산 밑에 소의 구유모양을 한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어 그 밖으로 제방을 쌓아 웅덩이를 배우고 논을 만들었으나 그해 장마때 전과 같은 길다란 구유모양의 웅덩이가 파여져 다시 논을 개간하기 위해 또 배웠으나 그해 장마때 또 구유모양으로 파여지더라는 것이다. 길이는 약 50미터 정도 되고 넓이가 약 십미터 내지 십오미터되는 이 웅덩이에 지금은 물고기가 많이 서식해 있어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다.

(9) 옥 바 위

地正面 安昌里 서북쪽으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덕가산 끝이 되는데 이곳에 옥바위라는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벼랑으로 된 큰 바위가 있다. 이 바위가 옥바위로 불리우니 연유는 옛날 이 근방에 선비 한사람이 원주감영에 있는 군수를 개인적인 일로 하여 크게 원망하고 옥을 실컷 해주고 싶으나 일개 백면서생의 자기 처지로서는 군수를 맞대놓고 옥을 할 수는 없는 일로 혼자 직성을 풀지 못하고 전전공궁하던 중 어느날 원주군수가 서울로 영전이 되어 올라가게 된다는 소문을 듣고 선비는 골몰하게 생각한 끝에 누구도 뛰어올라 올 수가 없는 지금의 옥바위에 올라가 지나가는 군수에게 실컷 옥을 퍼붓기로 작정하였다. 작정한 날 선비는 준비했던 사다리를 타고 절벽을 기어오른 다음 사다리를 거두어 놓고 군수 일행의 행차를 기다리게 되었다. 마침 군수일행이 당도하니 선비는 군수에게 참아 입에 담지도 못할 옥을 마구하니 군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절벽위에서 자기에게 마구 옥을 하는 선비를 잡아오라 하나 깎아지른 듯한 벼랑을 올라갈 수는 없는 일. 별수 없이 알지도 못하는 선비에게 생육을 바가지로 얻어 먹고 지나갔는데 그후로 사람들은 이 바위를 옥바위라 불렀고 지금도 옥바위라 부른다.

· (10) 너르네와 화시네

원주 봉산동 삼광(三光)서 영랑동(永浪洞)으로 건너는 곳을 「너르네」 혹은 광천(廣川)이라 했는데 이 너르네에 홍 하동이란 부자가 있었다. 큰 부자여서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았는데, 마을사람들은 하동골서 살다 왔다 하여 홍 하동이라고 불렀으며 홍부자집은 외딴 곳이어서 밤마다 도적울 당했고, 도둑의 성화에 겁먹은 홍부자는 도둑을 높혀서 밤 손님이라 했고 나중에는 도둑이 들면 꾸짖하게 대접까지 해서 보냈다. 이러한동안 홍부자는 망했으므로 떠나갔고, 그 뒤에 조 태식이란 분이 와서 살았는데 이 집은 풍천서 왔다고 하여 「풍천택」 또는 「조풍천택」이라 했는데 풍천택은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산동일대와 너르네 일대를 모조리 사들였다 하며 6.25사변때의 목적으로 유명했던 큰 집도 없어지고 원주의 3개 집터 중의 하나였던 것이 지금은 채마밭이 되어 버렸다. 여기서 북쪽으로 약 1「키로」가면 화시네 또는 화천(花川)이 되는데 옛날 이조 3대제의 임금(太宗)이 그의 스승 운곡선생을 찾아 왔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태종이 이 곳에 이르렀을 때, 기러기가 서쪽으로 날아가고 있으므로 마음 한 구석이 차지 못해 쓸쓸해 보였던 태종이 호반에게 기러기를 쏘아 떨어뜨리라 했다. 호종하던 호반이 즉석에서 활을 당겨 쏘아 기러기는 맞아 땅에 떨어졌으므로 태종은 기뻐하며 기러기 떨어진 부근 일대의 땅을 호반에게 내렸다 하는데 그후부터 이 곳을 궁위전 혹은 「활시네」 화선천(花仙川)이라

했고 지금은 화시베라 부르고 있다.

(11) 장자터와 장자수

원장사(元壯士)가 선앙과 싸우고 난 후 부터는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매사가 어긋남에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별로 하는 일이 없게 되자 친한 몇몇을 초대하고는 남의집 음식을 도술로 훔쳐먹을 수 있는 자랑을 하고 실지로 그렇게 하였다. 그는 그 장난도 시를 해지자 찾아오는 이도 적어지고 또 도술을 부려 기이한 짓만 하고나면 이것이 화가 되어 일반인에게는 물론 관가에까지 좋지못한 소문이 들어가게 되니 걱정만이 싸여갈뿐이었다. 결국 관가에서 잡아들이라는 영이 내려자 집안에 있는 보물 일부는 자기집 우물에 던져넣고 일부는 몸소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후 관가에서는 역적으로 몰아 잡으려 했으나 그의 행방조차 알수 없게 되자 그의 집 전체를 불살라 버렸는데 이 집이 얼마나 컸었는지 지금까지도 그 집터의 주춧돌이 남아있으며 안채와 바깥 행랑채의 자리도 그대로 남아 있다. 한편 이 장자집에 우물이 있었는데 무척 깊고 맑으며 시원해서 이 물을 장자수라 부르고 있다.

(12) 능마울과 의현궁

원정군 귀래면에 있는 용바위와 곡수를 거쳐 십여리쯤 가노라면 미륵산 북쪽으로 “능말”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 골짜기를 “황골”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넘에 있는 황산사라는 절의 이름에서 따온것이 아닌가 한다. 이 황골에는 능(陵)이 하나도 없으면서 “능말”이라 불리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전설에서 유래된다. 옛날 김해김씨 김 훈배씨 11대조에 김 예식(金禮植)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은 이조 문신(文臣)의 한 사람으로 자를 문백(文伯) 호를 의훈이라고 했다. 이 분은 또한 청정 벼슬을 지낸 김 회철(金希哲)이라는 분의 아들로서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의 남동생이기도 했다. 1592년 선조 25년 즉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분은 포의로서 왕을 의주(義州)까지 모셔 호송했다고 한다. 그 후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용천(龍川) 군수를 지냈고 1610년 광해군 2년 첨지중추부사가 되었으며 1616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탐학한 일이 잦다고 하여 삭탈 되었다가 그 후 다시 포도대장이 되었지만 1618년 결국 모욕죄로 관직을 삭탈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역대 임금중 폭군으로 후세까지 알려진 광해군은 성질이 포악하여 타치는대로 가두고 죽였으니 영창대군의 모친 인목대비를 서궁에 감금하고 식음을 끊어 죽게하라는 명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몸소 포도대장의 몸으로서 서궁 담넘어로 쌀자루를 넘겨준 일이 발각되고 또한 이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12차례나 상소를 올려도 광해군이 잘못을 거두지 않으므로 마침내 「이런 그릇된 일을 행하면서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랄겠느냐?」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데서 기인 되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포도대장 김 예식을 당장 잡아 죽이라」는 명이 내려졌으나 그래도 광해군 자신의 외숙이라는 관계로 겨우 관직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그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은 후 1623년 인조반정으로 인조(仁祖)가 등극하게 되자 김 예식의 처벌을 여러번 논하게 되었으나 광해군 때의 그런 일로 수차 삭제된 일이 있으므로 그 무고함이 밝혀져 오�히려 포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다시 관직에 몸담아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어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인조께서는 「아까운 사람을 잃었다」고 하여 친히 풍수사를 시켜 현재의 귀래면 용암리 황곡동에서 장사를 지내게 하고 그의 신도비와 사방석(四方石)까지 쓰도록 석물(石物) 모두를 강화도에서 만들어 오게 하여 인조대왕께서 친히 그곳까지 행차하셔서 석물을 차례로 세우도록 했다고 한다. 그 신도비는 보통 돌로 세운 것이 아니고 용운석이라는 희귀한 돌이라 하는데 여기에서 그의 시호를 의현이라 하였다 한다. 그 후부터 이곳을 능말이라 부르게 되었고 인조 임금이 몸소 오셔서 묘를 만들게 하고 또 사방석까지 쓰게 했다 하여 이 부근을 “능”이라고 부르나 지금은 “능암리” 또는 “능말”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13) 부론과 흥원창

부론(富論)은 원성군내에서 가장 많은 전설과 고적 또는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갖고 있는 고장이다. 이 고장은 국보나 보물도 있지만 설화도 많은 곳이라 글자 그대로 다른곳에 비해서 전설만이라도 부(富)한 곳이다. 옛날부터 이곳에는 흥원창이라는 조창(漕倉)이 있어 원주, 원성군은 물론 영월, 평창, 횡성 등지의 세곡이나 지세(地稅)를 서울에 있는 지주들에게 올려 보낼 때에는 모두 흥호리에 모여 배를 이용했었다 한다. 부론면의 면적은 80km²에 달하고 이 면관내(面管内)를 한바퀴 돌아면 35km로 10개리에 34개의 부락이 있고 34개의 부락을 부락마다 14개의 반으로 나누어 행정을 하고 있다.

(14) 쌍불소동

지금으로부터 약 30여년 전 원주는 거의 매일같이 불이 났다. 한 곳에 불이 나면 다음 날은 그 맞은편 집에 꼭 불이 났고 이것을 쌍불 또는 맞불 소동이라고도 하여 원주는 민심이 떠들썩했었다. 당시 경찰서장인 「우시지마」는 치안 책임자로 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시민들과 부하들이 입을 모아 세상엔 귀신이란 것도 없지 않으니 한번 점을 쳐보라고 권하는 말에 서장은 원주에서 제일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남몰래 점을 쳤다. 무당의 말이 「남산 신사당 부근에 원통하게 죽은 처녀의 시체가 있기 때문이니 거두어서 제사를 지내 원혼을 풀어주라」고 했다. 이말을 들은 경찰서장은 경찰을 시켜 신사당 부근을 뒤지게 했고 얼마 안되어 신사당 뒷벽 밑에서 죽은지 3,4개월 된 20세 가량의 여자시체를 찾아내어 이장하고 무당을 시켜 굿도 해 주었다. 그런 후에 시체의 신원과 가해자를 찾았으나 사건은 미궁에 빠져 해결을 보지 못했고, 이상하게 그후로는 불소동은 잠잠하여 졌다. 그래서인지 원주에서는 화재를 맞불 또는 쌍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남산신사라 하면 지금의 수도국 저수지가 있는 곳이 된다.

(15) 강 감찬장군과 부적

원주 감영으로 쓰고 있는 선화당 바로 뒤에 큰 연못이 있었고 그 가운데 관풍각(觀風閣)이라는 누각이 있었다. 지금 원성군 청사에서 토목관구가 있는 들레가 전부 담이었고, 그 안의 연못가에는 수목이 울창하였던 곳인데, 지금의 감영문루 안에는 중문이 있었고 그 안에 정무를 보던 청사가 있었다. 선화당은 바로 이 안에서 귀빈관의 구실을 했던 모양이다. 지금부터 약 9百50년전 고려의 명장이며 문화시중이라는, 일인지하요 만인지상인 강 감찬 장군이 전국을 순회하다가 이곳에 찾아와 하루를 머물게 됐는데 이 고을 원님은 문화시중인 강 감찬을 정자에 모시어 극진하게 접대한 후 편히 쉬도록 침실로 모셨다. 그러나 연못가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는 개구리들은 귀한 손님이 오신 것을 알리도 없겠지만 이 날도 전 마찬가지로 시끄럽게 울고 있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 고을 원님은 한명의 졸개를 시켜 개구리가 울지못하게 밤을 세워둘을 던지게 했으나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이 편에서 돌을 던지면 저편에서 울어대는 형편이어서 졸개도 그만 지치고 말았다. 침실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강감찬 장군은 개구리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다가 「천하에 나를 괴롭히는 일은 누구도 없었는데, 개구리 같은 미물에게서 오늘 괴로움을 당하는구나」하고 탄식하다가 한장의 부적을 써서 던졌던 것이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시끄럽던 개구리 울음소리는 딱 그치고 말았다. 애배우던 고을 원님도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고 다음날, 「문화시중께서 오시니 개구리도 알아보고 시끄럽던 울음을 그쳤읍니다」했다. 이 말을 들은 강 감찬장군은 간밤의 개구리소리에 잠을 못이루다가 부적을 적어서 넣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일이 있는 후부터 이 연못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어볼 수 없게 되었다고 전하며 지금은 시대가 변천해감에 따라 옛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어가고 연못도 30여년 전에 메워져 없어졌다. 지금 그 자리에는 원주 토목관구사무실이 세워졌으며, 다만 오래 묵은 큰 느티나무 한 그루만이 남아 옛 일들을 회상케 해주고 있을 뿐이다.

第6節 自然 및 風月과 傳說

(1) 용암(龍岩)과 곡수

원성군 귀래면에 있는 용암은 마치 흑룡(黑龍) 두 마리가 물 위에 떠 있는 듯 하며 약 10m의 바위가 넓게 깔려있고 이 용바위는 용의 암수가 미륵산에서 내려와 한강을 향해 헤엄치는 것과 같다 하여 용암 또는 용바위라 부르고 있다. 이 용암에서 약 50m쯤 올라가면 황골로 부터 흘러내리는 곡수(曲水)가 있다. 여섯간(六間) 정도의 넓직한 바위 한 가운데가 우묵하게 파여있어 표주박에 술을 담아 물에 띄우면 빙빙 돌다가 어느 한곳에 머무른다고 한다. 그러면 그앞에 앉았던 사람이 그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겼다는 전설을 지니고 있다.

(2) 용 천

용천전설(龍泉傳說)이라 함은 땅속에서 맑은 물이나 온천등이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그 유형(類形)을 몇 가지 나누어 말하고자 한다. 첫째, 청수 전설이 있고 다음은 온천 약수에 대한 전설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술이 샘으로 부터 솟아 나왔다 해서 전해진 말로 주천전설(酒泉傳說)이라 했고 또 솟아나온 연유에 대해서 몇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영장설(靈杖說), 신성설(神聖說), 효자설(孝子說) 또는 동물설(動物說) 등으로 나눌수 있다. 영장설은 대개 그 이루어진 원인이 고승이나 도사(道士)의 지팡이에 의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물을 구하는 사람에게 지극한 자비심에서 지팡이로 땅을 찌시어 물을 솟게 하였다는 것인데, 즉 원주 치악산 상원사에 있는 샘물이 그 좋은 예를 들 수 있겠다. 상원사는 치악산 높은 능선에서 동쪽으로 약간 내려간 해발 천미터 되는 높은 지대의 반석 위에 세운 절인데 절터로서는 더 할 수 없이 좋은 곳이나 물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흠이었다. 그러나 절의 창건자 무착대사는 자기 나름의 불심(佛心)과 신념(信念)을 가지고 석장(錫杖)으로 바위틈을 찌르니 그 자리에서 물이 솟아올라 지금까지도 이 절에서는 이 물만으로 충분히 쓸 수 있으며 어떠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으며 여름에는 손이 시려움도룩 차갑다. 또 신성설이라 함은 그 원인이 신(神)이나 혹은 영감의 계시로 샘물을 찾아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보면 봉산동 개륜골의 신선암 약수가 있다. 옛날 한 보살이 이곳에 조그마한 암자를 짓고 먹을 물을 구하고자 여러 곳을 파 보았으나 물이 나올만한 곳이 없었던 차에 어느날 밤 꿈에 나타난 신선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물이 있는 곳을 가르켜 주기에 이튿날 꿈에서의 그대로 바위틈을 파헤치기 시작하니 그 곳에서 옥수 같은 맑은 물이 솟아나와 이 샘을 신선수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효자설과 동물설에 관한 전설을 들어보자. 효자설이란 그 이루어진 원인이 대부분 효자에 관한 얘기로 병든 아버지께서 술을 마시고 싶어하셨지만 돈이 없는 아들은 어쩔수 없어 샘물이라도 떠다 드리려 한즉 그 샘물이 갑자기 술로 변했고 그 샘물을 계속 마신 아버지의 병이 점차 쾌유해 졌다는 설이 있다. 동물설은 샘이나 우물에서 학이나 사슴 노루등이 땅을 파서 시원한 물이나 더운물이 나오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때로는 약 효험까지 있다는 물을 말한다.

(3) 月隱亭(월은정)과 비각동

남영 홍 의호선생이 모든 정사에서 물러나와 고향인 원주에 돌아와 여생을 보냈는데 생가(生家)로 낙향할 당시 월은(月隱)이라는 기생을 친하여 시음(詩吟)을 일파로 보냈다고 한다. 홍 의호선생은 본가에서 조금 떨어진 개울 건너에 다섯간 짜리 아담한 집을 짓고 월은이로 하여

금 생을 즐기다 이 곳에서 여생을 마쳤으며 그 후 사람들은 월은정(月隱亭)이라 불러 내려 오고 있다. 얼마후 그 후손이 이 집을 뜯어다가 지금의 단구동 홍 승우씨가 거처하고 있는 집의 행랑채를 지었고 홍씨의 말에 의하면 원주시 인동을 옛날에는 각동이라 불렀는데 선대(先代)는 이 각동에서 살다 현재 살고있는 단구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각동택이라는 택호(宅號)를 붙였으며 각동이라 부르게 된 동기는 인열왕후의 비각이 있다 하여 그 부근 일대를 비각거리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4) 梅良事과 觀魚堡

원성군 호저면 구슬미에서 서북간으로 약 1km 정도 봉천내를 따라 내려 가노라면 백운산(白雲山)과 치악산(雉岳山)의 산맥이 서로 엇갈리는 지점이 되며 치악산의 마지막 끝에 배량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 정자를 지금은 볼 수가 없고 다만 이름만이 전해 내려오고 있을 뿐 어느때 누구에 의하여 지어졌었는지의 소상한 내력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곳을 일명 “애기소”라고도 부른다 그 연유인 즉 여기에는 4~5장 정도의 기암절벽이 있고 절벽위에는 소나무가 듬성 듬성 있으며 바닥은 평편한 잔디가 깔려 있어 놀이터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절벽아래에는 원주 봉천물이 절벽을 끼고 돌아 맞은편 백운산 낙맥인 하우고개의 절벽을 받아 북으로 흘러내려 이곳에 깊은 소(沼)가 형성되어 있어 유원지로서의 이채를 띄고 있으며 아이들도 많이 찾아와 놀았다고 하는데 하루는 이곳에서 놀던 아이들이 별안간 절벽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곳을 “애기소”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 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 5百「미터」정도 내려가면 관어대(觀魚臺)라는 백운산의 큰 절벽이 나타난다. 이 절벽에서 내려다 보면 절벽아래 물 속에서 놀고 있는 잉어 눈치 등 큰 고기들이 보인다고 해서 불관(觀) 고기 어(魚)자를 써서 관어대라 부른다고 하며 일설은 옛날 이 곳에 관어사라는 절이 있었다 하여 관어사의 터라는 뜻으로도 관어대라 불리우게 된 것이라고 전해온다.

(5) 사부산과 화전산

둔둔리 맞은편 남쪽으로 사부산(四部山)이 있다. 이 산은 네 사(四)와 거느릴 부(部)자를 써서 네개의 부락을 뜻하는 데 이 산을 중심으로 동으로 <원평> 북으로 <둔둔>과 서쪽으로 <의관> 남쪽에 <왕대부락>이 있어 네개의 부락이 산 아래 둘러있다고 하여 사부산 또는 네 부락에 각각부자(富者)가 한 사람씩 살고 있다 하여 부산(富山)이라고도 부른다. 또 이 곳에 화전산(花田山)이 있는데 봄이 되면 진달래 꽃이 만발하여 꽃밭을 이룬다 하여 글자 그대로 화전산이라 부르고 있다.

(6) 停止 고추장

지금의 원주역 뒤를 停止 또는 停止 뜰이라 했고 이곳은 넓은 옥답과 맑은 봉천의 냇물 그리고 냇물의 양쪽으로 송림이 옥여져서 울창하였는데 이곳의 고추장이 유명하였다. 고추장 맛이 훌륭하여 해마다 궁중에 진상되었고 강원감영의 원님들이 큰 자랑거리로 삼았다 하는 이 고추장은 태양광선과 토질의 영향, 송림에서 풍기는 냄새와 송화가루의 영향등이 원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꼭 정지에서 익어야만 그 맛과 향기를 내었다 하며, 원인은 알수 없었고, 지금은 환경도 변하였지만, 그토록 유명했던 고추장의 맛도 간 곳이 없다.

(7) 약수와 감투봉

호저면 대덕리 배람발의 선녀 발자욱과 주먹 발자욱이 있는 바위에서 약 50미터 가량 바른쪽으로 엇비스듬하게 올라가면 산 중턱이 되는데 이곳에 있는 바위틈에서 맑은 샘이 솟아나오고 있어 사람들은 이물을 약물(藥水)이라고 하며 특히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이 물을 먹으면 즉시 효험을 본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약수를 찾아오고 있으며, 마주 건너다 보이는

서쪽 강 건너에는 막골이라는 부락이 있고, 이 막골 뒤에 감투봉이라는 산이 있다. 산상(山上)에 큰 바위가 있고 이 바위를 마을에서 올라다 보면 구식 결혼식때 대례청에서 신랑이 쓰는 뒤턱보다 앞턱이 얇은 머리에 쓰는 사모와 비슷하고 감투와 같이 보인다고 하여 감투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8) 장개와 상담

원성군 지정면 무장리 “장개”부락은 일명 “장포”라고도 부르며 섬강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며 강을 건너면 횡성군이 되고 강 이쪽은 “장개”가 되는데 옛부터 장씨(張氏)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섬강이 동에서 서쪽으로 길게 흐르고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마을을 지나 서쪽으로 1km쯤 가면 앞에는 큰 들이 있고 그 들의 양쪽 중앙에는 돌무덤이 두개 있고 동쪽에 있는 돌무덤은 약간 적으나 서쪽의 돌무덤은 상당히 큰 것으로 몇 천집은 됨직하다. 여기가 바로 “상담”인 것이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이 돌무덤을 “예담”이라 부르며 예담 두개는 5百미터쯤의 간격으로 있으며 이 부근에는 조약돌이 없고 논이어서 옛날에는 갯벌이었든 것 같아 임진왜란때 왜군과 주민들의 투석전(投石戰)을 하던 곳이 아닌가도 보고 있다.

(9) 한가터와 연애골

원성군 판부면 반곡리 방묘동 동남쪽에서 치악산을 바라 보면 넓으면서도 깊숙하고 상당히 가파라 보이는 비탈을 끼고 아담하게 보이는 한가터라는 부락이 있다. 이 부락은 청주(淸州) 한(韓)씨가 이루어 놓은 것이라 하며 타성은 별로 없고 주로 한씨네가 살고 있어 “한씨의 터” 즉 “한가터”라고 전한다. 그리고 한가터와 방묘동 사이에 “산제당골”이라고 하며 “연애골”이라고도 하는 골짜기가 있다. 이 골짜기는 수십미터 되는 암벽으로 사방이 꼭 둘러져 있고 위로는 물이 쏟아져 내려 10미터 높이의 큰 폭포를 이루고 있으며 주위는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 있어 보기드문 장관을 이루고 한 옆으로 나 있는 입구에 들어서면 30미터 되는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진다. 깊숙히 자리한 이곳은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며 아늑한 곳이어서 남녀의 밀회 장소로 적당하여 많은 연인들이 찾아들고 있어 이 골짜기를 연애골이라 부르며 풍년을 기원하는 산제를 지냈다고 하여 “산제당골”이라고도 한다.

第7節 智力과 文集

(1) 김 광우와 당계집

원성군 귀래면 냇물을 따라 서쪽 4km쯤 올라가면 용암리 지둔지라는 마을이 있다. 여기에 서 한참을 내려가 보면 “당우동” 또는 “당모루”이라 하는 마을이 나서는데 약 200년전에 사헌부 지평으로 있던 당계 김 광우(金光祐)선생이 낙향하여 살게 되니 이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분이 이곳에서 살게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어 당계와 <당>자와 이름에서의 <우>자를 본따 당우동이라 부르게 됐다 한다. 이 마을에는 20여간 남짓한 기와집이 있으며 추녀끝 기와와 네귀의 끝 기와에는 가경(嘉慶) 11년이라고 새겨져 있고 이 집은 당계 김 광우선생이 지은 집으로서 지금은 그 직계후손인 김 훈배가 살고 있으며 당시 당계 김 광우선생이 유람하면서 보고 들은 행장기와 그 때의 경제사정 정치 등을 서술한 “당계집”이란 책자가 모두 6권으로 아직도 김씨 문중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2) 東山 싸움

아득한 옛날에도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몹시도 밝았던 모양이다. 지금의 原城郡 所草面 義冠里와 原城郡 文幕面 盤溪里 주민들 사이에 조그만 동산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얽혀진 얘기가 전하여지고 있는데 어느해 장마로 인해 所草面 義冠里에 있는 큰 동산의 한귀통이가 떨어져

물줄기를 따라 떠내려 가다가 지금의 文幕面 盤溪里에서 걸리고 말았다. 장마가 끝난후 주변을 살펴본 즉 동산의 한 귀퉁이가 없는 것을 알고 그 동산을 찾아 의관리 사람들은 물줄기를 따라 찾던 끝에 이 동산이 반계리로 떠 내려간 것을 알고는 문막 사람들에게 이 동산은 의관리에서 장마로 떠내려 왔다고 하며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니 문막 사람들도 순응이 가는지라 의관리의 소유로 인정을 해 주었다. 그후 1년이 지났을 때 다시 찾아온 의관리 사람들은 일년동안 이 동산에서 나무하고 풀베고 소 풀을 베어 먹었으니 마땅히 도지를 내야 한다고 하여 할수 없이 도지를 물고 그 이후 몇해 동안은 아무소리 못하고 도지를 내었으나 한편 생각할때 억울한 생각뿐이라 의관리 사람들에게 이제 동산은 필요없으니 가져가라고 연락을 했다. 전갈을 받은 의관리 사람들의 고심은 또한 말이 아니었다. 생각끝에 문막 대표를 만나 바야흐로, 양측의 동산문제 회담이 열린것이다. 의관리 사람들이 먼저 왜 도지를 못 내겠는가 한즉 문막 사람들 대답이 이제 동산이 더 필요없다 하니 의관리 사람들은 피를 내어 그림 동산을 가져갈 터인즉 동산을 내일까지 재로 끈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 놓으라 하고 떠나 버렸다. 문막 사람들의 걱정은 태산 같은지라, 서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여덟살짜리 아이가 어른들 앞에 나타나 하는 말이 밤사이엔 짚으로 동아줄을 꼬아 동산을 칭칭 감아놓고 기름을 발라 두었다가 사방에서 새끼에 불을 지르면 짚은 타도 재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냐 하여 꼬마의 말에 어른들은 손뼉을 치며 바빠 서둘러 꼬마의 말대로 해 놓으니 의관리 사람들이 와 본즉 재로 끈 새끼줄로 동산을 묶어놓은지라 아무소리 못하고 돌아간 후 부터는 도지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문막사람들이 얻었다는 동산이 지금 문막 쪽섬 1km 하류에 콧감모양 둥글게 앉아 있다.

(3) 忠犬碑

原州 지방에는 두개의 忠犬碑가 있는데 모두가 주인을 위하여 죽은 개를 추모하고 사죄하는 마음에서 세운 비들이다. 原州市 茂實洞 점가리라는 곳에 가면 原州로 들어오는 길목에 비바람에 달아서 알아볼 수 없는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이 忠犬碑라 하며 이곳에 전해져오는 내력은 옛날 술을 끄적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날도 원주 장에 왔다가 술에 취하여 돌아오던 중 지금 비석이 있는 자리까지 와서는 잔디밭에 앉아 쉬며 담배를 피우다가 술기운에 그만 잠이 들어 있을 때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이 잔디에 붙으니 술술부는 바람에 불은 점차 부근잔디에 타들어 갔다. 한편 주인이 어디가면 지금의 이곳까지 항상 마중을 나오곤 하던 흰 개가 있었는데 이날도 주인의 마중을 나와보니 주인은 잠에 취해있고 잔디에 붙은 불은 점점 주인에게로 닥아오는지라 주인의 위급함을 직감하고는 옆에 있는 논물속으로 뛰어들어 자기몸을 적서 가지고 불위로 덩굴고 덩굴고 하여 불은 다 꺼졌지만 기운이 빠지고 지친 개는 그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술에서 깨어난 주인이 일어나 본즉 온몸이 불에 그슬린 흰 개는 죽고 잔디의 불은 꺼졌는지라 모든 것을 짐작하고는 자기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죽은 충견의 비석을 이 자리에 세우고 그후 주인은 술과 담배를 딱 끊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며 所草面 長陽里 아까시아 밭속에도 四각형으로 된 충견비가 있는데 전해지는 내역은 무실동 점가리 충견비와 같은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4) 진대골과 어재등

원성군 부른면 정산리에 있는 “진대골”은 “사기막”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는데 이곳을 진대라고 부르게 된 동기는 절 부근에 세워져 있는 당간지주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옛날 정산리에 거둔사 절을 세운 뒤 당간지주로 세울 돌기둥 두개를 사기막이라는 곳에서 길이 7m 넓이 3m의 화강암으로 깎아놓기는 하였으나 사기막에서 거둔사 까지의 운반이 문제였다. 생각끝에 지주를 운반하는 자(者)에게는 큰 상을 내린다는 방을 붙이여 전국에서 힘센 장사등이 모여 오

진 했으나 지주를 움직일만한 장사는 없었다. 그때 이 근방에 살면서 항상 자기힘이 더 세다고 주장해 오던 두 오누이가 있었다. 소문을 들은 동생은 오빠에게 제의하기를 당간지주를 던져 거둔사까지 나르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동시 상금을 받기로 시합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곤 하지만 여자인 몸으로 남자인 오빠의 힘을 당할 수는 없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동생은 한 꾀를 생각해 냈다. 며칠뒤 두 오누이가 힘의 대결을 하는 날 아침 일찍 여동생은 콩죽을 쑤어서 생콩가루를 섞어 오빠의 아침상을 마련하였다. 이를 본 오빠는 「아침부터 쉼 콩죽이나?」고 묻자 「오빠가 저한테 이기시라고 콩죽을 쑤었다오」라고 대답하니 오빠는 보통때와 다름없이 콩죽을 한동이나 먹고 난 다음 여동생은 찰쌀밥을 지어서 오빠 몰래 실컷 먹으니 힘이 솟기 시작했다. 얼마가 지나자 콩죽을 먹은 오빠는 배탈이 나고 설사를 계속하여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 할지라도 돌을 운반하기에 앞서 돌을 들어올릴 기운마저 없게 되었다. 한편 찰밥을 먹은 여동생은 힘이 솟는지라 돌을 번쩍들어 거둔사에 옮겨 놓았으며 후한 상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후 이 절은 기울기 시작하여 지주를 세우지도 못하고 지은지 얼마 안되는 절마저 불에 타버렸으며 지금까지도 옛날에 돌기둥을 만들던 사기막에는 지주 하나가 그대로 묻혀있어 이곳을 “사기막” “진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1963년 이 자리에 정산국민학교가 신축되었고 공사 도중 그때 옮기지 못한 진대라는 지주가 발견되어 지금도 운동장가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 이 곳에는 “어재”라는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는 임금님이 난리 때 거둔사로 피신을 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넘어가신 고개라 하여 지금도 어재라고 부르며 고개 밑에 있는 마을도 어재동이라 불려지고 있다. 또한 거둔사가 번창할 당시는 그 규모가 매우 컸으므로 거둔사의 담 안에 생긴 부락이라 하여 “담안리”라 하며 이 절 뒤에는 큰 연못이 있었으나 지금은 논으로 변모되었고 이 연못이 있던 논을 “못배미”라 부르고 있다.

(5) 벼락감투

1910년 국치이후 약삭빠른 사람들에게는 뜻하지 못했던 벼락감투가 씌워지기도 했다. 즉 을사보호조약은 일제의 강제에 의해서 체결되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항일운동이 더욱 심하여졌다. 원주에서도 대표적인 항일운동자로는 원주에서 참령(參領)을 지낸 이 민화(李敏和) 같은 이는 최후까지 항일운동에 선봉이 되어 활약하다가 체포령이 내려져 은거생활을 했다. 원체 민심을 얻은 바라 나중에는 체포령에서 풀려났지만 뒤로 고종황제의 밀사로서 암행어사가 되어 가지고 함흥까지 가서 조정에서 하고저 하는 일을 성취시키기도 했다. 반면에 안 윤옥(安允玉) 같은 분은 일본군이 원주에 진주하려 들어올때 원주부민에게 무슨일이라도 있을까 걱정이 되어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서 만종까지 마중을 나가 일본군사를 만나 가지고 원주에서는 아무런 사고없이 맞아들일터이니 제발 민가에 불을 지르거나 부민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다행히 원주진주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 한때 일부 항일운동자들은 안 윤옥씨의 처사가 못마땅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도리는 없었다는 것이 이때의 실정이었다. 이때에 안 윤옥씨는 들도 없이 절친하게 지낸것이 현 지정면 보통리 자갑동에 살고 있는 이 정규(李鼎圭)의 실제인 이택규(李宅圭)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진영에 자유롭게 출입할수 있게 된것도 안 윤옥과 이택규뿐이었다. 일본군 대장은 이두사람을 상부에 추천하여 이때 처음으로 우리 한국사람으로서 군수가 된것이 이 두사람이었다. 안 윤옥은 이천(利川)군수가 되었고 이택규(李宅圭)는 강릉(江陵)군수가 되었다. 그후 안 윤옥은 利川郡守를 지내다가 그만두고 다시 원주에 와 살다가 8.15 해방후에 작고를 했지만 아직도 안이천택이라는 택호는 남아있다. 이택규는 강릉군수에서 삼척군수 정선군수등으로 전전하다가 참여관(參與官)까지 올라 北京까지 다녀오는등 지내다가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본가에 와있다가 1955년경에 작고하였다. 그러나 그때

第5編 教育・文化

보통리 자갈동에는 기와집이 단 한채 있었는데 이집이 이정규씨 집이었다. 동생인 이택규가 군수가 되어 나간 뒤에 항일운동자(의병)들이 몰려와서 이 기와집에 불을 질렀다. 그때 이정규는 나와서 내집만은 다 타도 좋으니 다른 초가집들에게는 불을 지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다고 한다. 군수로 나간 동생을 둔 내가 죄가 있지 부락사람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한 이정규도 그때 실정으로는 부득이 했으리라 그러나 국운이 기운 그때로서는 다른 도리가 없었으리라.

第8節 實 話

(1) 原州青年會의 民族運動

日本の 侵略과 韓・日合邦으로 主權을 빼앗기고 國家를 잃어버린 우리는 日帝의 壓政에 항거하면서 強烈한 祖國愛의 투쟁을 직접 간접으로 전개하였다. 새로운 外國 思潮에 接하면서 視野를 넓히고 實力培養에 努세였다. 이와 같은 思想을 배경으로 全國 各處에서는 青年會 體育會 등 여러가지 青年社會團體가 조직되고 意識있는 青年이면 이러한 青年活動을 보람과 긍지로 여겼던 것이다. 原州地方에서도 韓日合邦後 5~6년이 지난 후부터 민족주의 운동과 새로운 思潮의 啓蒙運動 그리고 지역발전, 青年指導 및 體育振興을 目的으로 原州青年會가 1915年頃부터 組織되었다. 이때 青年들은 青年啓蒙運動으로 강연회를 열기도 하며 모이는 場所를 하나의 民族運動의 道場으로도 生覺하였다. 이때 이들이 한 青年運動은 民族主義運動의 조직체로서 오늘날의 意味와는 다른 순수한 社會主義의 경향이 많았었다. 그리하여 思想的으로 倭警의 감시와 간섭을 심하게 받기도 했다. 그후 이들의 後繼者의 人物들은 第2陣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때의 主要人物로는 元周默 鄭德俊 金鎔駿 鄭東鎬 李東洙 등으로서 이때에 와서는 全員이 많이 즐기기도 했다. 이 青年會는 讀書會라는 社會主義運動의 性格과 抗日民族青年運動의 色彩로도 조직하였다. 그들은 원주읍 상동리(현 원주시 인동)에서 夜學을 통하여 知識을 넓히는 啓蒙活動도 하였다. 당시 이고장 청년운동의 지도자로서 정신적인 선구자적 역할을 한 사람들은 社會主義的 民族主義者인 趙鎭求, 鄭永憲, 韓基駿 등이었다.

(2) 衡平社運動

原州에 衡平社 運動에 對해서는 짐작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것 같다. 1930년에 있었던 일이니 벌써 45年前이 된다. 이 運動 亦是 表面的으로는 백정들이 소위 양반에 대한 항거와 같이 平民化運動이라고는 하지만 裏面으로는 民族的 抗日運動이었다. 原州郡 原州面 上洞里(現原州市 圓洞) 李東秀집을 本據地로 해가지고 原州의 소위 백정뿐만 아니라 橫城 寧越等地에서 까지도 原州로 모여 百餘名의 新간회원만이 아니라도 매일사상자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平民化를 부르짖으며 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백정들만의 平民化運動이거니 하고 觀望만 하고 있던 原州警察署에서는 뒤늦게 이것이 排日思想에서 나오는 民族的 運動임을 알고 해산을 시키면서 주도자를 체포하는등 일대 혼란이 있었으나 이미 뒤에서 조종하던 中心人物들은 表面化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事件으로 擴大되지는 못했다. 이때 衡平社委員長은 趙萬淳이었다. 그리고 主動의役은 李東秀가 하였다.

(3) 만보산 사건

이 만보산사건과 관련해서 原州에서도 南芝勲이 主動이 되어 中國人 축출 운동이 벌어졌다. 원주에는 比較的 中國人(淸人이라고했다)이 많이 있었다. 丹邱坪을 中心으로 해서 中國人들이 양파 땅콩 채소등을 대대적으로 재배했고 原州가 그네들의 살기 좋은 곳이 되어 모여 들었

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住民에게 自己네들 것을 팔기만 하지 사는 것은 일체 자기네끼리만 했다. 結局 中國人의 物件을 사지 않기 運動에서 부터 始作이 되어 나중에는 原州에서 내쫓는 運動에 까지 되어 結局 一名도 없이 原州를 떠나고 말았다. 이일을 원주에서는 만보산 사건이라고 한다.

(4) 原州 防衛軍

방위군 사건이란 한때 큰 문제거리였고, 국내가 떠들썩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구체적인 것은 다루지 않고 원주의 방위군 관계만 다루기로 한다. 원주의 방위군 관계를 말하자면 우선 먼저 그 조직체 부터 말해야 할 것 같다. 原州支隊長 洪淳哲(小領) 副支隊長兼編隊長 金鍾奭(大尉) 金百洙(大尉) 補給官에는 金仁基(大尉) 輸送官에는 金鍾雲(大尉) 醫務官에는 李晦根(大尉) 行政官에는 朴周興(大尉)였으며 中隊長은 原城郡內 各 面에서 1名式과 原州市內에서는 各洞에서 名式 指名되었다. 神林 李 承春 興業 姜 勝滿 富論 申 海龍 文幕 洪 大植 所草 金 益善 板富 白 讚鉉 好楮 申 先 等이고, 市內에서는 金 義培 朴 孝相 鄭 在玉 金 鍾雲 等이다. 이때 中隊長들은 小尉 中尉의 계급이었다. 隊員은 確實치 않으나 젊은 靑年들은 大部分 加담되었다.

(가) 大韓靑年團=防衛軍編成에 앞서 原州에는 어느 地方보다 靑年들의 靑年運動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解放 直後에도, 原州에서는 靑年團體가 治安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比較的 安定된 狀態였음도 事實이다. 原州 靑年隊니 義興 靑年隊等 靑年團體와 靑年同盟이라는 左翼係團體와의 대립으로 한때 혼란도 했지만 右翼係 靑年團體의 優勢로 靑年同盟은 直時 解散되고 말았다. 그후인 1946年度에 와서 大韓靑年團이 組織되었다. 그보다도 앞서 原州에는 族靑이 큰 힘을 나타내기도 했다. 族靑의 힘으로 洪範喜가 制憲國會議員이 되었다. 民族靑年團의 멤버는 理事長에 李容萬 委員長에 趙漢珪 理事에 李 澈教 元 榮相 鄭 在春 金 鍾奭 安 鍾漢 金 三喆 등 제쳐졌다. 이와 같이 原州의 靑年運動은 大端했다. 自由黨이 처음 創黨될때만 해도 原州는 族靑의 힘이 컸기 때문에 族靑自由黨이라고도 했다. 이유는 족청멤버인 이용만이 자유당 창당 멤버였고 강원도당 조직책으로 원주에서 도당조직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原州 大韓靑年團의 멤버는 團長에 洪 淳哲 副團長에 吳 亨善 鄭 完澈이었고 文化部長에 安 明洙 總務部長에 李 秉斌 訓練部長에 金 鍾奭 등이었다. 대한청년단은 組織과 더불어 各面과 各洞에 있는 幹部級들을 모아 原州國民學校에서 1個月間 式的 合宿訓練을 實施함으로 그 위세는 당당하였다.

(나) 護國軍=그뒤에 地方에 護國 軍編成指示에 따라 原州에서는 靑年團體가 自然解體 되면서 그대로 護國軍 編入이 되었다. 이때 호국군 將校로 郭 泰信 金 百洙 元 致英 등이었으며 靑年들을 모아 훈련을 시켜가지고 共匪토벌에 나서기도 했다. 이때 몇挺 안되는 99式長銃을 가지고 人民軍 1個大隊를 선멸하고 거기서 얻은 노획무기로 大隊武裝이 完備되었으니 全國에서도 原州를 第1로 쳤다.

(다) 이때에 다시 編成된것이 防衛軍이었다. 大隊武裝으로 完備된 原州의 防衛軍은 어디를 가나 인기였다. 6.25 당시에도 原州防衛軍은 흩어지지 않고 集結되어 敵과 싸우기를 수차하였다. 따라서 原州의 亂民들을 돌보아주는 役도 맡았으며, 그 勢力으로 收復도 앞장서서 했다. 다시 1.4후퇴를 할때도 原州防衛軍은 三千浦에 集結 해가지고 2個大隊를 編成했는데 1大隊長은 金百洙 第2 大隊長은 金 鍾奭이었다. 이때 사천지서 습격을 막는데 또 한번 큰 공을 세운것이 戰果였다. 1.4後退에서 들어와 原州監理會를 本部로 하고 殘匪소탕을 해왔으나 뜻하지 않은 上部의 事件으로 解散되고 말았다.

(라) 靑友會(戰友會라고도 한다) 防衛軍으로 活動했던 同志들 만으로 구성된 靑友會는 지금도 1년에 한번씩 모여 지난날을 회상하며 하루를 지내고 있다. 會長에는 金 鍾奭 總務에 白 瓚

鉉이며 고문에 洪 淳哲로 되어있다.

(마) 原州體育運動의 始初

요즘의 原州體育은 全國에서도 알아 주는 實情으로 宋永洙사범을 비롯해서 白重喆 李達俊등 많은 國際 潘判까지 排出되었고 安永漢 李正茂 李在春등 國家代表選手들도 많이 나왔다. 이런 때가 오기까지는 時間과 努力이 많이 들었다.

只今 原州에 복싱만 해도 송영수 사범의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 지지 못했을 것이고 原女高의 정구나 原高의 제성 같은 것도 亦是 그 學校 當局의 끈질긴 支援이 없었던들 지금의 영광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 여기서 50年前的의 原州體育을 더듬어 보면 우선 原女高의 정구의 전신이라고 한다면 50年前 정구는 「松板 나켓」이었다. 松板으로 나켓을 만들어 가지고 공을 쳤다. 그것으로 원주 선수들은 횡성 등지로 나가 시합도 했고 경기도 벌렸다. 이때 안덕흠, 원학규, 김창수, 원명길, 박종항, 김학봉, 진성원, 남기석, 장재용, 전기양, 원홍록, 이낙중 등 제씨들이 “송판나켓”의 선구자들이다. 이분들이 횡성까지 가서 우승을 하면 우승기를 받아가지고 와서 좋아라고 했다. 우승기라야 하얀 옥양목에다 우승이라고 쓴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축구 역시 그러했다. 새끼를 파서 이것을 푸러지지 못하게 돌돌몽쳐서 지금의 축구공보다 약간 작게 해가지고 이것으로 봉천넷가 모래사장이 아니면 지금 원주 청년회관이 있는 자리가 원래 원주의 「공마당」이어서 여기에서 새끼로 만든 공을 차고 다녔다. 이것이 원주 축구의 시작이었다. 이때 또 단거리 선수로 이름을 날린 것은 원홍록이 낙중이다. 공식 출전은 아니였지만 그래도 만주 봉천까지 뽐혀가서 선수로 뛰기도 했다. 이것이 원주 선수 원정의 처음이었다.

(바) 카 메 라

只今은 누구나 웬만하면 가질수 있는 것이지만 1932年 즉 40餘年前만 해도 원주에서 카메라를 소지 했던것은 鄭完澈 한사람이었다고하니 原州의 카메라王이라고 할수 있다. 氏는 只今도 카메라를 가지고 더욱 좋은 작품을 찾고 있다. 그후에 原州 사람으로 사진 작가로서 서울에서 작가생활을 하는 李建中이 있다. 只今도 原州에는 作家로서 鄭完澈 方大勛 金命旭이 있다.

(사) 自 動 車

原州에 新作路가 처음 생기고 自動車 運轉士가 된것은 鳳山洞에 辛鳳俊이다. 氏는 運轉免許를 얻어가지고 原州에서 運轉을 했는데 원주의 선교사로 있던 “모리스”라는 外國人이 제일 먼저 자동차를 타고 一錢을 주더라는 것이다.

第 8 編 人 物

第 1 章 郷土輩出人士録

第 2 章 現代 人物

第1章 郷土輩出 人士錄

第1節 人物編輯序論

한 시대, 한 사회를 움직인 것은 人物이다. 歷史上에 나오는 人物들은 그 시대의 꽃들이다. 그 꽃들이 歷史를 點綴하여 滔滔한 脈流을 이루고 그 사회 그 地域의 繁榮과 豐饒를 가져왔다. 또는 그들의 勞苦와는 달리 그 시대에 影響은 至大하였으나 보람도 없이 歷史의 審判을 받는 人物도 있다. 人物들은 그 시대 시대에 當面한 國家社會의 運命을 도맡았던 現實의 擔當者였고, 過去에서 現代를 잇는 橋梁인 것이다. 그들이 남긴 文化遺産은 오늘에 繼承되어 우리들의 거름이 되었고 當面한 課業을 達成하는데 方向感覺을 提示해 주고 있다. 原州의 人物이 記錄에 나타나고 文字化되어 傳來되어야 하나 三國鼎立으로 首都圈에서 멀리 떨어져 歷史의 主流를 形成할 수 없었으므로 文獻에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러나 新羅가 三國을 統一하고 한 國家의 生活圈에 들어가자 수 많은 人物들이 登場하여 歷史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行蹟은 오늘 우리들 行動의 龜鑑이 되고 그들이 남긴 精神의 遺産은 내일을 創造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흔히 原州의 人物을 岩下老佛이라 諷刺한다. 그러나 人物에서 보는 原州는 超然과 隱遁만이 能事가 아니었다. 國家가 危期에 처하고 民生이 塗炭에 빠졌을 때 果敢히 일어나 救國에 앞장섰으며 殺身成仁의 崇高한 精神으로 蒼民을 救濟하여 隱遁性을 脫皮하였으며 적은 일에 拘礙되지 않고 大凡하게 世界를 觀照하여 深奧한 學問의 기틀을 이룩하여 超然性을 극복하였던 것이다. 秀麗한 山水는 많은 學者, 詩人, 墨客을 불러들여 學問과 藝術의 꽃을 피웠으며 그 傳統이 基督教에까지 繼承되어 韓國天主教 傳來에 기여했으며 많은 福者를 낳았다. 祖國 近代化의 물결을 타고 모든 分野가 새롭게 整理되어 가고 있는 오늘 原州의 옛 主人이었던 先祖들의 人間像을 發掘 檢討한다는 것은 當然之事이다. 우리 先祖들의 生涯와 業績을 整理하는 것이 단순히 回顧의 關心事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現代의 視點에서 人物을 全體的으로 檢討하여 앞으로의 跳躍에 발판을 삼는 일이 重要하다 하겠다. 이러한 重要性을 認識하고 人物編의 執筆에 慎重을 기했다. 人物選定은 5백여명을 카아드에 옮겨 編纂委員들이 檢討 熟議하여 現 行政區域을 基準으로 合當하다고 認定되는 人物을 優先順位에 넣었고, 緣故者의 경우 略약 內容上 原州에 影響이 至大하고 原州의 일 때, 韓國史의 發生으로 부터 現在까지(1974年 5月 31日 現在) 死亡한 者에 限했으며 8.15 以後 死亡者의 경우 評價에 論難이 일어날 수 있는 人物은 除外되었다. 執筆方法은 分野別로 專門家에게 依頼하여야 하나 여러가지 事情으로 編纂室에서 擔當하였으며 人物配列은 出生年代順으로 하고, 出生年代가 確實치 않을 경우 活動年代를 考慮하여 按配했으며 出典과 研究에 參考가 될 수 있는 文獻을 本編末尾에 明示하였다.

第2節 上古時代 人物

(1) 淵蓋蘇文

연개소문은 고구려 말기의 영웅으로서 성이 연이요 이름이 개소문이니 原州胎生으로 傳하여 온다.

예로부터 전해오기를 개소문이 어려서 부터 영걸하여 장래에 나라를 확장하고 민족의 웅비

를 꿈꾸고 있을때, 고구려가 수나라와 전쟁 또는 경쟁하는 중에 수나라와 크게 충돌될 것을 예상하여 비밀히 의복을 변장하고 중국에 가서 산천요해와 인물 풍속을 구경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연개소문은 얼굴이 극히 잘 생기고 모양이 심히 웅위하고 위풍이 매우 늙늙하여 과연 천하의 一人이라 할만큼 위대한 사람인줄 알려졌다고 하였다.

더욱 아름다운 수염을 느리고 머리에 황금갓을 쓰고 몸에 금은이 찬란한 의복을 입고 허리에 큰칼 다섯개를 차고 나서면 누구든지 모두 놀래어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 땅에 엎드린다고 하였다.

연개소문은 얼굴이 이렇게 잘 생긴 동시에 그는 극히 총명하고 용감하고 굳세고 더욱 무예를 잘 연습하여 말 잘타고, 활 잘쏘고, 칼 잘쓰고, 창 잘쓰고, 병법을 잘 통달하여 세계적으로 위대한 무인이었고 더욱 정치적 수완과 거룩한 인상과 훌륭한 도량과 대 정치가의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연개소문이 열다섯살에 그때 고구려 임금 榮留王이 연개소문의 훌륭한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불러보고 크게 기뻐하여 벼슬을 시키고 장래에 큰 그릇이 되리라고 칭찬하였다.

얼마 후에 개소문의 아버지 평양 東部大人 大對盧 淵太祚가 죽으니 개소문이 그 직위를 계승하고자 한즉 정부의 여러 사람들이 개소문을 시기하여 반대하는 자들이 있거늘 개소문이 여러 사람을 찾아보고 간절히 청구하여 마침내 평양동부인이 되었다.

이 때에 중국에서는 唐나라가 신흥하여 매우 강성하므로 영류왕이 자주 사신을 중국에 보내 화평에 힘썼다. 그러나 중국에 唐太宗 李世民이 그 형과 아우를 죽이고 그 아버지 연을 쫓아내고 즉위하여 항상 고구려를 침해할 생각을 두고 전쟁준비에 전력하는 데 고구려 영류왕은 오직 당과 화평하기를 계획하니 연개소문은 영류왕의 정책을 반대하고 당에 대항할 병력을 준비하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음모가 발각되자, 개소문이 동부의 병사를 모두 불러서 城南鍊兵場에서 열병식을 거행하며 대관들을 청요하여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군사를 시켜 대관 180여명을 잡아 죽이고 개소문이 말을 달려 대궐에 들어가 영류왕을 죽여 두세동강을 내어 개천에 버렸다.

개소문이 영류왕의 조카 보장을 세워 王을 삼으니 이가 곧 寶藏王이다.

왕이 개소문으로 莫離支 곧 총리대신을 삼으니 개소문이 이에 정권을 잡고 정부를 조직하여 당나라에 대한 전쟁준비를 엄중히 하였다.

때는 서기 642年이었다.

이때에 백제 義慈王이 신라를 쳐서 40여성을 가지고 또 장병을 보내 신라 대야주(합천)를 쳐서 신라 도독 김 품석과 그의 처를 죽이니 김 품석의 처는 곧 신라대신 김 춘추의 딸이라 김 춘추가 심히 백제를 원망하여 선덕여왕과 의논하고 춘추가 고구려에 와서 구원병을 얻어 백제를 치겠다고 요청하니 고구려 보장왕이 춘추를 의심하여 죽이고저 한즉 춘추가 보장왕의 신하 선도하에게 뇌물을 주고 살아서 돌아갔다.

이때 당나라는 고구려의 강성함을 보고 점점 더욱 안심하지 못하여 무슨 기회만 기다리던 중에 신라가 전력으로 당나라와 교통하여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기로 맹렬히 운동하니 당태종이 세민이 신라를 친군하여 함께 고구려를 침략하기로 하는지라 개소문이 그를 알고 백제 의자와 의논하여 함께 신라를 치기로 하였다.

이에 고구려 백제의 연합군으로 신라를 치니 신라가 사신을 당에 보내 구원을 청원한즉 당태종이 세민이 사신을 고구려 백제에 보내 신라를 치지 말라하니 개소문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

였다. 당태종 이 세민이 신라와 공모하여 공수등맹으로 고구려를 치기로 하고 전쟁을 준비하여 또 사신莊儼을 고구려에 보내 신라를 치지말라 하니 개소문이 노하여 장엄을 잡아서 토굴속에 가두었다. 장엄이 가친 후에 당태종 이 세민이 그것을 口實로 서기 644년에 대군 30만명을 출동하여 세민이 스스로 그 군대를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하였다.

이때 개소문은 이미 적병이 울졸알고 요하 동쪽 여려성에 수십만 대병을 두어 당병을 방비하기를 준비하였더니 적병이 요하를 건너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안시성을 둘러쌌다.

이때 개소문이 대군 15만명과 말갈병 만명을 요동에 보내 적병을 막더니 고구려 대장 고연수 고해전이 적병에게 패하여 포로가 되고 우리 군사 3만여명이 죽었다. 이에 당병이安市城을 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안시성에는 성주 楊萬春(야사 기록에 의함)이 명장으로 10만대병을 거느리고 적병을 막을새 이 세민이 그 육군 해군을 모두 불러와 수십만 대병이 안시성을 치거늘 만춘이 매일 군사를 내어 보내 적병을 마주치매 3,4차 접전에 우리 군사가 대양 적병을 이기니 이 세민이 성을 치는지 70일에 항상 패하고 이에 土山을 쌓아 높이가 성과 같이하여 장차 그 토산에 올라가 성을 치고자 하거늘 만춘이 군사를 내어보내 적병을 쳐서 쫓고 그 토산을 점령하니 세민이 크게 놀래어 군병을 총동원하여 성을 치거늘 만춘이 대군을 명령하여 적병과 대적하니 사흘만에 적병을 크게 섬멸하니 이 세민 대패하여 도망하였다. 이 싸움에 이 세민이 우리군사의 화살에 맞아서 왼눈이 상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이 세민이 돌아가서 마음에 매우 불안을 느껴 사신을 고구려에 보내 우리 대왕에게 국서를 바쳐 평화하기를 청구하는 동시에 좋은 활과 衣服을 개소문에게 선사하였다.

이 세민이 또 사신李義琛을 보내 국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의침이 황공히 우리 대왕의 아랫에 엎드려 두번 절하고 국서를 올렸다. 그 국서의 내용은 신라와 화평하라는 그것이다. 우리대왕이 회답 편지를 이 세민에게 보냈다.

이 세민이 아무리 생각하여도 고구려에게 패한 것이 분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어 다시 대군을 보내 요동에 쳐들어 왔으나 우리군사가 쳐 물리쳤다.

이 세민이 또다시 대군을 보내 요동에 침입하여 압록강까지 왔으나 또 우리군사가 쳐 물리쳤다.

이 세민이 또다시 대군을 출동하고자 하여 전국에 군사를 소집하고 군함을 제조하여 크게 소동하던중 사천성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 전국이 어지러워지므로 세민이 군병을 보내 겨우 그 난을 평정하고 고구려를 치지 못하였다.

이 세민이 이것으로 병이 되어 마침내 죽고 말았는데 죽을 때에 그 아들 이 치에게 유언하여 다시는 고구려를 치지 말라고 하였다.

이렇게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은 세번 고구려가 다 대승전하여 나라의 위엄이 세계를 덮었고 개소문이 이번 전쟁에 피해된 토지를 정돈하여 나라가 다시 안정하였다.

이 때에 당나라는 중국 5천년 역사에 제일 강성한 때라고 하고 또 그때 세계적으로 강대한 나라라고 하였으나 우리 고구려를 침범하여서는 백전백패하였으니 이것으로서 그 때에 우리 고구려가 세계에 가장 강한 나라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당태종 이 세민은 중국 유사이때에 제일 훌륭한 영주라고 하였으나 우리 고구려를 치려와서 요하를 건너서자 곧 우리 개소문에게 대패하여 도망하였으니 개소문은 이 세민 이상의 영웅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세민이 죽은 후에 唐 高宗 李治는 그 아비의 유언을 지켜 오랫동안 동하지 못하더니 서기 655년에 개소문이 대군을 거느리고 신라 북쪽 33성(강원도와 충청북도)을 쳐서 회복하니 신라 태종(김춘추)이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구원을 청원한 즉 당나라는 다시 대군을 보내 자주 우리 요

하 서쪽에 침입하거늘 개소문이 매양 장병을 보내 적병을 쳐 물리쳤다.

서기 660년에 신라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함께 백제를 치자하니 당고종 이 치가 13만명을 보내고 신라가 5만명을 이끌고 와서 羅・唐聯合軍이 백제 서울 사비성(부여군)을 함락시켜 백제가 망하였다.

백제가 망한 이듬해에 당나라가 또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에 침입하여 30만명이 요하를 건너 평양까지 들어오고 신라군사도 평양부근 遼安까지 온지라 개소문이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당병을 치니 당병의 선봉장 龐孝恭이 그 아들 13명과 그 군사 4만명을 거느리고 나와 싸우거늘 개소문이 군사를 이끌고 적병을 크게 섬멸하여 적장 방효풍, 그아들 13명, 그군사 사만명을 전부 쳐죽이니 당병이 대패하여 도망하여가고 신라군사도 물러갔다.

이후부터는 신라와 당나라가 다시 고구려에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개소문은 위대한 영웅이요 우리 고구려는 세계에 제일가는 강국이였다.

물론 서기 600년경 부터 660년경 까지는 세계에 있어 우리가 最大強國이란 것을 알수 있다.

연개소문에 대한 문헌 또하나를 여기에 追記한다.

연개소문에 대한 사실을 그릇 전하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지만 그 성명조차 잘못 부르게 됨은 어이없는 일이다.

世人은 흔히 연개소문을 泉蓋蘇文이라고 한다. 淵을 泉으로 代用하게 된 것은 高句麗가 亡한 뒤에 唐高祖李淵의 이름을 避해서 그리 쓰게된 것이어니와 蓋를 蓋로 잘못 읽는 것은 或은 蓋와 蓋가 字典에는 相通이 되므로 그리 되었는지 모르나 오늘날 누구나 흔히 글자로 쓸때는 泉蓋蘇文이라 쓰게 되고 말로 부를 때는 連합소문이라 부르게 된다. 그러나 합소문이 오랫동안 두고 閭巷人의 버릇이 되어있어 고치려고 하여도 고칠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歷史를 아는 이가 개소문이라고 하면 世俗은 도리어 웃는다. 이렇게 된 原因의 하나는 巷間에 流行하던 薛仁貴傳같은 小說이 蓋蘇文의 이름을 합소문으로 잘못 傳한데 基因한바 크다 하겠다.

개소문을 합소문으로 一般人이 읽게 되는 것은 正史가 잘못 傳한 때문이 아니요 巷間에 流行하는 小說이 잘못 傳한 때문이다. 正史보다 小說의 힘이 얼마나 더 큰 것을 여기서도 엿보겠다.

蓋蘇文의 한참 푸른 서울에 그 威容이 漢土를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 日本에 까지 멀리 日本書記에 蓋蘇文이 곳곳에 보이는데 伊犁柯須彌라고 적혀 있으며 그 伊犁柯須彌의 右傍에 가나로 「이리가스미」라고 細書하였다. 이것은 當時 高句麗人의 淵蓋蘇文을 부르던 그대로 적힌것인가 한다(註: 여기서 한가지 故郷이 原州라 한 것은 原城郡 興業面 大安里에서 탄생했다는 말이 전설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2) 弓 高

弓高는 新羅王族「三國史記」列傳 第 10에 「弓高는 新羅 사람으로 姓은 金氏고 第47代 憲安王 혹은 第48代 景文王이라 말하기도 한다……王은 곧 中使에게 命하여 그를 죽여버리게 하니 中使는 그 집에 가서 아이를 강보 속에서 빼앗아 다락밀로 던져 버렸는데, 마침 乳婢가 다락밀에 숨어 있다가 아이를 얼른 받아 들었으나 잘못하여 손가락으로 그 눈을 찔러 아이의 한쪽 눈이 애꾸 눈이 되었다」라고 收錄되어 있다.

憲安王 무렵은 신라의 王位爭奪戰이 極度에 達하여 新羅王室의 주변에 權謀術數가 끊이지 않고 있던 때였다. 특히 新羅王室의 權謀術數는 그들의 近親婚때문에 더욱 비참한 것이었다. 즉 집안끼리 결혼해야만 聖骨로 취급되던 新羅王室이었으니 國史上 近親婚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지던 때가 新羅시대였다. 그와 같이 집안끼리의 얽힌 속에서 벌어진 王位爭奪戰, 그 王位爭奪戰을 중심한 權謀術數는 잔악하고 치참한 것이었다. 이러한 틈에서 희생된 사람은 무척 많

았지만 그중의 하나가 弓裔였으니 그는 신라 왕족으로서 신라의 異端者로 規定되었고, 또 獨特한 人物로 歷史에 부각되었던 것이다.

世達寺의 修業時代앞에 「三國史記」의 記錄에서 본바와 같이 弓裔의 生命은 그의 乳母에 의하여 救出되었다. 그 후 계속하여 乳母를 어머니로 모시고 몸을 숨겨 있다가 열살이 좀 넘어서 世達寺에 入山하였는데 入山하기 전의 弓裔는 草童과 같이 成長하였다. 世達寺는 京畿道 豐德에 있던 興敎寺인데 그가 入山한 것은 新羅의 王子로서 슬픈 行脚을 걸어왔다는 것을 알고서 取한 일이었지만, 그러한 自身の 過去였기에 切齒腐心 世達寺에서 心身을 단련하고 文武의 資質을 길러 丈夫로서 出世의 바탕을 다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에는 修身方法으로 寺刹에 入山하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花郎徒의 修鍊方法도 역시 佛教的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修身이라고 한다면 例事 文武를 겸해서 陶冶한다는 것은 新羅社會가 가진 자랑이기도 했다. 오늘날 大部分의 查에 弓裔는 원래 性質이 亂暴하고 不道德한 天品을 가진 人間인양 叙述하고 있으나 그것은 弓裔의 泰封王國을 革命하여 立國한 高麗王室의 史家들이 革命을 正當化하기 위한 目的에서 弓裔를 非道德의 人間으로 깎아내려 後世인들이 弓裔를 先天的으로 亂暴한 人間처럼 알게 했던 것이다. 다음에는 歷史小說家들이 小說의 主人公 王建을 偉人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相對적으로 弓裔를 格下시킨데 理由가 있다.

人間은 先天的으로 누구나 善惡을 겸비하였으며 그 兩面性을 人間の 意志로 人間の 知性으로 克服하여 나가는데 人間の 魅力이 있는 것이다. 그 魅力을 弓裔는 發揮하고 있었다. 王位爭奪戰에서의 脫出, 脫出한 후에 草童으로 生活한 10年歲月, 그리고 世達寺의 修業, 나아가서 腐敗한 新羅 王朝에 對한 反抗등, 그 反抗도 農民社會를 背景하여 있었던 點으로 韓國人다운 知性을 充分히 발휘하고 있었다.

歷史의 方向轉換의 必要性을 判斷하면서도 行動하지 못했던 無力性이 弓裔같은 例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大端히 知性的 活動을 展開하다가 나중에는 그 知性을 喪失해 버리는 경우로서 이것은 오늘날에도 훌륭한 敎訓으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이다.

新羅社會의 瓦解와 王室의 腐敗는 眞聖王때에 이르러 더욱 심하여 王朝滅亡의 徵兆가 여러 모로 나타나고 있었다. 王室은 王室대로, 地方官吏는 그들대로 腐敗하였고 統一聖業을 成就할때의 新羅精神은 간곳이 없었다. 農民은 牧者를 잃고 착취에 전디다 못해 流浪生活을 해야했다. 農民의 流浪集團은 힘을 모아 新羅王朝에 반기를 들고서 土豪와 高官을 攻擊하며 그들의 財物을 빼앗았다. 王室 史家들은 도적의 메라고 말했지만 도적의 무리가 아니었다. 權勢를 빙자하여 農民의 財産을 사취하여 갔던 그 財物을 主人인 農民이 찾아가는데 왜 도적이란 말인가. 弓裔도 여기에 加擔하였다. 처음에는 竹山(安城)의 甄萱을 찾아가 힘을 모으려 했으나 그와 뜻이 맞지 않아서 北原(原州)에 雄居하던 梁吉의 部下로 들어가 新羅王室에 抗拒하는 뜻을 꾀게 했으니 西紀 892년이였다. 여기서 弓裔가 우리 原州와 인연을 맺는다. 弓裔는 世達寺에서 修道할 때 法名을 善宗이라 했는데, 그가 原州에 왔던 때의 狀況을 「三國史記」에 이렇게 記錄하고 있다.

「梁吉은 善宗을 잘 대우하여 모든 政事를 委任하고 드디어는 軍事를 나누어 취서 東便地方을 經略하게 하였다. 이에 弓裔는 軍士를 거느리고 나가 雉岳山 石南寺(原城郡 神林面 城南里)에서 자고 다음 날 떠나 酒泉, 奈城(寧越), 郁鳥(平昌), 御珍縣(旌善)等を 攻擊하니 모두 이에 降伏하였다. 眞聖女王 8년(894)에 弓裔는 溟州(江陵)로 쳐들어 갔는데 軍隊 3천 5백명을 14隊로 나누어 金大黔, 毛忻, 長貴平, 張一等을 部隊長으로 하였다. 弓裔는 軍사들과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같이 하며 奪取함에는 公을 위하고 私利를 버림으로서 모든 사람이 마음으로 공경하였고,

將軍으로 推戴하였다. 이에 궁에는 猪捉(麟蹄), 牲川(華川), 夫若(金化), 金城(金城), 鐵圓(鐵原) 등을 격파하니 軍勢가 심히 强하고……」※ ()안은 筆者의 註

이상과 같이 弓裔는 梁吉의 陣에서 발을 붙여 그 基礎를 굳힌 후 江原道の 여러 고을을 합쳐 鐵原에 개설했다. 이때 곳곳서 군중이 鐵原으로 몰려왔으니 新羅 왕실에 反抗하던 農民을 北部 地方에서 총 규합하였고, 여기에 國史上 唯一한 江原王國의 成立을 記錄한다. 弓裔가 鐵原에서 大將軍을 呼稱하며 時代의 風雲兒로 登場하게 됐던것은 말할것도 없이 江原農民社會의 大衆的 基盤위에서 可能한 것이었다. 그가 鐵原에서 天下를 號令하니 당시 松岳(開城)의 土豪 王隆은 아들 王建을 데리고 와 바침으로서 忠誠을 나타냈다. 王建이 後日에 高麗 太祖로 登場하지만 高麗란 國號도 弓裔가 먼저 썼던 것이며 弓裔가 만들어 놓은 나라를 고스란히 引受한 사람이 王建이었다. 王建을 高麗의 太祖라고 하는 것은 血族系譜上의 理由에 不過하고 實質的인 太祖는 弓裔이다. 弓裔가 原州의 梁吉도 討平한 후 江原道全域과 京畿道全域, 그리고 黃海道, 平安道, 忠淸道 1部를 통합하여 당시 半島에서 가장 強力한 國家로서 그 版圖를 確保했을 때, 弓裔는 스스로 高句麗를 계승하여 國號를 高麗(後高句麗)라 했으며 高句麗의 뜻을 편다는 國是를 내세웠으니 이것은 王建의 高麗國是의 序幕인 것이다.

弓裔가 鐵原에서는 大將軍으로서 活躍했는데 그의 版圖나 勢力이 半島에서 가장 큰 것이 되었을때 獨立된 國家體制를 갖출 必要가 있었다. 그리하여 901年(孝恭王 5年)에 王을 稱하고 高麗라 國號하면서 松岳를 서울로 定하였다. 901年은 辛酉年이어서 도참설에 의하여 辛酉는 革命의 해로 풀이하기 때문에 그 해를 擇하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國號를 高麗라 한것은 北部地方의 王國으로서 좋은 着想이었으나 서울을 松岳으로 定한 것은 대단한 실책이었다. 松岳은 당시에 王建의 莊園이 形成되어 있던 곳이었다. 王建이 弓裔에게 自進降할 때도 松岳의 安全을 求하기 위함이었고 王建은 그렇게 하므로써 松岳에서 닦은 累代의 기반을 확보할수 있었다. 그런데 그곳을 서울로 정한다는 것은 弓裔가 나라를 만들어 王建에게 넘겨주는 作業으로 적당하였으니 弓裔의 政治的 실패는 松岳 定都에서 비롯된다.

弓裔가 松岳定都를 不適當하게 생각한 것은 몇년 뒤의 일이었다. 904年 그는 年號를 세워 武泰라 하고 國號를 摩震이라고 고쳤으며 그 이듬해에는 國都를 鐵原으로 옮겼다. 鐵原還都는 형식상 도참설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松岳이 좋았다고 한다면 도참설에 左右될 弓裔의 個人性格이 아닐것 같다. 오히려 鐵原還都를 合理化시키기 위한 方便으로 도참설을 利用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鐵原還都후 제 2인자였던 王建이 內政에는 아랑곳없이 外征으로 一貫했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

松岳에서 썩든 弓裔의 不安은 서울을 鐵原으로 옮기게끔 하였고 王建의 成長은 王建 自身으로 하여금 自己를 보호할 必要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弓裔는 鐵原으로 옮긴지 6年 즉 911年에 國號를 泰封이라 고치고 王室의 基礎를 든든하게 마련하는 方法으로 鐵原北쪽 楓川原(지금 休戰線 근방 남쪽)에 큰 宮殿을 建築하였다. 이것이 弓裔의 두번째 失策이었다. 王權을 利用하여 土木工事를 할때 王權이 튼튼할 경우에는 놀라울 정도의 建設을 할 수 있다. 機械는 없어도 몽둥이 앞에서 비겁하게도 大端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몽둥이는 機械 이상의 效果를 올린다. 그러나 王權이 튼튼치 못할 때 몽둥이를 들고 建設을 하면 그 몽둥이가 사람을 服從시킬 만큼의 威力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奏始皇帝의 萬里長城의 경우, 大院君의 景福宮과 같이 사람들의 反抗만 받고 만다. 弓裔도 같은 경우였다. 鐵原과 平康, 伊川 등지의 農民을 부역시켜서 지었을 터이니 그 地方 農民의 반발은 컸을 것이다.

信任없는 王의 橫暴, 弓裔는 農民에게 의해서 추대되어 國家를 建設한 자량이 있었다. 그러

나. 그가 楓川原의 土木工事を 제기로 農民을 착취하였다. 指導者는 大衆의 呼應을 받을 때만 指導者이다. 大衆의 呼應을 받지 못하면서 指導者의 자리에 君臨하고 있을 때는 指導者가 아니라 支配者인 것이다. 弓裔가 土木工事を 통해서 大衆의 信望을 잃고 農民에게 過重한 租稅負擔을 주었을 때 大衆은 弓裔에게서 멀리 떨어져 갔다.

그러자 弓裔는 그 王權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지막 힘을 썼으나 側近者도 밀어주지 않았다. 그는 그의 側近者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奸臣輩에게 싸이기 쉽고 變態性이 발달하기 쉽다. 弓裔는 結局 怪常한 사람으로 變하였다. 自己를 「彌勒佛」이라 하고 一舉手 一投足에도 豪華롭기 짝이 없었다. 괴상한 內容의 經書를 만들어 썼으니 當時 社會의 精神의 支柱였던 佛敎를 모독하여 더욱 民衆의 信望을 잃었다. 側近者 중에서 直諫을 하던 宰相이진 將軍이진 極刑에 處했다. 나중에는 自己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죽였다. 王이 아니라 自然人으로서 自己의 終末을 재촉하고 있었으니 그의 王座가 어떻게 保障될 것인가. 결국 申崇謙, 洪儒, 裒玄慶, 卜智謙 등에 의해서 쫓겨나고 대신 王建이 추대되었다. 弓裔는 지금의 平康地方으로 도망갔다가 農民들에게 잡혀 죽으니 918年 新羅 景明王 2년이였다.

江原道內에는 弓裔가 활동하던 그 遺蹟이 많다. 原州 雉岳山, 鐵原의 楓川原은 물론, 그외에 平康의 劍拂浪은 弓裔의 鍊兵場으로 전해 오고, 原城郡 文幕의 뒷산은 建登山이요, 앞 산에는 甄萱城이 있는데 이것은 弓裔가 加平에서 梁吉의 大部隊를 擊破하고 王建으로 하여금 南征케 했을 때 王建이 文幕에서 甄萱(후백제)의 部隊와 맞섰던 곳이다. 그리고 鐵原의 芝浦(新鐵原) 앞산 鳴聲山은 보통 울음산이라 하는데 이것은 弓裔가 失脚한 뒤 그의 部下들이 도망하며 마지막 항거하던 곳으로 전해온다.

(3) 智光國師

高麗文宗 때 國師, 우리나라에 佛敎가 傳來된 뒤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스님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原州라고 예의일 수는 없다. 이들 승려 중에서 原州產 스님, 그 스님 중에서도 이름난 高僧을 찾아본다면 고려시대의 文宗때 王師이며 國師였던 智光國師를 우선 손꼽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智光國師(984年=高麗成宗 3年=雍熙元年 24年 咸雍 6年 庚戌 10月 23日 示化 甲申 12月 晦 誕日 1070年=文宗)란 어떤 분인가. 그는 현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74의 山一帶(院村洞 뒷산)에 있던 鳴鳳山 法泉寺의 寺主이며 華嚴宗師로 華嚴宗의 大講師스님으로서 俗姓은 原州 元氏이며 諱는 海麟이요 字는 臣龍이며 幼名은 水夢이다. 追贈된 諡號가 智光國師이며 塔名은 玄妙라 내렸던 것이다.

高麗穆宗 때 僧科에 及第하여 大德이 되었고 重大師를 거쳐 二重大師 및 僧統이 되어 王師와 國師를 지낸 승려로서는 最高地位를 차지한 類例가 드문 高僧으로 晩年에는 故郷인 이곳 原州의 法泉寺에 와 있다가 入寂하였다.

當時의 임금인 文宗의 명에 의하여 麗初의 문장이 뛰어나고 詩 잘 짓기로 유명한 吏部尙書와 門下侍郎平章事를 歷任한 鄭惟產이 왕명을 받들어 碑銘을 撰하였고 글씨 잘 쓰던 尙書都官郊中을 지낸 安民厚가 碑併陰記를 書併篆하였다. 字徑은 7分 陰記는 9分의 楷書로 體는 歐陽詢을 得하였다. 書牘에는 「得歐陽法 暢適勻妥」라 評하였다.

塔과 碑는 國寶로 지정 이 塔과 塔碑는 大安 元年(1085年 宣宗 3年) 乙丑 8월에 李英輔, 張子春이 建立한 것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탑은 1960年 6月 2일에 國寶 第101號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이란 名稱으로 지정되었다. 원래는 이 法泉寺터에 있던 것을 1915년에 서울 경복궁에 옮겨 현재까지 二層石塔으로 原形대로 精巧를 極하고 莊重美麗하기란 보는 이를 탄복시킨다.

塔碑는 1913年 10月 18日 국보 제59호로 지정되어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라 불리우며 원위

치인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74의 2山에 현재에도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다. 本碑는 그간 風磨雨洗와 雷電等 三災를 입어 破壞處가 많고 겹하여 文字와 彫刻의 破滅處가 많으며 花崗岩으로 된 龜趺위에 碑身을 세우고 그 위에 螭首가 있으며 碑身 前面에는 大字로 碑銘을 彫刻하고 그 가장 자리에 須彌山 扶桑樹等 佛教十長生을 精密하게 彫刻하였으며 周線에 寶相 唐草紋과 兩側에 如意珠를 弄珠하는 雙龍紋을 高彫하였다. 後面에는 塔碑建立當時 從事한 僧徒人員數 및 建立 年月日을 記入하고 있다.

碑石의 높이는 297cm 폭 142cm 두께가 30cm이며 全體의 높이는 445cm 폭·두께가 260cm 이다. 碑文內容을 要略하면 智光國師의 修道한 內歷과 佛教道德의 眞理를 通達하였다는 國師의 行狀이 記入되었을 뿐으로 朝廷의 崇仰을 받았다는 것이다. (本誌 頁의 碑文參照) 이것을 보아 高麗時代 佛教文化를 想起할 수 있으며 碑의 彫刻手法은 十長生을 爲始하여 彫刻의 精巧 치밀함이 실로 감탄을 不禁하는 바이며 高麗시대 특히 초기에 속하는 예술의 極致를 살필 수 있다.

創建當時 境內地가 굉장히 넓어 碑面뒤에 記入된 바와 같이 約 千餘名의 僧徒가 修養하였음을 想起할 수 있고 現在 法泉里 2區 3部落이 全部 그때 당시 法泉寺사찰의 경내지이며 舊 洞名까지 「장뜰(절의 장독간터)」 「도시랑」(道舍廊 即 절의 응접실) 「院村(寺院 또는 書院)」이라 불리우며 산과 들, 그리고 논과 밭에 石材의 瓦片이 많이 散在되어 있으며 특히 幢竿支柱도 남아 있다.

아직도 民間信仰으로 祈子風俗이 남아 있어 작은 돌을 비갓위에 던져 그 위에 얹히면 生男한다 하여 전국 각 곳에서 성행되고 있는데 이곳이라고 예의일 주는 없다. 이로 인한 被害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빨리 이 惡習이 시정되었으면 하며 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기전에 각별히 조심하여야 된다. 이를 이웃 및 부근 주민에게 주지시켜 자발적인 단속이 시급하여 어디까지나 道義心에 호소하는 길 외에는 강력한 법의 제재가 있을 뿐이다.

우리 原州, 原城은 물론 우리나라 탐비로는 최상품이며 국보로 지정된 石碑중에서도 最高美라 하며 그 규모나 정교하기가 白眉로 꼽히는 걸작품이다.

※ 이 法泉寺에서 寄寓하던 많은 사람중에서도 權 近과 卞 季良의 弟子로 李朝 世宗때의 有名한 學者 柳 方善(1388—1443)이 있다. 其 系譜는 文化이나 後에 瑞寧人이 되었다. 正言 沂의 아들로 字를 子繼 號를 泰齊라 하며 太宗 5年 乙酉(1405年) 進士에 登第하여 벼슬은 主簿를 지냈다. 世宗께서도 그를 敬重하였으나 大用未及에 風疾로 卒하였다. 天資가 英敏하였고 志器超凡 그의 文章은 이를 經訓에 本받아 典雅有體, 諸家 險僻之語를 즐기지 않고 作詩에 가장 冲澹高古 實로 唐宋之域에 及迫이더니 晩年에는 易을 즐겨 見識이 卓絶, 學問이 精深하였다.

柳 方善이 永陽에서 配所生活이 끝나 이 法泉寺에 寓居할 때 그의 學德을 흠모하여 찾아온 弟子가 많았고 이들 중에서 歷史的 인물로는 大提學 權 擥, 世祖朝의 重臣 韓 明澮, 咸鏡道 觀察使로서 李 施愛亂때 李 施愛手下에 의하여 암살당한 康 孝文, 문장으로 유명한 徐 居正, 그리고 李 甫欽 등과 같은 名公鉅匠 接武輩出하였다. 특히 康 孝文과 徐 居正의 法泉寺題詠이 아직 남아있다. 이로 미루어 法泉寺는 李朝中期에 灰燼된 것만 알 뿐, 그 正確한 年代는 未詳이다.

(4) 圓空國師

같은 原城郡 富論面 鼎山里 144番 一帶의 牆內洞(담안)部落에 居頓寺 圓空國師勝妙塔碑가 있다. 이 塔碑의 主人公인 圓空國師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圓空國師는 俗姓이 全州李氏며 諱는 智宗이요 字는 神則이다. 追贈된 諡號가 圓空國師이며 塔名은 勝妙라 내렸다. 高麗太祖 13年 庚寅(930年)에 父 行順과 母 金氏의 아들로 誕生하여 18歲에 出家, 後日 天臺四教儀를 배우고 光宗때 吳越에 건너가 永明壽禪師를 뵈고 그에게서 其 心印을 傳해 받고 歸國하여 光宗末에 重大師가 되고 景宗初에 三重大師가 되어 慧月이라 號하

었다. 顯宗 4年 癸丑(1013年) 가을에 詔勅으로 「내가 들으매 위로 軒皇을 따르고 아래로는 周發을 잡으니 모두 스님의 큰 德이라 邦家の 福으로 쓰고자 한다. (下略)」 亞相庚方 密使 張 延祐(晋山 = 江南에 奉使가서 寒松亭曲이 漂流된 거문고에 刻字된 것을 解詩하여준 분으로 原州와는 因緣이 있다) 그리고 執憲 李 昉 等を 派遣하였으나 듣지않아 거듭 거듭 간청하매 마침내 그 뜻을 받아 들이자 王이 王師로 삼고 親히 모셨다.

王師가 되어 同王을 도왔으나 晩年에 賢(玄)溪山 居頤寺로 移住하여 顯宗 9年 戊午(1018)에 89歲(法臘 72)를 1期로 示寂하였다. 顯宗의 命에 의하여 文章에 能한 崔 冲(984~1068年 9月15日)이 王命을 받들어 碑銘을 撰하였다. 崔 冲은 海州 大寧人으로 字를 浩然이라하며 穆宗 8年 甲科 第一에 擢第되어 四朝에 歷任하고 벼슬은 守太師 中書令에 이르렀다. 諡號는 文憲이며 靖宗廟廷에 配享되었다.

風姿가 瑰偉하고 性操堅貞하여 自少로 好學하였고 屬文에 能하였다. 恒常 後進을 敎誨함에 不倦하니 諸生이 門卷에 填溢이었다. 드디어 九齊로 나누어 科學에 應하는 者를 訓育하였다. 私學의 祖라 하며 尊敬하는 同時에 우리나라 學校의 起興은 모름지기 이로서 始初이며 때에 海東의 孔子라 稱하였다. 이 碑撰外에도 開城 炭峴門外의 歸法寺題詠石刻(顯宗朝建)을 撰併書하였고 稷山의 弘慶寺開創碑 同寺의 寺碣等은 그의 所撰이다.

碑文은 當時의 名筆 金臣雄이 奉宜書 併篆額하였다. 字徑은 6分の 楷書로 歐陽詢을 體得하였다. 東國金石評에는 「居頤寺碑 魯公體이나 枯하다」라고 評하였고 書譜에는 「勝妙塔 頗有典型」이라 評하였다.

이 塔과 塔碑는 太平 5年 乙丑(1025年 顯宗 16年) 가을 7月 27日에 建立한 것이 現在까지 남아 있다. 塔은 1939年 10月 18日에 指定되어 寶物 第190號 居頤寺圓空國師勝妙塔이라 불리며 元來는 이 居頤寺터에 있던 것을 1915年에 서울 景福宮으로 옮겨 現在까지 4角 5層塔으로 彫刻이 없으며 塔身은 玄武岩이고 塔의 높이는 520cm이다. 塔碑는 塔과 같이 指定되어 寶物 第78號 居頤寺圓空國師勝妙碑라 불리운다. 原位置인 原城郡 富論面 鼎山里 144 番에 原形대로 碑身은 花崗岩으로된 龜趺위에 세우고 그 위에 螭首가 있으며 碑身前面에만 文字가 있으며 完全 判讀할 수 있는데 碑石의 높이는 245cm, 폭 126cm, 두께가 30cm이다.

碑文內容을 要略하면 圓空國師의 行狀과 功績을 讚揚한 것이며 朝廷에서 崇仰을 받았다는 것이다. (本誌第 479頁의 碑文參照) 賢(玄)溪山은 風水說秘記에 賢溪山下에 可活萬人의 靈地라 稱하여 佛教의 影響을 준바가 크다.

이 居頤寺址는 그 規模가 完全하여 1968年 12月 19日에 史蹟 第168號로 指定받은 由緒깊은 聖地로 異次頤의 緣故地라고 假說을 提示해 본다.

異次頤를 居次頤이라고도 하는데(海東高僧傳, 三國遺事) 居頤과 通하기 때문이다.

「異次頤 殉敎後 290만인 憲德王 9年(817年)에 그를 追善하는 觸香填禮佛結社文이 南潤寺僧一念에 依하여 撰되었으며 그 翌年에는 또 供養塔으로서 6面의 石幢이 慶州 栢栗寺에 세워졌거니와 지금 이 石幢은 慶州 博物館에 옮겨져 있다(安 啓賢의 韓國佛教史)」는 것을 미루어 보아 居頤寺가 異次頤를 追善하는 절로 建立되었다고 推定해 보았다.

(5) 眞 空 國 師

또한 여기에서 眞空大師를 紹介아니할 수 없다. 新羅의 僧侶로 俗姓 慶州金氏 이름을 忠湛이라 불리우는데 高麗太祖의 王師이다. 新羅 景文王 9年 己丑(869年) 正月 1日에 태어나서 高麗太祖 23年 庚子年(940年) 11月 18日에 入寂한 분이다. 長純 禪師에게 僧侶가 되고 新羅 眞聖女王 2年 乙酉(1889年)에 武州의 靈神寺에서 具足戒를 받았다. 經律論 三藏을 부지런히 研究하였

第8編 人 物

다. 一衲의 草廬를 訪問하는가 하면 雪岳에 가서 海東祖師의 遺蹟을 踏查하여 靈塔에 參拜하며 林도 參禪次다니다가 어머니에게 歸觀하였다.

西方의 金海에 이르러 招隱이 있던데를 修理하여 住居하매 學者들이 雲集하였다. 入唐하여 淨圓에게서 修道하고 孝恭王의 王師가 되어 돌아왔다.

小白山寺에 있을 때에 高麗太祖가 南方으로 遠征하는 길에 그 法德을 欽望하여 찾아 보았고太祖가 三韓을 統一한 때에 서울에 가서 賀禮를 올렸다. 太祖 23年(940年)에 原州 興法寺(지금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에서 示寂하였다.

大師의 學德이 道高하고 慈悲스러운가는 高麗太祖가 親히 碑文을 撰하였고 當時 名筆인 崔光胤(平章事 崔彥協의 子)이 唐太宗의 書法을 본 받아서 쓴 것만 보아도 알만하다. 同碑는 大師 滅後 太祖가 親히 세웠다.

高麗의 大學者인 益齊 李齊賢이 글이나 글씨가 天下의 寶物이라고 極口稱讚한 글이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있다.

塔은 1960年 6月 2日에 寶物 第365號로 指定된 興法寺 眞空大師塔 附石棺은 원래 興法寺 터에 있던 것을 1915년에 서울 景福宮안에 옮겼다. 塔臺石에는 龍을 彫刻하였다.

塔碑는 1968年 7月 5日에 寶物 第463號로 指定된 眞空大師塔碑 龜趺 및 螭首단이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517의 田 即 興法寺址의 옛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碑는 原州 官衙에 있다니 詳스럽지 못하다 하여 시궁창에 버렸다 한다.

그後 倭政初期에 當時의 普通學校 構內에 破片 두조각이 殘存했었는데 日本軍 守備隊에서 가져가 現在에는 그 所在가 서울 景福宮 勤政殿廊廡에 移置되어 있는데 現在 上, 下 二石으로 切斷된 위에 下名은 다시 三片으로 破切되어 있기 때문에 中間部位의 缺失로 因한 判讀不能인 部分이 많으나 이만큼이라도 남은 것이 多幸이다.

第3節 中 古 時 代 人 物

(1) 金 自 知

麗朝李朝文臣 : 1367(공민왕 16)~1435(세종 17) (出) 原州

字는 元明이요 號는 逸溪며 本貫은 延安이다. 密直提學을 지낸 金 濟의 아들로서 高麗隅王때 文科에 급제했고 朝鮮 建國後 1417年(태종 17) 京畿道 都觀察使가 되었으며 그후 大司憲을 역임하고, 原州牧使, 平安道 觀察使를 거쳐 1428年(세종 10) 刑曹判書에 올랐고 다시 開城府留使가 되어 別世했다. 學文에 뛰어나 음향, 복서, 천문, 지리, 의학, 음률에 이르기까지 通達하였다.

諡號는 文清(高麗史, 韓國人名大辭典)

(2) 元 天 常

高麗末重臣(忠義) 1380(禰王 2)~1400(태조) (隱) 原州

공의 號는 壺巖이요 본은 原州며 親아우 天錫과 같이 高麗末 重臣이었다. 麗末때 政亂이 심하고 또한 李 成桂가 以臣伐君할 大勢를 알고 退官하여 原州 雉岳山中으로 隱居 손수 밭을 갈아 奉親했으며 太宗大王이 臨御하시어 吏部尙書의 벼슬을 주고 아우 天錫과 같이 만나려 했으나 끝내 몸을 피하여 만나지도 않고 또한 나가지도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高邁한 人品과 忠節이 後世에 기려 빛나고 있다.

〈文獻〉高麗史, 江原道誌, 韓國人名大辭典, 韓國姓氏大觀, 民族寶訣

(3) 李 璘

麗末文臣(忠義) 1385(禰王)~1400(정종) (出) 原州

公의 號는 東岡이요, 貫鄉은 原州며 麗末 恭讓王때 文科에 及第하여 벼슬이 宗簿에 이르렀다. 당시 妖僧 辛 晄의 전횡무도한 집권으로 政治가 날로 부패해가고 또한 李 成桂가 以臣伐君으로 執權을 하니 世情을 한탄하여 原州 七峰山으로 隱居, 一山堂을 짓고 餘生을 보내며 每日 아침 멀리 松都를 向하여 절하며 不二之義를 굳게 지켰다고 한다. 李朝 太宗大王이 수차 초빙했으나 중시 사양하고 平生 高尚한 志操를 간직한 채 耘谷, 梅幹과 같이 杜門書院에서 享祀하였다. 그리하여 耘谷, 牧隱, 梅幹등의 不事二君의 忠義는 麗末人士들의 象徵의인 기개로 길이 빛나고 있다.

〈文獻〉 韓國人名大辭典, 江原道誌, 郡鄉誌.

(4) 元 天 錫

原州元氏의 中始祖이다. 李 成桂의 威化島 回軍을 기점으로 475년간의 高麗社稷이 무너지고 李朝가 건국 됨으로서 高麗遺臣들에 의한 救國 레지스탕스가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李太祖의 開國에 수반된 雜多한 시련과 역경의 연속, 麗末 遺臣들과 그들을 懷柔하는 開國功臣들 간의 不調和 및 끝내의 不屈對立은 慘殺의 비극을 낳게 하였고, 王位繼承을 놓고 芳遠이 벌인 피비린내 나는 骨肉相爭은 李朝를 혼란과 殺生의 渦中으로 몰아넣는 陣痛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같은 시기에 元 天錫은 高麗復古의 1人으로서 王位爭奪을 위해 兄弟간의 殺戮戰을 벌인 李王家의 非人道的 非人間性을 통탄하면서 끝내 不仕하고 雉岳山에 은거하여 無抵抗을 抵抗으로 憂國 愛國한 麗末의 隱士 節士이다.

元 天錫은 高句麗 佐命功臣 金紫 光祿大夫 門下侍中 平章事를 역임한 原州 元氏의 始祖 元 鏡의 19代孫이며, 忠肅王 17년(庚午) 7월 8일에 宗簿寺丞을 지낸 允迪의 次子로 태어났다. 字는 子正, 號는 耘谷, 本貫은 原州로 原州元氏의 中始祖이다. (原州元氏宗史 第一編 源流分派圖)

燃黎室記述 高麗守節臣附에 보면, 耘谷은 文章이 富儻하고 學問이 該博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麗末의 政治가 어지러움을 보고 雉岳山에 은거하면서 이름을 감추고 몸소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를 奉養하던 중 이름이 軍籍에 등록됨을 보고 부득이 應學하여 단번에 及第하였다. 하지만 淸顯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鄉里인 原州로 돌아와 牧隱 李 穡과 더불어 往來 交分하면서 作詩 贈答하고 亂世의 시국을 개탄하였다.

耘谷은 太宗(芳遠)이 少時에 글을 가르쳐 준 스승이었음으로 太宗이 즉위하자 마자 그의 恩德을 謝하기 위해 여러차례 불렀지만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太宗이 東遊時, 雉岳山에 은거하고 있는 耘谷의 廬舍를 친히 방문하였다. 그러나 耘谷은 그를 피하고 끝내 보이지 않았다. 착잡한 심경에 사로잡힌 太宗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달래면서 溪石위에 올라 그집의 婢를 불러 음식을 하사하고 돌아와 그의 아들 洞에게 基川(豐基)監務를 除授하였다. 그런데 後人들이 太宗이 올라섰던 그 돌을 太宗臺라 일컬었고 그 臺가 雉岳山 覺林寺 절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上王이 된 太宗이 特命으로 耘谷을 불렀다. 그는 御命을 거역할 수 없어 入闕은 하였지만 상제처럼 흰옷을 입고 入闕拜謁하므로써 형제간의 殺戮을 거침없이 자행한 太宗의 非人道的 人間性에 대한 레지스탕스를 잊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太宗은 자기의 옛스승이라 여러 왕자들을 불러 나와 뵈게 하고는 「내 자손들이 어떠하오」하고 耘谷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世祖를 가리켜 「이 아이는 祖父(太宗)를 많이 닮았으니 모름지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祖父인 太宗이 사람을 많이 죽였듯이 祖父를 많이 닮은 世祖도 사람을 많이 죽일 것이라고 豫言 警戒한 말이다.

耘谷이 일찌기 野史를 지어 櫃속에 넣고 자물쇠로 채워 두었다가 운명할 때 유언하기를 「家

第1編 人 物

廟에 감추어 놓고 조심히 지키라」하고 그 상자 곁에 「내 자손들이 만일 나와 같지 않으면 열어 보지 말라」고 글을 써서 붙였다(어떤 기록에는 成人(聖人)이 아니면 열어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같이 하여 아들과 손자代에는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曾孫代에 이르러 名節제사를 지내기 위해 여러 宗親들이 모였을 때 그 상자의 開・不開가 논의 되었다. 「先祖께서 비록 그 상자를 열지 말라는 유언이 계셨지만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嫌疑될 바가 없으니 열어 보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의 일치를 보아 드디어 상자를 열었다. 그런데 그 상자속에는 麗末의 일들을 사실대로 直書한 史書가 들어 있었다.

이에 모두 놀란 宗親들은 「이것은 우리 宗門를 멸할 물건이니 이것을 본 이상 소문나지 않을 리 없다」고 하여 그 史書를 불살라 버리고 말았다. 그의 遺稿 2卷 중에 당시 事跡을 후세인이 잘 알 수 없는 것을 直筆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辛 禰(禰王)가 恭愍王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直筆중에 가장 뚜렷한 것이다. 辛 禰가 辛 晦의 所生(婢妾 般若의 所生)이나 恭愍王의 所生이나 하는 문제는 尙今도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면, 詩文을 통해 본 人間像, 한편 耘谷의 詩文등을 통해서 그의 人間像을 규지해 보면,

過楊口邑

破屋鳴相乎 民逃吏亦無
每年加弊癘 何日得歡娛
田屬權豪宅 門連暴惡徒
子遺殊可惜 辛苦竟何辜

허물어진 집터에 까마귀떼 까악 까악
백성 달아난 후는
아전늬도 없구나.
해 갈수록 민폐는 더해만 가니
어느제
우리 다시 즐거움 얻으랴.
문전옥답
깡그리
세력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대문마타
포악의 무리
늘어섰구나.
차마 어린것들 가엾서라
괴롭고 애태움
무슨 죄일까.

貪官汚吏의 橫暴, 收奪行爲, 苛斂誅求를 개탄하고 나라의 장래를 근심 걱정하는 읍이 句句 節節이 서려있음을 알 수 있다.

禰王이 江華島에 옮기고 만아들 昌이 즉위했다는 것을 보고 느낌이 있다「主上遷下遷于江華元子即位有感」라는 제목으로 된 詩에, (國譯 燃黎室記述)

聖賢이 서로 만나 교체되니

天運이 순환함을 이로부터 알겠네.

草野에 있는 몸

어찌 憂國의 뜻이 없겠나.

다시 간절한 忠誠 다하여

國家危安 염려한다(以下略)

(聖賢相遇遞當時 天運循環自此知 田畝豈無憂國意 更殫忠懇念安危)

都統使 崔 瑩이 刑을 받다「都統使 崔瑩被刑」라는 詩에,

거울이 빛을 묻고 柱石이 무너지니

빛나는 功業이 마침내 허물어져도

靑史에 행적이 기록되어 帙에 찾는데

생각건대 아득한 저 黃泉아래

홀로 조정에 설제 누 감히 범하리.

六道백성 희망따라 三號社稷 편하게 했네. 同列의 영웅들은 낮잠도 두렵다.

간사 아첨한 자들은 죽기 전에 벌써 뼈가 차리라.

다시금 亂이 일면 괴할 이 누구일꼬

사방의 백성들 뉘 아니 슬퍼하리.

확고한 忠誠 죽어도 삭지 않으리.

가엽도다 벌써 흠으로 되었네.

눈을 東門에 걸어도 분이 풀리지 않으리.

언제나 忠義로써 어려움을 겪었구나

同列의 영웅들은 낮잠도 두렵다.

간사 아첨한 자들은 죽기 전에 벌써 뼈가 차리라.

가소롭다 用事하는 人間들.

내 이제 보고 듣고 哀詩를 지으니

天運의 겹와 泰를 누 알리오

날랜 칼날 부러지니 슬퍼한들 어찌라

외로운 忠誠으로 나라 지탱하지 못함이 험이로다.

홀로 산하를 대하여 이곳을 노래하니

원구름 흐르는 물이 모두가 한숨이로다.

공을 위한 슬픔 아니라 나라 위한 슬픔이라.

나라 터전 安危는 아직 정하지 못했네.

韓山君 李 穡이 長湍에 귀양가다「韓山君被謫長湍」는 詩 에,

하늘 보배 빛 감추고 政令이 가혹하니

요사이 사흘밤 꿈에 뵈옵고

기억하며 노래짓네.

하늘이 斯文을 없이 하지 않았다면

玉은 스스로 티가 없으되

탁마할 이 누가 있으리.

혼이 서로 만나 놀던 일

나라의 經綸은 불구덩에 들어갔고

逆人인들 우리에게 여찌 하리오.

第8編 人 物

일은 이미 거짓되었으니
海東의 풍월마저 분통을 먹음고
萬姓이 다같이 새 세상을 보는데
曲直을 밝게아는 푸른 하늘 있으니

荊人의 두번 발 땀이 다른 이유 아니다.
천하의 영웅들이 슬픔을 같이하리.
江山은 옛모습 변함이 없구나.
자나 깨나 몸 편안하심 비나이다.

懷古歌와 忠節歌 韓山君被謫長湍이란 詩에 대해 象村 申 欽은, 「詩가 비록 꾸밈없이 수수하고 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많으나 事實에 있어 直筆로 숨긴 것이 없으니 鄭 麟趾의 高麗史에 비하면 日星과 帶鍊(무지개)과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詩를 읽으니 눈물이 두어 줄기 내리더라고 말했다.

(詩語雖質朴多不成語 而事則直書無隱比 鄭麟趾之麗史不啻 日星帶鍊之相懸 譯之淚數行下)〈象村集〉

江原道 觀察使가 된 寒岡 鄭 述이 紆谷의 묘에 제사하고 祭文에「山에 묘사리가 있으니 가히 굶주림이 없을 것이요 집에 거문고와 책이 있으니 가히 스스로 즐길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追慕하였다. (山有蕨薇可以無飢 室有琴書可以自怡……)〈逐睡篇〉

麗末 韓國時調文學 濫觴期の 대표적 時調로서 懷古歌와 忠節歌 二首가 다음과 같이 傳해 내려온다.

懷古歌로,

홍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덕의 부쳐시니
석양에 지나난 손이 눈물겨워 하노라

忠節歌로,

눈마자 휘어던 대를 누라서 굶다던고
구불 절이던 눈속에 푸로르라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方鍾鉉: 古時調精解)

이상 詩文과 時調, 그리고 기타 門中の 이야기를 종합해서 現代의인 측면에서 紆谷의 人間像을 浮刻시켜 보면,

- ① 憂國愛國의 衷情이 흘러 넘치는 志士
- ② 奸邪用事하는 무리들, 특히 貪官汚吏들을 철저하게 憎惡한 義人
- ③ 憂國忠節의 丹心을 直筆로 나타낸 直線型이면서도 그것을 행동보다는 詩文으로 더 많이 燃燒시킨 悲憤慷慨의 憂國型
- ④ 顯達을 통한 立身揚名보다는 義로운 人間性을 보다 중요시한 人間至上主義者

⑤ 한시라도 나라를 잊어버린 적이 없는 철두철미한 愛國者로 集約할 수 있다.

레지스탕스 四處士 紘谷은 王政復古를 위해 李太祖에 反旗를 든 高麗遺臣들을 학살하느라 쫓겨난 레지스탕스 杜門洞 72인의 한 사람이며, 李 陽昭, 南 乙珍, 徐 甄과 더불어 「高麗四處士」로 유명하다.

특히 紘谷의 時調 「興亡이 有數하니……」는 國文學史的인 측면에서 볼 때 初期의 時調文學을 보다 빨리 定着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다시 말해서 時調의 發生(高麗中葉・末葉兩說)과 더불어 李朝 開國功臣의 何如歌, 鄭 夢周의 丹心歌, 吉再 元 天錫의 懷古歌로 그 內容의 패턴이 바뀌면서 時調文學이 着根되기에 이르렀다.

圃隱의 丹心歌가 피로써 抵抗한 愛國詩라면 紘谷의 懷古歌는 한숨과 눈물로 흐느끼면서 抵抗한 悲哀의 詩라 할 수 있다. 가람 李 秉岐씨는 鄭 夢周와 元 天錫은 高麗末의 代表的 時調作家요, 그들의 作品인 丹心歌는 麗末의 대표적 傑作이라고 말했다. <가람文選>

原州市 杏邱洞(속칭 살구덕)石逕洞(속칭 물경이·돌개) 동쪽 십리에 紘谷의 墓가 있으며 後孫들이 春秋祭享을 올리고 있다. 또 原州 元氏 世譜에 보면 七峰書院을 건립하여 그를 配享하고 그 賢德을 기렸다는 기록이 있으나 지금은 아무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後孫들이 原州에 많이 살고 있다고 門中에서 일러준다.

文集으로 元紘谷集이 전하는데(高麗大學所藏) 그것은 書誌面에서 現傳하는 것 중 三國麗鮮 이래 最古하며 實錄과 같은 巨大한 長方形의 寫本이라고 李 秉岐씨가 『가람文選』에서 말하고 있다.

(5) 秋 適

號는 露堂이며 官은 門下侍中에 至하다. 密城伯을 受封하는 同時에 海東理學을 京師로서 安文成公 裕와 더불어 文廟를 세우고 地方子弟 教育을 爲하여 獻身한바 特히 公은 明心寶鑑을 著作하여 行于世하다.

第4節 李朝의 文臣

(1) 元 冲 甲

길이 빛날 雉岳血戰, 「적은 原州에 와 주둔하면서 50餘騎가 치악산성 밑에 침입하여 牛馬를 약탈하니 原州別抄 향공진사 元 冲甲은 졸병 5.6명을 거느리고 싸워 소와 말을 도로 빼앗았다. 적은 다시 병사를 모아 4백여명이 鎭原山城으로 입침하였다. 元 冲甲은 仲山등과 같이 7명의 결사대를 조직하여 쳐들어오는 적을 치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 적병을 죽이니 적은 패하여 도망했으며 말 25필을 노획하였다.

그러나 적은 다시 대부대를 이끌고 城밑에 물러와 포위하여 공격 할 준비를 갖추고는 한 사람의 使者를 성안으로 보내어 書信으로 항복할 것을 협박 권유하였다. 元 冲甲은 도리어 使者를 죽여 그 머리에 書信을 매달아 성밖으로 던져버렸다. 이에 적은 다시 2명의 부녀자를 使者로 보내어 유인하였으므로 그들도 역시 죽여서 적에게 사생결단의 강력한 의사를 보였다. 적은 일단 물러가서 再侵을 위해 兵馬를 훈련시키는 것 같았다.

그 후 얼마가 지난 후 적은 다시 복을 올리며 함성을 지르면서 百計로 맹렬히 공격하여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했으나 士氣는 오히려 조금도 약하여지지 않고 興元倉 判官 曹 愼이 용감하게 나아가 싸우는 동시에 元 冲甲은 급히 東峰으로 달려가 강적을 맞아 용감히 싸워 적의 목을 자르기 시작하니 적의 軍勢는 약해지는 듯 했다.

이때 別將 康伯松 등 30여명이 달려와 적을 무찔렀으며 元 玄傳, 元鍾秀등의 관리와 安守貞의 國學生과 公私奴婢 1백여명이 西峰에서 달려와 적을 협공하니 적의 선봉은 차차 무너지기 시작 할 뿐만 아니라 후진은 벌써 서로 충돌하였다. 군사가 힘을 합쳐 싸울때 북채를 들고 북을 두드리며 싸움을 독려했던 曹 愼의 오른편 팔에 적의 화살이 날아와 꽂혔다. 그러나 勝戰鼓를 알리는 목소리는 조금도 작아지거나 그치지 않았으며 결사적인 血戰은 적을 무찌르는데 더욱 용감하였다.

이때 州兵의 合擊하는 아우성 소리가 온 山岳을 진동하였다. 元 冲甲은 군사와 더불어 敵陣으로 뛰어들어 그 主力을 격파하고 어지러워지는 적의 틈을 타서 일시에 함성을 지르고 적을 격파하면서 敵將을 비롯하여 68명을 목베었으며 그 태반을 사살하니 적의 공세는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한 뒤에 城을 굳게 지키고 적의 침공을 막기위하여 만반의 군비를 갖추었으므로 적은 다시 쳐들어 오지 않았다. 50여명의 포로는 原州의 防護別監 卜奎에 의해서 朝廷에 바쳐졌다.」

이상의 기록은 高麗史節要 高麗史 東國戰亂史 등에 수록된 雉岳城 血戰의 활약상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기록에 나타난 元 冲甲의 超人的 투쟁정신과 강직한 人間性은 戰亂에 임하는 한 人間の 不屈의 의지를 상징하며 江原戰亂史에서 길이 빛날 전통을 세운 것이다.

때는 高麗와 元 양국의 婚姻政策에 의하여 元室의 公主로서 高麗王의 王妃를 삼고 高麗王子는 禿魯花로서 元나라 서울에 머물게하여 高麗로 하여금 元나라의 附馬國 즉 외생국이 되게 하였으며 양국의 政治 法俗은 더욱 混一狀態를 이루어가던 시기였다. 忠烈王은 世子로 元나라에 있을 때 元世祖 忽必烈의 딸 齊國大長公主를 맞아서 妃를 삼고 즉위한 후 元나라를 위하여 日本遠征에 다수한 인명과 재물의 희생을 내었으며 국내에 명령하여 일반민으로 하여금 元나라 習俗에 따르게 하였다. 또 元나라도 高麗를 위하여 患亂, 天災 飢饉이 있을 때에 상당한 구조의 施與가 있었으며 그 施與와 救助는 물론 高麗朝廷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양국의 이러한 관계가 맺어져있을 때 元은 내안의 반란이 일어났다. 元世祖의 토벌을 받아 그 餘黨인 합단이 海都和 호응하여 다시 난을 일으키자 鐵木耳를 보내 난을 평정했다.

官軍이 돌아가자 다시 일어났는데 乃灣帶의 정벌로 기세가 일단 꺾였으나 滿洲방면에서 방비가 약한 豆滿江을 건너 高麗의 東北邊으로 침입하게 되었다. 高麗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먼저 柳 玭를 元나라에 보내어 援軍의 파견과 고려 조정의 江華 피난을 청하게 되었다. 이에 우선 부녀자, 노약자와 文籍등을 江華로 옮기게 하고 州縣에 대비책을 세웠다. 忠烈王 16年(1290년) 합단軍 수만명은 11월에 雙城을 침공하였고 12월에는 벌써 雙城과 登州(지금의 安邊)를 함락했으므로 충열왕은 강화로 피난하였다. 다음해 1월에 합단적은 鐵嶺을 넘었고 交州道(지금의 江原道)로 들어와 楊根을 함락하고 남녀를 잡아가니 인심이 흉흉했다. 적은 남하하여 原州에 집결했다. 합단적은 原州의 요새인 雉岳城을 공격했다. 이 싸움에서 元 冲甲의 용감한 활약으로 적의 銳峰을 일단 꺾게 되었다. 적은 忠州山城에서 패해 연기현에 물러 들었다. 4월에 도착한 元兵과 함께 5월에 麗·元軍은 연합하여 적을 무찔러 도망치게 한 것이다.

哈丹族 討伐에 큰功을 세운 元 冲甲은 高宗 37年(1250년)에 原州에서 태어나 향공진사로서 原州 陣營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이때의 행장은 뚜렷한 것이 없고 州軍의 別抄에서 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합단적의 亂을 맞은것은 元 冲甲이 42세되던 해였으며 이미 장년으로서 한창일 때였다.

기록에 보이는 그의 용모는 『몸이 저고 정갈하였으나 눈빛은 마치 전광처럼 빛났고 어려운 일에 임하면 분연히 일어나 몸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처결하였다.』(短小精悍 眼有電光 能臨難忘身)

고 한다. 이 절박한 용모와 성격에 대한 설명은 그가 담차고 결단력이 있고 과묵하나 통솔력을 갖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합단적을 무찌른 혁혁한 전공으로 推誠奮勇 匡國功臣이 되고 후에 벼슬이 三司右尹에 까지 오르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忠烈王은 늙었고 妃의 喪을 당하여 건강을 잃고 차차 政治에 권태를 느껴 元圭의 허락을 받아 王位를 세자에게 넘겼다. 世子 즉 忠宣王은 齊國公大長主의 소생으로 元의 진왕녀를 취하여 元都에 머물다가 1298년 귀국하여 王位에 오르고 忠烈王을 太上王이라 하였다.

忠宣王은 대륙국가에서 자라난 만큼 포부가 크고 식견이 높고 과단성과 적극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舊制를 개혁하여 널리 人材를 등용하고 국가의 좀인 모리배를 징제하여 維新의 기운을 펴다가 權家世族의 불평을 일으키게 되었다. 忠宣王에 대한 비난과 무고가 빚발치고 元公主가 王의 총애를 받기위해 趙妃(趙仁規의 女)를 元太後에 모함하자 元은 忠宣王이 1년을 넘길 틈도 주지 않고 趙妃를 잡아가고 왕과 왕비를 소환하여 왕위를 다시 忠烈王에게 돌려주었다.

이때 忠宣王의 革新政治의 불안을 느끼던 奸臣 吳潛(기) 王維紹등이 이를 다행히 여기어 元大臣에게 뇌물을 써서 忠宣王을 귀국치 못하도록 하고 또 王父子를 이간 시키는 음모를 꾸몄다. 이때 모두 이들의 세도에 놀려 감히 그 잘못을 말하지 못하였다. 元 沖甲이 54세가 되던해 大臣50여명과 함께 입궐하여 吳潛 등의 죄상을 낱날이 직언하였으므로 吳潛과 洪子潛등은 검거되었다.

元 沖甲은 이들을 元으로 압송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렇게 뜻과 지혜를 펴 忠宣王때엔 應揭車上護軍을 받았으며 忠肅王 6년(1319년) 그가 70세가 되던 해에 功臣의 號를 받기도 했다. 忠肅王 8년(1321년) 사망하니 향년 72세였다.

지축을 흔들은 성난 호랑이
원주 백성을 다 살리었네.
怒虎雷鳴動地行
北原遮斷萬民生.

또한 薛長壽의 詩도 元 沖甲의 용맹을 찬양하고 있다.

우뢰같은 호령소리 바람에 날려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내도다.
무서운 위풍으로 적진을 휩쓸어
백성을 길이 지켰도다.

雷勵風飛號令行
州民療得保餘生
雄威獨掃千入陣
長策能全百雉城

金도 趙浚등도 元 沖甲의 치악성 싸움을 찬양하는 詩를 썼으니 전쟁에서 완전무결한 승리란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가를 상기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高麗王朝의 혼란과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을 시기에 정부군도 아닌 地方軍으로 수만의 적의 예봉을 꺾었다는 것은 原州戰史뿐만 아니

第8編 人 物

라 韓國戰亂史에 길이 빛날일이다. 原州의 치악성이 古代로부터 중요한 전쟁터였으나 元 沖甲의 결사적인 血戰에 의해서 더욱 그 중요성이 알려졌다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때의 金 梯甲의 활동이나 舊韓末의 義兵활동도 이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것은 비단 地勢의 유리한 점도 있겠지만 戰亂에 임하는 주민들의 抵抗精神과 불굴의 투쟁정신이 오랜 전통으로 가슴속에 간직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元 沖甲의 행장은 바로 이러한 투쟁 정신의 모범이 아닐 수 없다.

※ 決斷力 높이 評價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점은 元 沖甲의 評傳이 그의 투쟁정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의 용모가 불품 없었다는 것은 이미 기록으로 밝혀진 바와 같으며 이는 그가 평소에 수련을 쌓아올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소의 수련이 없었다면 國亂을 당하여 決斷力있게 투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42세가 되도록 別抄에 수록된 항공진사에 불과 했다는 것이며 합단적의 亂과 함께 그의 이름이 江原戰亂史에 길이 빛난것이라 생각된다.

元 沖甲은 첫째, 정부군이 아닌 地方軍으로서 국가에 충성하는 충직한 武人精神을 발휘하여 마침내 승리의 영웅이 되었고 둘째, 이미 功臣이 되어서도 이러한 강직한 충성심을 발휘하여 부패한 정치인을 반박했고 셋째, 原州를 중심으로한 지방민이 國難을 당하면 끝없는 抵抗精神으로 투쟁하는 모범을 처음으로 수립하였고 넷째, 참다운 의미가 지방민으로서의 중앙정치에 참여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元 沖甲의 투쟁정신은 훗날 嶺西地方에 武人誕生의 傳說과 神話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2) 鄭 宗 榮

李朝名臣(清白吏) 1513年生 (出)原州

公의 字는 仁吉이요 號는 恒齊며 貫鄉은 草溪 諡號는 靖憲公으로서 1513年 原州 風山洞에서 鄭 蘊의 曾孫이요 鄭 叔(縣監)의 아들로 태어난 先生은 四道觀察使 六曹判書 右贊成을 歷任하고, 清白吏에 錄選된 名臣이며 道學 文章으로 當代에 뛰어난 人材였다. 人品이 外柔內剛하고 清白하며 글씨에도 빼어난 것은 慕齊 金 安國의 門人으로서 金 安國은 名賢 趙 光祖와 더불어 金 宏弼의 學統을 이은 우리나라 傳統的 士林이다.

李朝 中宗때 生員進士 兩試에 合格하고 癸亥年에 及第하여 江原 慶尙等 四道の 觀察使와 六曹의 判書를 두루 歷任하고 八溪郡에 封해졌으며 또한 右贊成을 지낸 公은 中宗, 仁祖, 明宗, 宣祖의 四王代에 한결같이 清白한 忠臣으로 李朝王實錄에 무려 一百餘回나 이름이 오르고 있는 當代의 名臣이었으며 關西伯으로 在職時는 善政을 하는 同時 武藝단을 崇尚하던 關西에 學問을 傳播 書院을 세워 章甫의 道를 가르치니 이곳 사람들은 不過數年에 司馬에 오르고 文科에 及第한 사람이 많았다 한다. 戚族과 칩쓸리지 않고 起然하여 東西分黨을 克服했고 戶曹正郎(財務部 財政局長)당시 御前會議때 三公(領議政 左右議政)의 失政을 통렬히 批判할 정도로 剛直했으며 그후에 右贊成의 벼슬을 下職, 原州鄉里로 落鄉할때, 宣祖께서 특히 말과 술을 下賜하여 惜別하니 道路에 錢送하는 車馬가 헤아릴수 없었다 한다. 한편, 落鄉한 이듬해 77歲를 一期로 別世한 公은 原州 七峰書院에서 祭享하고 있다.

<文獻>江原道誌, 韓國人名大辭典, 韓國姓氏大觀, 民族寶訣, 明宗, 宣祖實錄.

(3) 金 昌 一

儒學者: <生>1540年代 <出>江原道 原州

公의 號는 四寒이요 本은 慶州다. 參議 永源의 玄孫으로 일찌기 暢菴 金 謹恭을 따라 工夫하

여 禮試에 여러번 合格되기도 했다. 그러나 覆試에 응하지 않고 崔 守愚를 師事하며 더욱 學文에 精進했다. 行實이 高潔하고 德望이 높았으며 宣祖께서 불러 齊郎을 累除했으나 끝내 나가지 않고 居士로서 後學育成에 功을 다한 人物이다.

乙丑年에 많은 선비가 禍를 당했으나 공은 禍를 당하지 않고 그후 洪川, 高山, 高敞, 金溝, 安岳 등 諸郡縣의 宰을 역임하니, 또한 善政碑가 도처에 세워졌다. 恒時 正義의 大道에서 올바르게 公事하니 후에 벼슬이 同樞에 이르렀으며, 王政을 陳疏하기도 한 剛直한 人物이며 그의 文集도 많이 遺傳해 오고 있다. (文獻)江原道誌 郡郷誌)

(4) 韓 孝 純

李朝名臣: 1543(중종 38)~1621(광해 13) (出)原 城

공의 字는 勉叔이요 號는 月灘이며 貫鄉은 淸州로서 尙敬의 아들로 태어났다. 1568年(선조 1)에 生員이 되고 1576년 式年文科에 丙科로 급제 檢閱修撰을 거쳐 1584年 寧海府使가 되었다. 1592년 壬辰倭亂 때 영해 싸움터에서 倭軍을 격파한 후 경상좌도 관찰사에 특진하여 巡察使를 겸임, 軍糧米 조달에 功을 세웠다. 1594年 兵曹參判을 거쳐 1596年 경상, 전라, 충청도 道體察使가 되었으며 이해 閑山島 武科에 試官이 되고, 또한 李 舜臣이 천거하는 武將들을 발탁했다. 이듬해 知中樞府事가 되었고 1604年(선조 37) 吏曹判書가 되었으며 다음해 平安道 觀察使, 判中樞府事등을 거쳐 1606年 右贊成이 되었다.

이어 判敦寧府事를 지내고, 1610年(광해군 2) 吏曹判書에 재임되어 李 爾瞻 일당과 함께 人事權을 장악하고 반대파를 모두 추방, 1616年 右議政을 거쳐 左議政에 올랐다. 이듬해 廢母論을 발의하여 大臣으로서 百官을 인솔하고 仁穆大妃의 삭호를 주청한 다음 이에 반대하는 李 恒福, 奇 自獻를 탄핵하여 유배케 했고, 1618年 廢母를 실현시켜 西宮에 유배케 했다. 이어 사직했다가 判中樞府事로 죽었다. 한편 1623年 仁祖反正 후 관직이 추탈되었으며 神器秘訣, 陣說 등의 編書가 있다. <文獻> 宣祖實錄, 人名大辭典

(5) 韓 百 謙

朝鮮實學의 先驅者 韓 百謙은 原州 出身으로 現在도 原城郡 富論面 魯林里에는 그의 後孫들이 同族村落을 形成하여 살고 있다. 그는 1552年 즉 明宗 7年 壬子에 韓 孝胤의 맏아들로 태어나 1615年(光海郡 7年)에 別世하였다. 字는 鳴吉, 號는 久庵으로 淸州 韓氏 久庵公派의 始祖이다. 그가 活動한 時期는 宣祖朝로서 易學과 歷史 地理學 研究에 考證學의 方法을 適用하여 朝鮮中期實學의 先驅者로 널리 알려진 人物이다.

淸州 韓氏에 대해서는 뒤에 仁烈王后를 소개할 때 이야기 하니 여기서는 省略한다. 淸州 韓氏에는 忠成公派 韓 明澮를 비롯한 60餘 分派가 있으며 그 중에서 旌善公派가 있고, 거기에서 分系派가 10餘派 있는데 10系派는 韓 百謙을 主孫으로 10從兄弟를 始祖로 하고 있다. 그것은 10從兄弟가 모두 뛰어나 中興始祖로 優待를 받게 되었다는 뜻을 나타내거니와 男子들 뿐만 아니라 韓 百謙의 질녀 즉 韓 浚謙의 딸은 仁祖反正 후 仁烈王后로 國母의 地位에 올랐으니 當代 이 家門의 榮光은 비길데 없었을 것이다.

勿論 10從兄弟가 系派의 始祖가 되었던 것은 次代에서 王妃가 輩出된 理由도 컸다. 그러나 韓 百謙의 叔父 韓 孝純은 宣祖朝 壬亂 功臣이기도 하고 吏曹判書까지 지냈지만 光海에 다시 史曹判書 右議政 左議政을 歷任하여 仁祖反正 후, 그의 死後였으나 관직을 追奪해 버렸으므로 家門

의 喜悲가 엇갈렸을 것이다. 韓 百謙의 學統은 徐 敬德을 이어 받았는데 徐 敬德의 門下人 閔 純에게 師事한 韓 百謙이고, 그가 벼슬보다 學門에 熱中했던 것도 閔 純의 影響을 많이 받은 것 같다. 閔 純이 孝行으로 천거되어 벼슬길에 올랐으나 遂安郡守 때 물러나 學文에만 힘을 쏟았고 韓 百謙도 中央要職에서 막 大監 地位에 오르려 할때 물러나 學者의 生活로 餘生을 보냈으니 그가 효성과 學門에 극진했던 것도 어쩌면 閔 純과 비슷하다.

大同法の 創始者이며 그의 官界 經歷은 寧越郡守, 刑曹正郎, 淸州牧使, 戶曹參議, 江原道 按撫使, 坡州牧使 등이었다. 그는 坡州牧使를 마지막으로 官界에서 물러났는데 그 때는 光海朝 初期였다. 당시는 黨爭이 격화되어 政局이 수상할 때여서 處世하기도 힘들었다. 그의 黨色은 東人에 가까웠으나 比較的 中道派 人士로 指目되었다. 그것은 栗谷 門下에 西人이 많고 退溪 門下에 東人이 많았는데 그가 花潭 徐 敬德의 系列과 密接했다는 데서 짐작할 수도 있다. 그는 清廉한 官吏였고 언제나 百姓들 편에서 百姓의 利益을 追求하였다.

宣朝때 寧越郡守로 있었는데 그곳에는 淸德碑가 세워져 「廉潔爲 政惠化無窮……」이라고 그를 讚揚하였다. 그가 百姓들을 생각하는 것이 至極했던 것은 당시 李 元翼과 더불어 貢物의 폐해를 들추어서 大同法을 實施케 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貢物이란 各 地方에서 特産物을 獻納하는 제도였다. 옛날 百姓의 負擔은 一般土地稅와 兵役 및 賦役稅와 特産物을 바치는 貢物이 있었는데 地方 官吏의 橫暴로 말미암아 特히 貢物때문에 생긴 弊端은 컸다. 特産物을 강제로 재배케 하거나 혹은 中間 商人과 官吏가 結託하여 特産物을 高價로 買收하여 바치고 그 代價를 百姓에게 強要하는 防納의 弊端이 明宗때부터 심하게 나타나 그것은 壬亂 후에 더욱 심해져 百姓의 飢를 빨아먹고 있었다.

그리하여 韓 百謙은 是正策을 주장하여 李 元翼과 더불어 大同法을 실시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大同法은 朝鮮王朝 經濟政策의 最大 改革으로서 貢物制를 폐지하고 貢物대신 쌀로 바치게 하여 그 쌀로 國家가 필요한 特産物을 사서 쓰게 하므로써 百姓에게 희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의 對人關係는 대단히 너그러웠다. 澤堂 李 植이 쓴 「久庵遺稿」의 序文에서나 또 愚伏 鄭 經世가 撰한 「神道碑銘」에서나 한결같이 「接人이 和平하여 누구에게나 관심을 갖다」고 한다.

그가 鄭 汝立의 謀反 事件 때 慶原으로 귀양간 적이 있다. 理由는 鄭 汝立이 죽은 후 韓 百謙이 痛哭했으며 鄭의 甥侄(누이동생의 아들) 李 震吉과 情分이 두터운 위에 鄭 汝立의 屍身을 厚하게 장사지내게 했다는 罪目이었다.

하여튼 鄭 汝立 謀反事件으로 東人에 대한 肅清이 加해져 소위 己丑獄事를 통해 平素 鄭과 交分이 가까운 사람은 受難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韓 百謙이 그러한 危險한 時局에 叛逆者로 크게 指彈을 받은 鄭 汝立의 屍體를 돌봐 줬다는 事實은 叛逆에 同調한 意味에서가 아니라 平素의 人情을 危險한 가운데서도 서슴치 않고 나타냈다는 점에서, 즉 人間的 側面에서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 같다.

凡常한 人物이거나 아니더라도 오늘날의 人情을 보면 살았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돌도 없는 友情인양 떠들어 오다가 죽은 후에 外面하는 것은 말할나위 없지만, 먼곳에 헤어지면 옛 이야기 속에서도 찾지 못할 정도로 잊어버리는 매정한 오늘날이 아닌가.

淸州牧使때 逸話로 韓 百謙은 孝胤의 長男으로 말하자면 宗孫格이다. 옛 家禮에서 宗孫의 處地가 어떻다는 것은 讀者들이 잘 알 것이다. 그런데 그의 祖上중의 누구의 墓를 잃어버린 해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失墓한 祖上의 墓를 찾는 것은 그의 所願이었을 뿐 아니라 主孫으로서

의 義務이기도 했다.

그가 中央官界에서 戶曹佐郎이나 戶曹正郎으로 있을때 各方으로 情報를 모았는데 祖上이 살던 淸州方面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데로 壓縮되었다. 때마침 韓百謙이 淸州牧使로 轉任케 됐는데, 그것은 그의 叔父 孝純이 吏曹判書를 지내는 등 中央官界의 大監으로 있었고, 또 孝純의 아들들이 거의 文武科에 及第하여 官界에 進出해 있었으며 韓百謙의 동생 浚謙이 또한 要職을 돌아다니며兄의 計劃을 돕고 있었으나 淸州牧使를 간직 자체가 計略에 의한 것으로 주축할 수도 있었다.

淸州牧使로 赴任한 韓百謙은 夫人 金氏를 통하여 얼굴이 예쁜 寡婦를 求하여 探偵케 했는데 淸州韓氏와 平素에 關係가 나뉘던 盧氏 門中에 들어보냈다. 그런데 墓는 원래 그곳 南一面 加山里에 있었는데 옛 墓의 碑石과 祭石을 가져가 버렸고, 墓의 모양도 全然 달라졌으니 盧氏들의 원한에 의한 작난으로 추측했던 것이다.

牧使의 探偵員으로 盧氏 門中에 스며든 姜氏는 盧氏 門中에서 獨身으로 있는 中年과 情交를 갖는데 成功하여 얼마 후 失墓 內幕도 알아냈다고 한다. 이리하여 韓百謙은 祖上의 墓도 찾았다고 하는데 淸州에서 여기를 「한난이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墓가 淸州韓氏의 始祖 韓蘭의 墓가 아닌가 짐작된다. 韓蘭은 高麗의 建國功臣으로 實質的인 韓氏의 始祖이다. 地名과 人名이 同音이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다. 淸州韓氏도 端宗史話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政敵으로서 원한이 오고 갔을 터이니 始祖의 墓所에 變異가 생긴 것도 또 韓明澮의 不名譽를 韓百謙의 代에서 10從兄弟가 회복하였으니 그 때에 다시 墓所를 찾았다는 것도 理解가 미치는 이야기다.

벼슬보다 學門을 좋아해서 韓百謙의 이름은 官吏로서가 아니라 혹은 名門의 中興者로서가 아니라 中期 實學의 先驅者로서 歷史에 特記되어 오고 또 높이 評價를 받고 있다. 그는 벼슬보다 學問을 좋아했는데 그것은 久庵 自身이 외운 말이다. 學問을 좋아했지만 形式化한 程朱學者의 空理空論에 얽매어 있지는 않았고 考證學의 方法을 適用하여 學問研究에 힘썼다. 당시에 考證學의 方法을 適用했다면 淸나라 考證學界로 봐서도 先驅的 位置에 앉을만하다. 왜냐하면 당시는 淸나라가 생기기도 전이었고 考證學의 鼻祖인 鶴炎武는 1613년에서 1682년의 사람이니 韓百謙보다 後世에 살았으니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實學에 대하여 附言해 둘 것이 있다. 實學이라면 대체로 『程朱學(性理學)에 反抗하여 일어난 朝鮮王朝 中期의 實事求是 혹은 利用厚生을 위한 學問活動을 말한다』라고 說明하고 또 그것을 큰 批判없이 막연하게 믿어왔다. 그러나 近來 차츰 實學의 概念이 살아지고 있는데 注意하여야 한다.

結論부터 말하면 實學은 程朱學(朱子學)을 不信하거나 그에 反抗하는 것이 아니라 程朱學 本然의 姿勢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實學者라고 규정해 온 지금까지의 사람 韓百謙, 柳馨遠, 李瀼을 비롯하여 朴趾源, 李重煥 모두가 程朱學者라는 것을 생각하여 보면 우선 中·高等學校 敎科書는 물론 一般史籍에 실려 있는 實學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實學이란 用語는 朝鮮王朝 初期의 趙浚, 鄭道傳, 權近에 의해서 概念化된 것이고, 그 때에 나온 말이다. 그리고 中期의 소위 實學者들이 實學을 定義한 것을 보면 初期의 概念과 다른 것이 아니었다. 實學의 概念을 간단히 말해 보면 學問은 自己를 닦고 세상을 알아서 그것을 修己 治人하는 學問이 올바른 學問이요, 實學이라는 것이다. 즉 性理學과 古典(儒學)을 통하여 自身을 修養하고 世理를 알아서 政治에 適用한다는 것이다.

第8編 人 物

그러한 哲學을 가진 趙浚, 鄭道傳, 權近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뜻한 다른 高麗王朝를 넘어뜨리고 朝鮮王朝를 積極적으로 밀 수 있었던 것이다. 中期의 實學은 壬辰倭亂을 前後해서 政治紀綱이 문란해지고 經濟가 破綻에 이르렀으며 執權 儒學者는 朱子學의 內實에 充實하지 않고 形式的인 文章에만 도취되어 있는데 대한 在野 儒學者의 批判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性理學에 의해서 良心에 돌아가고 誠實한 政治人으로 활동할 것을 要求하고 또 人材를 選拔하는 科擧에서도 文章이나 글씨를 試驗하는 데 注力할 것이 아니라 講論을 통하여 哲學의 內容, 政治・經濟・歷史・地理 등의 內容을 試驗하자고 主張을 계속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儒學 自體가 形式化되어 갔다. 그리고 科擧에는 詩文이나 文章같은 것이 重視되었는데 文章家들이 政治家를 몰아낸 代表의 事件이 己卯土禍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中期의 實學運動을 일으키는데 先驅의 역할을 遂行한 사람이 바로 韓百謙이다. 哲學과 宗教에 誠實했던 것이 옛사람들의 특징이요 魅力이요, 偉대한 점인데 土禍를 겪은 燕山, 中宗, 明宗 以後에는 哲學의 기반을 상실했던 것이다. 事實 당시에 儒敎 敎理에 充實만 했더라면 나라는 보다 운택한 나라를 만들었을 것이다. 儒敎 性理學이니 先賢이니 말하던 것은 執權層에서는 形式化되고 中期 實學者의 말대로라면 學問의 깊이도 없는 사람들이 實權을 掌握하고 있었던 것이다.

久庵 韓百謙의 著述로는 「箕田考」「周易傳義」「東國地理志」「久庵遺稿」등이 있으며 그의 別世後에는 原州(현재 橫城 書院面)에 七峰書院을 세워 祭享하고 그의 遺志를 계승 기념했다. 七峰書院은 顯宗때 賜額書院이 되었으나 大院君의 改革時 撤廢되었다.

(6) 韓 浚 謙

李朝文臣：(國舅) 1557(명종 12)~1627(인조 5) (出)原城

公의 字는 益之요 號는 柳川이며 本貫은 淸州다. 判官 孝胤의 아들로 仁祖의 장인이 된 人物이며 1579年(선조 12) 生員이 되고, 1585년 泰陵參奉을 거쳐 이듬해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했다.

檢閱을 거쳐, 正字, 注書, 典籍을 지냈으며 1589년 賜暇讀書을 하고, 이해 衿川縣監으로 재직중, 鄭汝立의 모반사건이 일어나자 鄭汝立의 사위 李震吉을 천거한 일로 여러달 동안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와 1592년 禮曹正郎, 原州牧使를 지내고, 1595년 持平으로서 都體察使 柳成龍의 증시관이 되었다. 그후 校理, 舍人, 應敎, 執義, 司諫을 지냈으며, 1597년 典翰에서 同副承旨가 되어 明나라 제독 麻貴를 도와 馬草와 병량 보급에 힘썼다. 1598년 倭亂이 끝난 뒤 右承旨, 京畿道 觀察使, 大司成, 1599년 慶尙道 觀察使를 역임했고, 1600년 體察副使로서 경상도 지방의 군무를 살폈다.

1602년 전라도 觀察使, 1603년 四道體察副使를 역임. 이어 提學을 거쳐 1605년 戶曹判書가 되었다. 宣祖로 부터 永昌大君의 보필을 부탁받은 遺敎七臣의 한 사람으로서 1613년(광해 5) 癸丑옥사에 연루되어 田里放歸 당했다가 1817년 忠州에 付處, 1621년 驪州에 置移되었고 이해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할 책임자로 뽑혀 유배지에서 知中樞府事에 임명되고, 5道 都元帥를 겸임 國境守備에 힘썼다.

1623年 仁祖反正으로 딸이 仁烈王後로 책봉되자 領敦寧府事로 西原府院君에 封해지고, 1624년(인조 2) 李适의 난에 王을 公州에 호송, 1627年 丁卯亂에는 世子를 全州에 시종했다. 諡은 文翼, 著書는 柳川遺稿.

〈文獻〉 仁祖實錄, 人名大辭典

(7) 金 悌 男

李朝文臣：(國舅) 1562(명종 17)~1613(광해군 5) (緣)原 州

公의 字는 恭彦이요 貫은 延安이며 領議政 銓의 증손이다. 1597年(선조 30) 別試 文科에 丙科로 급제 連川縣監을 거쳐 1602년 吏曹佐郎때 딸이 宣祖의 繼妃(仁穆王后)가 됨으로서 領敦寧府事로 延興府院君에 封해졌다. 1613년(광해군 5) 李 爾瞻등에 의해, 永昌大君을 추대하려 한다는 (仁穆王仁소생) 무고를 받고 西小門 밖 자택에서 賜藥을 받고 1616년(광해군 8) 剖棺斬屍되었다.

아들 셋도 화를 입었고 夫人과 어린 아들 天錫만이 화를 모면하여 夫人은 濟州道에 園離安置 되었으며 天錫은 숨어 살았다. 1623년 仁祖反正後 官職이 복구되고 王命으로 사당이 세워졌다. 謚號 懿愍 〈文獻〉 宣祖實錄, 人名大辭典

(8) 韓 興 一

李朝相臣：1587(선조 20)~1621(효종 2) (出)原 城

公의 字는 振甫요 號는 柳市며 本貫은 淸州로서 百謙의 아들이다. 1624년(仁祖 2) 延試文科에 丙科로 급제, 檢閱을 거쳐 1628년 修撰이 되고, 1630년 吏曹佐郎, 다음해 전라도 量田使, 1636년 司諫을 지낸뒤 이어 同副承旨로 있다가 이해 丙子胡亂이 일어나자 神主와 嬪官들을 江華에 扈衛했고 左副承旨, 全州府尹을 역임했다. 右承旨를 거쳐 江原道 觀察使가 되고, 이듬해 鳳林大君(孝宗)이 불모로 淸나라에 잡혀 갈 때 大君護行宰臣으로 배종하고 돌아와 1645년 이조 참판이 되었다. 1647년 大司諫, 다음해 공조와 예조의 判書를 지내고 知春秋館事로 仁祖實錄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禮曹와 兵曹의 判書, 右賓客을 거쳐 1651년(효종 2) 右議政에 올랐다. 謚號 靖溫. 〈文獻〉 仁祖, 孝宗實錄, 人名大辭典

(9) 金 益 壽

號는 靜養堂이며 謚는 文肅이다. 中宗 癸酉에 進士試에 中하고 己卯에 文科及第한 後 兩司를 거쳐 湖西伯이 되고 官은 嘉善大夫兵曹參判 五衛都總府副總管에 止하다.

公의 弟從壽는 中宗 壬午에 進士가 되고 歷 師傳하다가 官은 通政大夫司膳寺 僉正에 止하였으 며 特히 筆法이 能하므로서 著名하다. 光海朝에 贈領議政하다.

(10) 金 希 逸

潭陽府使로 在職中 倭敵을 만나 終是 不屈하다가 夫妻가 同死一劬한 金 希弼의 弟로서 明宗 乙卯에 進士가 되고 筮仕參奉을 거쳐 彰善校尉을 歷任하다. 世子衛衛可洗馬로서 壬辰倭亂時에 判寧에서 殉節하니 世稱 兄弟忠臣이라 한다(人物編, 忠臣編. 要參照)

(11) 丁 時 翰

字는 君翊이며 愚潭이라 號하다.

江原觀察使 彥璜의 子이며 天啓乙丑(西紀 1626年生)으로서 姿性이 天得하여 師承없이도 粹然히 自成하다. 造詣가 깊고 質行이 卓絶하였으므로 世中一人이라 稱하였다.

元來 仕業에 마음이 없고 原州에 隱居하여 農耕自食하다. 可憲執義成均可業으로 累徵되었으나 不就하다. 甲辰年에 優老의 典으로서 通政에 陞하고 僉知中樞府事를 拜하다. 原州 法 泉寺에서 終世하니 學者愚先生이라 號하다. 壬午錄 管規錄의 著書가 있어서 行于世하다. (星湖文集)

(12) 趙 曠

名門巨族에 官歷華麗, 原州가 緣故地요 原城郡 地正面 艮峴里 爵洞에 墓所가 있는 永湖 趙 曠은 그 門閥로나 多彩로운 官歷으로나 牧民官으로서 百姓의 慧眼으로 보나 이 고장 出身 어느 人物에 뒤지지 아니할 出衆한 人物이다.

李朝 5百年中 權門世家가 時代와 政勢를 따라 起伏하여 數많은 姓氏가 史書에 記載되어 있지만 그 中에서도 흔하게 世人의 입에 오르내리는 姓氏가 坡平, 海平의 尹氏, 驪興閔氏, 東萊鄭氏, 豐讓趙氏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趙 曠은 이 세상에 權門으로 알려진 豐讓趙氏로 世家貴族의 出身이다. 그는 1719年(肅宗 45)에 나서 1777年(正祖)에 回甲을 3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 字는 明瑞라 했고 號는 永湖요 諡號를 文翼이라고 했으며 文章에 뛰어난 學者였으며 國家財政과 經濟에 밝은 經世家였고 官界의 經歷이 多彩롭다보니 流配도 當하였고 우리나라에 고구마를 제일 먼저 輸入 栽培를 試圖한 產業人이기도 하다.

永湖의 아버지는 英祖朝 文臣으로 1710年 增廣文科에 丙科로 合格하여 正言持平 修撰을 거쳐 可諫 承旨 吏曹參議等을 歷任하고 辛壬土禍에 걸려 安州에 流配當했다가 풀려나온 뒤 咸鏡道 觀察使로 있을 때에는 착한 政事를 하여 善政碑가 서기도 했고 謝恩使로 淸에도 갔다온 일이 있었으며 判敦寧府事를 거친 景獻公 趙 尙綱이고 永湖의 祖父는 都正을 지낸 趙 都轉이다.

그의 아들은 英正祖時代에 義禁府都事를 지내고 洪 國榮이 去勢된 뒤에 다시 벼슬길에 올라 漢城府左尹 同知春秋館事 開城守 都承旨를 겪은 뒤 六曹判書를 한 曹도 빼놓지 아니하고 고루 지내고 孝文이라 諡號를 받은 趙 鎮寬이다. 이 趙 鎮寬의 맏아들 趙 萬永이 바로 豐恩府院君으로 그의 따님이 곧 趙大妃로 世上에 알려진 純祖의 世子嬪으로 翼宗이라 追尊되어 神貞王后가 된 사람이다.

文章에 뛰어난 世家貴族 우리나라에 大姓이 많지마는 한 家門에서 顯職 많기로는 李朝末葉에 安東金氏가 勢道政治를 할 때와 高宗때의 驪興閔氏를 除外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趙氏系譜에 나타난 것 같이 永湖는 府院君 趙萬永 領議政 趙 寅永의 親祖父요 趙大妃의 曾祖父로 趙氏 勢道政治의 터전을 닦은 사람이다. 堂上에 오른 사람이면 대개의 경우 그 經歷이 多彩롭지만 永湖는 한 나라의 勢道政治의 터전을 닦았던 人物이었으므로 비록 그 地位가 相公의 자리에 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政治나 經世에 남다른 卓見을 가졌던 사람으로 實錄에 그의 이름이 記載되기 1백9회에 이르렀다.

그는 1738年(英祖 14年)에 처음으로 生員試에 合格하여 內侍敎官科로 及第하여 正言이 되어 벼슬길을 지내고 1752年에 庭試文科 乙에 올랐다. 앞서 그의 벼슬길에서의 歷程이 多彩롭다 하였는데 그가 官職에 있었던 歷程을 實錄에 記錄되어 있는대로 여기 列舉하여 보면 司書修撰 持平을 筆頭로 東萊府使, 慶尙·忠淸·平安의 三道監司와, 御史兩館提學, 大司憲, 大司成, 三曹判書 등 30餘의 職卿을 겪었다.三公의 地位에 까지는 오르지 못했으나 한 사람의 生涯에 이렇게 많은 官歷을 겪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이 다채로운 官歷은 平坦한 길만은 아니었다. 그가 平安監司로 있을 때에는 誣告를 입어 不名譽스러운 罷職도 當하였고 그뒤 혐의가 풀려 벼슬길에 다시 올랐으나 當時의 勢道家 洪 國榮에게 물려 1777年(正祖 1)에 다시 罷職당하여 渭原에 流配가서 處刑만을 기다리던 중 그의 아들 鎮寬이 直訴하여 죽음만은 免하여 金海에 移配되어 마침내 밝은 세상을 보지 못한채 配所에서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對馬島 고구마 輸入은 그가 官職에 있을 때인 英祖 39년에 通信使가 되어 副使 李仁培 從事官 金相翹을 帶同하고 日本에 다녀온 일이 있었다. 떠나기에 앞서 英祖가 그들을 불러 慰勞하고 〈好住好來〉의 네자를 써서 下賜하고 잘 다녀오라고 일러 보냈다.

그가 使臣으로 日本으로 가는 길에 對馬島에 들렀을 때 처음으로 고구마를 보았다. 땅속에서 實果같은 것을 캐내는 것을 보고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고구마라 했다. 그는 생전 처음보는 것이기에 그때 고구마를 보고 느낀것을 그의 文集에 詳細히 記錄하여 놓았다. 그 글의 書頭に 〈馬島中有草根可食名曰甘藷 或謂孝子麻 島之方音古實爲麻……〉로 시작한 글이 있는데 이에 의하여 오늘날 〈고구마〉라는 말은 對馬島 方言의 〈古實馬〉에서 비롯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그 글에서 고구마의 생김새, 빛깔, 냉굴의 모양, 잎의 모양, 먹는 方法, 맛, 日本에 流入한 經路, 日本 각 섬의 栽培狀況等을 記錄하였다. 傳說로는 日本에서 고구마의 國外전파를 꺼려 그 種子를 전혀 못가져 가게 했다. 그는 客館에 묵고 있을 때 對馬主에게 고구마를 좀 달라 했더니 익혀서 줌으로 날절로 請했더니 날것은 맛이 없어 먹지 못한다 하며 주지 하니 하였다. 할수 없이 金부치를 주어 農夫에게 몰래 고구마와 바꾸어오라 시켰더니 겨우 세개를 얻어 왔다. 그는 그것을 所重히 간직하고 日本 本土에 가서 使命을 마치고 歸國하여 東萊와 濟州道에 심은 것이 먼저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傳해오고 있는 모양이나 이것은 永湖의 고구마 傳來를 부질없는 이야기거리로 만든데 지나지 않는다. 그의 文集에는 傳來하게 된 經路를 〈初到 佐須奈浦 見甘藷 求得數斗 出送釜山鎮 使之取種 今於回路又此求得……〉라고 記錄되어 있다. 卽 처음 佐須奈浦에 다아서 甘藷(고구마)를 보고 몇말을 얻어 釜山鎮에 내어보내 種子를 取하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얻어가지고 와서 東萊 校吏와 行人에게 栽培하는 方法을 가르쳐 栽培시켰다고 했다. 그는 이 글 끝에 萬一 이 栽培가 成功을 거두어 널리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면 文益漸이 蕃化를 傳來시킨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는 큰 도움이 되겠다고 그의 意見을 덧붙였다.

당초에 그가 고구마에 着目한 것은 凶年이 들었을 때에 救荒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데서 비롯했다. 그가 活動을 하던 英・正時代에는 實學이 활발하게 움직이던 때라 뜻있는 學者는 空理와 空論보다는 實生活에 有益한 學問이 盛行하던 때이다. 이러한 社會的 기풍이 그로 하여금 產業의인테 着想하여 고구마의 輸入栽培에 關心을 갖게 하였다.

그의 이러한 實利的 思想은 制度的 面에까지 미쳐 租稅米의 輸送을 위하여 水路沿邊에 設置하였던 漕倉制度에 關한 建議를 하여 昌原馬山倉, 晉州駕山倉, 密陽三浪倉의 設置를 하게 하고 이로써 이때까지 百姓들이 부담하였던 稅穀輸送의 弊害를 덜어 百姓들에게 利롭게 制度를 改新하는 한편 貢物의 收納도 公正하게 하여 國庫의 財政的 損失을 막게 하였다. 또 東萊府使로 있을 때에는 蔘의 密輸事件을 파헤쳐 國法으로 이를 處理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는 國法을 私私로운 偏見으로 感情에 따라 施行해서는 안된다고 國法의 公正性과 옳다고 생각하는 信念을 主張하는데는 君王의 앞에서도 의연하였다. 英祖 40年 8월에 士族으로 李洙麟이라는 者가 兄의 財物이 탐이 나서 조카를 골방에다 가두고 갇은 虐待를 하였다.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던 심기현이란 閑良이 뛰어가서 그를 求하여 官家에 알려져 人倫의 問題이기 때문에 朝廷에서 까지 論議되었는데 이때 英祖以下 모든 百官이 極刑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衆論이었는데 永湖 홀로 〈法者天下之平也〉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人倫에 關한 문제라 할지라도 法은 公平하게 施行되어야 한다고 홀로 法의 公正性을 주장했다. 마침내 英祖도 그 意見이 옳다고 認定하고 極刑을 避하고 黑山島에 귀양을 보낸 일이 英祖實錄 40年 8월條에 있다.

第8編 人 物

晩年에 英祖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였고 女色을 過히 가까이 하여 內房出入이 잦은 것을 보고 筵席자리에서 英祖를 보고 『酒色은 血氣旺盛한 年少者에게도 큰 害을 미치는데 하물며 年晩하신 王께서 酒色을 너무 가까이 하시면 건강상 害로울 것은 勿論 君王의 德에도 미치는 影響이 크니 왕께서는 앞으로 女色을 너무 가까이 하시면 健康상 害로울 것은 勿論 君王의 德에도 미치는 影響이 크니 왕께서는 앞으로 女色을 삼가야겠습니다』. 고 直言을 했더니 王이 首肯하고 앞으로는 留念하겠다고 했다.

永湖의 이러한 直言은 強直한 信念의 소유자가 아니면 사람마다 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英祖實錄 30年 11月條에 <能言人所難言>라고 記錄되어 있고 이로써 物論이 많았다고 하였다.

名門巨族으로 六曹判書를 지낸 아들을 두었고 府院君 領議政을 孫子로 두었던 巨族의 中興祖 永湖는 純祖 14年 10월에 左贊成에 贈職됨과 同時에 文翼이라는 諡號를 받았다. 墓所는 原城郡 地正面 長峴里 작동 앞산에 있다.

第5節 忠義志士 및 武臣

(1) 元 昊

南松村의 貞簡公 元 昊는 李朝太祖 5年(1396年) 4월 9일 兵曹參判이었던 元 憲의 둘째 아들로 지금의 原州市 開運洞 송림에서 탄생했다. 15세에 이미 도학군자라는 세칭을 받았으며 26세 되던 해에 文科에 及第했다. 世宗 5年이었다. 그는 행정가라기 보다 학자로서 벼슬이 直提學에 이르렀고 成 三問, 鄭 麟趾등과 集賢殿 학사로서 각종 편찬사업에 참여하였으며 端宗 초기에 世祖의 세력이 날로 커가는 것을 보고 集賢殿 直提學을 사직하고 原州 南松村에 돌아와 세상과 등졌다.

端宗이 寧越로 유배당하자 寧越 서쪽에 나아가 집을 지어 觀瀾亭이라 號를 짓고 혹은 흐르는 물에 詩를 읊으며 문을 닫고 독서에 몰두했으나 마음은 항상 端宗이 있는대를 바라보고 울며 지냈다.

端宗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뒤에 3년상을 입고 服이 끝날 때까지 이 觀瀾亭에서 기거했으며 服이 끝나자 原州로 돌아와 門 밖에 나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의 사촌인 元 孝然이 하인들을 거느리지 않고 문간에 이르러 뵈기를 청해도 허락하지 않았다 한다.

世祖가 특별히 戶曹參議를 제수하여 불렀으나 죽기를 맹세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앉으면 반드시 東으로 향하고 누우면 반드시 東으로 머리를 두니 이것은 端宗의 陵인 莊陵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처럼 生六臣의 한 사람으로 기개 높게 節制하는 생활을 했으며 친지들 중에 朝廷에 벼슬하는 자들이 많이 와서 보기를 청하였으나 절대로 만나지 않았다. 한 觀察使가 하인들을 떼어 놓고 평복으로 찾아가니, 만났다가 觀察使인 줄 알고는 손을 내두르며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觀察使가 무안하게 돌아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는 官府에 가까운 것을 싫어하여 드디어 酒泉縣 산골속에 隱居하다 일생을 마치니 墓는 지금 南松에 있다.

당시 그는 친우인 權 深과 함께 향리로 내려왔는데 草屋을 마련하고 종적을 감추니 그 부근은 항상 안개가 뒤덮였다 한다. 마을 사람들이 霧巷里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생애는 義人의 길을 가르친 것이라 할 수 있다. 肅宗朝에 최 석정의 아침으로 旌閭(충신 효자 열녀가 살던 곳)했고 貞簡公이라 諡號를 내린것도 그의 학문과 곧은 성품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農本思想 月計圖: 元 昊는 향리에 돌아와 世俗을 잊고 살았으나 농민들의 생활을 근심하고 凶

年을 막고 풍년이 들게 하여 농민들의 생활이 보다 윤택하게 되기를 항상 기원했다. 그래서 농민들로 하여금 五穀이 잘되고 못됨을 알게 하여 농사를 짓도록 하는 月計圖를 만들기도 했다. 1년의 농사는 연중 天氣를 보아 그해의 풍년 흉년을 아는 이른바 체험적인 農業이 우리 조상들에게 퍼져 있었다.

元 昊는 음력 대보름날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고 달을 보는 지정들에 月計의 6갑 40개 항에 맞추어 그해 天氣圖를 보고 농사의 풍년 흉년을 알아 보도록 했다.

이 月計는 길이 60cm 폭 40cm의 것이다. 月計를 보는 곳은 原城郡 所草面 屯屯里 둔둔국민 학교 뒤 花田山이다. 여기서 길이 50cm 폭 40cm의 지정돌 위에 月計를 놓고 대보름 달맞이 하는 덕고산의 성재(고개) 범든바위골 독바위골의 달뜨는 곳을 향해 달 지름의 중심 원점에서 부합되는 6갑 40항의 항목에 지시된 것으로 그해 천가의 연중을 측정하여 농사의 곡식별 豐年 凶年을 예보했다고 한다. 이 月計에 관한 전설은 權 琛이 元 昊를 모시고 雉岳山 기슭에 은둔하여 避身생활을 할 때 천문지리를 연구한 끝에 月計를 만들어 덕고산과 화전산에서 보아 豐凶年을 구별케 했던 것이라 한다. 현재의 둔둔리도 이 숨는다는 둔자를 이용, 둔촌이라 했다가 둔둔리로 고쳐진 것이라 한다.

月計圖를 만들어 사용케 한 것은 이상과 같거니와 世宗代에 測雨器가 발명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 시대에 충분히 月計圖가 나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 숨어 살았으나 농민들의 생활을 얼마나 근심했느냐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元 昊의 愛民思想은 농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것이었고 그의 은둔 자체가 國家論理와 社會意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元生夢遊錄의 主人公 : 元生이라는 한 선비가 있었는데 그 뜻이 크고 강개심이 있었다.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고 官運이 없어 빈궁중에서 낮엔 일하고 밤에는 讀書로 지냈다. 어느 가을 저녁 잠박 잠이 들었는데 자기 몸은 구름을 타고 어느 강가에 다다랐다. 그는 거기서 詩 한 수를 읊었다. 詩를 읊고 나니 한 남자가 野服에 幅巾을 쓰고 나타나 절을 하고는 입금이 부르시니 곧 가자는 것이었다. 그는 그 남자를 따라 높은 亭子에 다다르니 입금을 모시고 다섯 사람(成三問 · 朴彭年 · 柳誠源 · 河緯祉 · 李塹)이 앉아 있었다. 王과 신하들은 元生을 반가이 맞았다. 자리가 정하여지자 古今의 國家興亡에 대하여 談論이 시작되었다. 한참 뒤 그를 안내한 자가 『堯 · 舜 · 湯 · 武王은 만고의 죄인 인줄 압니다. 그들로 인해 후세에 입금의 자리를 뺏는 자가 禪位를 빙자하고 신하로서 입금을 물리치고서 湯武를 내세우니 세월이 천년을 흘러도 이것을 구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네 입금이야말로 盜財의 嚆矢입니다』

라고 말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네 입금이 나쁜 것이 아니라 美名을 빙자한 자들이 나쁘다고 말하고는 술을 사오라 하여 놓고는 자기 술로 원한을 풀자 하였다.

王이 먼저 왕위를 빼앗긴 恨을 詩로 짓고 元生도 끝으로 詩 한 수를 지었다. 그리고 모두 처량하게 읊었다. 그때 한 武人(俞應孚)이 들어오더니 썩은 선비들아 그대들과 무슨 일을 같이 할 것인가! 하고 칼을 뽑아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 춤이 끝나지도 않았을 때 하늘이 변하여 비가 오고 뇌성 벼락이 내렸다. 놀라게니 꿈이었다. 元生은 후에 그 꿈이야기를 친구 梅月居士(金時習)에게 말했더니 그는 탄복하고 강개적인 詩를 지었다. 이때 지은 元生의 詩는,

第8編 人 物

『슬프다 장강이며 목이 베여 흘러가지 않는가.
갈대꽃 단풍잎은 찬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는구나.
아! 이곳이 귀양 온 곳인가.
달밝은 이밤에 외로운 혼이 어디로 돌아갈까』

恨人長江咽不流 荻花楓葉冷颼颼
分明認是長沙崔 月白英靈向處遊

이다. 愁城誌는 白湖集 끝에 수록되어 있고 李 植의 澤堂集에는 林 悌가 北評事로 부터 南評事로
옮아 갔을 적에 지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元生夢遊錄』은 白湖集에 포함된 擬人小說로서 心情을 擬人化하여 奸臣을 물리치고 혼탁
한 세상을 정화하며, 정치를 바로잡고 군주와 국민이 다 같이 安樂할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이념을 이야기 한 것이다. 당시의 반항아요 로맨티스트인 白湖 林 悌는 元 昊를 등장시
켜『元生夢遊錄』이라는 漢文 擬人小說을 지은 것이다. 이것을 보면 元 昊가 生六臣의 1人으로서
받은 추앙이 얼마나 크고 깊었던가를 알 수 있다.

忠節의 時調 二首 元 昊는 두 수의 時調를 남기고 있다. 하나는 首陽大君이 왕위를 찬탈하여 世
祖가 된 뒤에 벼슬을 버리고 寧越에 端宗을 먼발치로 따라가 있다가 그곳에서 읊은 것이고, 다
른 하나는 原州 南松村에서 은거했을 때의 심회를 읊은 것이다, 이 두 수의 時調는 모두가 청빈
한 선비의 한결같은 忠節을 엿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간밤의 우던 여울 슬피 울어 지내여라.

이제야 생각하니 님이 울어 보내도다.

저물이 거스려 흐르고저 나도 울어 녀미라.

위의 時調에 얹힌 이야기로는 寧越郡 西面 사내평에 石室을 만들고 살 때 매일 음식물과 서신
을 표주박에 담아 東江에 띄워 보내면 淸冷浦 40리를 逆流하여 端宗께서 받아 보셨고, 端宗이
도로 떠내려 보내면 그가 표주박을 받았다 하니 그의 일편단심이 얼마나 지극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時調는 이상의 逸話를 빌리지 않더라도 흐르는 냇물은 端宗의 울음이 흘러온 것이
니 만약에 냇물이 거슬러 올라간다면 나의 이 슬픈 눈물을 端宗께서 알려라는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死六臣과 生六臣들은 상당한 수의 時調를 남기고 있지만 元 昊의 이 시조는 忠節이 돋
보인다 하겠다.

紫桑里 五柳村에 陶處士의 몸이 되어

줄없는 거문고를 소리없이 집었으니

白鶴이 知音하는지 우죽우죽 하더라.

그가 陶淵明의 절백을 모방한 것은 아니지만 陶淵明의 유유자적하던 故事를 부러워 한 것은
原州에 은거하면서 거문고의 시울을 끊어버리고 소리 없이 살던 심정이 토로되어 있다.

그의 號가 霧菴이었던 것도 세상을 절망적으로만 살아야 했던 시대를 비판한데서 비롯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原州 霧菴里에 안개가 덮이고 거문고를 들었으나 이미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 속에 소리나지 않는 거문고 소리를 듣고 白鶴이 춤추더라는 이 자연에의 유유자적한 그가
한 시대를 극복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이것은 愛民思想과 통하고 후에 月計圖를 만들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칠려는 뜻과도 통한다 하겠다. 1464년 12월 25일 세상을 떠나니 享年 68세였다.
손자 叔康이 睿宗朝에 史官으로써 화를 입었을 때 元 昊는 평생에 저술했던 글과 疎章을 모두

불태웠고 또 경계하되 『다시 글을 읽어서 名利를 구하지 말라』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金時習의 伯夷요 六臣은 지금의 方孝儒요 崔德之 元昊는 六臣보다 오히려 높다고 했다 한다. (墓碑) 후에 橫城 七峰書院에서 춘추제향을 받게 되었고 영월 창절사, 보현사, 제천 관란정 원주 무향리에 旌忠閣이 세워졌음도 그의 이러한 지조와 충의를 세인이 흠모한 까닭이다.

元昊의 일생은 이렇게 해서 韓國史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忠節의 기개를 교훈으로 남기고 있다. 江原道民의 성격이 강직하고 國難을 당할 때 불요불굴의 투쟁을 보여주었던 것은 元昊와 같은 모범적인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原州지방은 高麗시대 이후 抵抗精神의 기수가 줄을 지어 탄생했으며 元昊의 앞 사람인 元天錫도 이런 모범의 한 先人이라 할 수 있다. 元昊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한국사의 한 빛나는 忠誠과 사랑의 이야기라 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元昊가 霧巷里에 은거한 것은 竹林七賢의 청담만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절개를 지키는 동시에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방법론에 까지 세심한 관심을 표명했던 만큼 종래 우리가 이해하는 은둔생활과는 격이 다른 성품을 나타낸 점을 재평가 해야 할 것이다.

(2) 金 佛 甲

李朝文臣(義士) · 1525(중종 20) ~ 1592(선조 25) (出)原州

公의子是 順初요 號는 毅齊며 本貫은 安東이다. 高麗의 名將, 方慶의 후손으로서 進士 錫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李滉의 門人이다. 1553年(명종 8)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했고 1555年 弘文官 正字가 되었으며 3年후 兵曹佐郎을 거쳐 1573年(선조 6) 正言, 1581年 忠淸道 觀察使에 올랐다. 1589年 昌城府使가 되고, 1592年 壬辰倭亂에 原州牧使로 倭將 모리(森吉成)의 군사가 쳐들어오자 官, 義兵을 이끌고 싸우다가 戰死하니 이어 아들 時伯과 夫人 李氏도 순절했다. 그후 領議政에 추증되어 原州의 忠烈祠, 槐山의 華岩書院에서 祭享하니 諡號는 文肅이다. 그리고 1966年 江原道 애국유족 부활위원회에 의해 原州驛 廣場에 忠烈碑가 세워졌다.

〈文獻〉 宣祖實錄, 人名大辭典

(3) 金 希 弼

李朝義臣: 1545 ~ 1567(명종) (出)原州

公은 李朝 明宗朝에서 文科及第하여 西司를 역임하고 通政大夫에 이르렀다. 그 뒤 潭陽府使로 在職中 壬辰倭亂을 만나 倭兵이 府內로 大學 侵入하니 軍吏들은 다 도망가고 左右郎下들이 피신할 것을 권하나 公은 正色하고 君父가 파천하니 臣이 어찌 平安함을 바라겠는가 하고 朝服을 갖추고 印章을 손에 천체 자리를 펴고 北向 四拜하고 嚴座하니 倭兵이 亂入하여 칼로 威脅하였으나 公은 妻와 더불어 꿈쩍도 않고 마침내 倭兵의 칼에 맞아 깨끗한 最後로 나라에 忠誠을 다한 人物이다.

〈文獻〉 江原道誌, 人名大辭典, 明宗實錄

(4) 元 續

全羅兵使(武科) ? ~ 1555年(명종 10年) (出)原州

公은 三韓功臣 克猷의 후손으로 中宗 14年에 武科에 及第하여 全羅兵使를 역임했다. 1555年(명종 10) 乙卯倭變이 일어나 倭船 70여척이 達梁浦에 침입하여 城을 포위하자 항쟁했으나 勢不足으로 城을 넘어 오는 倭兵에게 靈岩郡守 李德堅, 長興府使 韓蘊과 같이 살해당했다.

〈文獻〉 江原道誌, 人名大辭典

(5) 林 慶 業

風雲兒의 誕生: 林 慶業將軍의 출생지를 모든 史書는 忠北의 忠州 達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李朝實錄』이나 『燃藜室記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忠北道誌나 原城郡 富論面 孫谷里 평촌마을의 전설 및 현지 주민의 보고와 林氏 문중에서의 富論面 태생을 시인하는 것을 보면 역시 林 慶業의 출생지도 역시 손곡리 평촌 마을이라는 說이 우세한 편이다. 林 慶業을 原州의 人物로 정립시켜야 한다는 요청은 이런 사실에 연유하나 史學界의 정확한 定說이 개진되기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林 慶業은 宣祖 27년(1594) 11월 2일 평촌마을에서 출생 忠州 達川으로 어려서 이사를 갔다. 그의 부친은 原州 監營의 옥사정으로 있었는데 원주골 여인숙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살인 혐의를 받아 붙잡힌 죄수는 누명을 쓰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안 林 慶業의 부친은 몰래 죄수를 도망치게 하여 파면은 면했으나 옥사정을 그만두고 평촌에 이사하여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다. 8년이 지난후 임씨집에 찾아온 중(전에 도망시켜 준 죄수 元致錄)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墓자리를 골라주고 갔다.喪을 당하면 3일장을 하되 장사 전날에 광을 짓고 거적을 씌울 것, 께이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광속을 보지 말라는 당부까지 했다.

林 慶業의 父親은 父親喪을 당해 중의 말대로 했다. 밤중에 광속에서 이상한 칼소리가 들려 무의식중에 그 안을 들여다 보니 좌우에 文武百官이 앉았는데 두 武士가 칼을 맞대고 노리고 있는 중이었다. 한 무사가 林씨에게 결눈질을 하는 사이에 다른 무사가 결눈질하던 무사를 내리쳐 죽였다.

후회는 하면서도 부친을 이곳에 모셨으나 삼오제에 산소에 가보니 관이 묘박에 나와 있었다. 관을 다시 묻고 그날밤을 지내는데 武士 3인이 당장 墓를 파가라고 호통을 쳤다. 慶業의 부친이 용서를 비니 金自點의 자리는 저리로 정하겠다면서 사라졌다. 이때부터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 慶業을 낳았다. 후에 金自點과의 對立은 風雲兒 林 慶業의 운명을 점쳐준 것이라 하겠다. 林 慶業將軍에 대한 原州地方의 傳說이 運命論의이고 風水地理說에 따른 것은 韓國人物 誕生說話와 軌를 같이 한다.

武人의 絶對理想 林 慶業의 字는 英伯, 호는 孤松이다. 그는 소년시절부터 항상 전쟁놀이를 했고 대장이 되었다.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좋아하여 누구도 그를 당하지 못했다. 그의 소원은 武人이 되는 것이었다.

일찌기 史記를 읽고 項羽의 소년시절을 생각했다. 「글은 성명을 기록하면 족한 것이니 만 사함을 대적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대목에서 이것이야말로 대장부가 할 일이라고 감탄했다.

그래서 그는 군사에 관한 實記를 열심히 공부했다. 27세 되던 光海君 11년(1620년)에 처음으로 武科에 합격하여 武人으로서의 길이 열렸다. 仁祖反正이 성공한 후에 李 适의 亂이 일어나자 그는 판군으로 출전하였다. 鞍峴(길마재)싸움에서 크게 이겨 공을 세우고 1等振武 原從功臣이 되었고 1627년 丁卯胡亂 때 중군으로 강화도까지 군사를 몰아갔으나 朝鮮과 後金은 이미 兄弟의 義를 맺은 뒤였다.

당시 建州衛에서 일어난 後金은 明을 합병할 야심을 갖고 있었고, 朝鮮은 임진왜란의 원조와 대의명분 때문에 政客이나 親明派들은 後金과 싸울 각오를 하고 있는 편이었다. 이때 明將 孔有德과 경중명이 後金으로 투항했다. 明은 判將을 토벌키 위해 朝鮮에 원병을 청했을 때 林 慶業이 원병으로 나가 토벌하여 明의 崇禎皇帝는 總兵官이라는 官職을 주기까지 했다.

仁祖 14년(1636년)에 林慶業은 義州府尹이었는데 後金은 국호를 淸이라 고치고 국경의 정세는 급박하게 되었다. 그는 병력의 부족을 느끼고 海西의 군사 2만을 요구하였으나 조정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丙子胡亂이 발발하자 白馬山城에 진을 차고 허수아비 수천개를 만들어 擬兵으로 적을 속이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지만 林慶業을 두려워한 敵은 다른 길로 들어와 10여 일 내에 서울을 점령하고 40여일 후에는 南漢山城을 함락, 왕이 직접 나와 三田渡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굴복을 하고 말았다.

이때 그는 淸의 모든 重臣들이 朝鮮에 쳐들어 온 틈을 타서 敵의 서울인 瀋陽을 일거에 없애려고 했으나 겁을 먹은 金自點 일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淸太宗은 국경을 경계하려고 3백여명의 군사를 보내어 義州를 견제하도록 했다. 林慶業은 요퇴를 죽이고 적병을 몰살하여 한을 풀었다. 한편 淸나라는 전승국으로서 平安道 앞 바다에 있는 明의 군사기지인 가도(加島)를 공략하기 위해 朝鮮에 청병하자 林慶業이 나아가 싸우는 체하면서 明과 통하여 피해를 줄게 하였다.

仁祖 16년(1630년) 林慶業은 평안감사가 되어 安州에 병영을 설치하고 淸의 동태를 살폈다. 1640년 淸은 明의 錦州를 치게 되어 朝鮮에 원병을 청해왔음으로 조정에서는 임 경업을 출전케 했다.

이것은 淸軍과 합세하여 明의 都督 홍 승주를 격파하고자 한 작전이었다. 淸軍은 陸路로 林慶業은 官軍을 이끌게 되었다. 그러나 親明派인 林慶業은 대릉하 앞 石城島 근처에 몰래 사람을 보내어 朝鮮의 형세를 알리고 明軍과 협력하여 淸軍을 치려고 계획까지 세웠다. 明軍과 朝鮮軍이 복신구 근처에서 충돌했을 때 살책을 뚫 화살을 쏘고 총도 공포탄 쏘아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謀議는 얼마 못가서 淸軍에게 탄로되어 힐책을 받았으나 淸太宗의 호의로 무사하게 되었다. 1642년 明의 유일한 장군인 홍 승주가 淸에 항복하자 明의 패망은 눈앞에 닥아왔다. 悲願의 削髮獄囚 홍 승주의 배반으로 明과 朝鮮 사이를 왕래한 林慶業의 행적이 탄로나게 되었다. 林慶業은 조선의 僧獨步를 정탐군으로 동용했는데 그 배후에는 평화론자였던 崔鳴吉도 끼어 있었다. 이 기밀관계에 연관된 자는 당시의 대신들도 10여명 있었다. 林慶業은 淸朝의 강압으로 체포되어 瀋陽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林慶業은 國事犯人 만큼 엄중한 감시는 받지 않았다. 그동안 국가를 위하여 홀로 동분서주 한 것이 너무나 허황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金郊驛에서 탈출하여 天寶山으로 도망쳤다. 淸의 힐책이 대단하고 朝鮮조정은 그를 잡아 올리라는 명령이 엄중했다. 그는 머리를 깎고 장사를 걸친 후 중의 행세를 하였다. 서울 마포강가에서 배를 타고 通津까지 가서 『나는 평안 감사 林慶業이다. 장차 明나라에 들어가 복종의 오랑캐를 소탕하려고 한다. 내 명령을 듣지 않는 자는 한칼에 베일 터이다』

이렇게 해서 배는 漢江 하류로 내려가 연평도에 이르자 승객판 내려놓고 몇십명의 선원을 감독하여 黃海를 건넜다.

林慶業의 이러한 결심은 延坪島에 임 경업 사당이 있고 조기잡이 때 이 사당에 고사를 올리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비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임 경업은 조기잡이의 神이 된 것이다. 임 경업을 농친 朝野는 淸에 보고하고 대신 그의 부인을 잡아다가 瀋陽의 옥에 가두었다.

『내 남편은 나라의 충신이다. 내 어찌 충신의 아내가 될 수 없으랴』

하고 그는 옥중에서 자절했다.

임 경업은 海豐縣에 도착하여 登州都督 黃龍의 안내를 받았으며 崇禎皇帝로부터 副總兵의 관직을 받았다. 仁祖 22년(1644년) 3월 流賊 李自成이 北京으로 쳐들어와 崇禎황제는 목매어 죽었

다. 4월에 淸軍이 산해관을 넘자 黃龍은 도망가고 馬登紅과 林慶業은 石城에 진을 치고 있었다. 明은 망하고 北京도 淸에 점령되자 馬登紅은 배반하여 林慶業을 잡아 淸에 항복했다. 淸나라 황제는 임 경업에게 편발하고 淸에 귀순하라고 했다. 林慶業은 끝까지 버티다 北京獄에 갇히게 된 것이다.

恨많은 將軍의 죽음 이때 仁祖反正의 공신 沈器遠의 獄事가 일어났다. 西人은 老西와 少西로 갈라지고 다시 原覺(元斗杓)과 洛黨(金自點)으로 당파싸움을 하던 때로 金自點이 득세하던 시대였다. 沈器遠은 모반사건이 탄로나 복주되고 여기에 林慶業이 관련되었다 하여 잡아오도록 하자 淸도 이에 응해 조선으로 보냈다.

林慶業은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잡혀오게 된 것이다. 아무리 자기의 청백과 무죄를 말해도 金自點은 林慶業을 죽일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 林慶業은 최후로 죽을 때,

『천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나를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을 남겼으니 이때 林慶業의 나이 53세 되던 6월 20일 이었다.

『나는 천지의 기품을 타고날 때 물건이 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다행이다. 더구나 사람중에서도 부녀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고 했거니와

『이 작은 편벽된 지방에 태어났으니 좁은 곳에 비비대며 살아가는 팔자가 되었구나』라고 탄식한 것을 보면 그의 포부를 실현하기에는 이 땅은 너무나 좁고 편벽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감이 없지 않다.

林慶業은 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金自點의 독단적인 모함으로 피살되었다. 그후 국가에서 忠愍公이라는 諡號를 내렸고 正朝 때는 「忠愍公實記」라는 책자를 만들어 그의 陰德을 기렸으며 글을 지어 비석에 새겨 세우도록 했는데 이것이 「御制達川忠烈祠碑」이다.

林慶業이 27세 때에 短劍 하나를 얻고 詩 한수를 지었는데 이름하여 「劍銘」이라 했다.

三尺龍泉萬卷書 皇天生我意何如

山東宰相山西將 彼丈夫與丈夫

「삼척의 보검은 만권의 서적에 당하도다

하늘이 나를 낳은 어인 뜻인가

산동에는 재상이 나고

산서에는 장수가 난다는데

저들이 장부면 나 또한 장부다」

이 詩에 나타난 기개를 보더라도 林慶業의 武人로서의 꿈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다.

李朝 때에는 林慶業을 모델로 한 전쟁소설이 많이 나왔는데 「林忠臣傳」「林慶業傳」「林將軍傳」등이 그것이고 대부분 丙子胡亂의 영웅으로 그려져 있다. 李舜臣將軍은 임진왜란의 영웅으로 민족의 슬픔을 달래 주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林慶業은 뜻을 펴보지 못한채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애석한 것이고 李朝의 당파싸움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었는가를 되새기게 한다.

林慶業의 무인으로서의 꿈이 실현되기에는 당시의 政治構造가 너무나 保守의인태다가 봉당적이어서 武人은 정치인과 결탁하지 않으면 결코 공명을 세울 수가 없었다. 林慶業이 親明派의 대

의명분에 철저했던 것은 高麗末 崔 瑩의 전력과 비슷한 것이었고 남은 세력인 親元派와 새로운 세력인 親明派(좌파)에 물리는 것도 또한 역사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林 慶業의 武人으로서의 戰爭能力은 朝鮮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능히 구사할만했다. 이를 좌절시킨 것이 곧 정치 불안이었다. 林 慶業의 眞面目은 정치의 祭物이 된 그 비극적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지키려는 武人으로서의 투쟁심에 있었다 하겠다.

(6) 秋 水 鏡

號는 洗心堂이며 宣祖朝 壬辰倭亂時에 明나라에 가서 請兵大任을 完遂하고 돌아와 摠兵亞將으로 倭兵을 盡滅한 功으로 完山府院君을 贈하다.

「註」原州, 橫城에 世居하는 秋氏는 高麗 仁宗朝 (宋朝 紹興 14年)에 我國으로 東來한 秋 謐를 始祖로 모시는 後裔이다.

第6節 義兵 및 憂國志士

(1) 閔 肯 鎬

韓末 義兵大將 : 1880~1915(緣)原 州

公의 本貫은 驪興이며 原州 鎭衛隊의 장교로서 1907年 고종이 물러나고 군대가 해산되니 이에 격분, 義兵을 일으켜 提川 義兵大將 李 康奎와 합세, 忠州를 공격하여 倭兵을 죽였다.

또한 李 麟榮이 楊州에서 의병을 일으키니 이에 가담, 關東軍 倡義大將이 되어 倭軍과 100여 차례의 戰功을 세우고 雉岳山 講林村에서 倭兵의 습습을 받아 戰死했다. 그후 1962년 大韓民國 建國 功勞勳章 復章이 수여되었다.

〈文獻〉 韓國獨立運動史, 郡鄉誌, 人名大辭典

(2) 孫 在 奎

韓末 義兵將 : 1869~1907(翁회)

公은 1907년 原州鎭衛隊 參尉로 있다가 군대가 해산을 당하자 부하를 이끌고 義兵 활동을 전개, 日本軍에 항쟁했다. 뒤에 朴 汝成의 의병과 合流, 江原道 麟蹄를 中心으로 日本軍과 싸우면서 郡廳, 駐在所, 우편국등을 습격했다.

〈文獻〉 韓國獨立運動史, 人名大辭典

(3) 李 殷 璜

韓末 義兵將 : 1879~1909(고종 翁회) [出] 原州 文幕

公은 儒生으로서 宗室 德泉君의 후예이며 高宗 14년 9월 21일 이 석하의 長男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터 氣骨이 장대하고 활달하며 智略이 뛰어나 不義를 참지 못하는 性稟을 가지고 있었다.

乙巳條約 (1950年)후 洪川에서 義兵을 일으켰으며 1907年 元帥 李 麟榮의 中軍이 되어 倭敵과 接戰하는 가운데 가는 곳마다 큰 戰功을 남긴 忠義의 人物이다.

당시 楊州로 쳐들어 왔던 公은 이 지방에서 各地의 義兵을 규합, 24진을 편성하여 서울 진격을 결정하였다. 12월 서울 東大門 밖에 이르러 日本軍과 싸웠으나 완강한 저항을 받아 패퇴, 다시 楊州에 머물렀다.

1909년 (翁회 3) 兵勢가 부진하자 間島에 들어가 義兵하려 했으나 軍資金을 제공하겠다는 밀정 朴 魯天, 申 左均 등의 꾀에 빠져 체포되었으며 刑場에서 憂國時調 한 수를 읊고 死刑台의 이슬로 사라졌다.

第8編 人 物

한편 1962年 大韓民國 建國 功勞勳章 複章이 수여되었으며 原州 愛國 遺族會에서는 公의 忠義와 愛國心을 추모하기 위하여 原州驛 附近에 追慕碑를 建立 市民들의 龜鑑으로 삼고 있다.

〈文獻〉 獨立運動史, 江原道誌, 人名大辭典

(4) 李 根 成

憂國志士 : 〔生〕 1890年代 〔出〕 原州 富論

公의 貫은 安岳이며 일찍이 開化에 先覺, 培村學堂에서 新學問을 배웠으나 民族精神이 투철했다. 在學당시 3.1 獨立萬歲運動에 귀향 萬歲示威를 총 指揮하다가 日警에 체포되어 2년의 獄苦를 치루었다.

「아들 李東熙, 國民學校長 詩人」

第7節 孝 行 錄

(1) 金 大 鉉

原州人이니 字는 先圓이요 號는 松隱이다. 宣廟名臣 斗岩의 後人이며 芝村命來의 子다. 賦性이 仁厚하고 稟質이 端雅하여 孝友 兼全하여 善文學하고 治家에 有敦睦之誼하여 律或에 有勤儉之風하니 一州 多士가 咸矜焉이라, 松隱集 若干卷藏于家에 長子淵裕成均進士 次子 淵茂 長孫 建柱

(2) 李 良 畝

原州人으로 聖振의 子요 新正의 孫이라 天性이 寬厚剛明하여 事親에 克敬克孝하니 父痛에 斷指得甦하며 母父患 痢難醫에 或云鰾膽効而時值 天寒水合하여 誠求難得이라 良畝泣禱于天이러니 忽然驟雨가 暴露하여 門外小川이 水深尺餘되이 盈尺之鰾이 自出於水上이어늘 取歸膾進하여 即見其効하니라 子東吉, 東業이 天性至孝하여 家勢가 赤貧하고 年及白髮이나 每恐照水之闕하여 百里負米하니 供養盡誠하고 其父病이 篤커늘 與其弟로 不解 衣帶而祝 天願代하고 父母喪에 事死如生하며 昆季가 篤愛而 同床同衾이라

(3) 李 濟 鳳

原州人이며 字는 鳳圭이니 參奉順鍊의 子로 事親至孝하며 定省 無違하니 隨四時之物하여 供適口之味하고 日汲井華하여 至誠祝天하니 願老父身體 無恙이라, 分家十里外에 必問候於 三日間하였으나 時物新味와 烹魚烹肉을 供進不休하고 或 遭疾病이면 以妻替行하여 盡誠極孝하며 及 遭喪에 哭泣之哀와 奠祭之儀를 必遵體制하니 關生人士가 稱其卓孝러라.

(4) 黃 子 龍

原州出人이며 昌原人이다. 號는 龍潭이니 自少로 孝誠이 至孝하여 父病에 極盡侍蕩 天禱祈願하고 所祈注血하여 若干 延壽하였다하여 父沒에 食素 3年에 隣人이 모다 其盡孝에 感嘆하였으며 英祖朝에 其孝를 嘉之하시고 童蒙敎官을 贈하였다.

第8節 其 他(內容調查 不能人)

(1) 原 州 市

洪 萬紀 : 官至 承旨였으나 晩年에 原州로 落鄉하였는 바 그 後孫에 이르러서도 政承 判書의 地位에 오른 분이 적지 않았으므로 이른바 丹邱洪氏의 稱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6.25事變으로 因하여 모든 記錄과 族譜가 燒失되었으므로 昭詳한 調查가 不能하다.

(2) 原 城 郡

- ① 李 那珍 官至載寧縣監
- ② 李 琛 登武科 江原道兵使
- ③ 李 壤 修義副尉忠武衛
- ④ 辛 錦龜 官嘉善大夫五衛將 以孝行著世
- ⑤ 金 載禎 號 松岩 官至工曹判書
- ⑥ 金 世文 號 醉軒 官至 工曹參判
- ⑦ 金 商燮 號 松崗 至泰川縣監
- ⑧ 權 馥仁 孝行命旌閭
- ⑨ 高 漢遜 嘉善大夫
- ⑩ 高 相夏 行通仕郎繕工監假監役官
- ⑪ 高 鍾縣 忠州府都事

(3) 其 他

以上 數 많은 孝子의 孝行 事實은 朝鮮名倫錄 舊道誌 또는 前鄉土記錄에서 抄記한바 大概가 孝子의 通例의인 孝行事實을 보면

- 1. 親病에 嘗糞症驗하는 것
- 2. 冬節에 破水하니 偶然히 그 속에서 躍出하는 鮮魚를 求得하여 親病에 進供하니 效果를 본 일
- 3. 臨終에 斷指注血로서 親病을 回生시킨 일
- 4. 偶然得夢에 老人을 만나 그 老人의 指示에 따라 靈藥을 求한 일
- 5. 及喪에 廬墓 3年間 哀毀諸節을 다한 일, 그동안에 老虎가 來護한 일

이런 等等의 稀貴한 事實을 通하여 出天之 孝行을 다하니 隣里의 稱頌을 받았음은 勿論 그 事實이 上聞에 達하여 命旌閭하는 同時에 贈職을 하여 그들의 卓異한 孝行을 嘉賞하였다는 點이 모두 大同小異하고 그것을 일일이 例舉하는 煩廢를 避하여 다음은 이 고장 中 그 名單만을 列舉하기로 하자.

※ 李朝時代 ① 孫 有彥 ② 黃 瓏 ③ 金 榮植 ④ 康 景周 ⑤ 蔡 東龜 ⑥ 丁 奎華 ⑦ 黃 義龍

第9節 知名人士

(1) 原州 出生 人物

本欄에서는 내고장 人物들이 各分野에서 어떻게 活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 것이다. 그리고 내고장의 자라는 社會發展에 必要한 善意的 競爭일수도 있으며 또한 鄉土人들의 社會活動을 알뜨로서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굳건하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知名人士의 選定에 있어서는 至極히 難題中の 難題가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客觀的 基準으로 이 고장에서 出生한 人士로서 公職者는 事務官級 以上이거나 同等한 人士로 고장 發展에 功이 있는 者로 本 編纂委員會의 자문을 받아 職別은 無順으로 하고 姓別은 가, 나, 다 順으로 略歷을 견드려서 收錄하였으며 其他의 人士는 편집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人士錄으로 記錄하였음을 밝혀 둔다. 人士 누락과 其他 잘못된 點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諸賢의 充分한 諒解를 구하는 바이다.

●姜 彌 遠 : 行政家 (生) 1935年 1月 4日

氏의 貫鄉은 晉州며 原城郡, 地正面에서 姜大赫의 아들로 태어났다. 疏脫한 人品에 天性이 仔細하고 勤勉誠實한 努力家며 建設行政에 造詣가 깊은 意慾의인 行政家다. 54年 春川高等學校를 거쳐 59年 東國大學校 法政大學에서 政治學을 專攻하였다. 官界에 뜻을 두고, 60年 公務員 任用試驗에 合格, 61年 內務部地方局에 初발을 더딘후 建設部 國土計劃局으로 轉任 65年 建設部 國會連絡官으로 立法機關과의 連絡業務 改善과 資料提供에 힘을 기울였다. 그 후 港灣計劃課로 轉任 事務官으로 奉職했고, 69年 法務官室을 거쳐 70年 海外協力官室으로 옮겼으며, 多年間 建設部에 獻身하는 동안 多様な 分野에서 뛰어난 努力으로 責務를 完遂하고 對 國會連絡事務를 비롯 建設行政發展에 많은 業績을 남겼다.

●權 寧 九 : 教育家 (生) 1925年 8月 30日

氏의 貫鄉은 安東이며 權 鳳洙의 아들로 태어났다. 溫厚한 人品에 天性이 淸敏 仁慈한 知性的인 努力家며 農業教育의 專門知識을 갖춘 理智的인 教育者다. 45年 原州公立農業學校를 卒業하고 46年 春川農業高等學校附設中等敎員養成所를 거쳐 48年 春川農科大學에서 農學을 專攻한 후 서울大學校師大附設教育行政研修院을 修了하였다. 45年 原州公立國民學校 訓導로 敎育界에 投身 47년부터 橫城

中學校 橫城農業高等學校에서 10餘年間을 一線敎職者로 활약하였다. 53年 母校인 春川農科大學助教로 轉任 12年間을 人材養成과 大學敎育에 獻身하다가 68年 江陵 農業高等學校長으로 起用된 후 72年 春川 農業高等學校長으로 赴任하였다. 敎育界에 몸담은 以來 初中大等各 學校에서 幅넓게 奉職하였고 實業敎育에 多年間 獻身하는 가운데 道義 正서 敎育에 힘쓰는 한편 創意力과 開拓心을 기르고 새로운 技術敎育으로 農村人材育成과 產學敎育에 基礎를 確立하는 등 많은 業績을 남겼다 한便 61年 江原道政 諮門委員으로 추대되어 7年間을 道政發展에 기여하였다.

●金 圭 宗 : 行政家 (生) 1939年 10月 3日

貫鄉은 三陟이며 原州에서 金 麟鎬의 아들로 태어났다. 淸敏하고 疏脫한 人品에 天性이 寬仁하고 意慾的인 行政家이다.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에서 法律學을 專攻했으며,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을 修了했고 江原道內務局地方課로 官界에 初발을 더딘후 27年에 內務局 財政課長 同年 同 稅政課長으로 전 임했다. 이와 같이 建設 및 財務行政에 獻身하는 동안 남다른 才能과 行政的인 手腕으로 道政發展에 많은 功績을 쌓아 內務部長官 및 江原道 知事의 表彰을 받았다.

●金 大 宇 : 言論人 (生) 1927年 2月 21日

氏의 貫鄉은 金海며 原州에서 태어났다. 圓

滿하고 溫厚한 人品에 天性이 淸敏하고 知性的이며 學究的인 實力家로서 우리나라 言論暢達에 功이 큰 重鎮言論人으로 널리 알려진 人物이다. 氏는 高麗大學校 商經大學을 나오자 1953年 코리아타임스 記者로 言論界에 첫발을 디디었다. 그후 서울新聞社 記者 韓國日報社 記者 東亞日報社 記者 등을 지내면서 言論界一線에서 뿐만아니라 言論發展에 이바지했고, 그동안 쌓은 經驗과 獨인 識見으로 朝鮮日報社 編輯部 次長과 大韓日報社 編輯部長等을 歷任하였다. 1969년에는 서울新聞社 編輯局長 겸 編輯部長이라는 重任을 맡았었고 1972년이후 韓國圖書雜誌倫理委員會 事務局長으로 오늘에 이른다.

●金 秉烈 : 教育家 (生) 1921年 11月 25日

氏의 貫郷은 慶州며 原城郡에서 金 東燮의 아들로 태어났다. 謹嚴하고 端正한 人品에 天性이 淸敏하고 剛直하며 高尚한 人格을 갖춘 活動的인 元老教育者다. 일찌기 中等教育을 마치고 弘益大學을 卒業했다. 뜻한 바 있어 教育界에 投身 一線敎壇에서 오랫동안 獻身했으며 그후 校長으로 승진 原州中學校를 거쳐 原州女子商業高等學校에서 學校의 運營改善과 教育發展에 貢獻했다. 그다음 江原道 學務局長이 되었고 또한 江原道 教育委員會 第2代 教育監에 被命되었다. 이와같이 江原道 教育界의 중심점이 되어 보다 새로운 教育理念具現에 주력 첫째 僻地學校의 開發로 教育의 平準化를 期했으며 時代가 要求하는 人間教育을 위해 健全한 學風을 造成하는 등 江原教育의 基礎를 確立하고 方向을 提示해 놓은데 크게 寄與했다. 한편 民主共和黨 創黨當時 江原道黨 2地區黨 事務局長이 되었고 71年 中央黨教育 分科委員長을 歷任하며 敏活한 政黨活動을 展開하기도 했다.

●金 壽業 : 理學博士 (生) 1929年 4月 2日

本貫은 三陟이며 原城郡 所草面에서 金 朱鳳의 아들로 태어났다. 昭明하고 剛直한 人品에

天性이 淳厚하고 지예로우며 創意的인 研究家로 微生物學分野에 卓越한 知識을 갖춘 有數한 學者로 알려진 人物이다. 일찌기 原州 農業學校를 거쳐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수의과를 卒業하고 同大學院에서 碩士過程을 履修한 후 建國大學校 大學院에서 理學博士學位를 獲得했다. 우리나라 微生物學界의 實力者로서 國內家畜豫防藥 開發을 위해 15餘年을 民營會社 技術擔當重役으로 活躍하고 있는 氏는 首都 및 大星등의 微生物研究所의 核心的인 主役으로 活躍했다. 또한 韓國畜產開發Co. 常務理事 建國大學講師를 역임하며 우리나라 畜產發展과 人材育成에 크게 貢獻하고 있다. 한편 學位論文을 위시 뉴켓슬病毒의 病因學的 狀態에 關한 研究등 多數의 研究論文을 가지고 있다.

●金 榮云 : 經濟人 (生) 1907年 9月 29日

貫郷은 義城이며 原州 興業에서 出生했다. 謹嚴하고 高尚한 人品에 天性이 仁厚하고 圓滿하며 誠實한 努力家로서 多樣的인 分野에 造詣가 깊은 元老 經濟人으로서 알려진 人物이다 일찌기 原州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하고 1931年 公州 水明中學校 4年을 마친 후 1934年 서울 皮漁普高等 聖經學校 宗教教育科를 나왔다. 同年에 뜻한바 있어 母校인 公州水明中學校敎師로 被任되어 後進育成에 獻身하다가 日帝의 植民地政策에 실증을 느껴 言論界로 轉向 10年間을 참된 言論人으로서 日帝의 戰時政策을 비판하고 民族을 보호하며 民族思想 高취에 힘썼다. 이어 8.15光復後 1946年 우리나라 未開拓分野인 保險育成에 뜻을 두어 大韓生命保險Co 庶務課長을 歷任하다가 企業을 經營하기 시작 이듬해 株式會社 서울支局을 경영했고 50年 一和貿易 Co. 取締役社長 54年 大榮實業 Co. 取締役 副社長을 역임하며 우리나라 輸出振興과 企業育成에 크게 貢獻했다. 그후 1963年 大韓生命保險 Co. 營業部 次長으로 다시 保險界에 발드려 놓은 氏는 70년까지 8년간을 同社 直轄分室長, 同營業局長, 同 서울分室長

同 理事, 同 釜山分室長 등을 두루 역임하고 1972년 共榮無盡 Co. 常務理事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와 같이平生을 참된 生活人으로서 敎育, 言論, 企業, 金融 등 多樣한 分野에서 탁월한 指導者로 社會公益에 크게 寄與한 氏는 精力的인 經濟人으로 國家經濟發展에 남다른 業績을 쌓고 있다.

●金 榮 一 : 道議員 (生) 1915年 3月 14日

貫鄉은 金海요 號는 間松이며 1915年 3月 14日 原城郡 富論面에서 出生했다. 豁達한 人品에 勤實한 努力家이며 迫力과 信念이 강한 社會指導者요 幅넓은 地方 政界人物로 衆望이 높다.

일찍이 普通學校를 거쳐 地方吏員 養成所를 나왔으며 1937年 官界에 投身, 原城郡 板富面에서 副面長과 警防團長을 지냈고, 1945年 原城郡 神林面 副面長으로 轉任 1946年 面長으로 昇進되었으며 또한 同面에서 間選面長(1回民選面長 2回) 15年間을 面長으로 君臨하면서 面民의 求心點이 되어 왔다.

그후 뜻한 바 있어 地方政界에 投身, 江原道 議會議員으로 當選, 同副議長에 被選되는 등 政治的인 力量을 과시했으며 오랜 歲月을 一線 行政官으로 農村 開發에 努力한 經驗을 살려 農民을 위한 보다 나은 政策具現에 안간힘을 썼고 또 많은 業績도 세웠다.

이와 같이 地方 政治人이요 行政官으로서 오직 農民의 福祉를 위하여 貢獻해온 氏는 5.16後 1962年 共和黨 江原道 第2地區黨 副委員長, 原城郡 諮問委員會 委員長으로 또는 金海金氏 宗親會 江原道 副會長(原城郡會長) 原州文化院 理事등을 맡고 있다. 氏의 特異한 것은 6.25당시 混亂할때 面長으로 있으면서 山岳地帶인 管内가 旱災로 極凶하자 食糧難을 解決키 위해 直接他道에 나가 食糧을 救해다 주고 草根木皮로 苦生하는 面民들의 保健衛生을 特別한 方法으로 支援 克服했고, 敎育을 위해 神林中學校 設立(現在는 公立으로 넘겼음) 예민한 機智로 難關을 헤치며 面民과 呼

吸을 맞추어 各 行政長으로 名望이 높았다.

勤勉과 誠實 忍耐를 信條로 每事에 너그럽고 철저하며 旅行을 즐긴다.

●김 영주 一 : 經營人 (生) 1936年 10月 12日

貫鄉은 金海며 原州 平原洞에서 金 龍의 아들로 태어났다. 疏脫하고 溫厚한 人品에 天性이 어질고 寬大하며 圓滿한 研究努力家로서 經濟的 理論이 밝은 知性人이요 企業經營에 卓越한 識見과 手腕을 갖춘 斯界의 重鎮으로 定評이 있는 人物이다. 일찍이 春川高等學校를 卒業하고 1959年 延世大學校 理學科를 마친 후 軍에 入隊, 軍務發展에 많은 功績을 남기고 1963年 陸軍大尉로 예편했다. 이어 江原 石油로 企業界에 첫발을 디딘 氏는 現在까지 10餘年을 一貫 獻身해 오는 동안 經理課長을 거쳐 營業課長, 서울注油所長(東子洞)을 歷任하고 仁川 第一注油所長으로 오늘에 이른다. 이와 같이 油類界에서 다년간 企業運營의 資質과 手腕을 닦아온 氏는 恒時 事業의 모토를 正直과 信義에 두고 있어 理想的인 經營人의 標本이 되고 있다. 한편 正確과 誠實을 生活의 信條로 하고 있으며 讀書를 즐긴다.

●金 榮珍 一 行政家 : (生) 1940年 11月 8日

貫鄉은 金海며 原城郡 貴來에서 金 昌洙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에서 行政學을 專攻하고, 61年 13회 高等考試 行政科에 合格했다. 그후 관제에 투신 江原道 企劃監查室長을 역임하고 江原道 旌善郡守로 부임, 平昌郡守를 거쳐 71年 江陵市長이 되었다. 江原道企劃監查行政의 主役으로 市郡行政長으로 獻身하는 동안 뛰어난 才能과 識見으로 보다 새롭고 合理的인 道政計劃을 樹立하고 監查行政을 바로잡는데 크게 寄與했다. 恒時 爲國至誠으로 새로운 方法을 創出 劃期的인 功績을 이룩 文公部長官의 表彰과 賞牌를 받은바 있다. 1970年度에 原州市長으로 부임하여 많은 功을

남기고 現在는 中央으로 들어와 企劃擔當官으로 헌신하고 있다.

●金 龍 雲 : 行政家(代議員) (生) 1922年 5月 5日

本郷은 慶州며 原城郡 所草面에서 태어났다. 重厚한 人品에 天性이 仁慈하고 沈着하며 勤勉誠實한 努力家로 能力과 手腕을 갖춘 指導者며 굳은 信念을 지닌 剛直清廉한 行政家로 定評이 높다.

뜻한 바 있어 官界에 投身 行政一線에서 奉職하는 가운데 1955年 江原道 旌善郡 內務課長에 起用된 後 楊口郡 內務課長을 거쳐 寧越, 橫城, 洪川郡 內務課長을 各各 歷任, 보다 合理的인 計劃으로 內務行政의 効率的 改善과 業務發展에 注力 많은 業績을 남겼다. 그後 江原道農村振興院 庶務課長을 거쳐 1963년 襄陽郡守로 발탁되었고 洪川郡守를 歷任하기까지 지난 經驗을 土台로 보다 內實的인 計劃을 樹立 營農方法의 改善과 産業開發을 비롯 公務員資質向上 등 對民奉仕에 注力하였다.

1965年 江原道 內務局庶務課長을 거쳐 原城, 寧越郡守를 歷任하고 1969年 原州市長으로 赴任 從來 消費性 傾向을 벗어나지 못한 地域을 生産 및 文化都市로 發展시키기 위하여 輕工業團地를 造成하고 中央市場을 改築확장 商品의 集散地로 流通秩序를 圓滑히 하는 등 基盤을 造成하였다. 한편 住宅建築과 營農改良 難民救護를 비롯 嶺東高速道路開通의 支援 市街地計劃 住民所得을 높이는 등 市民 福祉行政에 注力, 原州市政의 새로운 方向을 提示해 놓았다.

1972年 初代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으로 出馬 有權者들의 絶대적인 지지로 當選 江原道 運營委員으로 卽任 유신과업 수행에 獻身하고 있다.

●金 在 善 : 技術行政家 (生) 1931年 6月 12日

貫郷은 三陟이며 原城郡 所草面에서 金來鳳의 4男으로 태어났다. 소탈한 人品에 天性이

淸敏하고 勤實한 努力家며 土木分野에 專門知識과 道路建設에 造詣가 깊은 人物이다.

일찍이 原州農業高等學校를 거쳐 56年 서울 大學校에서 土木學을 專攻하였다. 56年 江原道廳 建設課에 初발을 디딘후 原州土木管區事務所長으로 江原道 建設土木行政改善에 기여하였다. 68年 建設部로 轉任, 京釜高速道路 事務所를 거치는 동안 計劃 및 施工業務를 擔當하였으며, 70年 韓國道路公社 湖南高速道路事務所長을 지내고 이어 嶺東高速道路事務所長으로 전임 道路의 設計 및 施工을 비롯 道路工事 全般에 걸쳐 國際水準의 道路工法으로 그 工事を 完成시켰다. 72年 同公社補修部次長이 되었고, 73年 第二工事 事務所長으로 赴任하였다. 江原道를 비롯 一般建設事業에 奉職하는 가운데 恒常 새로운 分野를 研究하며 보다 向上된 技術로 業務를 遂行建設行政에 많은 業績을 남겼으며 高速道路建設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功勞로 大統領表彰을 받기도 하였다.

●金 鍾 爽 : 行政家 (生) 1919年 9月 13日 號는 春光이요 貫郷은 延安이며 金鉉基의 아들로 原州 杏邱洞에서 태어났다.

謹嚴한 人品에 天性이 剛直하고 仁慈하며 庶民의인 努力家로서 畜産分野에 專門知識을 갖춘 有能한 行政家요 體育指導者로 이름이 높다.

1936年 일찍이 原州에서 普通敎育을 마치고 41年 春川農業學校를 卒業, 江原道 農會技手로 公職에 初발을 디디었다. 한때 原州農高에서 講師로 活躍하기도 했다.

1955年 江原道産業局 畜政課長에 승진되었다. 在職中 57年 獸醫師免許를 받았고, 또한 技術銓衡試驗에 合格, 1955年 江原道 家畜衛生試驗所長을 歷任했고, 66年 原州市總務課長, 67年 原州市副市長을 지냈다.

특히 畜産分野에 權威者로 江原道畜産行政과 技術開發에 注力, 有畜農家造成에 크게 寄與했으며, 郷土發展에도 남다른 뜻을 두어 地

第4編 人 物

方一線行政의 核心人物로 原州商工會議所創設, 中小企業銀行支店 유치를 비롯, 人造眞珠 宇成產業, 地球鉛筆, 東和工藝 등 工場을 유치하는데 成功, 雇傭増大와 住民所得向上 등 地域發展에 많은 業績을 남겼다. 그후 昭陽江湄 水沒地區對策事務所를 設置, 소장에 취임, 3,700여 세대의 財産補償과 移民定着事業에 奉仕하고 있으며, 또한 江原道 柔道會長(柔道 四단)으로 道民體育振興에도 크게 寄與하고 있다. 恒常 勤勉과 誠實로 맡은 바 任務에 充實, 大統領의 勉勵褒賞과 內務長官의 模範表彰을 받기도 한 勤勉誠實의 標本이다.

●金 鍾 烈 : 行政家(體育指導者) (生)1918年 2月 12日.

貫鄉은 淸道며 原州에서 태어났다.

重厚한 人品에 天性이 仁慈하고 理智的이며 創意的인 努力家로서 德望이 있는 行政家요 우리나라 體育指導의 權威者로 名望이 높은 人物이다.

어려서부터 명석한 頭腦에 才能이 뛰어났다. 일찌기 서울에서 名門인 培材高校를 卒業하고 日本에 留學, 東京靑山學院에서 大學英文學部를 마치고 歸國, 教育界에 投身, 서울大學校 師大附屬中學校 校監으로 後進育成에 獻身했으며, 1953年 國防部次官 補佐官(理事官)으로 또는 法務部 秘書官(1955年)으로 國防 및 法務行政改善에 크게 寄與했다.

그후 1961年 당시 大韓體育會의 運營不實로 亂派相을 보이자 文教部長官에 依해 收拾對策委員으로 委囑되어 이를 圓滿히 收拾하는데 成功하는 등 卓越한 力量을 보였고, 同和通信 常務理事로 있으면서 大韓體育會 理事를 거쳐 專務理事로 活躍, 合理的인 運營으로 全國體育人의 殿堂인 會館을 建立하는 등 體育振興의 基礎를 確立해 놓았다.

1967年 邦林紡織 常務理事를 歷任했고, 大學敎育敎育協會 副會長, 學校法人 培材學堂財團理事, 三和製罐 副社長 등으로 있으면서, 1971年 大韓體育會副會長으로 選任되었다. 오

랜 歲月을 오직 爲國至誠으로 體育振興에 貢獻하는 강운에 韓日高校 교환경기大會를 創設 每回 運營하고 있으며 國際올림픽委員으로 또는 우리나라 體育會의 核心的인 主役으로 各種內外 競技를 專擔, 國際的인 地位向上과 國威를 宣揚하는 등 國民體位向上에 눈부신 業績을 쌓고 있다.

한편 社團法人 永登浦工業人協會 副會長으로 있으면서 國家工業發展에도 크게 寄與하고 있는 氏는 國民勳章 木蓮章을 받았고, 運動과 낚시를 즐긴다.

●金 珍 烈 : 技術行政家(水產) (生)1937年 10月 14日.

貫鄉은 慶州며 原城郡 文幕面 建登里에서 金 東燮의 아들로 태어났다. 淸敏하고 溫厚한 人品에 天性이 仁厚하고 理智的이며, 學究的인 努力家로 水產漁撈分野에 專門知識이 있는 水產技術行政家다. 55年 原州에서 農業學校를 마치고, 59年 釜山水產大學漁撈學科를 졸업한 후, 中央水產試驗場을 첫발로 水產技術分野에 투신하였다. 61年 農林部 水產局을 거쳐 66年 水產廳 漁政局에서 水產行政에 對한 實力을 쌓았고, 그후 水產技佐로 승진, 68年 同水產局 遠洋漁業係長이 되었으며 69年 施設局 漁船三係長을 거쳐 水產廳國立水產振興院 仁川支院長(初代)으로 就任, 韓國水產發展에 크게 寄與하였다. 맡은 任務에 誠意를 다했고 보다 새로운 分野를 開拓해서 우리나라 水產技術을 國際的으로 向上시키는 등 國家發展에 크게 貢獻하고 있다.

●金 興 培 : 道議員(農村指導者) (生)1917年 7月 5日.

號는 梅圃요 貫鄉은 金海며 原城郡 興業面에서 金 顯弼(漢學者)의 아들로 태어났다. 溫和한 人品에 天性이 寬仁하며 信念이 투철한 農村指導者요 地方政治人으로 널리 알려진 人物이다.

1938年 春川公立農業學校를 거쳐 官界에 投身, 1952年 橫城郡產業課長, 1954年 原州郡

産業課長을 歷任했으며 1956年 自身の 理念을 具現하기 위해 地方政界에 投身, 江原道 議會議員으로 當選되어 産業分科委員長에 被選되는 등 政治的인 力量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후 大韓農民會 中央委員(1959年) 1963年 民主共和黨 中央委員 1969年 再建國民運動 原城郡 委員長을 歷任했고, 1971年 부터 原城郡 山林組合長으로 活躍하고 있으며 農林部長官의 功勞賞을 받기도 했다. 學窓時節부터 農村復興에 뜻을 두어 公職中에 農民訓練所를 創設, 精神訓練, 敎育訓練, 實習訓練 등 三大目的의 아래 各部落 마다 2名式 選拔敎育하여 農村指導者를 育成, 營農改善과 近代化에 寄與했고, 道議員 當時는 江原道 農道院設置條例를 設定, 道內農村中堅 人物을 養成하는 등 農村指導者育成에 많은 業績을 세웠다.

●朴 達 仁 : 陸軍大領「軍政市長」(生)1927年 9月 1日.

貫郷은 密城이며 原城郡 興業에서 朴 章鎭의 아들로 태어났다. 天性이 仁慈하고 理智的이며 智略이 兼備한 一線指揮官이요 남다른 軍事知識과 行政能力을 갖춘 指導的인 人物이다. 8.15光復과 더불어 國土守護의 뜻을 품고 軍에 入隊 46年 陸軍士官學校를 卒業, 陸軍大尉로 任官되었으며 당시 軍將校로서 建國에 크게 寄與했다. 6.25사변 당시는 一線指揮官으로 戰鬪에 參加했고, 軍務發展에 크게 이바지했다. 陸軍大學을 卒業하고 建國大學校에서 法律學을 專攻했다. 61年 陸軍大領으로 진급되어 제28師團 聯隊長이 되었으며 63年 5.16후 軍政당시 現役으로 江原道 春川市長에 부임, 1年間 軍人精神을 발휘 不合理한 市行政을 바로 잡았다. 64年 다시 軍에 복귀 68年 陸軍大領으로 예편하는 동안 軍事發展에 많은 功績을 쌓아 大統領 表彰과 각종 武功勳章을 받았다. 70年 農漁村開發公社 非常企劃部長으로 國家企業에 參與 크게 活躍하고 있다.

●朴 萬 熙 : 經濟人 (生) 1912年 1月 20日
貫郷은 密陽이며 原州에서 出生했다. 重厚

하고 温和한 人品에 天性이 寬仁하고 德望이 높으며 高尚한 人格을 갖춘 元老經濟人으로서 우리나라 石油業分野에 權威者로 많은 功績을 쌓았을 뿐 아니라 國家經濟發展에 크게 寄與하고 있는 드러난 人物이다. 일찌기 中等敎育을 마치고 日本에 건너가 1937年 日本中央大學에서 法學을 專攻했다. 同 1941年에 日本石油株式會社에 入社 石油事業의 經驗을 쌓기 시작한 氏는 1945年 歸國과 同時 朝鮮石油統制株式會社에서 근무했고, 1945년 8.15 光復 후에는 美軍政廳 石油配給代行社에서 活躍했다. 그 후 1952년까지 大韓石油貯藏會社 텍사스石油株式會社 등에서 要職을 맡아 오다가 1953年 江原石油株式會社를 設立 代表理事로 오늘에 이른다. 이와 같이 石油業界에서 平生을 獻身해 오는 氏는 한때 大韓石油協會長을 歷任하며 斯界의 求心點 役割을 하는 동안 國家石油業發展에 不滅의 功績을 쌓았다. 自動化 時代의 「에너지」 供給의 必要性을 生覺한 氏는 油類需給에 30여년동안 獻身의 役割을 해왔으며, 地域開發은 즉 國家開發이란 信念으로 郷土開發에 注力 原州漆工藝 Co.를 設立 住民所得増大에도 크게 寄與하고 있을뿐 아니라 남다른 郷土愛로 在京原州市郡民會長을 오랫동안 맡아가며 市郡民의 福祉向上에 남다른 業績을 쌓고 있다.

●朴 炳 日 : 金融人 (生) 1933年 1月 5日

貫郷은 密陽이며 原城郡 富論에서 朴 元成의 아들로 태어났다. 淸敏하고 剛直한 人品에 天性이 寬仁하고 理智的이며 着實한 努力家로서 農業金融發展과 農村指導에 功이 많은 農村指導者요 金融人으로 알려졌다. 일찌기 仁川高等學校를 卒業하고 서울大學校 商科大學에서 經濟學을 專攻했다. 1958年 農業銀行에 入行하프로서 金融界에 첫발을 디디게 되었으며 同 銀行 調查部를 거쳐 1962年 經濟企劃院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同 綜合計劃局 事務官으로 奉職했고 1964年 다시 農協中央會 調查部調査役으로 轉職했으며 다음 同 農協調査

第8編 人 物

部調査課長을 歷任하고 1972년 次長으로 승진 오늘에 이르고 있다. I.C.A. 東南亞地域 農業 및 貿易小委員會委員이며 또한 아시아 經濟研究所 會議「日本」에 參席 國威를 宣揚하기도 한 氏는 韓國經濟와 產業聯關分析이란 研究論文을 發表하기도 했다.

●朴 養 雲：神學博士 (生) 1923年 8月 5日 氏의 貫鄉은 咸陽이며, 原城에서 朴 龍鎮의 아들로 태어났다. 剛直한 人品에 天性이 활발하고 仔細하며 理想的인 努力家로써 宗教問題 研究에 많은 業績을 남긴 德望있는 聖職者요 宗教學界의 著名한 學者다. 1942年 東星商業學校를 거쳐 46年 京城天主敎神學校(哲學) 48年 聖文神學校(神學)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에 留學 53年 로마 올라노大學校 大學院을 修了했다. 귀국후 母國인 聖神大學校에서 助教授를 거쳐 부교수로 있으면서 醫學部 部長으로 재직중이다. 57년부터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講師로 나가기 시작 부교수를 거쳐 65년부터 敎授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찌기 天主教에 歸依 神父생활을 하면서 敎壇을 지키고 있는 氏는 67年 獨逸政府초청으로 4개월간 聯邦地區를 巡訪 시찰했으며 로마 國際會議에 세 차레나 韓國宗教人代表로 參석한 일도 있다. 韓國宗教問題研究院 院長이기도 하다. “카톨릭 神學개설”을 비롯 “바티칸 公議會神學概說” “宗教研究”등의 著書를 갖고 있다.

●朴 英 千：治安行政家
1928年에 原州에서 出生했다.

일찌기 中學敎育을 마치고 警察에 투신, 警察專門學校를 졸업하고 警衛로 任官, 一線治安業務에 獻身하는 동안 總警으로 승진, 京畿道 警察局 警務課長을 지내고 서울 南大門警察署長이 되었다.

당시 首都中心部 治安行政長으로 卓越한 力量을 發揮 市街의 秩序를 確立하고 靑少年을 善導하며 遵法精神을 고취 事故를 未然에 防止하는 豫防警察에 주력, 治安維持에 크게 貢獻한 警察官으로 승진되었고 이어 內務部治

安局 保安課長으로 轉任되었으며, 다시 治安局 防衛課長이 되었다. 이와 같이 오랜 星霜 警察界의 核心的인 主役으로 國家治安行政改善에 많은 業績을 남겼으며 특히 警備 治安官의 矜持로 利害에 超然하고 마음이 清白하여 警察의 標本이 되었다.

●朴 有 植：行政家 (生) 1918年 2月 20日 號는 松原이요 貫鄉은 密陽이며, 原城郡 板富面에서 朴 應浩(漢學者)의 아들로 태어났다. 활발한 人品에 天性이 溫厚 謹實하고 外柔 內剛하며 創意的인 努力家로서 理念的인 行政家로 널리 알려진 人物이다.

어려서 부터 聰명이 過人하고 信念이 강했다. 일찌기 故鄉인 原州에서 普通敎育을 마치고 1938年 普通文官試驗에 合格 官界에 投身. 오랫동안 地方行政에 獻身 努力하였다. 당시 日政殖民地에서 呻吟하는 住民들의 生活安定에 注力하는 등 철저한 民族精神으로 奉職해 왔으며 8.15光復과 더불어 1948年 大韓民國政權이 樹立되자 京畿道 始興郡守로 기용되었다.

1952년 京畿道 楊平郡守를 거쳐 53년 金浦郡守 54年 京畿道 內務局公報課長을 歷任하면서 同年 10月에 高等銓衡試驗에 合格하였다. 1955年 京畿道 文教社會局 文政課長을 거쳐 內務局地方課長을 지내면서 國學大學政經學部를 나왔다. 1960年 京畿道 文教社會局 社會課長을 歷任하고 다시 京畿道 利川郡守로 轉任했다. 1961年 內務部 總務課長으로 轉任되었다가, 1964年 江原道 副知事로 任用發令되었다. 1966年 서울特別市 產業局長, 다음해 浦項局長을 거쳐 1970年 서울市公務員敎育院長을 歷任했다.

이와 같이 官界에서 30여 星霜을 貢獻해 오는데 동안 오직 爲國至誠으로 國民福祉를 위한 行政改善과 地域建設에 心血을 기울였으며, 특히 公務員들의 資質向上과 地域 諸般事業의 解決, 難民救護등 가는 곳마다 善政을 베풀어

住民들의 존경을 받았다.

한편 大統領의 綠條 및 紅條素星勳章 등 30여종의 功勞賞을 받았으며 登山을 즐긴다.

●朴 應 奎 : 陸軍准將 (生) 1922年 3月 8日
貫鄉은 密陽이며 原州에서 文翰家의 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中等敎育을 마치고 國軍創設當時 軍에 入隊, 47年 陸軍士官候補生大隊 中隊長을 역임하여 初期軍事發展에 크게 寄與했고 58年 國防大學院을 卒業하고 65年 光云電子工科大学를 마쳤다.

6. 25사변 당시 高級將校로 38線 突破作戰에 參加했으며 51年 第9師團 司令部 人事參謀를 지내며 유명한 白馬高地戰鬪에 加擔하는 등 中部戰線防衛에 크게 활약했다. 54年 第 6 軍團 司令部 參謀長을 역임하고 陸軍准將으로 승진되어 60年 兵帖司令部 司令官이 되었고, 이듬해 61年 第28師團 師團長이 되었다. 恒時 爲 國至誠으로 國家觀을 확립하고 部下를 사랑하며 뛰어난 統率力으로 兵士들의 士氣를 북돋아 주는 등 智略을 겸한 德將으로 國土防衛에 赫赫한 戰功을 세우고 陸軍准將으로 陞遷했다. 65年 國防部 國立墓地管理所長으로 발탁되었고, 67年 同 行政 理事官이 되었으며 銀星乙支武功勳章과 大統領表彰을 위시 3등 勤勞功勞勳章을 받았다.

●朴 昌 來 : 稅關行政家 (生) 1939年 11月 24日生

貫鄉은 密陽이며 原州 中央洞에서 朴 元善의 아들로 태어났다. 淸敏하고 楷正한 人品에 天性이 寬仁하고 理智的이며 霸氣에 찬 意慾인 努力家로써 뛰어난 才能과 手腕을 갖춘 行政家다. 일찍이 春川中學校를 마치고 57年 春川高等學校를 졸업했으며 64年 高麗大學校에서 經濟學을 專攻하고 同年에 第一回 三級 財經職公採用試驗에 合格했다. 다음해 財務部 稅關局 鑑定課 事務官으로 발탁되었으며

67年 稅關局 評價係長이 되었고 69年 同 企劃 調査課 第1係長으로 전임 뉴저랜드政府초청으로 稅關行政訓練에 參加했다. 70年 稅關調査課 第1係長을 거쳐 書記官으로 승진 關稅廳價格調査擔當官室 1課長이 되었다. 이와 같이 嶄新한 實力者로 稅關行政에 一貫獻身하는 동안 특히 企劃調整 및 調査評價分野에 주로 면밀한 業務遂行으로 不合理性을 제거하고 理想的인 制度를 마련하는 등 뛰어난 創意力으로 보다 行政改善에 크게 寄與했다. 그리고 71年 關稅廳 海外駐在官으로 渡日 참된 關稅行政家로 貿易業務의 振興과 國際收支改善에도 많은 業績을 쌓았다.

●白 斗 鉉 : 法律家 (生) 1936年

原州에서 白完基의 長男으로서 原州農業學校를 마치고 뜻한바 있어 法學을 研究, 高等考試司法科에 合格 檢事로 任官되어 法曹界에 첫발을 디디었다. 그후 서울地方 檢察廳 檢事が 되었고, 다시 釜山地方檢察廳 檢사가 되었고 馬山支廳檢事로 轉任 檢察分野에서 크게 활약, 不正과 腐敗를 바로잡고 法秩序를 확립하며 올바른 社會를 建設하는데 貢獻하고 있다.

●徐 仁 源 : 技術行政家 (生) 1934年 9月 18日.

貫鄉은 大邱며 原城郡 文幕面에서 敎育者 徐 洪錫의 아들로 태어났다. 해정한 人品에 天性이 明敏한 努力家로 水資源開發分野에 造詣가 깊고 電氣工學分野에 專門知識을 갖춘 行政家다. 52年 徽文高等學校를 卒業하고 서울大學校에서 電氣工學을 專攻하였다. 官界에 뜻을 두어 61年 建設部水資源開發課에 投身, 10年間을 一貫奉職하는 동안 電氣建設에 注力, 春川 蟾津江댐을 비롯하여 南江 및 昭陽江 電氣建設計劃과 設計 및 施工을 擔當 電力開發에 크게 寄與했다. 70年 서울特別市 地下鐵 建設本部에 工作電氣課長으로 赴任, 地下鐵建設工事に 電氣建設分野를 擔當 主管하였다. 理工

第8編 人 物

學分野의 教育을 마치고 國家産業의 動脈인 電氣開發 및 多目的한 建設과 有史以來 國內 技術陣으로 처음 試圖한 地下鐵工事に 獻身하는 동안 보다 새로운 技術을 研究 開發했다. 한편 先進國의 技術을 導入, 이를 應用, 創意的이고 正確한 計劃을 立案 國家의 事業으로 遜色이 없는 工事を 完遂하는데 誠意를 다하므로서 産業發展과 交通手段의 新紀元을 마련하는 歷史的 過程에서 큰 業績을 남겼다.

●孫 善 奎：行政家 (生) 1939年 5月 1日
貫鄉은 慶州이며 原州市 丹溪洞에서 孫興周의 아들로 태어났다. 人品이 疏脫하고 理智的이며 天性이 明敏한 行政家로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에서 行政學 碩士課程을 이수하고 3級公開 採用試驗(行政職)에 合格한후 建設公務員教育院 敎務課에 任用되어 奉職했고 建設部企劃管理室, 法務擔當官室 議政係長으로 轉任되었으며, 그후 行政管理擔當官室 組織管理係長으로 赴任하여 組織管理業務에 힘을 기울였다. 계속하여 자질을 研磨하는 한便 보다 효율적인 業務執行에 힘써 企業管理業務에 많은 功績을 이룩하였다.

●宋 基 澈：經濟學博士(大學長) (生) 1925年 3月.

貫鄉은 恩津이며 宋彥燮의 아들로 原州에서 태어났다. 우리나라 經濟學界의 權威者로 알려진 人物로서 44年 廣信商工高等學校를 거쳐 50年 高麗大學校 經商大學校 卒業, 55年 高麗大學院에서 商學碩士학위를 받고 이어 60年度에 高麗大學校에서 經濟學博士학위를 받았다. 그후 西獨政府 招請으로 西獨 퀴론大學에서 博士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돌아왔다. 55年 高麗大學校 經商大學講師로 被任된후 商科大學專任講師, 부교수를 역임하고 62年 教授로 승진 65年 商科大學長이 되었다. 이어 附屬企業經營研究所幹事, 常任理事를 거쳐 所長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計理士이기도한 氏는 現在 高麗大學校 商科大學長겸 經營大學院研究主任

으로 在職中이며, 著書로는 經營學, 經營診斷等이 있으며 經濟學徒의 必須書가 되어 있다. 誠實과 努力 또한 讀書로 一貫해 온 氏는 오늘날의 韓國經營學中의 權威者이다.

●辛 慶 善：教育行政家 (生) 1922年 1月 10日.

本鄉은 寧越로서 原城郡 所草面에서 辛在鎬의 아들로 태어났다. 謹嚴 厚德한 人品에 天性이 圓滿하며 創意的인 研究努力家로 學校庶務行政分野에 造詣가 깊은 有能한 行政家로 알려진 人物이다.

일찍기 大東商業學校를 卒業, 42年 朝鮮商業銀行에 들어가 근무했고 解放과 더불어 鄉里로 내려와 45年 原州中學校 庶務課長이 되었다. 그후 24年間 줄곧 嶺西地方의 各中學校 庶務課長을 歷任하며 地域學校發展에 많이 貢獻했다. 이어 59年 平昌中學校 庶務課長을 歷任했고 國學大學經濟科를 專攻한 바 있으며 69年 韓國日報社販賣副局長으로 轉任, 1年만에 漢陽大學校 資材課長으로 자리를 옮겨 教育施設을 비롯한 학교환경 개선에 많은 業績을 남겼다.

●申 東 河：教育家 (生) 1924年 3月 20日
貫鄉은 平山이며 申道淳의 아들로 태어났다. 楷正한 人品에 知性的이며 天性이 淸敏하고 仁慈한 人格을 갖춘 信望이 두터운 教育家다. 42年 大邱師範學校 尋常科를 졸업하고 46年 서울師範大學豫科 2年을 修了했으며 慶熙大學校 政治外交科를 卒業하였다. 42年 처음 原州에서 鳳山公立小學校訓導로 教育界에 投身했으나 44年 江原道 商工部 食糧課로 전임했다. 46年 麗水公立水產高等學校 敎諭로 다시 敎職에 발을 디딘후 47年 橫城郡 花城國民學校長으로 발탁되었다가 51年 甲川中學校校監으로 자리를 옮겼다. 55年 原州中學校를 거쳐 63年 洪川郡 內村中學校長을 歷任하고, 65年 江原道教育委員會 中等教育課 獎學士로 전임 獎學指導에 貢獻했다. 68年 原州中學校

長을 거쳐 71年 江原道教育委員會 中等教育課長으로 起用되었다. 學校新設 및 學級增設 實業教育시설 產學教育基盤造成體育振興 등 技術教育을 통한 學力提高와 僻地教育開發에 많은 業績을 남겼다. 恒時 참된 教育者의 矜持로 後進育成을 위한 理想的인 學校經營과 教育管理로 江原道中等教育發展에 크게 寄與 大統領의 勉勵褒章을 받았다.

●辛 在 振 : 教育家 (生) 1923年 9月 11日

號는 松軒이요 貫鄉은 寧越이며 原城郡 所草面 屯屯里에서 辛 敬默의 아들로 태어났다. 疏脫한 人品에 天性이 仁慈하고 儉素하며 剛直한 教育者로서 手腕과 能力있는 教育行政家로 알려졌다. 일찌기 官立春川師範學校尋常科를 卒業 45年 原城郡 所草國民學校 教師로 教育界에 첫발을 디딘후 同校에서 校監으로 昇進되었고 53年 原州教育區 장학사를 거쳐 60年 道장학사로 轉任되었다. 61年 南春川國民學校長을 거쳐 62年 原州市教育長, 麟蹄郡教育長을 歷任하고 다시 原州市教育長을 거쳐 原州鶴城國民學校長 旌善郡教育長을 지낸후 72年 原城 文幕國民學校長으로 轉任됐다 28年間 教育界에 몸바쳐오는 동안 10年間은 一線教師로 활약했고 18年間은 教育行政家로 均衡的인 初等 教育發展을 위해 僻地教育開發 및 人事管理 施設補完에 置重 完全한 教育自治制와 名實相符한 學校長 中心體制具現에 많은 業績을 남겨 教育功勞賞으로 大統領勉勵褒章 道教育監表彰 大韓배구協會長 特別功勞賞 등을 받은바 있다. 한편 64年 弘益大學 政治學部經濟學科를 卒業(經濟學士)한바 있으며 正直勉勵을 信條로 讀書과 園藝를 취미로 하고 있다. 現在는 原州國民學校 校長으로 있다.

●辛 在 勳 : 經營人.

貫鄉은 寧越이며, 1924年 11月 22日 原城郡所草에서 태어났다. 俊秀하고 활달한 人品에 天性이 仁慈하고 德義가 있으며 企業育成에 卓越한 識見이 있고 創意力이 강한 研究

努力家로 忠肥發展에 功이 큰 重鎮經營人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氏는 延禧大學에서 商學을 專攻하고 原州郡廳內務課에서 근무하다가 50年 交通部로 轉任, 10年間 奉職하였다. 이어 氏는 60年 忠肥創設과 同時 入社, 65年 保健課長, 66年 勞務課長, 67年 檢査役, 68年 企業課長, 70年 販賣課長을 거쳐 71年 公報課長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功績을 세워 數回에 걸친 수상을 받은 模範 中堅幹部이기도 하다. 聰明하고 明哲한 氏는 創意的인 研究를 不斷히 하여 恒常 時代潮流에 副應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創出 他企業에서 敢히 추종하지 못하는 企業育成의 새 領域을 開拓해 나가고 있어 忠肥의 至寶的인 人物로 定評이 높다.

●辛 孝 善 : 金融人 (生) 1924年 7月 25日

貫鄉은 寧越이며 原城에서 辛在鎬의 아들로 태어났다. 俊秀하고 温和한 人品에 天性이 寬厚하고 學術이 바르며 知性的인 努力家로서 庶民金融 企劃研究에 功이 큰 幅 넓은 指導的 金融人으로 알려진 人物이다. 1942年 善隣商業高等學校를 卒業하고 1959年 國學大學經濟科를 나왔다. 1964년 高麗大學校經營大學院修了, 1966년에는 Australia N. S. W大學大學院을 修了했다. 氏는 1943年 朝鮮殖產銀行에 몸을 담고 金融界生活을 始作한 후, 前에는 原州支店에 勤務한 일이 있고 6. 25前에는 韓國產業銀行 人事部長代理 外資部長代理를 歷任한 바 있다. 1962年 國民銀行으로 자리를 옮겨 中部支店次長 企劃研究庶務次長 등을 거쳐 1967年 富平支店長, 68年 同 銀行 清涼里支店長, 彌阿洞支店長 등을 지냈다. 現在 國民銀行支店 計理部長으로 在職中인 氏는 Co.-Ombo 計劃에 따라 政府派遣技術訓練을 Australia에서 받고 귀국하였다.

●沈 相 殷 : 監查行政家 (生) 1933年 6月 20日.

貫鄉은 春松이며 所草面 壽岩里에서 出生했다. 疏脫하고 寬厚한 人品에 天性이 明哲

하고 理智的이며 學術的인 努力家로서 經理會計學分野에 專門知識이 있는 監査行政家이다. 52年 原州農業學校를 졸업하고, 60年 國民大學經濟學科를 나왔으며, 67年 高麗大學校經營大學院을 修了했다. 일찌기 審計院을 첫 발로 官界에 投身 남다른 才能으로 監査業務에 奉職하는 동안 68年 副監査官으로 昇進되었으며 71年 同 第1局으로 자리를 옮겼다. 71年 陸軍士官學校 科學機材輸入에 따른 會計指導次 東南亞地域을 巡回했으며 또한 會計管理研究에 關한 原稿과 公認會計士資格取得에 對한 準備를 하고 있어 恒時研究와 努力으로 自我를 開拓하며 참된 監査官의 矜持로 公私에 分明하고 名리에 超然하며, 徹底한 監査行政으로, 國家機關의 不正과 腐敗를 바로 잡고 公務員의 紀綱을 確立하는등 올바른 國家建設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沈 賢 澤 : 教育家 (生) 1907年 10月 28日
號는 小松이요 貫鄉은 靑松이며 原州市 丹溪洞에서 沈宜大(學者)의 아들로 태어났다. 謹嚴한 人品에 仁慈하고 仔詳하며 知性的인 努力家요 德望이 높은 元老教育者다. 일찌기 江原道立師範學校를 卒業하고 教育界에 投身 25년부터 35년까지 道內國民學校教師로 36년부터 43년까지 補官學校에서 44년부터 52년까지 國民學校長으로 53년부터는 中等學校長으로 道內 初中高等學校에서 48年間 2世國民教育에 半平生을 獻身하였다. 71年 洪川女子中等學校 校長으로 전임 鄉土開發教育과 愛國心 德性美 生活力을 지닌 主體性 있는 韓國女性教育에 重點을 두고 教育에 臨하고 있으며 日本教育界 視察도 다녀왔다. 나라의 새 역군이 될 學生들과 同苦同樂을 하며 一生을 教育에 몸바쳐온 氏は 오로지 바람직한 人間教育으로 社會正義와 道義再建에 많은 業績을 남겼고 또한 有名한 弟子도 수없이 배출했다. 남을 돕는것은 바로 나를 돕는 것이란 生活信條로 國家에 貢獻, 教育功勞表彰과 大統領의 綠條素星勳章, 國民勳章(冬栢章)등 10여

종의 賞을 받은바 있다.

●安 京 鎮 : 行政家 (生) 1936年 6月 18日
貫鄉은 順興이며 原城郡 文幕에서 安在德의 2男으로 태어났다. 淸敏하고 활달한 人品에 天性이 寬仁하고 創意的이며 外柔內剛의 底力的인 努力家로서 多樣한 分野에 造詣가 있는 理智的인 行政家다. 일찌기 서울城東中學을 卒業하고 忠南唐津에서 商業高校를 나왔다. 그 후 5.16과 더불어 官界에 뜻을 두어 內務部總務課를 첫 발로 行政界에 投身하게 되었으며, 이듬해 同 地方局稅政課로 전임, 多年間 奉職하는 동안 남다른 才能과 實力이 인정되어 1917年 內務部 地方行政研修院運營係長이 되었다. 또한 內務部企劃管理室企劃係長이 되어 國家內務行政의 産室이 되는 企劃管理室의 主務로 보다 새롭고 合理的인 計劃의 基礎를 立案하고, 建議하는등 行政發展에 크게 寄與했으며, 다시 地方局 稅政課稅外收入 係長으로 轉任했다. 언제나 착실한 努力과 研究로 行政의 內實을 期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된 生活의 氣風을 造成하는등 勤勉誠實의 標本이 되고 있다.

●安 德 欽 : 教育家 (生) 1917年 2月 24日
貫鄉은 順興이며 原州에서 安漢鉉(漢學者)의 아들로 태어났다. 淸廉剛直한 人品에 天性이 沈着하고 理智的인 努力家요 德望이 높은 謙虛한 教育者다. 春川高等學校를 卒業하고 43年 法政大學 經濟學科를 마친후 三陟開發株式會社 經理課職員으로 社會에 첫 발을 디디었다. 8.15光復과 더불어 後進育成에 뜻을 두어 1945년 9월 1일 新明女學校를 設立開校 후 原州女子初級 中學校로 改稱, 公立學校로 昇格시켰고 그 후 다시 原州女子商業高等學校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어 同校育成的의 中樞的인 役割을 담당하여 教育大計의 터전을 마련하여 오다가 61年 原州中學校長으로 전임되었다. 68年 다시 原州女子綜合高等學校長으로 轉任實業教育에 重點을 두어 一人一技의

技術指導와 테니스를 비롯 體育振興에도 크게 注力했고 또한 德性을 길러주는 人間教育으로 바람직한 女性教育에 獻身했으며 原州市教育長으로 있으면서도 많은 功績을 남기는 한편 原州市體育會副會長, 江原道體育會理事, 家庭儀禮準則委員, 家庭法院委員등을 맡아 폭 넓은 社會活動으로 地域社會發展에 눈부신 功績을 쌓고 있다. 그리하여 大統領의 綠條素星勳章과 國民褒章, 體育功勞表彰등 수 많은 功勞表彰을 받은바 있으며 趣味로 運動을 즐긴다.

●安 明 洙 : 治安行政家 (生) 1921年 1月 7日.

貫郷은 順興이며 安鍾哲(官界)의 아들로 原州에서 태어났다. 俊秀한 人品에 天性이 발달하고 知性的이며 霸氣가 넘치는 學究的인 努力家로서 卓越한 指導의 力量이 있는 名治安官이요 行政家로 定評이 높은 人物이다. 1940年 일찌기 春川高校를 졸업하고 日本에 留學 東京高等實務學校를 마치고 귀국 45년에 8.15 光復당시 春川 警察署保安課長으로 混亂한 社會秩序를 바로잡고 住民들의 生命과 財産保護를 위한 保安業務에 萬全을 期했다. 48年 政府가 樹立되고 國軍이 創設되자 國土防衛란 큰 뜻을 품고 軍에 入隊, 49年 陸軍憲兵學校를 졸업과 동시 少尉로 任官되었으며 6.25事變으로 부터 10餘個 星霜을 憲兵高級將校로 활약했고 61年 憲兵大領으로 승진되어 第3犯罪搜查隊長을 歷任하며 軍의 紀綱을 確立하고 軍務를 바로 잡는 등 軍事警察에 크게 貢獻했다. 이와 같이 軍務에 시달리며 學究에 注力, 弘益大學에서 法學을 專攻했으며 이어 建國大學校大學院에서 碩士課程을 이수했다. 5.16후 63年 警務官으로 발탁 慶北警察局長으로 任用發令되었고 66年 治安局情報課長을 거쳐 67年 治安監으로 승진되어 서울特別市警察局長이 되었다. 그리고 1968年 警察專門學校長을 歷任했으나 1.21事件(武裝間諜 靑瓦臺 습격)의 道義的인 責任을 지고, 後輩들의 승진길 을 위

해 自身の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오직 國家에 奉仕하는 길이라는 名言을 남긴 채 欣然히 官界를 떠났다.

●安 範 洙 : 法律家 (生) 1932年

貫郷은 順興이며 일찌기 中等教育을 마치고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에서 物理學을 專攻하다가 6.25事變으로 軍에 入隊 陸軍將校로 戰鬥에 參加 많은 戰功을 세우고 大尉로 예편했다. 그후 獨學으로 法學을 研修 61年 高等考試 司法科에 合格 檢事로 任官되었고, 法務部 檢察課를 거쳐 서울地方檢察廳 城東支廳 檢事로 전임 法秩序를 확립하고 官의 紀綱을 세우며 올바른 社會를 建設하는데 크게 寄與하고 있다.

●安 鍾 燦 : 金融人 (生) 1926年 6月 26日

貫郷은 順興이며 原州에서 安柄熱의 아들로 태어났다. 疏脫한 人品에 寬仁厚德하며 理想農村建設에 貢獻이 큰 農村指導者요, 能力과 手腕을 갖춘 金融人이다. 1945年 原州公立農業學校를 卒業하고 같은 해 原州金融組合에 몸을 담았다. 1960年 農業銀行 江原道支部行員, 1961年 자리를 옮겨 洪川郡農業協同組合 常務, 1963年 橫城郡農業協同組合 常務를 지낸 후 1964년에는 農協江原道支部課長代理를 거쳤다. 1969年 寧越郡農業協同組合 常務, 1971年 洪川郡農業協同組合 常務 등을 歷任하고 1972年 이 후 現在 農協江原道支部總務課長으로 在職中이다. 氏는 1965年 日本農協 및 農村研究를 爲해 現地에 派遣되었고, 農協中央會長の 功勞表彰狀을 받은 바 있다.

●廉 洙 喆 : 經營人 (生) 1929年 7月 4日.

貫郷은 坡州며 原州에서 태어났다. 淸敏하고 端雅한 人品에 天性이 寬仁하고 知性的이며 精力的인 活動家로 海外市場開拓에 功이 큰 有能한 經營人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50年에 春川高等學校를 卒業하고 58년에는 商大의 名門인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經濟科를 卒

第8編 人 物

業했다. 經濟科 出身들이 進出하는 金融系統을 擇하지 않고 重工業國家로 指向하려는 國家施策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 와 奉仕하는 윌리엄 한트株式會社에 57年 入社 73年 現在 重機部長으로 在職하고 있다. 더욱이 65년에는 中華民國 香港, 日本 等地的 市場調査官으로 68年에도 亦是 香港 및 日本 市場 調査官으로 派遣되어 海外市場開拓의 效率의인 方案을 세우는데 크게 寄與했다.

●吳 湘 根 : 社會指導者 (生) 1915年 5月 15日

號는 海隱이요 貫鄉은 海州며 橫城, 原州, 麟蹄등의 郡守를 지낸 吳惟泳의 5男으로 태어났다. 謹嚴하고 剛直한 人品에 天性이 仁慈하고 知性的이고 活動的인 努力家로서 多様な 分野에 造詣가 깊은 指導者요 社會 名士로 알려진 人物이다. 일찍이 原州公立普通學校를 거쳐 培材高等學校를 卒業했으며 한때 日本, 大學專門部에서 修學하기도 했고 高校당시는 럭비, 축구부를 創設 選手로 活躍하다가 原州에 돌아와 地方體育을 위한 蹴球와 陸上競技發展에 크게 寄與했다. 그후 原州郡廳과 原州 稅務署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1945年 8.15光復과 더불어 歸鄉, 뜻한 바 있어 青年運動을 시작했다. 당시 原州青年團長, 原州 反託委員長을 歷任하며 建國의 基礎를 다지는데 앞장서 많은 功績을 남기고 다시 上京 國民會委員으로서 政治에 關與하며 美軍政廳 財務部에서 근무했다. 뒤이어 政府樹立후 第3代 農林部長官 秘書官으로 발탁되었으며 收復後 계속 20餘年間을 公職에서 獻身하는 동안 原州雉岳山을 國有林으로부터 原城郡有林으로 無償讓與케하는 등 많은 業績을 남기고 退官 1958년부터 企業에 參與 協成運Co 社長으로 우리나라 運輸業發展에 크게 貢獻하고 있다.

●柳 光 烈 : 金融人 (生) 1938年 8月 19日
貫鄉은 文化며 原州 開運洞에서 柳得春의 아들로 태어났다. 淸敏하고 端正한 人品에 稟

性이 어질고 勤實하며 知性的인 研究努力家로서 外換業務에 研究가 깊은 實力家요 참신한 金融人으로 알려졌다. 1954年 春川中學校를 卒業하고 1957年 春川高等學校를 나왔으며 1964年 高麗大學校 法科大學에서 法律學을 專攻했다. 같은해 韓國商業銀行에 入行함으로써 金融界에 첫발을 디디었고 이어 同 銀行 鍾路支店을 거쳐 1967年 本店 外國營業部로 자리를 옮겨 奉職中 代理로 昇進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1年 美國外換銀行 招請을 받아 渡美 外國業務를 研修하고 돌아온 氏는 보다 創意的인 努力으로 實務에 臨하고 있어 外換業務發展에 많은 貢獻을 하고 있다.

●柳 台 煥 : 時調作家 (生) 1927年 3月 16日

號는 玄岳이요 貫鄉은 文化이며 原城에서 柳範成의 아들로 태어났다. 疏脫한 人品에 仔詳하며 활달하고 理想的인 教育者요 創意性이 豊富한 精力의인 創作活動으로 文壇發展에 功이 많은 時調作家로 알려진 人物이다. 春川 農業學校를 나와 春川師範學校講習科를 修了한 후 4年間 富論國民學校教師로 있다가 서울大學校 師範大學國文科를 卒業했다. 이후 20餘年間을 高等學校 國語教師를 지내면서 作品活動을 한 氏는 현재 韓國文人協會會員이자 韓國時調作家協會會員 仁川師範學校에서 1年間 京畿商高에서 8年間, 德壽商高에서 3年 6個月間, 서울女商에서 8年間의 교편생활을 했다. 주요 作品으로 「눈이 오는 날은」 「66年 12月 現代文學을 비롯 「他人像」, 「自畫像」, 「늑음과 달과 사랑과」 「바다에서」 「산에서」 「조국의 가을」등이 있으며 評論으로 「時調創作의 基本姿勢」가 있다. 이밖에 「現代時調의 편집을 담당 2集까지 내기도 했으며 自由文學 新人賞을 受賞한바 있다.

●柳 炯 鎮 : 教育學博士(大學長) (生) 1926年 3月 5日
貫鄉은 文化며 原州에서 柳祥雨의 아들로

태어났다. 疏脫한 人品에 天性이 仁慈하고 圓滿하며 理知的인 努力家다. 또 우리나라 教育學의 權威者로 德望이 높은 人物이다. 45년에 京城師範學校本科修了 49年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教育學科卒業 55年 美國하버드大學校 教育學碩士課程修了 58年 同 大學院에서 教育學博士 取得 58年 서울大學校 師範大學助教授로 被命된 후 63年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長을 歷任하고 65年 建國大學校 文理科大學 教授로 轉任하였다. 世界的으로 有名な 하바드大學에서 修了한 教育學의 權威者로 國民教育의 發展을 위해 寄與한바 크다.

著書로는 「教育과 主體性」, 「美國教育과 蘇聯教育等」이 있으며 68년에 國民教育憲章起草委員, 69年韓國比較教育學會長 70年 韓國教育學會長 71年 政府名譽博士學位審査委員도 歷任했다.

●尹 吉 重 : 1971年代.

貫郷은 坡平이며 1971年 原城郡文幕에서 出生하였다. 默重한 人品에 天性이 俊邁하고 政治的 信念이 뛰어난 巨物 革新界 政治인으로 이름이 알려진 人物이다.

어려서 부터 頭腦가 明哲하고 理智的이며 슬기로운데가 있었을뿐 아니라 일찌기 日本에 유학, 日本大學法學部를 졸업하고 日本 高等考試 司法 및 行政科를 合格한 뛰어난 英才였다.

20代의 젊은 나이로 全南務安 및 강진郡守를 지내고 建國初 法制司法委員長, 憲法起草委員으로 우리나라 憲法制定에 크게 寄與하였다.

그후 2代 民議院 議員에 당선되었고 당시 革新政黨인 進歩黨의 主役 幹事長으로 새로운 政治運動을 일으켰으나 進歩黨事件으로 投獄되었으며 4.19義舉後 社會大衆黨을 結成하고 간사장에 就任, 第5代 國會議員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5.16革命과 同時 革新勢力으로 다시 投獄되는 등 독특한 政治理想과 遠대한 雄志

를 實現하지 못한채 非運의 政治的 孤兒가 되었으며 이와 같은 政治的 逆境에서도 意志를 굽히지 않고, 보다 國家民族을 위해 獻身할 수 있는 길을 모색 신민黨에 入黨, 同黨 政策委員長, 및 서울 第19地區 黨委員長을 지내며 第8代 國會議員에 當選, 巨物政治人으로서의 矜持를 다시한번 과시하였다.

●陰 辰 炯 : 金融人 (生) 1928年 12月 15日 號는 喜雲이요 貫郷은 槐山이며 原州에서 陰鍾植의 아들로 태어났다. 温和하고 豐滿한 人品에 天性이 寬大하고 知性的이며 信念이 강한 實踐家로 庶民福祉金融分野에 功績이 많은 典型的 金融家로 알려진 人物이다. 1940年 鄉里에서 鳳山國民學校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 45년에 京畿商業高等學校를 卒業했으며 67년에는 高麗大學校 經營大學院을 修了하기도 했다. 45년에 처음 朝鮮殖産銀行 原州支店에서 근무하다가 50年 韓國殖産銀行 本店 業務部로 轉任했다. 同年에 다시 人事部 人事課로 옮겨 勤務하다가 52年 韓國產業銀行으로 자리를 바꾸어 같은 業務를 관장했고 다음 58년에 外資第2部에서 4年間을 勤續했다. 그 후 62年 國民銀行 秘書室 參事로 轉任되었으며, 이해 부터 1972년까지 同 銀行 企劃室長 대리 東大門支店長 대리 本店 業務部福祉金融課長 檢査役, 黑石洞支店長, 中部支店長을 歷任하고 이와 같이 金融界의 核心人物로 우리나라 金融發展에 크게 寄與하고 있는 氏는 특히 庶民金融發展에 중점을 두어 零細商人들의 相互 賦金利制를 적극 장려시키는 등 企業育성과 業界發展에 많은 功績을 쌓았다. 또한 經營者의 인 典型的 金融家로서 幅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氏는 誠實, 勤勉, 努力을 生活信條로 롤프를 즐긴다.

●李 達 俊 : 體育人 (生) 1942年 1959年 서울商高를 卒業하였으나 어려서부터 敏捷한 體質에 明哲하고 또한 運動精神이 강한 努力家였다. 高校에 부터 卓球의 實力

이 뛰어나 學年당시 아시아 卓球大會에 出戰하여 좋은 成績으로 入賞했고 그후 農協을 거쳐 在軍당시 國家代表級 선수로 눈부신 활약을 했다. 이와 같이 卓越한 卓球實力이 認定되어 世界的인 美國 卓球팀 「프로」에 入團, 40여개국을 순회하며 國威를 宣揚했다. 1968년 이래 전美國 卓球選手權을 보유하고 있는 氏는 美國에서 卓球의 王으로 美國代表級 卓球選手團의 코치生活을 하고 있다.

●李 東 馥 : 言論人 (生) 1937年 9月 26日
氏의 貫鄉은 韓山이며 原城에서 李定木의 아들로 태어났다. 淸敏하고 俊秀한 人品에 天性이 활발하고 理知的이며 奇拔한 思考力이 풍부한 努力家로서 歷史的인 南北會談에 크게 寄與하고 있는 有名人으로 알려졌다. 京畿中高等學校를 卒業하고 이어서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政治學科에 들어갔다. 1958年 韓國日報社에 入社言論界에 첫 발을 디었다. 그후 1969년에는 同新聞社 政治部次長을 지냈고 얼마후 外信部次長으로 자리를 옮겼다. 1972年 大韓赤十字社 會議事務局文書資料室長, 南北共同調節委員會代辦人等の 重任을 맡았다. 氏는 1963年과 64年 美國務省招請으로 渡美한 일이 있고 65년에는 越南戰線을 視察했고 67年 國會議長隨行員으로 中東旅行을 한바 있다.

●李 養 壽 : 技術行政家 (生) 1931年 1月 3日.

貫鄉은 全州며 原城郡 文幕面 建登里에서 實業家 李純器의 아들로 태어났다. 重厚하고 활발한 人品에 天性이 溫厚하고 疏脫하며 創意力이 豊富な 實踐家로서 通信機械分野에 專門的인 知識을 갖춘 知性的인 技術行政家다.

일찍이 京畿公立中學을 졸업하고, 55年 서울大學工科大學에서 通信機械學을 專攻했다. 그후 遞信部를 첫발로 官界에 투신, 多年間 奉職하는 가운데 技佐로 승진, 62年 木浦無線電信局 超短派分室長으로 拔擢되었으며, 63年 中

央電氣通信試驗所 機材係長으로 전임되었고, 66年 遞信部工務局 機械課動力係長을 거쳐 技正으로 승진 69年 江陵電信電話建設局長이 되었다. 당시 管内 通信施設의 落後地域을 선정 寧越 旌善地域의 磁石式電話를 公電式으로 改替하는등 通信施設改善으로 僻地住民들의 文明 혜택을 받게 하는데 크게 寄與했으며, 70年 서울電波監視局長으로 전임되었고 71年 서울電信電話建設局長을 거쳐 72年 京畿電信電話建設局長으로 전임했다. 오랜 星霜 電氣通信分野에서 貢獻하는 동안 恒時 研究에 主力 새로운 技術을 개발, 政府綜合廳舍의 自動電話施設을 비롯 東大門商街 및 彌阿電話局開通 등 우리나라 通信技術業務에 많은 業績을 세워 大統領과 遞信部長官의 功勞表彰을 받았으며, 58年 通信電源研究次 渡美 視察하기도 했다.

●李 英 俊 : 法律家 (生) 1938年 9月 19日
貫鄉은 牙山이며 李鸞錫의 3男으로 태어났다. 端正하고 昭明한 人品에 天性이 仁慈하고 理智的이며 英敏한 努力家로서 叡智와 思考力이 豊富な 名法官이요 또한 法律學界의 有數한 民法學者다. 일찍이 春川高等學校를 마치고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에서 法學을 專攻 60年 高等考試司法科에 合格 그후 陸軍本部 戒嚴高等軍法會議 法務官을 거쳐 春川地方法院 原州支院 判事를 歷任한 후 69年 후랭크 후르트大學 大學院에 유학 法學博士學位(主題論文: 매도인의 하자 擔保責任)을 받았고 69年 귀국과 同時 서울民事地法 判事로 奉職하며 明知大學教授가 되었다. 70年 法學交換教授로 渡美 美國 켈리포니아大學에서 國際去來法과 民法을 講義했으며 또한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講師 및 國土統一院 北韓民法研究委員으로 위촉 法律學界 民法分野의 有數한 學者로 크게 활약하고 있다. 이와 같이 法曹界에서 또는 法學界에서 中樞的인 人物로 獻身하는 가운데 특히 神聖한 法官의 矜持로 事件處理의 正確을 期해 名法官의 稱을 받고 있으며 보

다 새로운 學術的인 研究로 民法分野의 새 境地를 開拓해 놓는에 크게 寄與했다. 한편 著書로 註譯民法이 있고 또한 民法練習을 발간했으며 취미로 바둑을 즐긴다.

●李 重 淵：教育家(生) 1915年

貫郷은 原州며 原州에서 태어났다. 昭明하고 活潑한 人品에 天性이 寬仁하고 明哲하며 創意力이 豊富한 實踐家로서 手腕과 能力을 갖춘 行政家며 또한 教育者로 알려진 人物이다. 原州儒道會長으로 漢詩에 能한 氏는 일찌기 原州에서 普通教育을 마치고 40年 延禧專門學校를 졸업했으며 오랜 時日 教育界에 獻身하는 동안 原州女子中高等學校長이 되었다. 그후 江原道學務課長을 歷任하고 行政界로 轉職, 原城郡守를 지냈다. 이와 같이 教育 및 行政分野에서 江原道內的 中樞的인 主役으로 활약하는 가운데 특히 基本 制度的 改善에 주력 學事行政을 비롯한 一般行政의 座標를 設定하고 새 進路를 개척하는데 크게 貢獻했다. 이어 退官과 同時 社會運動에 뜻을 두어 社團法人 싱글벙글會를 創設, 總本部長으로 취임했으며 오직 웃으며 일하는 社會氣風을 造成하여 明朗하고 不平없는 社會建設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恒時 보다 明朗한 웃음으로 家庭에 和氣가 있으면 國家에 榮光이 깃든다는 信念으로 웃음 研究를 취미로 하고 있다. 氏는 原州女子中高等學校의 前身인 新明女學校를 創設하였다.

●李 止 淵…政治人(企業家)

貫郷은 原州며 1911年 6月 24日 原州에서 李炳善의 아들로 태어났다.

活潑한 人品에 天性이 寬仁하고 霸氣와 迫力이 넘치며 信念이 강한 經濟界 政黨人으로 널리 알려졌다.

일찌기 原州에서 普通教育을 마치고 實業界에 종사, 酒造業을 自營했으나 日帝의 植民地 政策에 불만을 품고 암암리에 民族運動을 전개했으며, 저 유명한 光州學生事件에 관련,

要視察人으로 日警에 체포되어 投獄까지 당한 철저한 民族主義者였다.

그후 8.15解放과 더불어 建國運動에 參與 原州大韓青年團 副團長을 역임하며 당시 混亂했던 社會秩序維持에 注力하는 등 建國의 기초를 다지는데 貢獻했다. 政府가 수립되고 地方議會가 구성되자 原州市 議會議員에 출마, 初代議員에 당선되었으며, 自由黨 原州地區 副委員長, 原州 酒造工業協會長을 역임하며 住民들의 福祉를 위한 政策具現과 酒造工業發展에 많은 業績을 남겼다.

5.16후는 江原道 警察局 諮問委員 民主共和黨 江原 第2地區黨 副委員長으로 보다 많은 活躍을 하고 있다.

오직 努力과 忍耐로 自我를 開拓하며 住民을 위한 地域社會開發에 힘써온 氏는 農場經營을 趣味로 하고 있다.

●李 燦 教：行政家(生) 1937年 10月 1日

貫郷은 全州며 教育家 李徹教의 實弟로 出生했다. 疏脫하고 活潑한 人品에 天性이 寬仁하고 理智的이며 意慾的인 秀才로서 教育心理學分野에서 專門的인 知識을 가지고 있는 教育行政家이다. 故郷인 原州에서 中學教育을 마치고 春川師範學校를 卒業하고 서울大學校에서 教育心理學을 專攻하고 延世大學校에서 教育行政學碩士課程을 이수했다. 大學卒業과 同時 第11回高等考試 行政科를 首席으로 合格했다. 그후 淑明 女子大學校 講師로 人材養成에 힘쓰는 同時 文敎部에 投身, 事務官으로 奉職하는 동안 基準및 法人係長을 거쳐 科學係長을 歷任하고, 69年 書記官으로 승진, 視聽覺및 科學教育企劃擔當官이 되었고, 72年 實業教育課長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敎職課長이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文敎行政의 核心的인 主務로 보다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教育行政에 注力, 不合理한 分野를 바로잡고 새로운 分野를 開拓하여 時代的 潮流에 알맞는 理想的 教育의 座標를 設定하고 進路를 開拓하는데 크게 寄與하였다. 그리고

日本の科學技術教育을 視察했으며 美國에서 개최한 國際世界大學大會 韓國代表, 필리핀에서 열린 콜롬보計劃會議 韓國代表로 參席하는 등 우리나라 學術教育에 對한 國際的地位를 向上시켜 놓았다. (著書로는 教育行政이 있다.)

●李 鎭 典 : 金融人 (生) 1936年 11月 15日

氏의 貫鄉은 公州며 原城에서 태어났다. 人品과 天性이 침착하고 근실하며 理智的인 活動家로서 農村問題研究에 造詣가 깊은 農業金融人이요 指導者로 定評이 높다. 일찌기 鄉里인 原州에서 原州中學校를 거쳐 60年 春川高等學校를 卒業함과 同時 大學에서 經濟學을 專攻하다가 60년에 서울大學校 商科大學을 卒業했다. 同時 우리나라의 落後된 農村發展을 위해 獻身하겠다는 뜻을 갖고 農業銀行에 入行하여 實務를 익힌 뒤 64年 亞細亞의 農業國인 印度 New Deli에 派遣되어 營農過程의 教育訓練을 받고 歸國한 후는 麟蹄郡 農業協同組合 常務, 農協中央會企劃部 代理 農協中央會外國部 外換課長을 거쳐 農協中央會審査部 審査役에 在職中이다. 生活信條는 誠實을 따옴의 指標로 삼고 있다.

●元 九 喜 : 行政家

本鄉은 原州며 1924年 5月 4日 原城郡에서 태어났다. 稟性이 溫厚하고 勤勉하며 財政會計分野에 造詣가 깊은 行政家로 알려졌다.

일찌기 春川農業學校를 卒業하고 官界에 投身하여 江原道 山林界를 筆頭로 會計課主事를 거쳐 內務局 庶務課 人事係長, 經理 및 豫算係長을 各各 歷任하고 財政課長으로 昇進되어 會計課長에 轉任되었다. 財政會計業務를 管掌하여 빈틈없는 業務執行으로 財政確立을 期했으며, 그後 春城郡守를 역임하고 道 糧政課長을 거쳐 企劃管理室 企劃管으로 道政企劃을 主管行政發展에 크게 獻身하였다.

●元 鳳 薰 : 育英事業家 (生) 1918年

貫鄉은 原州다 일찌기 中等教育을 미치고학을 전공했다. 이어 6.25事變당시 軍에 入隊

뜻한바 있어 官界에 投身 奉職하는 가운데 原州郵遞局長을 歷任 地方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후 育英에 뜻을 두고 原州大學 財團理事長으로 사학육성과 地方大學發展에 全心血을 기울였다. 한편 原州市 體育會 副會長등의 公職을 맡아보는 등 教育을 비롯 體育振興에 名利를 초월하여 爲國一念으로 獻身 人材育成과 體育發展등 多樣한 分野에서 活躍 地域社會發展에 뛰어나게 貢獻하였다. 어려서 부터 남의 앞장서기를 좋아하여 8.15해방 때 도 原州自治에 앞장서서 治安 유지에 功을 세웠다. 또한 原州大學의 理事長으로 있었다.

●元 世 亨 : 經營家 (生) 1913年 3月 30日

貫鄉은 原州며 原州에서 元 錫奉의 아들로 태어났다. 疏脫하고 溫厚한 人品에 天性이 寬仁하고 儉素하며 理智的인 努力家로서 蠶糸業界의 뛰어난 識見을 갖추고 있는 重鎮經營家로 알려진 人物이다. 일찌기 原州農業學校를 졸업하고 1942년 原州農會技手로 社會에 첫발을 디딘후 10여년을 잠업기사로 資質과 力量을 닦으며 잠업발전에 많은 貢獻을 했다. 그후 1953년 原州製糸 原料課長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어 庶務課長을 거쳐 常務理事가 되었으며 1968년 專務로 승진 오늘에 이른다. 참된 잠업인으로서 보다 새로운 技術을 研究開發하고 이를 農民들에 普及 理想的인 蠶業增產에 많은 功績을 쌓아온 氏는 착실한 經營家로 크게 알려져 있으며 地域社會發展과 農民所得增大에 寄與한 功勞로 內務長官의 表彰을 받기도 했다.

●元 昌 勳 : 文化運動家 (生) 1930年 4月 26日

貫鄉은 原州며 原州에서 元 寅植의 아들로 태어났다. 俊秀하고 靑靑한 人品에 天性이 어질고 明敏하며 知性的인 研究努力家로서 國際의 文化向上과 國威宣揚에 功이 큰 社會文化運動家로 알려진 人物이다. 일찌기 中高等學校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教育

將校로 任官 陸軍本部 作戰敎育局 作戰課에 勤務하다가 1954年 陸軍參謀總長 專屬副官으로 기용되었고 다시 聯合參謀本部總長 專屬副官으로 자리를 옮겨 國土防衛에 많은 貢獻을 하고 1957年 陸軍大尉로 예편했다. 다음해 유네스코 韓國委員會 事務局에 발들여놓은 후 同本部「파리」敎育局에서 勤務하며 訓練을 받았고 한때 國務總理 秘書官을 지내기도 한 氏는 유네스코 企劃部長으로 크게 活躍하고 있다. 在軍당시 日本 比律賓 越南등지의 軍事視察을 하기도 한 氏는 1962年 第12次 유네스코總會로부터 每年總會 때마다 韓國代表로 參席 우리나라 文化發展을 위한 國威宣揚과 國際文化交流에 많은 業績을 쌓고있다. 現在는 佛國巴里유네스코 本部에 勤務中이다.

●元 寅植 : 行政家 (生) 1907年 11月 4日
號는 景耘이요 貫郷은 原州며 原州에서 元永建의 아들로 태어났다.

素朴하고 重厚한 人品에 天性이 仁慈하고 德望이 높으며 또한 孝行이 至極한 人物이요 理念的 行政家로 이름이 높이 알려졌다. 어려서 原州 文幕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하고 1926年 文幕面職員으로 처음 官界에 投身, 47년까지 20여년을 郡屬, 또는 稅務署 課長으로 奉職했다. 당시 日政下 官僚生活를 했으나, 民族意識이 투철하여 오직 農民들의 어려운 일을 스스로 돌보아 주는 등 住民善導에 힘써 많은 尊敬을 받았다. 이로 因해 解放後 47년부터 54년까지 6.7년간을 江陵稅務署長, 原州稅務署長, 春川稅務署長을 歷任하며 稅政刷新에 크게 貢獻했다.

그후 原州邑長이 되어 6.25事變으로 폐허화된 都市建設과 行政秩序 확립에 주력, 地域發展의 기초를 마련했고, 原州市 昇格후 第2代 市長으로 발탁되었으며, 다시 第3代 市長으로 選出(民選)되어 住民福祉를 위한 地域開發에 注力 많은 業績을 남겼을 뿐 아니라 難民救護와 住民宿願事業에 보다 努力하는 등 善政을 베풀어 市民들의 추앙을 받았다.

그후 官界에서 退官했으나 계속 올바른 地域社會 建設에 이바지 하고져 再建國民運動 原州市委員長, 韓國反共聯盟 原州 原城支部長 行政諮問委員長 등 社會公職을 두루 맡아가며 地域發展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특히 氏는 圓滿하고 德望이 있을 뿐 아니라 80老母에게 孝誠이 至極하며, 이 고장 善男善女들의 結婚 主禮를 맡아 준것이 200여 쌍이 넘을 정도로 주민들의 尊敬을 받고 있다. 또한 市長으로 있을때도 地方巡廻中 땀흘리는 農民들의 집을 덜어지기를 일수로 하여 노동자 농민의 큰 벗이라는 별호도 받고 있다.

●元 鎭昌 : 企業人 (生) 1919年 3月 8日
貫郷은 原州며 原城에서 元 弼圭의 아들로 태어났다. 俊秀하고 활달한 人品에 天性이 寬仁하고 勤實하며 理智的인 努力家로 土木技術分野에 남다른 識見을 갖춘 重鎮 實業家로서 鐵道 및 地域建設에 功이 많은 指導者로 알려졌다. 原州公立普通學校를 나와 1939年에 日本熊本學校建築科를 卒業했고 이어서 株式會社 西本組에 몸을 담고 1943년까지 지내다가 44年 合資會社 長門組에 技術社員으로 土木建築을 맡아 일을 했다. 1952년에는 原州綜合建築研究所를 開設하여 所長에 就任 오늘에 이른다. 1級技術者 자격증을 받은바 있는 氏는 江原道치악山 10리터널 鐵道工事와 忠北 九鶴鐵道工事 및 충북 황간철도復鐵工事, 龍山驛이전공사, 原州제방공사, 原州市內 各劇場設計 施工監督, 原州中央市場工事, 原州市廳 原城郡廳工事等を 한바 있다.

●元 鴻 默 : 敎育者(大學長) (生) 1922年 5月 6日.

貫郷은 原州며 原州에서 出生했다. 信念과 德望이 있는 社會事業家요 宗教人이며 體育界에 功勞가 많은 學者로 알려졌다. 일찌기 東國大學校를 卒業하고 同大學院을 수료한 후 關西大義塾부교수를 거쳐 弘益大學 理學部長으로 활약했다. 그후 駐韓美公報院 江原道院長으로 있었으며 서울신학대학 理事, 清岩學院理

第8編 人 物

事長을 지내며 教育事業에도 힘썼고 또한 대한민국 사회사업연합회 理事,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長老를 歷任했다. 이어 原州大學長 江原道教育委員을 지내며 郷土教育과 體育發展에 크게 貢獻했다.

●元 興 均 : 文學博士 (生) 1907年 7月 13日

號는 多耘이요 貫鄉은 原州며 原城郡 文幕面 翠屏里에서 韓末의 法律家로 道 評議員을 지낸 元 光漢의 아들로 태어났다. 謹嚴하고 默重한 人品에 天性이 寬仁하고 儉素하며 信念이 강한 活動家로써 우리나라 視聽覺 教育分野에 先驅者요 開拓者며 高節한 學行과 德望으로 不滅의 攻績을 쌓은 當代 教育界의 巨星으로 드러난 人物이다. 1926年 京城第1高普(現 京畿高校)를 졸업하고 28年 京城大學 醫科를 거쳐 32年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哲學科에서 倫理學을 專攻하고 34年 同大學에서 다시 法律學을 研究했으며 69年 建國大學校에서 名譽文學博士 學位를 받았다. 1934年 平壤崇仁商業學校 敎員으로 教育界에 첫발을 디딘후 全州女子高普 및 高等女學校 敎諭을 거쳐 解放前까지 全北道視學 道屬 및 京城德成女子實業學校 敎務部長을 지내며 敎壇을 통한 民族教育에 힘썼다. 1945年 光復과 더불어 校長으로 승진 江陵高等女學校長 겸 實踐女學校 初代校長을 거쳐 江陵師範(신설) 47年 春川師範校長을 역임하고 48年 서울市 學務局 獎學士 및 初代學務課長을 지냈다. 그후 67년까지 20年동안 城東中學, 龍山中學 善隣商高 서울師範 및 附屬 京東高 京東中 城東實業女高德壽商高 및 中學, 京畿高, 京畿中, 서울師大附高 등 名門學校長을 두루 歷任하며 開墾 發掘의인 生活態度로 教育의 基盤作業을 전개 健全한 校風을 造成하고 民族教育의 基礎確立과 進路를 開拓해 놓았다. 또한 建國大學校 서울師大, 中大文理大등에서 倫理學과 視聽覺 教育學을 講義하기도 한 氏는 68年 서울教育

大學長이 되어 69年 退任하기 까지 同大學附設研究院長, 敎員養成所長, 敎員敎育院長등을 兼任하며 참된 教育者 養成에 크게 공헌했다. 이와 같이 오랜 星霜 教育界에 몸담아 오는 동안 教育制度 및 敎科課程研究의 中樞的인 人物로 활약했고 民族精神宣揚會 副會長 韓國書藝家協會 顧問 및 研究會長, 韓國音樂舞蹈研究會長, 全國教育聯合會長, 韓國放送協會長, 韓國視聽覺敎育會長, 서울市敎育會長등 100餘 公職을 歷任했다. 또한 美國敎育使節團 顧問 유네스코韓國委員, 國際라이온스協會 309地區 總裁(한국) 필리핀, 홍콩, 중화민국 學事視察 世界敎職者 聯合會, 第13차總會(W. C. O. T. P) 參席(日本) 西獨, 丁抹, 美國, 瑞西, 伊太利 日本등지의 敎育界視察, 日本視聽學敎育研究大會參席, 日本 美國에서 개최한 國際라이온스協會, 52, 53世界大會參席등으로 國威를 宣揚했다. 氏의 名著로 신교육, 視聽覺敎育者의 理論과 實際, 多耘論說集, 視聽覺敎育 및 同辭典, 생각하는 물결이 있고, 國民勳章 多栢章과 大統領의 紅條素星勳章을 위시 各種 敎育 社會研究등 14종의 功勞賞을 받았다.

●張 泰 鉉 : 政黨人 (生) 1931年 9月 1日

貫鄉은 仁同이며 原州에서 張基憲의 아들로 태어났다. 重厚한 人品에 天性이 溫厚하고 學問이 유여하며 政治的 理念이 뚜렷한 實力派 政黨人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일찌기 우리나라의 名門 景福高等學校를 거쳐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에서 政治學을 전공했으며 그후 官界에 投身, 無任所長官 秘書官(2級乙)을 지냈고 또한 水協中央會 外資部長 및 共販部長 企劃調查部長을 역임했다. 5.16革命後 民主共和黨에 入黨 同黨 中央黨 常任委員을 비롯하여 서울市黨 企劃室 企劃部長 中央事務局 宣傳部次長, 政策研究室 企劃運營處長, 訓練部 敎授를 지낸후 다시 宣傳部次長을 거쳐 宣傳部長이 되어 政策의 研究發展과 黨員들의 資質向上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이와 같이 黨 要職에서 오직 國家와 民族을 위한 基盤

造成과 政策具現에 많은 功績을 쌓고 있다.

●張 在 鏞：外交家

1922년에 原州에서 出生했다.

日本에 留學 法律學을 專攻하여 해박한 知識과 手腕을 가진 有能한 外交官이다.

일찌기 中等教育을 마치고 日本中央大學에서 法律學을 專攻하였다. 多年間 外務行政에 奉職하는 가운데 駐日代表部 領事로 起用되어 對日關係 改善을 비롯 僑胞權益 保護와 地位向上에 힘을 기울였다. 이어 外務部 外交問題研究委員會를 거쳐 企劃管理室長등 重責을 맡고 激變하는 國際情勢를 自主的이며 能動的으로 이에 대처하여 크게 기여하였다. 그후 淸州總領事로 赴任 政治 經濟分野의 關係改善과 友好增進에 힘썼고 또한 合理的인 內容으로 弘報活動을 전개 實利外交와 國위 宣揚에 큰 業績을 남겼으며 현재는 駐日大使가 되어 현직 부임중이다.

●張 潤：育英事業家 (生) 1928年

일찌기 中學教育을 마치고 成均館大學校를 졸업했다. 그후 各界에서 올바른 社會建設을 위해 努力하던 中韓國船舶協會 總務部長으로 활약했으며 이어 教育界로 전향 私立으로 大成中等學校를 設立 大成中等學校長을 歷任했다. 現在 大成中等學校 理事長으로 育英事業에 獻身하고 있는 氏는 恒時 名利에 초연하고 보다 참된 教育者로 社會指導者로 地域發展을 비롯 教育 및 體育振興에 크게 貢獻하고 있다. 爲國教育의 一念으로 後進育成에 힘쓰고 있을뿐 아니라 政治에도 꿈을 다지고 있는 理智的이며 信念이 강한 指導者로 알려졌다.

●鄭 載 東：音樂學者 (生) 1928年 11月 25日

氏의 貫鄉은 草溪며 原州에서 鄭 映憲의 아들로 태어났다. 청민하고 온화한 인품에 天性이 寬仁하고 理智的이며 우리나라 交響樂團의 名 指揮者로 새 境地를 개척해 놓은 藝術家요 學者로 드러난 인물이다. 1948년 原州農

高를 졸업 52年 서울대 音樂大學 器樂科를 나온 후 60년부터 漢陽大學校 音樂大學 教授로 재직하고 있다. 70年 美國 보스턴 잉글랜드 音樂大學院 指揮科를 졸업, 碩士학위를 받고 歸國後 계속 서울시立 交響樂團 指揮者로서 맹 활약을 하고 있기도 하다. 65年 國立오페라단 專屬 指揮者로서 베르디作曲 오페라「아이다」의 本部 初演 指揮를 함으로써 이미 頭角을 나타내기 시작 창작오페라「春香傳」의 初演 指揮를 비롯 오페라 「라보엠」「리코레토」등 수차례의 오페라 公演指揮를 가졌으며 國立交響樂團定期演奏 및 방송演奏客員指揮를 하기도 했다. 大學教授이자 指揮者로서 教育 및 藝術活動에 情熱을 쏟고 있는 氏는 앞으로 指揮學徒의 養成을 위하여 大學에 指揮科를 新設하고 특히 젊은 世代의 啓蒙을 위하여 交響악의 大衆普及에 적극 나서고 있다.

●鄭 載 椿：英文學者 (生) 1923年 11月 17日

氏의 貫鄉은 草溪며 鄭映憲(原州郡民會長)의 長男으로 태어났다. 疏脫한 人品에 仔詳하고 仁慈하며 理想的인 努力家로 敎務行政에도 造詣가 깊은 學者요 德望있는 우리나라 英文學 발전에 크게 貢獻한 人物이다. 1957年 檀國大學校 英文學科를 나온 후 71年 漢陽大學校 大學院 英文學科를 졸업하고 同大學校에서 7년간을 助敎授 副敎授에 이어 英文學敎授로 활약하고 있으며 敎務課長 敎務部長을 거쳐 大學院 委員 및 敎務處長을 겸임하고 있다. 일찌기 培材學堂 敎務主任등을 歷任하다가 獨立運動者로써 抗日운동에 몸을 바친 故 鄭寅元翁은 氏의 祖父이다. 鄭翁은 韓日合邦과 동시에 國運을 恨嘆하여 露西亞로 亡命 20여년 동안 抗日鬪爭을 하다가 歸國했으나 종래는 倭警에 쫓기는 몸이 되어 提川 義林池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한다.

●鄭 昌 根：技術行政家

1928년에 原州郡에서 出生했다.

氏는 清廉剛直한 人品에 明哲하고 理智的인

人 物

며 鑛山學 分野에 專門의인 知識을 갖춘 研究 努力家로 定評이 높은 技術行政家다.

일찍이 中等教育을 마치고 서울大學校 工科 大學에서 鑛山學을 專攻했다. 大韓重石鑛業株式會社로 鑛業界에 첫발을 디딘후, 上東鑛業所 所長으로 赴任 卓越한 技能으로 劃期的인 發展을 가져왔다. 이어 同社 技術常務로 昇進 鑛業分野全般에 걸쳐 새로운 技術을 研究開發 大韓鑛山學會 會長으로 被選되는 등 鑛業振興에 크게 寄與하였다.

●鄭 泰 時 : 教育學者(大學長) (生) 1917年 2月 1日.

貫鄉은 延日이며 原州에서 鄭浚澤의 아들로 태어났다. 重厚한 人品에 天性이 仁慈하고 知性的이며 高節한 學行과 德望이 있는 學者요 國際的識見이 탁월한 斯界의 人格者로 들어난 人物이다. 1936年 京城師範學校研修科를 卒業하고 京城大學附設 中等敎員養成所를 修了했으며 66年 美國務省 東西센터 高等研究所(IAP) 研究敎授가 되었다. 일찍이 春川國民學校 敎師로 敎育界에 첫발을 디딘후 45年 商山國民學校 校長으로 起用되었고, 49年 原州公立農業高等學校 校監으로 被命된 후 50年 原州中學校 校長이 되었다. 1952年 大韓敎育聯合會 幹事로 被任되었고 55年 同 研究課長, 文化部長을 거쳐 58年 事務總長에 選任되었다. 그후 1972년까지 20여년을 大韓敎育聯合會의 核心人物로 求心點이 되어왔고 또한 이의 基礎를 確立하고 座標를 設定 進路를 開拓하는등 不滅의 功績을 남겼다. 그동안 55年 世界敎職團體總聯合 第4次 年次大會에 韓國大表로 參席을 비롯 第6次, 第8次, 第10次~19次에 韓國代表로 參席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켜 놓았으며 同 아시아地域 敎員地位專門家會議 專門委員, 交替議長을 歷任했고 美國務省招請으로 歐美敎育界를 視察하기도 했다. 그리고 國防政訓局敎育分科委員, 國家再建最高會議文敎政策審議委員, 延世大學校文科大學校講師梨花女大 大學院講師, 家庭儀禮準則 制定委員,

韓國스피치學會代表理事, 5.16民族賞(敎育部門) 審査委員, 美國 日本比較敎育學會員, 유네스코韓國委團體 代表등 30여 公職을 두루 맡아보며 社會文化運動에 커다란 業績을 쌓고 있어 大統領의 文化褒賞을 받았다. 1973年 公州師範大學長이된 氏의 名著로 敎職과 敎師, 敎師論노우트, 世界의 學校, 敎職의 倫理, 新時代의 演說入門, 英語學習法, zunehmende 世界, 高校作文 敎科書가 있고 中高國語科 말하기부분(國定敎科書)을 執筆했고 譯書로는 敎育指導論, 죽음의 수용소에서 愛誦英語 101選 등이 있다.

●鄭 鉉 祐 : 言論人 (生) 1933年 8月 16日 號는 道村이요 貫鄉은 東萊이며 原州에서 태어났다. 端正하고 溫厚한 人品에 天性이 仁慈하고 誠實하며 우리나라 言論暢達과 이의 育成에 功이 많은 重鎮 言論人이요 또한 政界에도 꿈이 큰 進就의인 努力家로 斯界에 알려진 人物이다. 中央大學校 政治外交學科卒業 서울大學校 新聞大學院 修了, 中央大學校 大學院을 卒業했다. 1961年 地方言論育成의 必要에 따라 韓國時報社長을 歷任하였다. 1962年 京畿每日新聞社 論說委員 63년에는 同新聞社會長職에 就任하였다. 空軍士官學校 講師를 지냈고 新韓黨 江原第2地區黨委員長을 지냈으며 韓國經濟日報社 論說委員職을 맡았었다. 氏는 그동안 言論暢達을 爲해 많은 勞苦와 情熱을 바쳤으며 韓國經濟日報社 論說委員 兼 普及部長으로 言論界의 重鎮자리를 지키고 있다. 著書로는 “파시즘” 등이 있다.

●鄭 顯 宅 : 敎育家 (生) 1914年 12月 25日 貫鄉은 草溪며 原城郡 地正面 月松里에서 鄭濟和의 아들로 태어났다. 默重하고 俊秀한 人品에 天性이 寬仁하고 理智의인 實踐家며 學行이 높은 清廉한 敎育者로 알려진 人物이다. 37年 官立大邱師範學校를 卒業하고 同 40年 原州普通學校 훈도로 敎育界에 첫발을 디디었다. 40年 金垚簡易學校 訓導를 거쳐 8.15

光復과 더불어 46年 同校의 校長으로 昇進되었다. 당시 日本植民地下의 教育制度였으나 愛國心을 주입시키는 民族教育에 뜻을 두었으며 또한 建國初期의 教育秩序를 확립하고 참된 民主教育으로 學園의 氣風을 造成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954年 原州教育區廳 獎學士로 발탁되어 5年間の 學務行政에 貢獻했으며 59年 다시 一山國民學校長으로 전임되었다. 61年 原州國民學校長 63年 橫城國民學校長 65年 台庄國民學校長을 歷任하고 原州市教育長에 被任되었다. 이와 같이 한 地域의 教育長이 되어 보다 균형적인 學校育성과 地方教育發展에 남다른 功績을 쌓고 있으며 참된 民族教育으로 愛國心을 주입시키고 또한 進取的이고 繼續性 있는 努力으로 國家建設에 貢獻할 수 있는 人材를 養成하는데 많은 業績을 세워 大統領의 勉勵포장과 文教部長官의 教育功勞表彰을 받았다. 現在는 原州女子中學校長으로 있다.

●趙 成 圭 : 英文學者 (生) 1930年 11月 9日
貫鄉은 漢陽이며 原州市 中央洞에서 趙 舜衡의 아들로 태어났다. 楷正한 人品에 理智的이며 天性이 淸敏한 努力家로 英語英文學發展에 크게 貢獻한 學界에 드러난 人物이다. 47年 原州農業高等學校를 거쳐 50年 延世大學校 英文學科修學 58年 maryand大學修學 64年 서 66년까지 美國 ohio州 miani大學院 修了後 英文學碩士(MA)를 獲得한 英文學者인 同時에 軍將校出身으로서 多彩로운 學力을 갖고 있다. 教育界로선 52年에서부터 約 3年間 美國 oklahoma州 砲兵學校 教官을 거쳐 55年에서 59年까지는 陸軍士官學校 英語教官으로 勤務하다가 60년에 延世大學校 文科大學專任講師로 轉任하였고 이어 66년에 同大學校 英文學科 教授로 昇進되었다. 한편 駐韓美國平和 奉仕團 서울地區團長으로 活躍하기도한 氏는 國家의 간성이 될 육군장교를 輩出し키는데 크게 貢獻했고 또한 國土防衛에도 공로가 많아 51年 은성무공훈장까지 받았다. 美國에서 文學教授로도 있던 文人으로 著書는(10分英語) America

duman 「mask Tsain의 위대성 美國小說과 韓國小說의 나타난 信念」「도주과 詩人」英語英文學을 비롯 延世論叢 外 5편이 있다.

●趙 聖 鎮 : 言論人 (生) 1918年 3月 17日
貫鄉은 橫城이며 原城에서 趙 基正의 아들로 태어났다. 謹嚴하고 高尚한 人品에 天性이 寬厚하고 圓滿하며 信念이 강한 研究努力家로서 言論界育성과 出版文化向上에 많은 功績을 남겼으며 또한 社會奉仕活動에 功이 많은 斯界의 名士로 알려진 人物이다. 일찌기 橫城普通學校를 나와 原州普通學校高等科를 卒業 서울崇文高等學校를 거쳐 日本大學商經科를 마쳤다. 그후 商業實踐學校 教師로 있다가 湧興學院을 設立 運營한 일이 있고 1950年 大邱中央商業高等學校長을 지냈으며 圖書出版 世文社를 設立 同社代表로 오늘에 이른다. 氏는 또한 週間首都新聞社를 經營했고 行政新聞社副社長 韓國出版文化協會理事 韓國檢認定協會常任監事, 韓國教科書株式會社理事, 中央 라이온스클럽理事, 서울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등을 歷任하고 있다. 1961年 日本出版業界招請으로 現地視察을 했다.

●崔 圭 夏 : 長官(外交家) (生) 1919年
貫鄉은 江陵이며 原州郡 鳳山洞에서 出生했다. 謹嚴한 人品에 天性이 溫厚하고 知性的이며 理知的인 研究家로서 우리나라 國際外交分野에 權威者로 알려진 當代의 人物이다.
어려서 부터 頭腦가 明哲하고 才器過人하여 住民들의 총애를 받았다. 일찌기 國內에서 中等教育을 마치고 中國에 留學, 滿洲國立大同學院을 졸업하고 歸國, 官界에 투신한 이래, 오랜 星霜을 農林部에서 獻身했다. 農林行政의 要職을 두루 맡아 奉職하는 동안 糧政局長을 지냈고, 당시 5.16과 더불어 重農政策이 實施되자 이의 基礎政策立案에 일익을 담당했다. 또한 經濟外交에 卓越한 力量이 있어 外務部로 발탁되어 外務部次官 및 말레이시아 大使를 歷任하고 外務部長官이 되었다. 보다

第8編 人 物

폭넓은 外交活動을 전개, 東南亞 및 歐州各國을 위시하여 中南美등 歴史的인 外交活動으로 國威를 宣揚,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키는데 努力한 業績을 세웠다. 또한 靑瓦臺 大統領外交 擔當特別補佐官으로 우리나라 外交政策樹立에 절대적 役割을 하기도 했다.

1972年 南北平和統一의 무드가 造成되자 南北調節委員會 初代特別顧問으로 南北會談에 參席하는등 民族念願의 統一基盤을 닦는데 크게 寄與하였으며 1975年 12월에 國務總理署理로 발탁되었다.

●秋 敎 南 : 行政家

貫鄉은 秋溪며 1929年 8月 19日 所草面橋項里에서 秋 順燁(學者)의 아들로 태어났다. 疏脫한 人品에 知性的이며 仁慈한 天性的 活動家요 卓越한 能力을 갖춘 行政家이다.

일찌기 中等教育을 마치고 建國大學校에서 法學을 專攻하였다. 6.25動亂中 從軍 陸軍第3師團 中隊長을 거쳐 第32聯隊副大隊長으로 作戰遂行中 負傷을 당하였다. 그 後 陸本軍需局運營課로 補職 管理課를 거쳐 副官監室 임명반장과 人事管理係長을 歷任하고 第26師團 副官參謀로 轉出, 第3師團 副官參謀를 지냈다. 60年 陸軍少領으로 退役하기까지 所信있는 將校로 오로지 護國一念으로 獻身, 軍務發展에 寄與하였다. 그 後 또한 바 있어 官界에 投身, 京畿道再建國民運動幹事로 任用된후 廣州東面 面長을 거쳐 京畿道庶務係長과 公報係長을 歷任하고 坡州郡守 署理로 赴任, 綜合行政 擔當者로 對民奉仕를 비롯 市政發展에 힘썼다. 그 後 議政府市를 거쳐 道監査運輸指導係長을 歷任했다. 仁川市 商工課長을 거쳐 公報室長 住宅保健課長을 歷任하고 仁川市 北區水道事業 所長으로 赴任하는 동안 名利를 超越하여 맡은바 責務를 보다 誠實히 遂行, 京畿道政 發展에 허다한 業績을 남겼다.

●咸 在 勲 :

貫鄉은 江陵이며 1917年 10月 24日 江原道

原州에서 出生하였다.

天性이 仁慈하고 溫厚하며 疏脫한 學者型 政治人으로 德望이 있는 人物이다. 일찌기 中等教育을 마치고 京城法學 專門學校를 졸업한 후 官界에 投身, 原州邑長을 지냈으며 그후 政界로 進향 第3代民議院議員에 當選되었다. 議政壇上에서도 初選당지 않게 民悅한 활동을 전개하여 참신한 政治的 力量을 과시했고 地域發展에도 남다른 心血을 기울려 住民들의 精神啓發과 農村指導啓蒙에 큰 業績을 남겼으며 또한 荒蕪地였던 江原道 蹴球發展에 貢獻했다. 계속 政界에 뜻을 두어 政黨人으로서의 努力을 아끼지 않았으며 江原日報社長 春川文化放送 株社長 韓國文化財保護協會 江原道 支部長등을 지내며 地方言論暢達을 비롯해 文化財保護等 鄉土文化發展에 크게 寄與했고 제9대 國會 議員에 選出되어 維政會에서 활약하고 있다.

●許 濬 : 醫院長(醫學博士) (生) 1933年 6月 12日

氏의 貫鄉은 陽川이며 原城에서 許 鍵의 아들로 태어났다. 疏脫하고 厚德한 人品에 天性이 仁慈하고 仔詳하며 理智的인 努力家요 活動力이 强하고 口腔學分野에 研究가 깊은 學者名醫로 알려진 人物이다. 일찌기 鄉里의 文幕國民學校를 卒業하고 上京하여 52年 培材中 高等學校를 거쳐 57年 서울大學校 齒科大學을 卒業했다. 뿐만아니라 多年間 仁術의 實務와 싸우면서도 研究生活를 계속 齒科醫師로서는 흔치않은 醫學博士 學位를 72년에 획득한 精力的인 醫學者며 우리나라 口腔醫療 發展에 貢獻이 크다. 大學을 나와 軍醫官으로서 軍에 服務할 當時는 世界의 耳目이 集中되었던 越南 戰線에 나아가 1個星霜이 넘도록 駐越韓國軍 第一移動外科病院에서 犧牲되는 數 많은 戰友를 救出했을 뿐아니라 우리나라의 훌륭한 仁術을 世界 여러民族에게 알리어 國威宣揚을 하기도 했다. 그 結果 醫務監 및 서울特別市長의 功勞賞을 받기도 한 이름있는 口腔系統의 알려진 의료인이다. 現在는 許濬齒科醫院

長으로서 開業中인 同時에 延世大學校 齒科大學의료원 外來助教授로서 우리나라 齒科醫學發展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서울齒科醫師會理事이기도 하다. 氏의 研究論文으로는 「口腔解剖學」등이 있다.

●洪 圭 憲 : 銀行家 (生) 1917年 7月 25日
貫鄉은 豐山이며 原州에서 洪 義植의 아들로 태어났다. 端正하고 明敏한 人品에 天性이 寬仁하고 儉素하며 知性的인 努力家로 金融業務에 卓越한 識見이 있는 斯界에 알려진 人物이다. 일찌기 中等教育을 마치고 日本에 留學 明治大學商學部에서 經濟學을 專攻하고 歸國했으며 이어 朝鮮殖産銀行에 投身함으로써 金融界에 첫발을 디디었다. 오랜 歲月 金融界에서 一貫獻身하는 동안 韓國産業銀行 第2金融部長을 歷任하고 同 銀行 理事로 被選되었으며, 1945년 解放後 無秩序한 時期에 참된 우리나라의 金融發展에 힘써 秩序를 確立하고 進路를 開拓하는데 크게 貢獻했다. 그후 銀行界에서 물러난 후 忠北시멘트 Co. 社長으로 企業에 參與하는 등 企業發展에 많은 業績을 쌓고 있다.

●洪 範 憲 : 政治, 行政家 (生) 1917년 6월 8일.

貫鄉은 豐山이며 原城郡 興業面에서 郡守를 지낸 洪 義植(原州國民學校設立者)의 아들로 태어났다. 謹嚴한 人品에 선비형 努力家며 政治, 行政家로 드러난 인물이다.

1935年 第2高普(景福)를 거쳐 1937년 普成專門(商大法科)를 졸업하고, 1941年 日本에 留學, 日本 中央大學에서 法科를 졸업하고 歸國 1942年 高等考試 行政科 筆記試驗에 合格했으며, 1946年 故鄉인 原州 興業에서 育民館中學校를 設立, 校長에 就任했고, 1948年 32歲의 젊은 나이로 制憲議員에 當選되어 우리나라 憲法을 制定하는데 寄與하였다.

그후 1950年 6.25당시 慶南北 戒嚴司令官 顧問, 1951年 第6代 內務部次官, 1952年 第6代 內務部次官, 1958年 第4代 民議院 議員에

當選 됐으며 退官後 故鄉에서 育民館中高校長을 거쳐 財團理事를 거쳐 財團理事長으로 계속 教育과 事業과 農村開發에 獻身 참된 後進들의 標本이 되어왔다. 民議院議員 당시는 國慶日 用語에 對한 統一提案을 위시하여 國基를 確立할 수 있는 많은 法案을 提案했으며, 內務次官 당시는 當代에 有名했던 李 益興 治安局長과 韓 熙錫地方局長(後에 모두 長官을 지냈음)과의 不和를 調定하는 등 混亂했던 當時의 內務行政을 바로잡고 社會秩序를 바로잡는데 크게 寄與한 人物이다.

한편 儉素와 誠實을 信條로 所信것 社會奉仕에 이바지 해 온 氏는 國民勲章(無窮花章)을 받았다. 1972年 3月 27日 57歲를 一期로 別世했다.

●洪 承 夏 : 行政家 (生) 1919年 12月 29日
貫鄉은 豐山이며 原城郡 興業面에서 洪 祐高의 아들로 태어났다. 重厚한 人品에 天性이 仁慈하고 理智的이며 學究的인 實力家로서 理念이 투철한 有名 專賣行政家요 經濟外交家로 알려진 人物이다.

일찌기 中等學校를 卒業하고 日政 당시 鑛業會社에서 종사했으나 光復後 稅務署를 거쳐 1949年 서울地方專賣局으로 轉職, 多年間 專賣行政分野에서 獻身하며 계속 學究에 注力 57年 漢陽大學校工科大學 鑛山工學部를 졸업한 學究的인 努力家다. 1962年 專賣廳 서울煙草製造廠資材課長을 歷任하고 65年 부터 專賣廳公報擔當官으로 전매事業의 弘報活動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恒時 學風이 넘치는 超然한 태도로 對外關係가 能하며 뛰어난 創意力으로 公報行政改善에 貢獻하는 동안 東南亞(臺灣, 香港,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日本) 人蔘市場 調査와 北韓의 紅蔘販賣政策動向을 탐지해 왔으며, 1970年 日本 自由中國 香港 등지의 紅蔘市場調査를 하는 등 우리나라 專賣事業에 對한 國際收支改善과 海外市場開拓에 많은 業績을 세웠다. 한편 大統領의 綠條素星勲章과 文公部長官의 功勞表彰을 받기도 했다.

第8編 人 物

(2) 第2의 故郷으로한 人物

本欄에서는 原州地方이 出生地는 아니지만 中年에 原州에 들어와서 第2의 故郷으로 하고 있으며 政治人으로서 文人으로서 運動家로서 文化藝術人으로서 많은 活動을 하여 原州人으로서 잘 알려진 人事만을 記錄에 남겨 後世人에게 알리고저 한다.

1. 政治人으로서는 朴忠模 金龍鎬 朴永祿 等諸氏가 中年에 들어 왔고 文人으로서는 朴一松 조종연을 꼽게 되고 社會事業家로는 沈基淵翁이며 運動家로는 宋榮洙며 文化藝術人으로는 寫眞作家 方大勲 金命郁이며 音樂家 尹壽喆 舞踊家 金仁煥 教育家로 趙壽英 等を 들 수 있다 本人들은 이미 本籍을 原州로 하고 있어 第2世 부터는 故郷이 原州라 하리라.

金龍鎬 政治人 1923에 三陟에서 出生하였으며 本貫은 三陟이다.

일찍기 中等學校를 거쳐 京城法學專門學校를 卒業하고 官界에 投身 多年間 地方行政에 헌신하였으며 5.16後 共和黨 創黨期에 江原道 組織部長으로 道黨組織에 크게 공헌했다. 그 후 다시 官界로 들어가 江原道 產業局長 및 內務局長 道 公務員 教育院長을 역임했으며 또 다시 共和黨 道支部 事務局長으로 발탁되었다. 天性이 剛直하고 信念이 強하며 迫力있는 理念的 政治人으로 衆望이 높은 氏는 1967年 大統領 選舉에서 그의 功이 認定되어 全國區 議員이 되어 第7代國會議政壇上에 오르게 되었다. 國會內務委員으로서 圓滑한 院內活動을 전개 政治人으로서의 기반을 굳히고 共和黨 江原道 第2地區黨委員長으로 被選되어 選舉區를 原州로 마련함으로 原州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氏는 原州를 第2의 故郷으로 市郡民 福祉를 爲한 일이면 서슴지 않고 地域開發에 注力하는 한편 많은 業績을 쌓고 있다 第8代 國會議員選舉에서도 野黨都市로만 알려진 原州에서 뚜렷한 연고도 없이 共和黨 公薦을 받고 出馬 當選되어 再選議員이 되었으며 또한 第9代國會議員에도 어렵지 않게 當選되므로 3選議員으로서 共和黨 院內副總務가 되어 그

活動力과 信望은 높아 가고 있다 氏는 恒常 國民福祉를 위한 政策立案에 注力하고 公約事業의 實踐과 地域開發에 注力하고 있다.

●朴忠模：政治人(醫療) (生)1894年 5月 17日

貫郷은 密陽이요 號는 松菴이며 1894年 5月 17日 咸南 北靑에서 朴敏訓(舊韓末의 參奉)의 아들로 태어났다. 短軀의 鬬爭型 努力家며 不義와 野合을 모르는 剛直하고, 信念이 투철한 人物로서 한때 議政壇上을 주름잡던 老政治人으로 이름이 높았던 人物이다.

일찍기 北靑農業學校를 거쳐 26年 京城醫專을 졸업하고 忠南天安市, 江原道 인제, 原州 등지의 公醫로 活力했고 解放直後 韓民黨에서 申翼熙 趙炳玉, 金度演 博士 등과 더불어 建國運動에 參與 했으며 江原道에서 처음 野黨(民主黨) 創設멤버의 一員으로 野黨不毛의 江原道에 野黨氣風을 造成, 自由黨 獨裁政權과 鬬爭 民主主權爭取에 앞장 서 왔다. 江原道 議會 議員(2回 歷任) 1926年 原州市 議會 議長 등 地方議會에서 實力을 닦았고 民主黨 江原道 黨委員長(3年間)으로 本格的인 野黨活動을 展開, 第四代 民議員 議員 第5代 國會議員에 當選되어 院內에서 國防 및 保社分科委員長을 歷任했다. 申翼熙先生과 特別한 交分을 맺고 政界에 투신한 先生은 院內活動이 너무나 活潑했다. 4代國會 國防議員 當時 國政監査에서 軍不正을 파헤쳐 軍部淨化에 注力 權仲敦, 金相敦議員과) 1959年 肅軍을 斷行케한 큰 業績을 남겼으며 4.19후 國會議員 選舉法을 立法할때 不在者 投票制로 新, 舊 두파가 맞설 당시 反對의 先鋒에서 舊파의 柳珍山議員의 壇上發信을 막고 上下에서 입씨름을 벌인 일이며 馬山事件때는 李榮俊博士와 함께 現地로 내려가 負傷者의 治療에 힘을 쓰기도한 철저한 老政治人으로 名望이 높았다.

한편 正義와 正直 信念있는 生活을 信條로 國家民族에 奉公해온 氏는 東南亞의(日本, 臺灣, 香港) 政治制度를 視察했으며, 또한 大

統領의 建國功勞勳章(李大統領) 感謝狀(朴大統領)을 받았다.

●朴 永 祿 : 政治人 (生) 1922年 3月 25日

淸敏한 人品에 天性이 剛直하고 知性的이며 霸氣와 迫力이 넘치는 典型的인 政治人으로 알려진 斯界에 드러난 人物로 襄陽에서 出生했다.

恒時 權威와 세도를 超越한 겸허한 자세로 農民運動에 앞장서 보다 農民을 위한 福祉政策을 구현 하는데 힘을 쓰고 있으며 統合野黨의 代辦人으로 韓國政界에 野黨의 선봉을 일으켰으며 日政때 日本 마라톤선수로 西獨伯林에 세워진 孫基禎의 優勝紀念碑를 깎아 韓國의 國籍으로 변조하는 등 義로운 志士로 누우스의 耑점이 되기도 했다.

일찌기 原州市 議員을 거쳐 江原道 民選道知事를 歷任했으며 新民黨 運營委員으로 第6代 國會議員에 당선되었다.

그후 新民黨 宣傳委員長(代辦人), 企劃委員으로 第7代 國會議員에 再選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野黨의 重鎮 政治人으로 院內 活動에 敏活했고, 또한 農村問題에 남다른 關心으로 진정한 農村 運動家로 脚光을 받았고 生活에 직결되는 法案建議를 했으며 第9代 國會議員에 당선 되었다.

韓日條約 批准特委에서 活躍하는 同時 터키(李孝祥議長 隨行) 美國(美國務省 招請)과 東南亞, 諸國 家族計劃事業 등을 巡訪視察했다(印度, 馬聯, 自由中國, 日本 香港).

●沈 基 淵 : 社會事業家 (生) 1897年 8月 19日

號는 靑坡요 貫鄉은 靑松이며 咸南端川에서 沈洪順의 아들로 태어났다. 謹嚴하고 溫和한 人品에 天性이 仁慈하고 德望이 있으며 創意的인 努力家로서 地域社會開發에 크게 貢獻한 개척자요 元老社會指導者로 널리 알려진 人物이다. 어려서부터 勤勉誠實하여 漢文學을 修學하다가 다시 新學問을 獨學했다. 그후 實業界에 투신 1930年 北林 木材社長으로 鐵道 枕

木을 生産 供給했다. 당시 卓越한 才能이 인정되어 1941년부터 5年間을 咸南道議會 議員을 歷任했으나 民族意識이 강하여 住民들이 愛國思想 高취에 크게 힘썼다. 1945年 광복과 더불어 原州로 落鄉 52年 在江原咸鏡道民會를 創設 初代 및 2代會長을 歷任하는 동안 가족찾기 일환으로 道民會報와 關北誌를 발행 無料配付했고 55年 第38師團誘致委員會委員長 58年 現代産業代表理事를 歷任하여 地域發展과 企業育成에 많은 業績을 세웠다. 1962年 뜻한바 있어 難民定着事業에 착수 「溟州 邱井面에 坡洞」을 自費 1,500百餘萬원을 投入 山地를 개발하여 22世帶를 無償入住시키는 동시 自活할 수 있는 資金을 지원 模範部落으로 育成해 놓았다. 이어 마을金庫와 獎學基金을 마련해 주어 初, 中, 高生 40여명을 教育시키고 있으며 마을 金庫의 育成으로 靑坡産業을 設立 후세까지 잘 살수 있는 部落으로 만들 計劃을 추진하고 있어 期待가 크다. 이 洞名은 先生의 號를 따서 命名한 것이며 이와같은 뛰어난 社會의 功勞로 69年 第4回 5.16民族賞과 70年 國民勳章 冬栢章을 위시 大統領의 表彰章을 받은 바 있다. 한편 戰死한 세 아들의 연금을 모아 原州에 忠魂塔을 建立한 人物로 現社會의 鑑鑑이 되고 있다. 또한 초 하루 보름으로 총 혼담 참배와 每日 朝夕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일과로서 별명이 태극기 할아버지이다.

●朴 一 松 : 文學家 (生) 1919年 12月 23日
貫鄉은 밀양이며 朴 亮洙의 아들로 태어났다. 근엄하고 고상한 인품에 천성이 활달하고 寬仁하며 지성적인 연구노력가로서 강원도 민속문화연구와 지방 예총발전에 功이 큰 斯界의 중진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東京 日本大學 專門部藝術科를 卒業하고 1952年 靑山高等公民學校를 設立 運營하면서 教育界에 投身한 氏는 53年 원주 소년원을 설립 이사장을 지냈고 54年 私立圖書館을 設立 運營하는 등 鄉土文化의 개발에 공헌 했다. 지방 교단에 몸박쳐 오면서 한편으로 창작활동을 펴고 있으며 54年 예총 원주지부장에 被任 12年間 在任한

第8編 人 物

經歷을 갖고 있는 氏는 江原民俗學會會長으로 또한 韓國文人協會 原州支部長으로 있으며 61年 江原道文化賞을 受賞 62年 公報部로부터 제1회 향토문화상을 수상 70年엔 政府로부터 國民勳章 모란章을 받았고 詩集「木蓮」, 「走馬看山」과 隨筆集「松下閑話」田園의 詩」등 著書를 갖고 있으며 이 밖에도 詩, 隨筆 端片小說 등 수십편을 발표하고 있다.

●文 昌 模 : 醫學博士(大學長) (生) 1907年 4月 23日

號는 野聲이요 貫鄉은 南平이며 平北 宣川에서 文勝勳의 아들로 태어났다. 俊秀한 人品에 天性이 仁慈하고 仔細하며 創意的인 研究努力家로서 덕망이 높은 醫學界의 權威者로 알려진 人物이다. 일찌기 培材高普를 거쳐 세브란스聯合醫學專門學校 陸軍醫務學校 美國人디아나洲감리교病院管理課레지던트를 修了하였다. 其間에 31年京城帝大 이비인후과 부교수 京畿道立 仁川病院長, 세브란스病院長을 歷任하였고, 55年에는 國際大學長으로 就任하여 敎育界에도 있었다.

59年 原州聯合기독교병원장을 지내면서 原州기독교연합회장 原州기독교長老會長, 在原延世大同門會長, 自轉車競技聯盟 原州支部長, 水上聯盟 原州支部長等 社會活動에도 功이 크다. 뿐만아니라 26年 6月 10日萬歲事件 당시 學生代表로 投獄, 45年에는 海州에서 左翼抑制에 先鋒을 서기도한 숨은 愛國志士이다.

한편 數次 原州로타리클럽會長을 할 當時는 優秀學生의 장학금지원에도 功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國際活動으로 감리교 美國總會와 日本醫療制度 및 研究視察의 韓國代表로 參席하였다. 現在는 原州에서 「문이비인후과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民主共和黨江原道第2地區黨 創黨委員이며 黨委員長도 歷任한 바있다.

●金 仁 煥 : 舞踊家(敎育者)

貫鄉은 慶州며 忠北 槐山에서 金東烈의 長女로 자랐다 素朴하고 貞淑한 人品에 天性이

仁厚하고 仔細하며 智慧와 美德을 兼한 舞踊家며 敎育者로서 1965年에 原州에 왔다 大成中學校에서 敎編生活을 하면서 地方文化藝術을 開拓發展시키며 民俗古有의 古典舞踊普及을 힘써왔다 1968年度 大韓敎育藝術賞을 비롯하여 國際亞細亞 舞踊特別功勞賞 및 十餘個種의 功勞賞과 表彰을 받은바 있는 여걸이다 女史는 責任感이 강한데다가 不義에는 참지 못하는 男性的인 性格의 소유자 이기도 하다 1970年度 부터 聖花女子中學校에서 敎師로 있으며 古典舞踊의 後進養成과 民俗古有의 文化를 繼承 發展 시키기에 온갖 心血을 기울이고 있다.

●吳 亨 善 : 行政定

號는 權鵠이요 貫鄉은 海州며 1909年 11月 8日 吳尙默의 아들로 태어났다.

重厚한 人品에 天性이 溫厚하고 德望이 높으며 創意的인 努力家며 行政家로 널리 알려진 人物이다.

1933年 平南陸運(株) 漢川出張所長을 지냈으며, 투철한 民族思想으로 계속 地下組織을 통한 民族運動을 전개하던 中 당시 讀書會事件으로 日警에 체포되어 2年間의 獄苦를 치루기도 했다고 한다.

出監과 同時(1943년) 原州로 移主, 8.15光復과 더불어 建國運動에 參與 原州邑民會 조직에 가담했고 原州青年會長을 지내며, 青年運動을 통해 混亂한 社會秩序確立과 民心收給에 힘쓰는 등 建國의 기초를 다지는데 功을 세웠고, 1949年 自由黨創黨에 가담, 原州郡黨委員長이 되었다.

이 때 부터 뛰어난 指導力과 德望으로 政治的 기반을 구축, 初代邑議會議長에 被選되었다.

邑이 市로 昇格되자, 또 다시 初代市長으로 選出되어 6.25事變으로 황폐된 原州市 建設을 위해 都市計劃을 樹立하여 오늘의 建設의 기초를 마련하고 보다 住民들을 위한 福祉行政을 베풀어 牧民官으로 市民의 추앙을 받았다 退官 후에도 계속 精力을 올바른 社會建設에

바쳐 原州商工會議所 會長, 製材協會會長 등 두루 公職을 맡아가며 地域發展에 많은 業績을 쌓았다.

●金 潤 洙 : 法律家 (生) 1914年 1月 5日

號는 可軒이요 관향은 光山이며 抱川에서 金永祿의 아들로 태어났다. 謹嚴하고 重厚한人品에 天性이 寬厚하고 理智의이며 信念이 강한 活動家다. 일찌기 京城第一高普를 卒業하고 京城法學專門學校에서 法學을 專攻했다 이어 判事로 任官 45年 原州支院長이 되었고 春川 지방법원 部長判事를 역임한 후 50년에 退職하고 同時 변호사개업을 했다. 오랫동안 法曹人으로 活躍하는 동안 日政時代 民族精神이 透徹한 判事로서 民族保護에 心血을 기울였으며 8.15光復後에는 無秩序한 法制度를 確立하고 遵法思想을 고취시켜 올바른 사회를 建設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후 春川辯護士會長을 歷任했고, 國際人權擁護聯盟 原州支部委員長, 江原道테니스協會副會長, 原州市蹴球協會長을 지내며 인권옹호에 앞장서 國民을 法的으로 保護하고, 善導하는데 注力, 참된 봉사 정신으로 地域發展에 많은 業績을 쌓았다. 恒時 신성한 法曹人의 긍지로 法의 生活化를 위한 새로운 氣風을 造成하고 社會의 부조리를 바로잡아 보다 明朗하고 알찬 社會를 建設하는데 中樞의인 역할을 하고 있다. 原州文化院의 理事長으로서 地方文化事業에도 뒷받침을 하고 있다.

●孫 貞 圭 : 教育家

本貫은 慶州며 1896년에 原州郡 興業面 大安里에서 孫容愚의 딸로 태어났다.

漢城女高(京畿高女)를 第1回로 卒業하고 韓日合邦後 京城女高 附屬普通學校 教師로 있다가 官費生(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으로 뽑여 日本의 東京女子高等師範學校 家事科를 卒業하고 歸國하여 京畿高女 教師로 있었다. 한편 이화여자 전문학교 가사와 강사로 있으며 義親王宮 附屬 李王職 촉탁을 지냈고

解放前 豐文高女 校長으로 內定되었으나 總督府의 反對로 校長認可를 받지 못했다. 解放後에 漢城女子師範學校長에 就任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最初의 官選女校長이 되었다. 그후 學校가 서울師範學校와 屏合이 되자 校長職을 辭退하고 서울大學校 學生處長으로 勤務하며 京畿女子高等學校 初代 同窓會長이 되었다. 1950年 6. 25때 납치되어 平壤으로 移送途中에 殺害되었다고 한다. 著書로는 「재봉참고서」 「가사교본」이 있다. 저서의 印稅를 기금으로 경키여고 재학생을 위한 孫貞圭 記念 獎學會가 조직되었다. 이와같이 原州가 난 人物中에 人物이었다. 부친 季容愚는 昌德宮의 직조과 장을 지냈다.

●趙 壽 英 : 教育家

女史는 1952年度에 夫君인 金大坤을 따라 來原한 것이 動機가 된다. 일찍이 日本 東京女子體育專門學校 舞蹈課를 卒業하고 歸國하여 金大坤과 結婚을 하였다. 6. 25動亂으로 因하여 생긴 고아들이 거리에서 방황 함을 보고 그대로 지나쳐 버리지 못하는 것이 女史의 性品이었다. 그리하여 職業少年訓練院을 新設하고 26名の 少年을 모아 訓練을 시키며 한편으로는 職業 斡旋을 해 주기 始作 한것이 只今의 培誠商業專修學校의 前身이다. 女史는 原州女性運動의 第1人者로 알려져 있다. 現在 專修學校의 校長으로 있으며 統一主體國民會 代議員이고 韓國婦人會 江原道副會長이며 原州支部會長을 맡고 있다. 한편 原州市行政諾門委員이며 原州女性團體協議會長이고 遞信廳諾門委員 女性貯蓄會委員等 10餘個團體의 長으로 눈부신 活動을 하는 活動家이며 教育家이다.

●宋 榮 壽 : 運動家

1929年 5月 23日에 서울에서 출생했다. 일찍이 뜻한바 있어 運動家로 출발하여 우리나라 拳鬪界에 一人者로 알려졌다. 1951年度부터 原州에 들어와 拳鬪後繼者養成에 힘써온 보람 있어 原州를 拳鬪의 故장으로 만들었다.

第8編 人 物

1968年度에는 江原道體育賞을 받고 1968年度에는 15回韓國體育賞을 받았으며 1970年度에는 국민포장도 받았다. 한편 第6回 亞細亞競技大會 복싱부監督을 歷任했고 第7回大會에서도 복싱코치로 활약을 했다. 1974年度에는 美國 초청競技 복싱코치로 外國에 단녀왔으며 제2회 아시아 주니어 복싱선수권대회 감독으로 出國하는등 지금은 國際的코치로서 뿐만아니라 監督生活을 하고 있음으로 對內外的으로 原州를 심어준 人物이다.

○金 一 平

原州市丹邱洞 出身으로 政治學博士며 現在 콜버스大學 教授로 있다.

○南 相 浩

原州市中央洞 出身으로 陸軍大領豫編 現在 住宅公社 企劃管理室長으로 있다.

○辛 承 一

原州市 開雲洞에서 辛乙善의 長男으로 出生 美國에서 理學博士로 하바드大學教授로 있다.

○沈 文 澤

原州市丹溪洞에서 沈宜達의 三男으로 出生 理學博士로서 國防部 科學研究所長으로 있다.

○安 基 燦

原州市 平原洞에서 出生 現在財務部證卷課長으로 있다.

○李 寬 浩

原城郡 好楮面에서 李鍾大의 二男으로 出生 三榮油脂株式會社 社長으로 있다.

○林 奎 石

原城郡 富論面에서 出生 新村택시會社 社長으로 있다.

○張 基 礪

原州市平原洞에서 出生하여 忠肥·三星을 거쳐 現在 慶南化學 社長으로 있다.

○張 奎 淳

原州市 鳳山洞에서 出生 書藝招待作家를 原州에 있다.

○鄭 載 東

原州市 一山洞에서 出生하여 現在 서울 中央大學教授로 있다.

○鄭 載 植

原州市 一山洞에서 出生하여 哲學博士로서 오하이오州 하이델버크大學 社會學課長으로 있다.

○정 병 준

原州市 丹溪洞에서 出生하여 現在 서울 外國語大學教授로 있다.

○金 榮 煥

原城郡 貴來面에서 出生하여 現在 서울 韓國機械工業株式會社 企劃部長으로 있다.

○全 榮 升

原城郡 貴來面 出生으로 工學博士가 되어 美國미시간大學에 있다.

○蔡 奎 煥

原城郡 文幕面에서 出生하여 現在 第一銀行 東大門支店長으로 있다.

○蔡 浩 錫

原州市 鳳山洞에서 出生하여 現在 調達廳管理局長으로 있다.

○최 규 언

原州市 平原洞에서 出生하여 美國에서 經濟學博士가 되어 美國에 있다.

○李 喜 瓊

原州市 園洞에서 1938년에 李容萬의 長女로 出生하여 社會學博士가 되어 西獨 紐헨에 가 있다.

○權 赫 免

原州市 台庄洞에서 權五奎의 長男으로 出生하여 經濟學博士로서 西獨 紐헨에 아세아 문제연구소장으로 있다.

○白 完 基

原城郡興業面에서 出生 現在商工會議所 會長으로 있으며 地域發展에 기여하고 있다.

號10節 原州・原城 各 機關長 名單

(1975. 11. 30 現在)

機 關 名	職 位	姓 名
原州市廳	市 長	鄭 箕 勲
	副 市 長	朴 珍 遠
原城郡廳	郡 守	崔 桂 明
	副 郡 守	洪 淳 鎬
原州遞信廳	廳 長	李 範 祥
	總務課長	朴 亨 植
江原道地方 國土管理廳	廳 長	鄭 良 熏
	庶務課長	鄭 良 奎
學部營林署	署 長	韓 昇 煥
	庶務課長	文 彥 洙
春川地方法限 原州地院	支 院 長	尹 相 穆
	判 事	閔 秀 明
	判 事	張 科 經
春川地方檢察廳 原州地廳	支 廳 長	羅 虎 振
	事務課長	盧 湖 愚
原州市教育廳	教 育 長	安 德 欽
	學務課長	元 亨 相
原州警察署	署 長	葵 虎 錫
	警務課長	邊 興 柱
原州稅務署	署 長	曹 源
	總務課長	李 圭 元
原州電信電話局	局 長	金 仁 洙
	庶務課長	金 秉 源
原州郵遞局	局 長	金 允 植
原州專賣署長	署 長	尹 相 培
原州甘明原料工場	工 場 長	辛 炳 烈
原州建設事業所	所 長	鄭 常 均
江原道重機事業所	所 長	金 龍 學
原州東海物產	社 長	申 容 鎮
韓國放送公社 原州放送局	局 長	河 一 鋪
原州文化放送 株式會社	社 長	嚴 漢 竣
	專務理事	安 昇 準
韓國道路公社 原州道路管理事務所	所 長	韓 樂 源

機 關 名	職 位	姓 名
	管理課長	池 洪 在
民主共和黨 江原第二地區黨委員長	國會議員	金 龍 鎬
	事務局長	李 秉 兆
國立農產物檢查所 原州出張所	所 長	鄭 永 壽
江原道立原州病院	院 長	李 盛 求
大韓通運原州支店	支 店 長	金 思 顯
原州驛	驛 長	趙 明 煥
江原銀行原州支店	支 店 長	金 玉 圭
國民銀行原州支店	支 店 長	南 寧 祐
原城郡農業協同組合	組 合 長	高 華 泳
	專 務	高 安 鍾
第一銀行原州支店	支 店 長	崔 東 洛
中小企業銀行 原州支店	支 店 長	趙 一 濟
原州商工會議所	會 長	白 完 基
	副 會 長	林 弘 植
	事務局長	鄭 亨 燮
在鄉軍人會 原州市聯合分會	會 長	李 奇 善
	事務局長	朴 孝 相
原州市畜產協同組合	組 合 長	咸 龍 潤
原州地區園藝協同組合	組 合 長	權 五 善
原州第一信用協同組合	理 事 長	金 三 喆
原州市場信用協同組合	理 事 長	沈 宜 仁
原州中央公設市場商人組合	組 合 長	金 成 煥
原州市宿泊協會	會 長	金 成 煥
原州市料食業組合	組 合 長	尹 千 一
		盧 泰 湖
原州尙志大學	學 長	朴 恒 均
	教務課長	朴 在 佑
	學生課長	全 熙 永
	庶務課長	金 貴 澤
	圖書課長	李 漢 一
原州高等學校	校 長	李 秉 春
原州農業高等學校	校 長	廉 昌 俊
原州女子高等學校	校 長	陳 允 龜
原州大成高等學校(私)	校 長	李 元 馥
原州聖花女子中商業高等學校(私)	校 長	李 龍 九
原州眞光中綜合高等學校(私)	校 長	張 華 淳

機 關 名

職 位

姓 名

原州中東三育中高等學校
 原州女子中學校
 原州中學校
 原州鶴城中學校
 原州大成中學校(私)
 原州培誠商業專修學校(私)

校 長
 校 長
 校 長
 校 長
 校 長
 校 長

韓 基 鍾
 鄭 顯 宅
 金 榮 世
 咸 健 鎬
 金 炅 祿
 趙 壽 英

原州文化院

理事會長
 院 長

金 潤 洙
 黃 柱 益

韓國反共聯盟 原州原城支部

支 部 長
 副支部長
 事務局長

金 成 峰
 許 泳
 金 寅 植

原州카톨릭센터

館 長

申 東 翼

原州青年館

館 長

李 重 淵

原州싱글벙글會

會 長

朴 孝 相

原州市새마을民間團體協議會

會 長

黃 柱 益

原城郡새마을民間團體協會

會 長

黃 柱 益

民主共和黨 江原第二地區黨

國會議員

金 龍 鎬(院內副總務)

新民黨 江原第二地區黨

國會議員

朴 永 祿(前江原道知事)

維政會

國會議員

咸 在 勲(前江原日報社長)

原州製糸株式會社

專務理事

元 世 亨

原州韓一電機(株)

代表理事

金 相 浩

韓國特殊化學工業(株)

代表理事

金 永 錄

三能產業(株)

代表理事

金 基 浩

京仁葛布工業社

社 長

李 源 培

太榮팔프工業(株)

代表理事

朴 永 柱

原興產業(株)

代 表

金 應 淳

豐井產業(株)

專務理事

金 東 成

合資會社中央電業社

代 表

李 種 穆

新興工業社

代 表

柳 元 均

兄弟工業社

代 表

禹 鳳 舜

富國工業社

代 表

桂 德 洙

原州工業社

代 表

姜 德 淳

凡洋產業(株)

代表理事

鄭 福 永

新榮商事(株)

專 務

白 春 基

東信運輸(株)

代表理事

沈 在 暎

機 關 名	職 位	姓 名
共信택시(株)	專務理事	金 承 澤
瑞海農産(株)	代表理事	林 京 九
正南食品工業社	社 長	朴 海 濬
	代 表	白 南 喆
江原日報原州支社	支 社 長	安 光 勲
京鄉新聞原州支局	支 局 長	韓 永 熙
서울新聞原州支局	支 局 長	李 明 世
新亞日報原州支局	支 局 長	李 秉 瓚
朝鮮日報原州支局	支 局 長	金 東 玉
韓國日報原州支局	支 局 長	張 振 榮
現代經濟日報原州支局	支 局 長	白 完 基
東亞日報原州支局	支 局 長	李 錫 載

編 輯 後 記

郷土誌를編輯하여 막상 先輩諸賢과 郷土民 여러분 앞에 이 冊子를 내놓게 되니 實로 悚懼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禁할바 없읍니다. 元來가 淺學菲才일 뿐아니라. 語套나 文章에도 疏漏하고 따라서 간혹 重復된 感이 있어 外形으로는 冊模樣이나 內容에 있어서는 꼴이 아닙니다. 이 點은 누구보다도 제 自身이 잘 알고 있는 不滿입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理由가 있겠읍니다만 첫째로 資料가 充分치 못하였다는 것과 豫算이 없이 意慾만으로 始作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하겠읍니다. 오랜 歲月을 두고 郷土誌를 發刊해야 하겠다는 마음뿐이었지 充分치 못한 資料를 가지고 急速度로 完成을 하고자하니 實로 時間的 餘裕가 充分치 못한 所然도 있고, 또한 史記와 實學에 어둡고 淺薄한 然由도 없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資料蒐集에 있어 많은 隘路가 伏在되어 댜에는 이 冊子를 엮느라고 많은 努力과 힘에 겨운 苦楚가 이루 말할수 없이 뒤따랐음도 事實입니다. 資料를 찾다 못미친 곳도 있고 編輯上的 雜點에 쫓기다가 配慮가 알맞잖은 境遇도 있고 미처 生覺이 미치지 못하여 누락된 部面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點 諸賢의 宥지람이 있을줄 믿으며 백번 容恕를 빕니다.

아무런 간에 한번 着手한 일이고 또한 해야할 일이기애 잘되건 못되건 늦건 빠르건 끝을 낸 데 대하여서는 于先 마음이 후련할 뿐입니다. 그동안 冷冷한 無關心 그리고 비웃음과 한편 積極的인 協助 및 激勵가 엇갈린 가운데에서 貧困한 資料에 매달려 金龍鎬議員의 激勵과 鄭箕勲市長의 督勵의 結晶이랄 수 있는 이 冊子가 여러가지 未洽한 點은 이 다음 編纂者에게 期待하고 내 郷土의 앞날을 生覺하시는 여러분에게 多少나마 參考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 郷土誌 編纂을 監修해 주신 鷺山先生님과 黃壽永博士님께 感謝올리며 舊邑誌를 해석해 주신 元濟善先生님과 原稿 檢討를 해주신 元寅植先生님, 그리고 執筆을 도와주신 李重淵先生님과 朴一松氏와 張忠植先生에게 感謝드리며 原稿整理에 힘쓴 安仁善女史, 朱慶洙, 黃善澤君 그리고 校正을 맡아 주신 鄭俊模先生과 瑀瑒鉉嬢과 其外 여러분들과 印刷所職員들에게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그리고 直接 間接으로 念慮와 支援을 해주신 李容萬, 元鳳勲, 鄭完澈先生님들과 李致中, 高光玉, 元世亨, 元有常, 白完基, 秋教成 등 諸氏들과 文化院 理事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編輯上에 몇가지 밝혀 둘것은 우리고장의 方言蒐集, 山川, 地名, 部落, 고을의 由來 등을 파헤쳐 보고 싶었던 애초의 꿈은 이루어 지지 못하고 말았읍니다. 굳이 辯明을 한다면 時間과 能力과 其他의 制約때문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러한 問題도 解決하여 보겠다는 決意를 말씀드리며 諒解를 求합니다. 그동안 얻은 것으로는 호터져 있는 郷土의 이모저모를 한데 묶어서 郷土誌라는 冊字가 만들어 졌다는 것과 더욱 重要的 所得은 鄉人들의 한결같은 郷土愛로서 이 冊字의 發刊을 苦待하고 激勵하여 주는 따뜻한 愛郷心에 接하고 이 冊字發刊에 勇氣를 얻은 點이라 하겠읍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意慾과 勇氣만으로 出發은 했읍니다만 막상 執筆하여 갈수록 애초의 意慾이 懺勇이었음을 씁쓸하게 되씹으며 막상 이 冊字를 내놓으려니 부끄러움과 두려움 뿐입니다. 한 冊字를 發刊한다는 것이 이처럼 重要하고 어려움다는 것인가는 미처 몰랐읍니다. 다만 한장의 벽돌이 쌓여 집이 되듯이 또 價値와 眞實의 追求는 辯證法的 論理의 正, 反, 合으로 發展되듯이 이 冊字가 우리의 郷土史를 엮어나가는데 한 命題를 設定하였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당돌하게 自慰해 불가 합니다. 아울러 當初 本郷土誌를 發刊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신 前市長 金永珍氏에게 敬意를 表합니다. 價値의 判斷은 結果로 하겠지만 理解와 參酌은 出發에도 있으려니 생각하면서 郷土의 聖殿에 이 冊字를 供합니다. 끝으로 本誌에 軍事的 記事는 保安上 一切 記入치 않았음을 아울러 밝혀 둡니다.

文化院任員名單

理事會長	金潤洙	辯護士	
理事	姜亨雲	醫學博士	(東山外科院長)
理事	高實女	醫師	(青山病院長)
理事	金鍾洛	事業家	(勝利商事社長)
理事	宋哲淳	事業家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
理事	嚴昌崙	事業家	(第一製紙社長)
理事	嚴漢竣	放送	(原洲文化放送(株)社長)
理事	禹日命	事業家	(湖南注油社長)
理事	李寬永	醫師	(中央產婦人科院長)
理事	李秉兆	實業人	(共和黨江原道第二地區黨事務局長)
理事	丁海東	事業家	(韓興土建常務)
理事	崔容濟(鎮求)		(東仁堂藥業株式會社社長)
理事	韓昇龍	事業家	(寶金堂金銀房代表)
監事	吳雲泳	(韓國日報原州駐在記者)	
監事	鄭大植	(司法書士)	
院長	黃柱益	(文化院長)	



參考書籍中에 本誌編輯에서 必要로 한 欄의 記事를 編載 또는 參照로 하였고 人物이나 其他 後世人에게 傳해야 할 記事는 後日의 중복됨이 없이 하기 위하여 全載하기도 하였으나 著者名은 別途로 밝힘없이 그 冊名만 밝힌다.

보내주신 原稿도 亦是 本誌는 一個人의 著書物이 아니고 故장의 鄉土誌이기 때문에 編輯上 原稿대로 記載치 못하였음도 아울러 밝히 둔다.

1. 參考書籍

新增東國輿地勝覽·舊原州郡邑誌·舊江原道誌·藝城春秋(忠北忠州誌)·江原總覽·李朝實錄
江原年鑑·太白的 人脈·太白的 歷史·太白的 山河

2. 原稿을 써주신 분들

李重淵 (社團法人 상글병글회 會長)
張忠植 (大韓佛教研究院)
元濟善 (漢學者: 原城郡 興業面 沙堤里)

3. 本誌 資料蒐集에 도와주신 분들

李容萬 元演植 李致中 鄭完澈 趙漢珪 金甲洙 元濟善 元鳳勳
李昌壽 李宗圭 秋教成 李夏榮 李止淵 吳亨善 李圭祥

4. 本誌 編輯과 直接 原稿整理 및 執筆에 힘쓴 분들

朴一松 安仁善 秋久鎬 吳敬子 趙瑀鉉 朱慶洙 黃善澤

5. 本誌 表題를 써주신 분

書藝招待作家 張 臺 淳

6. 本誌 圖報 寫眞 촬영

寫眞作家 方 大 助
불교연구원 張 忠 植
文化院 朱 慶 洙

原城
原州 鄉土誌編纂委員會

顧問	金龍鎬 (國會議員)	金龍雲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
	鄭箕勲 (原州市長)	崔桂明 (原城郡守)
	安德欽 (原州市教育長)	朴忠模 (前國會議員)
委員長	元寅植	
副委員長	金潤洙 鄭完澈 元鳳勲	
編輯長	黃柱益	
委員(執筆)	李重淵 柳必相 元濟善 朴一松 李東熙	
	趙弼煥 張忠植 安仁善 金茂林 金永圭	
委 員	康亨雲 丁海東 李秉兆 嚴昌崙 金鍾洛	
	韓昇龍 李寬永 李致中 吳雲永 文昌模	
	金昌洙 嚴漢俊 沈基淵 白完基 元世亨	
	李奎祥 朴啓勲 朴孝相 金成峰 李明世	
	宋哲淳 元鴻默 禹相浩 安光勲 高華泳	
	張壹淳 安承俊 朴昌勲 洪仁成 趙壽英	
	張松模 禹一命 金仁起 辛東益 金榮一	
	李昌壽 李夏榮 金益善 秋教聲 李重求	
	金達洙 黃義大 朴斗緒 金東遠 郭萬溱	
	金鍾奭	

監修 鷺山 李殷相 博士
蕉雨 黃壽永 博士

原州
原城 鄉土誌

1975年 12月 10日 印刷

1976年 1月 10日 發行

發行處 原州文化院

編 著 原州文化院 鄉土誌
編纂委員會

印刷處 星文社